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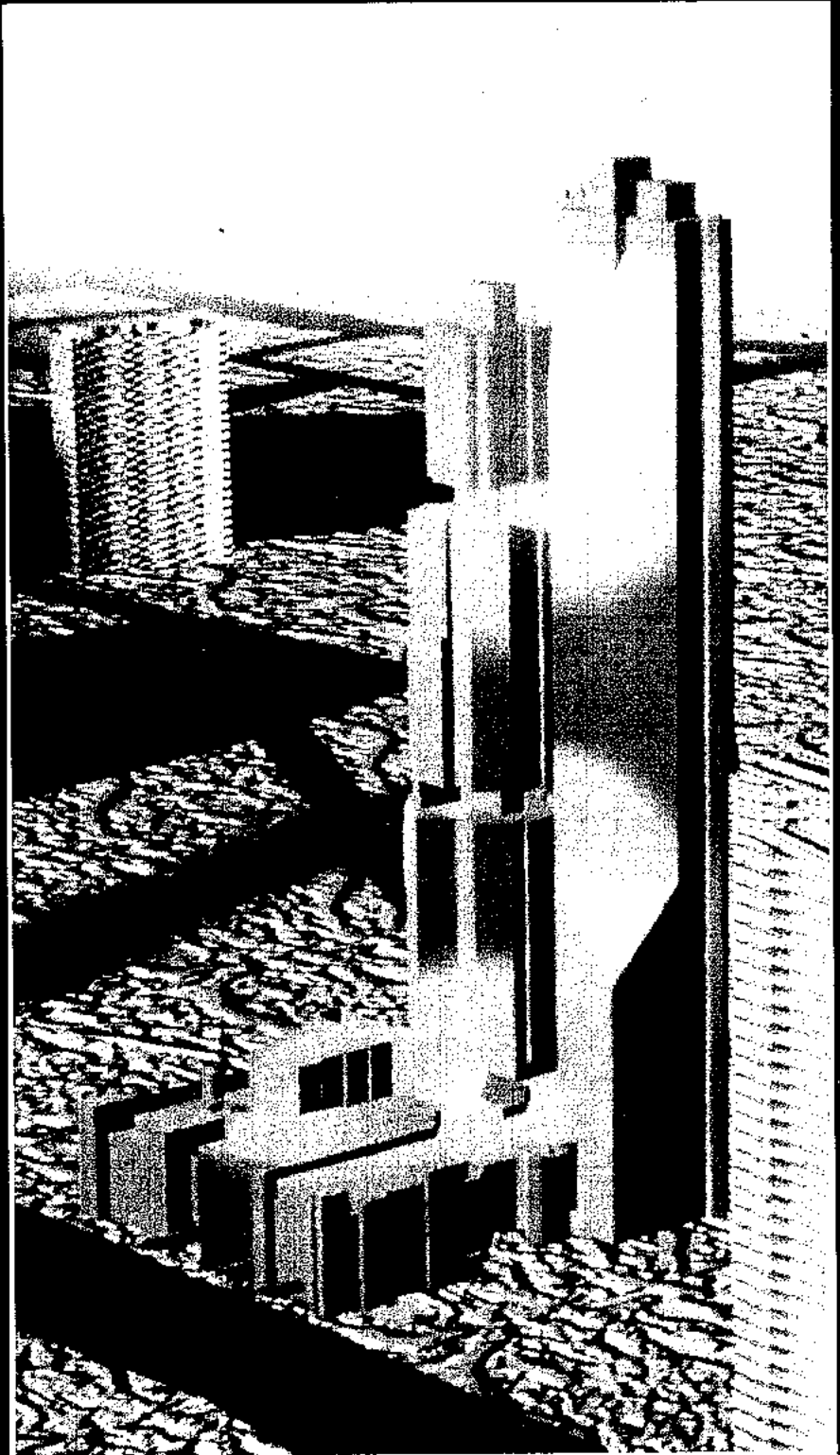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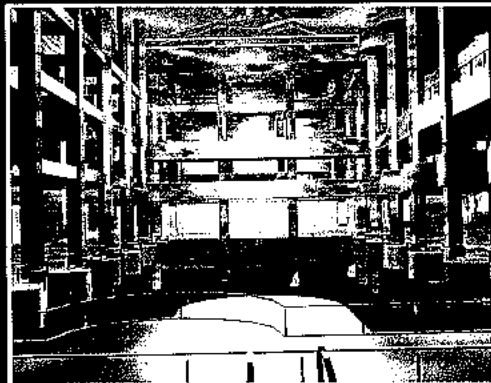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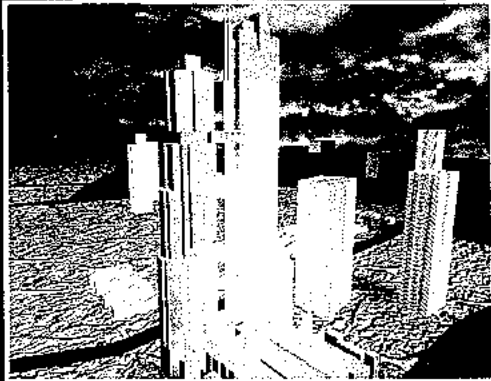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3년 1월호
5권 26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23-60
등록: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서)라-26
1993년 1월 15일 제3공무판물
(4)급인가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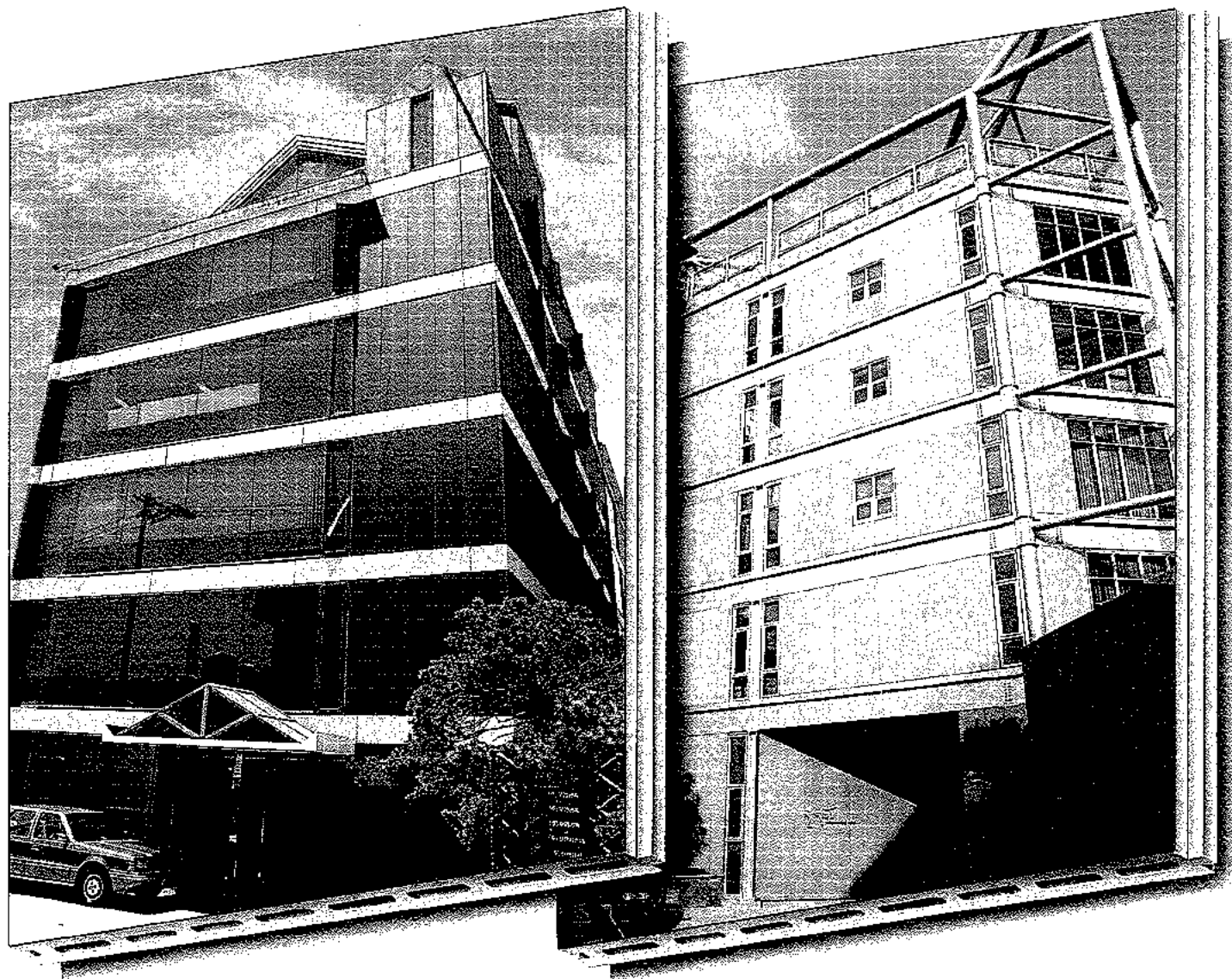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January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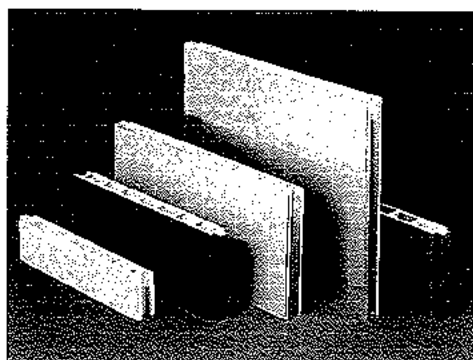


JANUARY

1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 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² 당 무게가 50kg 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전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사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외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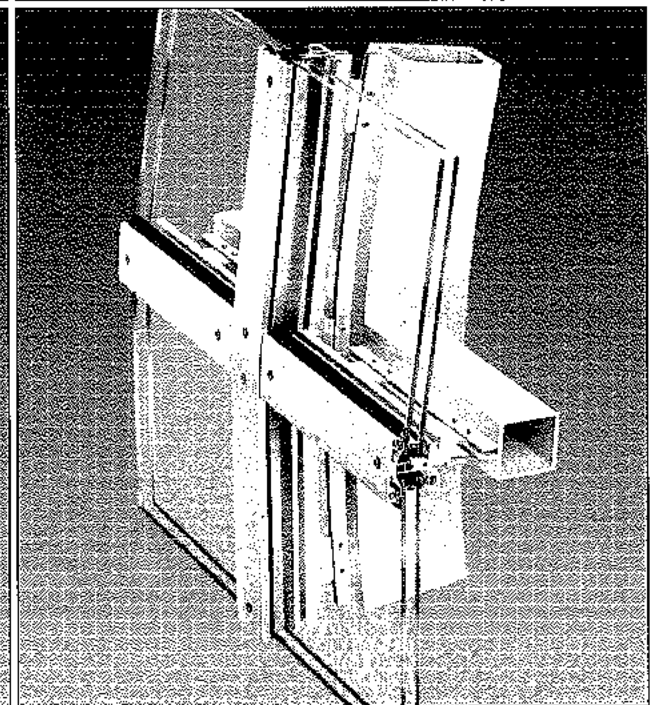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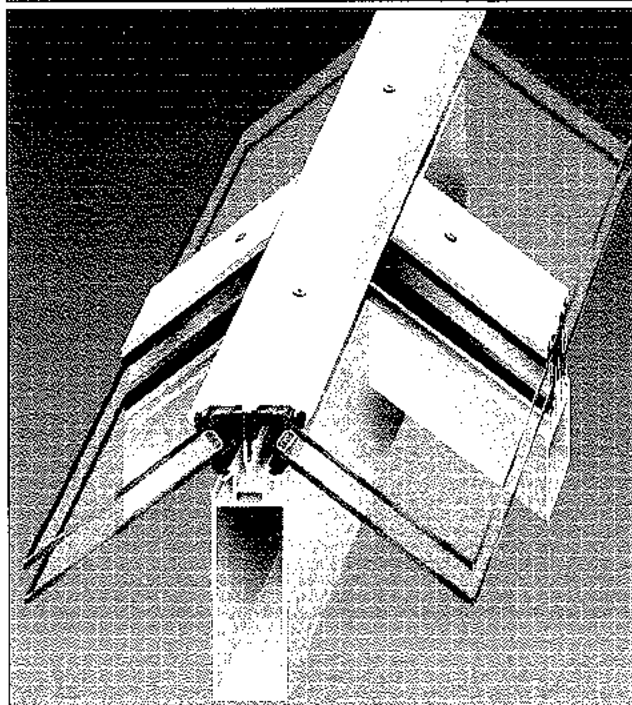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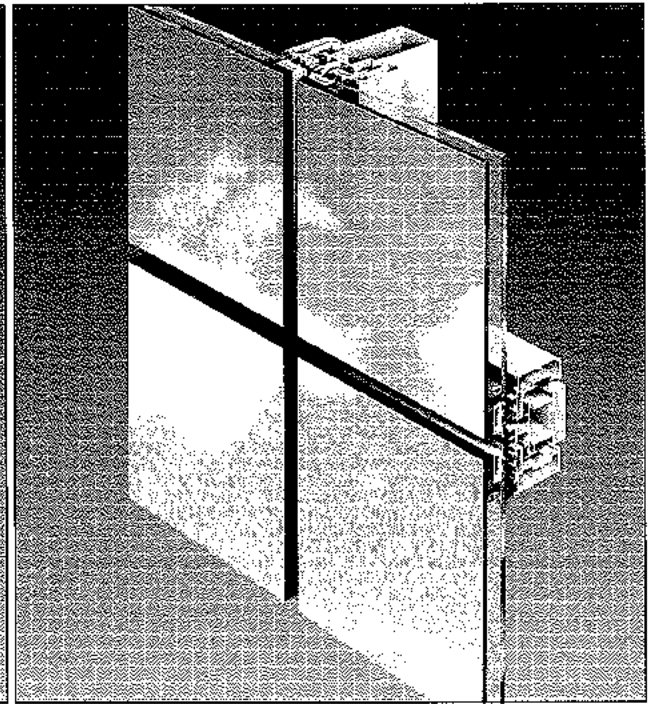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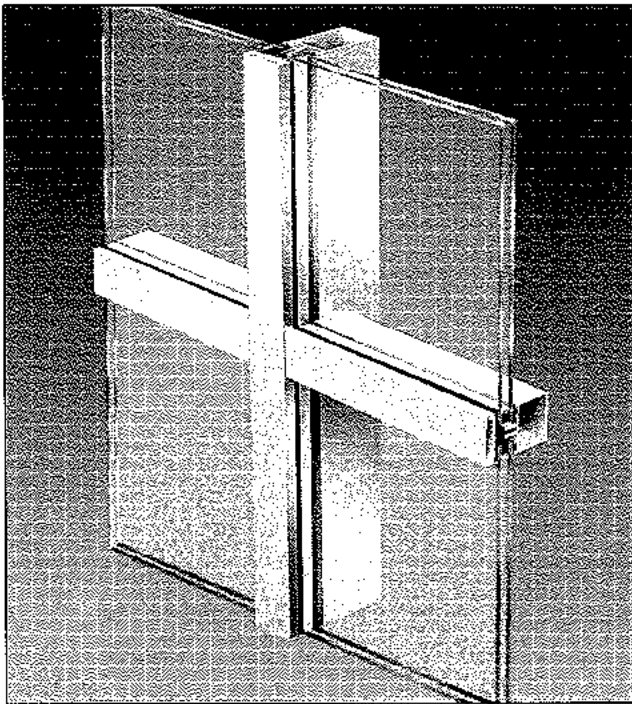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특수영업부

어떤 형태의 커튼월도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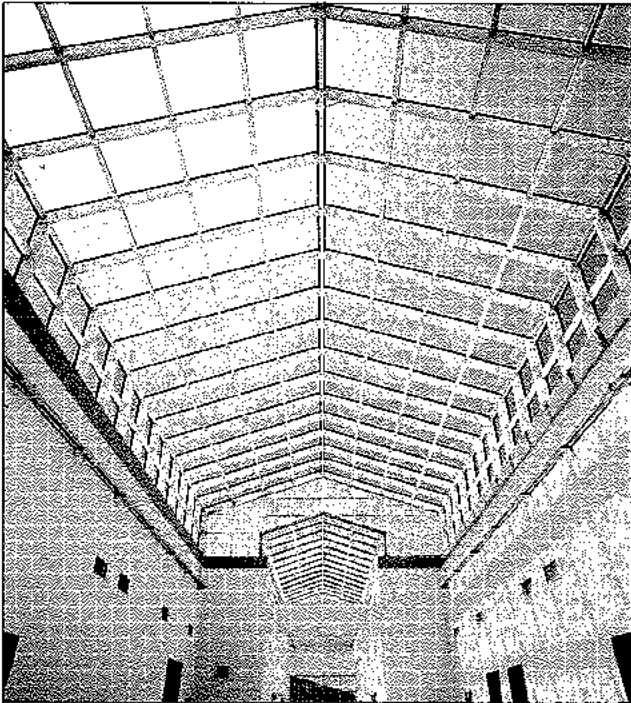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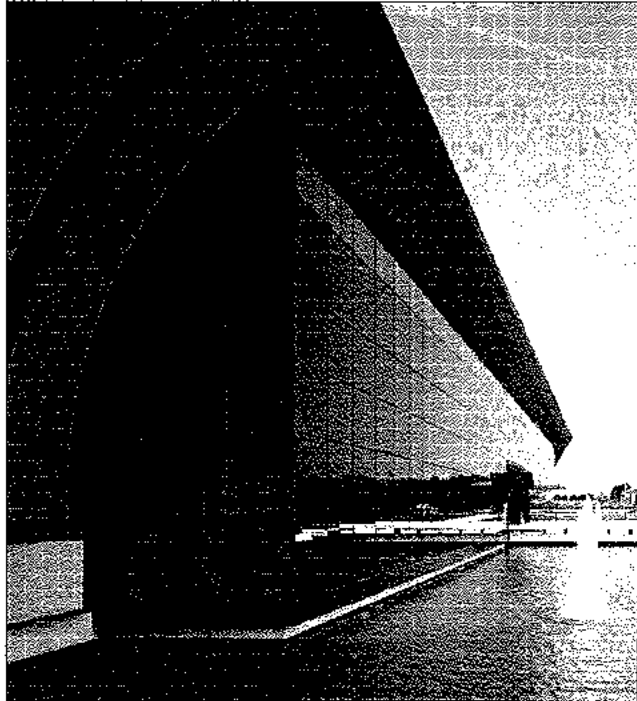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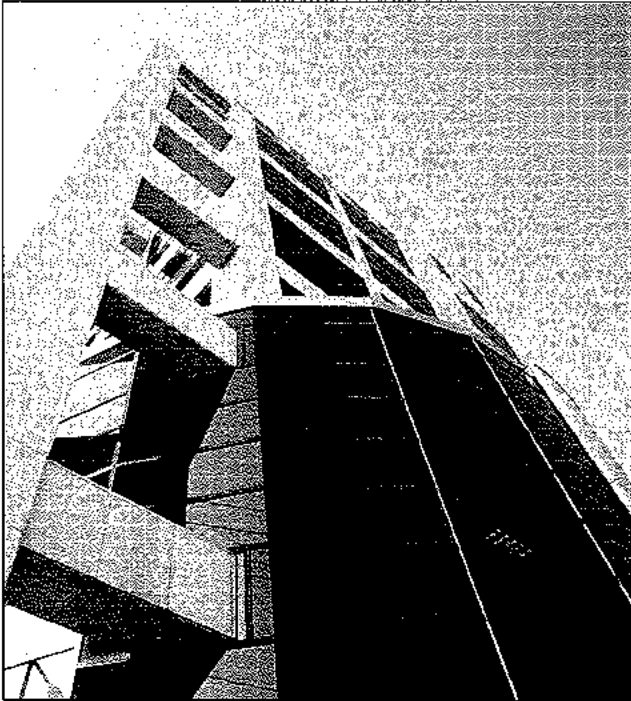
1/2
3/4

이건 파사드시스템은 독일의 슈코(Schüco)사의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최고급 커튼월제품으로서 설계자의 구상에 따라 색상 및 유리의 선택은 물론 원하는 어떤 형태로도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건 파사드시스템은 Polyamid계의 단열바(Bar) 등 신소재와 독특한 구조를 사용하여 기존의 커튼월이 갖고 있던 자연환기 부족과 단열, 누수, 결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시공전에 하중과 풍압을 고려한 완벽한 구조설계와 Mock-Up Test를 거치기 때문에 안정성과 내구성에서도 확실합니다.

1. **FACADE FW50** - 외부로 노출되는 프레임의 폭을 50mm로 극소화시켜 날렵한 외관을 연출하는 수직형 커튼월제품입니다.
2. **FACADE SG50** - 프레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외관을 유리나 천연대리석 등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FACADE SK60** - Roof의 천장에 적합한 경사구조의 커튼월제품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배수시스템이 누수를 완벽하게 방지합니다.
4. **FACADE BV60** - Arch와 Dome구조 등 곡선형구조를 위한 커튼월제품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곡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려한 미관과 뛰어난 기능의 커튼월, 이건 파사드시스템



1 | 2
3 | 4

1. 이건 FACADE FW50으로 시공된 한국금박빌딩 (서울 부암동)
2. FACADE SG50E로 시공된 Industrie Orafa Alessi Domenico S. P. A (이태리)
3. 이건 FACADE SK60으로 시공된 D통신 위성지구국 (충남 아산)
4. FACADE BV60으로 시공된 College Terre Sainte (스위스)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 이건 파사드시스템에 관한 기술적인 상담은 물론 시스템 선정과 설계서비스 그리고 견적서비스를 자세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본사영업부 · 상설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전화 563-2071 팩스 563-5528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태백빌딩 3층
전화 540-2071 팩스 540-2080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61-2
전화 053-553-0916 팩스 053-553-0917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1434-10 서봉빌딩 2층
전화 051-557-2071 팩스 051-557-2077
제주시 노형동 928-8 풍도건축자재박화점 지하 1층
전화 064-41-4301 팩스 064-42-3486

· 논현전시장

· 대구전시장

· 부산전시장

· 제주전시장

이건창호

이건산업주식회사 이견자원개발(주) 이견산업제품(주) 이견산업 독일형지법인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웨리튼위커했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 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몽센터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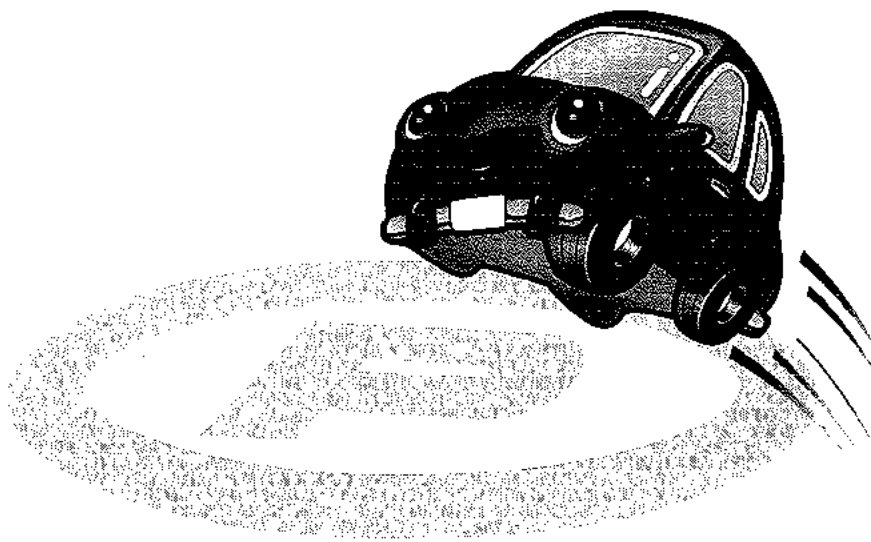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특별시 麻浦区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甲面 山 209-1 松麻里 山 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패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행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기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 장치와 핸드체인인 장치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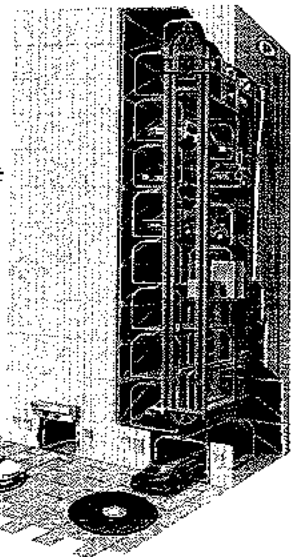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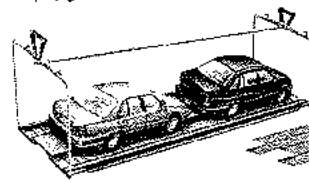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형식, 중식)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국내 파넬업계 최초 내화구조 지정 고시획득!

INSU GLASSWOOL PANEL

‘파넬이 내화구조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인슈그라스울파넬이 그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화구조성을 가진 파넬입니다. 내화구조성을 가진 파넬은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공헌합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화구조성을 가진 파넬로,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공헌합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화구조성을 가진 파넬로,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공헌합니다.

■ 내화구조체, 인슈그라스울파넬의 우수성

하나. 비교할 수 없는 불연성

내부 단열재로 KSF2271, BS476PART4의 관련규격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 인슈그라스울 파넬 — 그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불연성은 이미 내화구조로 지정 고시되어 불에 강한 단열파넬의 기준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완벽한 내화구조성능 인슈그라스울파넬.

둘. 완벽한 방수성과 단열성

누수를 유발하는 상부하중과 그로 인한 내부 단열재의 수축을 뛰어난 인장 및 압축강도로 방지, 완벽한 방수성능을 유지합니다. 특히 시공시 볼트부위를 CAP으로 마무리, 누수발생을 차단하여 누수현상에 의한 단열효과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0.029%의 낮은 열전도율의 인슈그라스울파넬 — 그 가늘고 균일한 조직의 내부 단열재는 효율적 에너지 활용 효과를 거두게 합니다.

셋. 우수한 견고성

인슈그라스울 파넬은 내부 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결을 수직으로 성형, 기존제품보다 압축강도가 열배나 뛰어나며, 특히, 균일한 두께 유지로 박리현상을 완전히 방지합니다.



주식회사 **연합인슈**
부 설 기 술 연 구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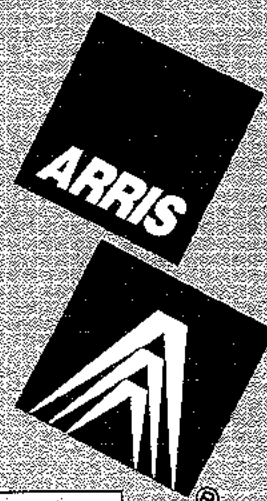


주식회사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745-0687, 10336194-8820 FAX : (0336)32-4243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5 연합인슈빌딩
TEL : (02)525-8891, FAX : 553-1651

무이자

36개월

CAD Turn-Key System 및 주변기기 특별금융지원



1000만원 상당의 CAD TURN KEY SYSTEM 구입시
최초 200만원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분할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36개월 까지 무이자 할부판매
2~3천만원 이상 CAD SYSTEM 을 구입하고 싶어도 자금부담으로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최소식
2. 1000만원대 이하의
ARRIS Turn-Key System
AutoCAD Turn-Key System
3. 우일 Detail Libray지원 (AutoCAD, ARRIS용)

●대상품목

- ARRIS Turn-Key System
- AutoCAD Turn-Key System
- 기타 주변기기 일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담요청서를
COPY한후 FAX로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서

빌리언시스템 CAD담당자앞

회사명 _____
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활용업무
(구체적으로)

공급원 서통 시사업부

판매원 (주)빌리언시스템 Tel: 514-0386 Fax: 545-0296

'93 한국건축전 작품공모

■ 개최시기 및 장소

- 1993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93한국건축대전과 병행하여 개최
- 1993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도시 순회전시 예정

■ 출품자격

- **건축사부문** : 1993년 1월 현재 개업 건축사
- **신인부문**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 **학생부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 (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내인자도 응모할 수 있음)

■ 출품내용

- **건축사부문** : '90년 ~ '93년 2월까지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작품
- **신인 · 학생부문**

◎ 주제 /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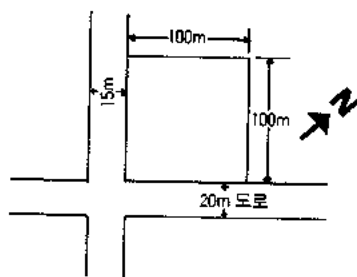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건축의 기능과 형태와 상징을 창의력있게 해석하고 표현하여 감동적으로 건축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함

● 신인부문

- 제목 : 이산가족 상봉센터
- 조건 : 대지규모 - 20,000m²
연 면 적 - 10,000m²
위 치 - DMZ(비무장지대)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 개요 : 통일을 대비한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장소로서 숙식시설, 관람집회시설 및 오락시설 등이 복합된 내용으로 작가가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현행건축법에 준하여 계획할 것.

● 학생부문

- 제목 : 국제박람회 "한국관"
- 조건 : 대지규모 - 10,000m²
연 면 적 - 3,500m²
위 치 - 박람회장내



- 개요 : 세계속의 만남을 상징적이며 기능적으로 표현하되 세부프로그램은 작가가 설정하여 전개시킬 것

■ 작품접수

- **건축사부문** : 1993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패넬제출
(작품제출시 작품집제작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슬라이드 또는 컬러 사진 5 ~ 6매, 잉킹도면, 설계개요첨부)
- **신인 · 학생부문** :
· 일자 : 1993. 3. 5(금) ~ 3. 6(토) 09:00 ~ 18:00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강당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건축사부문** : 90cm × 90cm의 규격 패넬 1 ~ 4매
(모형출품도 가능함)
- **신인 · 학생부문** : 120cm × 120cm 규격패넬 1매 및 100cm × 100cm 이내의 모형 1점 (작품접수시 200자 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작품 설명서 첨부)

■ 출품규정

- 동일작품의 작가 명의로는 2인을 초과 할 수 없음 (신인 · 학생부문)
- 패넬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금할 것
- 규격을 위반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신인 · 학생부문)

■ 시상내용

- **건축사부문** :
* '93한국건축대상(7) : 상장 및 트로피
- **신인부문**
* 최우수상(1) : 상금 500만원 및 상장 (해외연수비 200만원 포함)
* 우수상(1)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장려상(3)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학생부문**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우수상(2) :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장려상(10)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각시 · 도시 건축사회장상(다수) : 상금 30만원 및 상장
* 입선(다수) : 상장

* 학생작품 최우수상 수상자는 ARCASIA 학생잼버리 파견특전 부여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 - 55
☎ 581 - 5711 ~ 4, 587 - 8504



'93 한국건축대제전

1993.3.18 (목) ~ 22 (월)

한국 종합 전시장

주요행사·일정

- ☐ '93 전국건축사대회 : 3.18 (목) ~ 19 (금)
- 한국 종합전시장 3층 대서양관
- ☐ '93 한국건축전 : 3.18 (목) ~ 22 (월)
- 한국종합전시장 1층 태평양관
- ☐ '93 한국·국제건축자재전 : 3.18 (목) ~ 22 (월)
- 한국종합전시장 1층
- ☐ '93 건축사연수 : 3.18 (목) ~ 19 (금)
- 한국종합전시장 3층 대서양관·국제회의장



건설부·상공부·대한주택공사·대한건설협회·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대리점협회·서울경제신문

大韓建築士協會

차례/1993년 1월호 통권 제285호

신년사	우리 建築의 活路 /李永熙	16
칼럼	건축사의 새로운 비전 /金熙春	18
제언	建築設計監理用役社의 제도개선에 따른 제언 /韓鍾彦	20
회원작품	안성여자직업훈련원 /金希洙	22
	대진 센트리아 오피스텔 /安吉元	26
	성 바오로 안나의 집 /徐輔光	30
	방배동 삼호 침례교회 /禹時庸	34
	남양농협 단위조합 /鄭求榮	38
	경주 석구빌딩 /孫明文	42
	기흥주택 /金得洙	44
개회작품	홍천 온천 개발 계획 /(주)동영건축+정덕훈 /(주)청전건축	46
스케치	경주실내체육관 /閔泳浩	50
일하며 생각하며	新年斷想 /金自浩	54
전통건축연구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Ⅳ) /張順鏞	56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크리스티앙 드 뽀잠박 /이용재譯	62
현상설치	中國 台海花園 국제현상설계경기	68
	한국 청소년수련마을	74
	구리시 실내체육관	80
	연극 전용극장 '원각사'	84
법령	건축법 질의·회신 /건설부 건축계획과	90
연구	패러다임 (Paradigm), 건축적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5) /吉成鎬	94
기고	ARCASIA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에 관하여	104
설문조사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112
공개	1992년 1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18
현의수식		120

發行人:李永熙

編輯企劃:編纂委員會

委員長:朴昌浩

委員:金文圭, 金仁喆, 吳元根, 金相景,
金倬攷, 姜健熙

編輯·取材 出版事業部 / 梁元錫, 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行處:大韓建築士協會

住所: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137-170

電話: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02)586-8823

登錄番號:서울 라-26(月刊)

登錄:1967年 3月 23日

U. D. C: 69 / 72(054-2) : 0612(519)

印刷人:李鳳秀 / 正文社

Publisher : Lee, Young-He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Park, Chang-Ho

Member : Kim, Moon-Kyu|Kim, In-Cheol
Oh, Won-Keun|Kim, Sang-Kyeong|Kim, Kyeong-Ja
Kang, Keon-Hee

Assistant Editor :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172(054-2) : 0612(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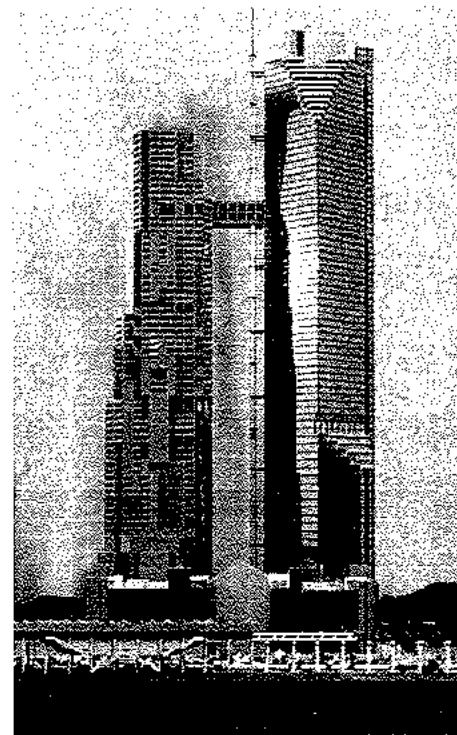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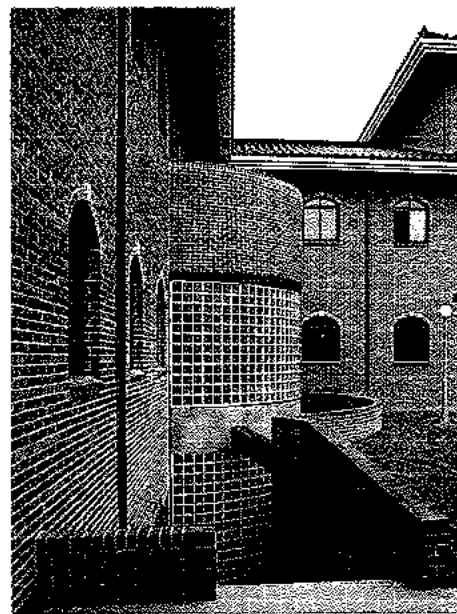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사진 : 中國 台海花園 현상설계
(당선작/류춘수)

CONTENTS VOL. 285. JANUARY 1993

FEATURE	Greeting New Year Address / Lee, Young-Hee	16
COLUMN	New Vision of Architects / Kim, Hee - Chun	18
PROPOSAL	Improvement of Design and Supervision Corps. System / Han, Chong - Un	20
WORKS	Ansung Woma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 Kim, Hie - Soo	22
	Daejeon Centrea Officetel / Ahn, Gil - Won	26
	St. Paul's Ann House / Seo, Bo - Kwang	30
	Samho Baptist Church / Woo, Si - Yong	34
	Namyang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 Jeong, Goo - Young	38
	Kyungju Sukgu Building / Son, Myung - Moon	42
	Keeheung Residence / Kim, Deuk - Soo	44
PROCESS WORKS	Hongchun Spring Resort Complex Plan / Jung, Duck - Hoon	46
SKETCH	Kyungju Indoor Gymnasium / Min, Young - Ho	50
ESSAY	Fragmentaty Thoughts of the New Year / Kim, Ja - Ho	54
REPORT	A Methodological of the Korea Traditional Residence Planning / Jang, Soon - Yong	56
OVERSEAS		
ARCHITECTURE	Go Toward the 21C Architecture - Charistan de Portzampaorc	62
COMPETITION	Taihai Garden Project	68
	Korea Youth Training Village	74
	Kuri City Gymnasium	80
	Theater 'Won Kak Sa'	84
LAWS & ORDINANCE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90
REPORT	Tupe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 / Kil, Soung - Ho	94
FEATURE	ARCASIA Report / Kim, Chi - Tok	104
SURVEY REPORT		112
STATISTICS		118
KIRA NEWS		120



전국시도건축사회의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건축사초구서초동 1603-55, 581-5715~8. 서대문분회 / 서대문구연희동 169-25, 333-6411. 관악분회 / 관악구신림동 1422-17, 882-6744. 도봉분회 / 도봉구수유동 191-13, 903-3425. 영등포분회 /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강동분회 / 강동구성내동 317-4, 484-6840. 강서분회 / 강서구화곡동 1105-05, 604-7168. 성동분회 / 성동구구미동 252-16, 446-5244. 동대문분회 / 동대문구신선동 101-7, 923-6313. 송파분회 / 송파구수정동 46-18, 735-0905. 마포분회 / 마포구상암동 275-1, 336-5057. 송파분회 / 송파구송파50-12, 423-9158. 중구분회 / 중구로2가49-11, 279-1415. 용산분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서초분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은평분회 / 은평구북면동 79-32, 352-6720. 동작분회 / 동작구사당동 206-6, 815-3026. 강남분회 / 강남구논현동 242-30, 511-8515. 노원분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양천분회 / 양천구신정동 1027-9, 646-7172. 중랑분회 / 중랑구연동 166-46, 923-6123. 성북분회 / 성북구상선5가410, 923-4401. 구로분회 / 구로구구로동 86-4, 853-4084.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부산시 진구 범천동 847-18, 28(051)634-4973~9.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가11-8, (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 694-10, (062)521-0025~6(FAX)528-0026.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 487-1, (042)256-9350~4.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1)47-6129~30. 자하분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1)43-6662, 7072. 안양분회 / 안양시안양동 523-5, (0343)49-2698. 부천분회 / 부천시중구원미동 88-1, (032)664-1554. 성남분회 / 성남시수정구택성동 3407, (0342)755-5445. 화성분회 / 화성시외정동 182, (0351)2-1983. 용인분회 / 용인시서정동 343-22, (0333)4-6153. 고양분회 / 고양시관동 38분리16로, (0344)63-8902. 구리분회 / 구리시수택동 409-2, (0346)63-2337. 이천분회 / 이천시외정동 192-1, (0336)635-6545. 광명분회 / 광명시청산동 464-7, 682-2875. 안산분회 / 안산시고잔동 536-1, (0345)80-9130. 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시죽전동 39-5, (0361)54-2442. 원주분회 / 원주시중앙동 60-54, (0371)42-4287. 강릉분회 / 강릉시성내동 6-14, (0391)2-2262. 속초분회 / 속초시동명동 466-63, (0392)33-5081. 삼척분회 / 삼척시남양동 55-43, (0397)2-3106. 영월분회 / 영월군영월읍영월로1가960-12, (0372)43-2695. 충청북도건축사회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37187-3, (0431)56-2752, 53-7342. 충주분회 / 충주시영선동 673-1, (0441)847-3082. 제천분회 / 제천시외정동 8-8, (0443)43-6253. 옥천분회 / 옥천군옥천읍삼암리 222-206, (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 452-2, (042)256-4088. 천안분회 / 천안시문화동 160-1, (0417)551-4551. 홍성분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 (0451)32-2755. 부여분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 703-1, (0463)2-2217. 대천분회 / 대천시대천동 197-10, (0452)34-3367. 전라북도건축사회 / 전라북도전주시노송동 635-5(대북빌딩 508), (0652)87-6007~8. 이리분회 / 이리시남중동 1가77-22, (0653)52-3304. 군산분회 / 군산시신창동 35-4, (0654)445-4060. 남원분회 / 남원시하정동 106-2, (0671)31-1000.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동 783-23(추진회관) (062)364-7567, 33-9944. 목포분회 / 목포시대안동 1, (0631)43-3348. 순천분회 / 순천시장원동 51-11(0661)3-2157. 여수분회 / 여수시관동 441번지, (0662)64-7023.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중구동명동 171285번지, (053)425-4904. 포항분회 / 포항시북동 43-8, (0662)44-6029, 46-1664. 경주분회 / 경주시동명동 771-4, (0561)3-3638. 구미분회 / 구미시원평동 964-264, (0646)52-6351. 안동분회 / 안동시서부동 157-4, (0571)54-5703. 김천분회 / 김천시평화동 280-1, (0547)2-2541. 영주분회 / 영주시후천2동 642-52, (0572)33-7504. 김천분회 / 김천시중앙동 280-3, (0581)2-2706, 52-2286. 상주분회 / 상주시남성동 36-23, (0582)2-4306, 32-3232.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713-47, (0551)46-4530~1. 울산분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0522)74-8836. 전주분회 / 전주시본성동 7-20, (0591)41-6403. 춘천분회 / 춘천시서호동 163-18, (0557)44-3232. 김해분회 / 김해시부원동 611-1, (0525)35-5692. 밀양분회 / 밀양시내일동 392-1, (0527)355-4848. 서창분회 / 서창군서창읍중앙리 274-3, (0598)43-6080. 양산분회 / 양산군양산읍남부동 467-19, (0523)84-3050. 거제분회 / 거제군산현읍고현리 139-2, (0558)635-3432. 삼천포분회 / 삼천포시금동 91-6, (0593)33-9779.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서귀포분회 / 서귀포시서귀포동 299-6, (064)62-2233.

우리建築의 活路

희망찬 癸酉年의 새아침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癸酉年, 닭의 해가 새벽닭의 울음처럼 우리의 運身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조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 아침 새해를 맞이하는
감상은 여느 해와는 다른 새로운 각오로 엄숙해지기까지
합니다.

회원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오늘의 세계는 이른바, 經濟至上主義를
전제로 한 새로운 질서재편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유지되어온 集團 安保體制도 지역
경제체제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21세기를 지배할 것이
분명해지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대상황 속에 우리처럼 대회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하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사의 構造的 轉換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길
밖에 다른 현실적 대안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건축현실은 어떻습니까?

日淺한 현대건축의 역사 속에서 충분한 배양액도 갖추지
못한 채, 경제성장의 목표아래 단순대응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우리 건축인들은 제한되어진
창작과 영세성의 굴레 속에서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해 昨속에 와서는 누적된 부작용과 반작용이
접치면서 도시는 역기능적 요소가 증가하고,
건축은 있되, 문화는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역사는 이같이 왜곡된 건축문화를 어떻게 극복하며, 世紀의 構造的 轉換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建築世代로의 이행이 시도되어야 할 시점에서, 우리 건축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방법의 제시를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 마련이 범국가적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건에서 國際化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입니다.

국제화란 곧 우리 사회시스템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국제적 수준에 맞게 사고와 제도와와 관행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불합리와 비능률과 낡은 慣行을 떨쳐 버리고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제시장에서 생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우리의 건축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國內中心의 微視的 입장보다는 巨視的이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관련법의 개정 및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만의 확고한 오리지널리티를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국제경쟁의 기본은 시장경쟁력의 우위에서 비롯됩니다. 商品交易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만의 比較優位 즉,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 국제사회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건축만이 가질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활발한 논의와 대비가 건축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선진화된 건축풍토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傾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건축이 성숙한 세기적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인의 삶을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미래 대비를 꾀하며, 우리의 實質的 懸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時代的 使命을 다하고자 올 한 해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일어 섭시다!

눈부신 새아침의 햇살을 가슴으로 받으며 마음을 열고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어떠한 어려움도 克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이겨낼 底力과 精力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침 이러한 결의를 가슴에 안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建勝을 기원합니다.

1993. 1. 1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李 永 熙

建築士の 새로운 비전

New Vision of Architects

金熙春 /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서울대 명예교수

by Kim, Hee-Chun

■ 새한국 건설의 과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내외로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4만세기동안에 현대산업사회의 前期 過程을 거치지 않고 後期 産業社會로 경증 뛰어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 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파생되는 갈등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정치·경제·교육·과학기술·문화 그 어느 하나도 이 급격한 산업화 현상과 상관없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소에는 우선적으로 정치형태의 민주화, 문화의식의 현대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고도성장은 忍耐性向의 방향에서 満足性向의 방향으로 바뀌어 절약에 대한 이념은 사라지고 消費志向으로 가고 있다.

다음은 국제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큰 과제의 하나라고 보겠다.

국경이 없는 세계로 가고 있는 이때 전통적 국가체계의 틀은 없어지고만 것이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산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주장은 오히려 「독불장군」식 존재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의 창조, 과학기술의 발달, 환경의 보호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이 과제들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각자가 마음 속으로 힘을 내서 뛰어야 한다고 믿을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급변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새韓國 건설이라고 하는 명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 내용에는 경제문제를 위시하여 정치문제, 교육문제, 문화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하나하나의 완전 해결은 불가능하며 국민전체의 의식개혁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에 환경조성을 창조하는 건축사의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게 된다.

건축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환경, 교통, 주거, 특히 衣食住생활의 개선 등 여러가지가 있다.

21세기를 맞아 통일된 국가, 개방된 세계, 자유와 번영과 행복이 있는 우리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오늘의 새로운 변화를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낡은 체제와 관습과 의식구조를 새롭게 해야 한다.

■ 建築概念의 變貌

20세기의 대표적인 특성은 技術文明에 있다. 利器로서의 技術文明은 인간의 생활양상에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었고 또한 크게 변모시켰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의 결과 일반적으로 팽창된 물리적인 양은 예기치 못했던 생활의 지해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어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양의 팽창은 환경공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악화는 (1)인구의 증가 (2)도시화 (3)기술혁신 등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환경문제가 갖는 근본적인 위기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태적 존재가능성을 파괴하고 만다는데에 있는 것이다.

自然과 人間の 조화가 깨질 때 生態系(Eco-system)의 파괴는 地球自體의 종말을 의미한다.

인구증가와 환경오염, 공업생산이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지구상에 큰 이변을 초래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결부된 이러한 시대상황은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 본질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그 분야의 종사자로서의 건축사의 개념 및 자세 역시 20세기 전반과는 다른 각도로 파악되는 것이다.

20세기적인 기술의 바탕위에 「用의 美」를 구현하고자 하여 193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적으로 팽창했던 소위 機能主義, 國際主義 격 식이 그후 오늘날까지 세계를 풍미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수법으로서 이미 현대적인 제반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現代建築은 흔히 「混沌」의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摸索의 多樣性」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물론, 현대건축이 갖는 「混沌」의 근원은 극히 복합적인 것이다. 하지만 대략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모색되고 있는 현대건축의 추세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만큼 의식주생활에 있어서 낭비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낭비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젠 쓰레기를 버릴 장소도 없다.

食衣生活을 담는 그릇 즉 建築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건축공간은 각종 수장물과 가구로 점유되고 만다. 일반주택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안락한 건축공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쾌적한 환경유지에 필요한 자연의 외부공간도 쓰레기로 쌓여만 가고 있다.

이 문제해결은 건축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모든 국민이 낭만적이고 인정이 풍기는 아름다운 과거의 封建的 의식구조에서 깨어나 개방된 국제사회 속에서 현대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세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건축사에 의해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첫째로는 建築 및 都市空間이 갖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관점이다. 정보사회로서의 현대사회는 그 질과 양적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건축 및 도시공간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建築空間을 圖形的인 것으로 보지않고 융통성(Flexibility)이 풍부한 가변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인 것이다.

건축공간은 인간생활의 부단한 성장과 변혁의 요구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둘째로는 標準化(Standardization)에 의한 건축공간의 部品化의 추구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 역시 현대가 갖는 제반의 환경여건에 기인한다. 즉 인간의 폭등하는 居住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시간에 대량의 거주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공업생산물들이 부품공정을 거쳐 완성되듯이 부품화되고 생산된 單位建築空間이 조합됨으로써 건축물이 완성되게 된다.

우리는 2백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현장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라는 쓰라린 경험을 얻고 있다.

建築物는 建設된다가보다 생산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셋째로는 새로운 技術의 모색이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다양한 인공재료의 건축적 이용가능성과 지역특성을 살릴수 있는 그 지역의 원재료(Raw Material) 발굴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철의 건축적인 이용이 현대적인 建築美學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재료의 개발은 새로운 건축수법 및 미학의 구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네째로는 도시 속에서의 인간의 生存生態를 전혀 새로운 거시적인 구조체계(Mega Structural System)의 마련으로 재편성하자는 것인데 환상적이지만 환경의 위기에 처한 現代都市生態의 미래에 대한 시사적인 추세라고 본다.

Mega Dome 구조체로서의 도시, 일종의 橋梁都市, 海上都市, 立體都市 구조 등 다양한 案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로는 체계화된 조직건축 System으로 소위 Total Design 개념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건축적인 제작업을 발상의 단계에서부터 수립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작업의 진행을 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합리적 분석에 그 기본을 둔다. 두뇌의 분석능력을 초월하는 복합성이 점차로 현대건축에 요구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組織과 分析技法 Computer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식주생활의 개선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만큼 의식주생활에 있어서 낭비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낭비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젠 쓰레기를 버릴 장소도 없다.

食衣生活을 담는 그릇 즉 建築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건축공간은 각종 수장물과 가구로 점유되고 만다. 일반주택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안락한 건축공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쾌적한 환경유지에 필요한 자연의 외부공간도 쓰레기로 쌓여만 가고 있다.

이 문제해결은 건축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모든 국민이 낭만적이고 인정이 풍기는 아름다운 과거의 封建的 의식구조에서 깨어나 개방된 국제사회 속에서 현대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세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건축사에 의해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제 제반 시대상황의 변모에 의해서 요구되는 현대건축의 추세 속에서 건축사의 본연 및 자세가 과거와는 다른 개념의 것으로 그 변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건축사에게 있어서 가치관의 확장을 요구하게 된다.

확장의 의미는 가치관의 自我志向性에서 他我志向性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그렇게 하여 건축사는 일개 技術人 藝術人이 아닌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로 격상될 것이다.

역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21세기를 향해 오직 전진할 뿐이다.

건축설계감리용역사 제도개선에 따른 제안

Improvement of Design and Supervision Corps. System

韓鍾彦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by Han, Chong-Un

■ 건축사 사무소의 기술축적과 대형화

현재 우리 건축사 사무소는 그 형태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단독과 종합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단독사무소에 대하여는 구태여 논하지 않겠다. 아뜨리에 식으로 혼자서도 자유롭게 작품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사무소의 경우는 좀 다르다. 당초 종합사무소의 시행동기나 의미가 건축사 3인 이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자는 뜻이었는데, 실은 원래의 의미와 법의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단독사무소의 집합에 그치고 말았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일부 국내 20~30개사는 법인으로 하여 한 조직으로서 병설공하 종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일부는 법인이면서도 형태만 법인(유사법인)이지, 실제경영은 내적으로 달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4~5인의 공동대표가 그 실례인 것이다. 문제는 사무소형태가 어떠한에 큰 비중이 있는게 아니다.

먼저 건물의 대형화와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축적이 문제이다. 단독과 유사한 종합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다보니 자연히 영세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술인력의 확보와 고급인력, 나아가서 건축사 자격을 가진 고급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일할 자리도 없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건축사 자격을 가진 젊고 유능한 건축사들은 대부분이 건축사 자격증이 사무소 개업증인 것으로 착각하고 너도나도 개업을 하게 되므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더더군다나 건축사는 고용이 될 수 없다는 법의 조항과(사법 23조, 25조의)종합건축사의 등록요건에 등록 건축사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더욱힘을 분산시키며 영세성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도 한 조직내에서 법인으로 완벽한 팀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건축사법 때문에 등록 건축사이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도서신고나 외부 활동에서는 두 얼굴의 역할을 하게된 것이다.

내부 조직에서는 이사이며 외부에서는 소장이다. 이런 모순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모순을 하루빨리 없애려면 법안에서는 등록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3~5인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종합으로 인정하는 법이 되어야 하며, 법인(회사)이 대표권을 행사하며 회원자격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만이 유능한 건축사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고급 기술자와 유능한 건축사가 한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기술축적은 자연히 이룩되는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한 조직내에서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계장, 과장, 혹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50대 유능한 건축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부러울 뿐이며 이런 집단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멀리서 인용할 필요도 없이 이번 개정된 기술사법과 엔지니어링 진흥법에서 똑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건축사법을 보면 건축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때, 그 잔여 업무를 누구도 승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뿐이다. 이런 피해를 막는 길은 법인사일 것이다. 최근에 와서 건축물의 대형화로 인하여 용역기간도 4~5년이상, 공사기간도 4~5년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어떠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소규모 건물에서도 수차발생하여 어물적거려 처리한 것을 보아왔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형 프로젝트는 법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쉽게 이해될 줄로 생각된다. 다시말해 건축사 단위가 아닌 회원사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 건축설계 용역사의 공제조합 설립의 시급성

건축설계, 감리용역 업무 자체가 전문기술과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은 누구나의 상식이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의 뒤에는 고의이든 실수로 인한 하자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전문단체에서는 단체적으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거나 유지중에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기술진흥 육성법(1992년 11월 25일 통과)에서도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건축사들은 이점에 대해서 도대체 무관심이다. 의당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 회원사가 파멸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 점이 바로 시급한 사항인데도 우리 협회나 정부에서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만 풍성할뿐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 현재 계약보증, 이행증 보증, 현금지급보증, 하자보증 등 여러가지 건축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제조합설립이 하루가 시급한 형편임에도 우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복지회비, 연금회비만 회원에게 막중한



현재도 한 조직내에서 법인으로 완벽한 팀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건축
사법 때문에 등록 건축사이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도서신고나 외부 활동에서는
두 얼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내부조직에서는 이사이며 외부에서는 소장이다. 이런 모순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모순을 하루빨리 없애려면 법인에서는 등록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3~5인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종합으로 인정하는 법이 되어야 하며, 법인(회사)이
대표권을 행사하며 회원자격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만이 유능한
건축사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
야만이 고급 기술자와 유능한 건축사가 조직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기술
축적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담을 주고있는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건설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500호 제13조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설립)을 보면,
제13조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설립등

- ①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10생략
- ③ 조합은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금융기관 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자기보호 차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을 위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엉뚱한 생각만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 협회 조직의 재편 (이원화)의 필요성

우리 건축사협회는 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 개인단위의
협회이다. 그러나, 본필자는 이 점이 잘못된 조직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로 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모든 건축사는 전원
건축사협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무소 개설자는 사무소 개설형태에 따라 단독은
단독사무소협회, 법인은 법인사협회, 감리 용역등록사는
감리협회 등 전문화 다양화되어야 하며 보체는 건축사
협회 (전자적 건축사 수용)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의 예도 그러려니와 이번 법의 통과를 본 기술사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법률 제4500호, 4501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조직의 특수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영역을
유지하며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가며 국제경쟁력도 키워 갈 수

있으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계층별 조직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만이 우리 건축계가 보다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언

결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번 개정된 기술용역
육성법개정이유를 전제해 보면,

개방화, 국제화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대처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사항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을 확대하며, 엔지니어링
활동관련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우리 건축사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단독 사무소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조직을 활용하여 단체교섭을 해야 할 것이며,
법인종합사는 회원사중심으로 협력을 구성하여 각기 자기기능에
알맞은 역할분담을 하여 건축계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희 회장도 선거공약에서 계층간에
조화를 약속한 바 있다.

대형법인용역사는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축적과 아울러 UR, 종합건설업법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금융지원과 세계해택동 엔지니어링 진흥법과 유사한 특혜를
받아야 되며, 아울러 공제조합설립이 될 수 있도록 시급대책이
세워져야 하고 우리들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당국에서는 국제경쟁력향상, UR에 대처한 기술개발등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210개사에 달하는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조직을 보완하여 단일조직으로서의 법인형태가 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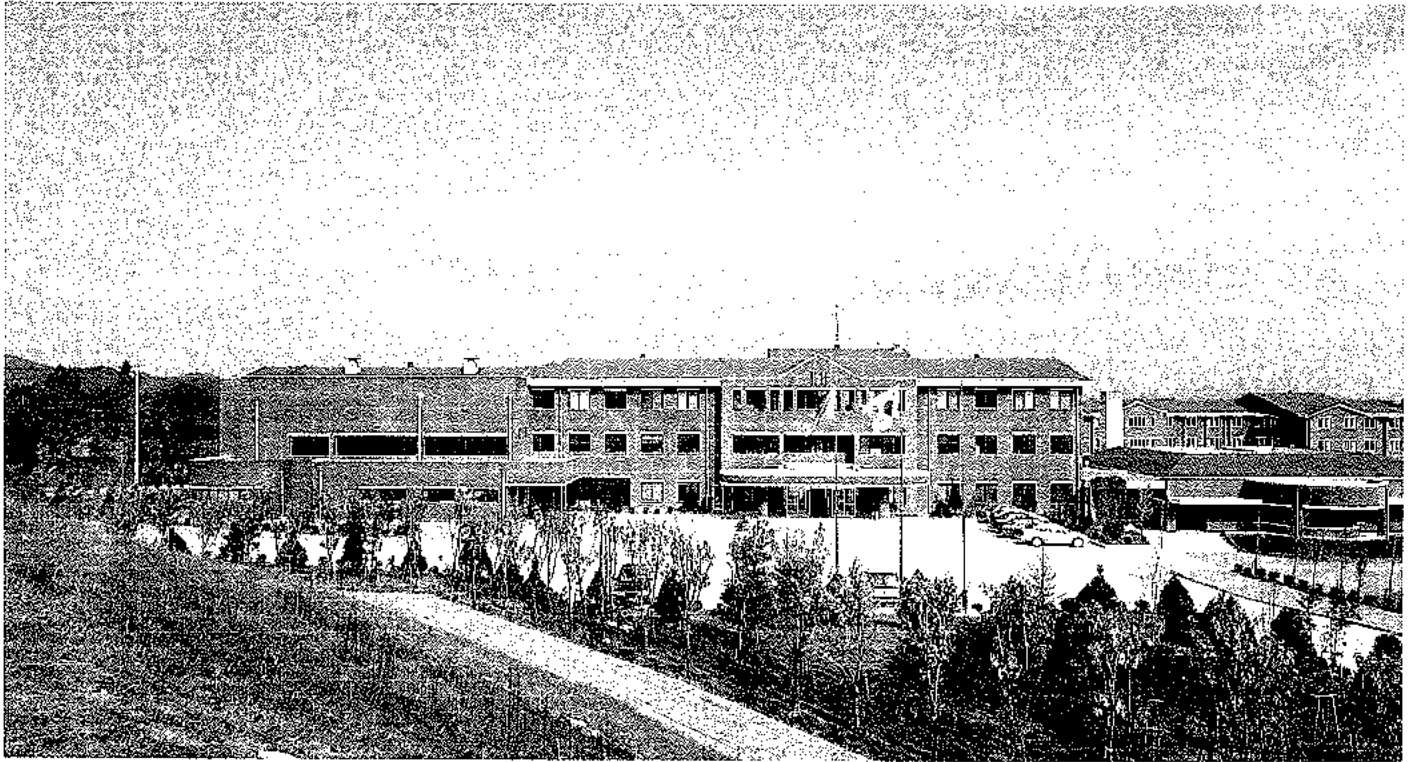
아울러 건축사협회 회원은 필자의 제안이 협회의 분리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문화의
창달 및 국제경쟁력을 기르는 길을 찾으려는 고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안성여자직업훈련원

Ansung Woma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金希洙 / (주) 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ie-Soo



1

대지위치 /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만정리 3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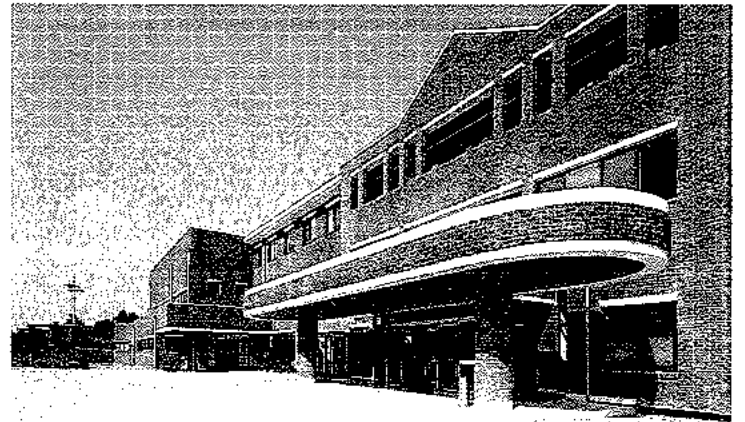
건축면적 / 5,889.84㎡

연면적 / 13,60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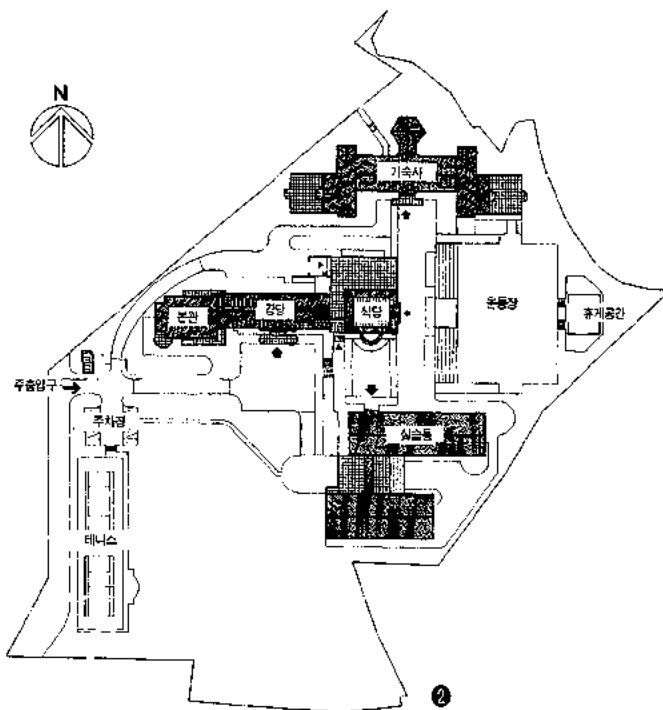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

외장 / 적벽돌

용도 / 직업훈련시설 (관리동, 실험실습동, 강당, 식당, 기숙사 등)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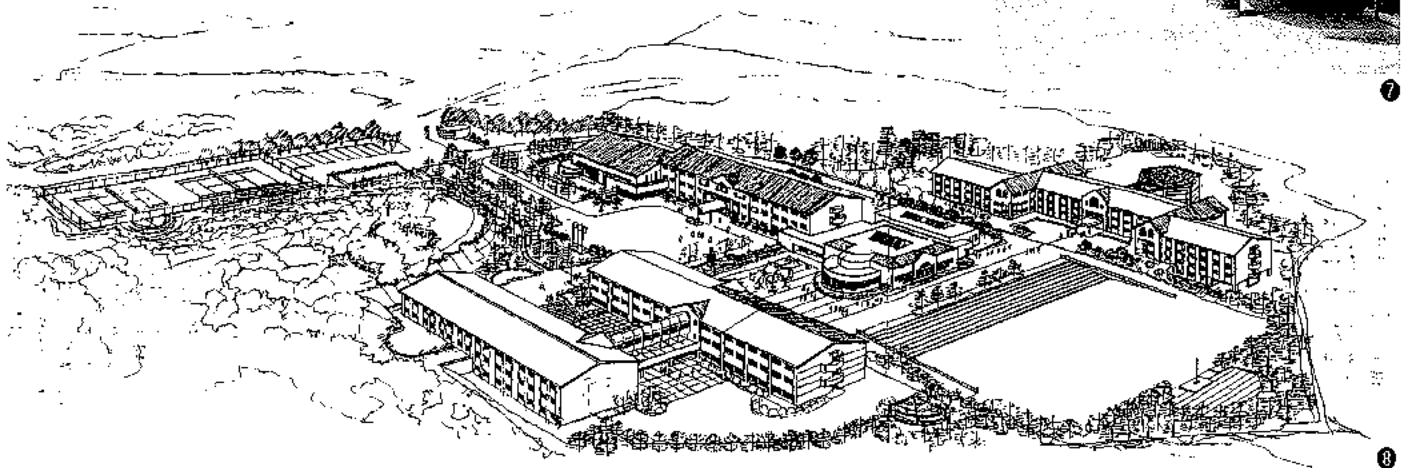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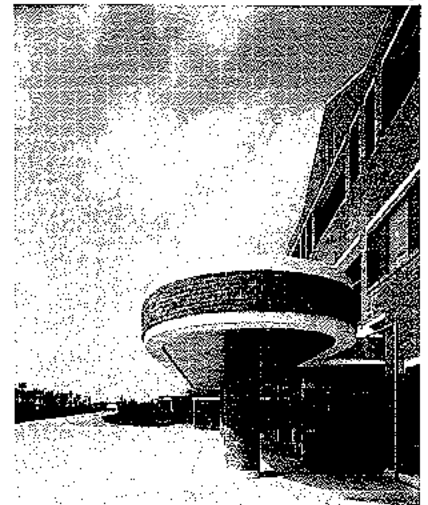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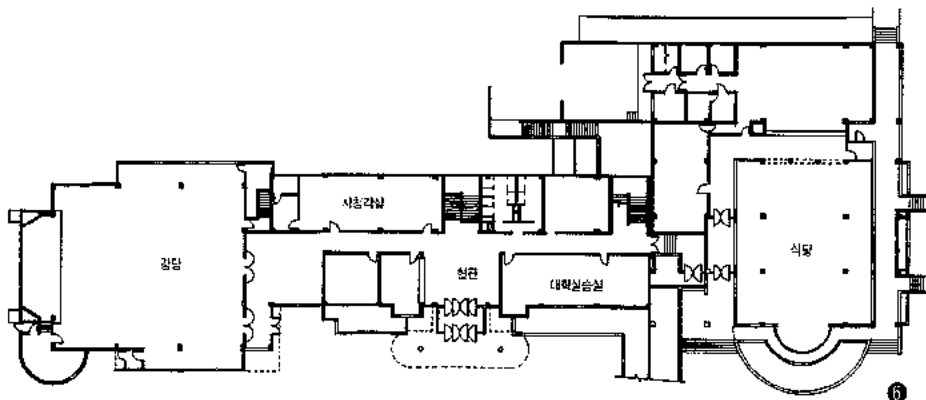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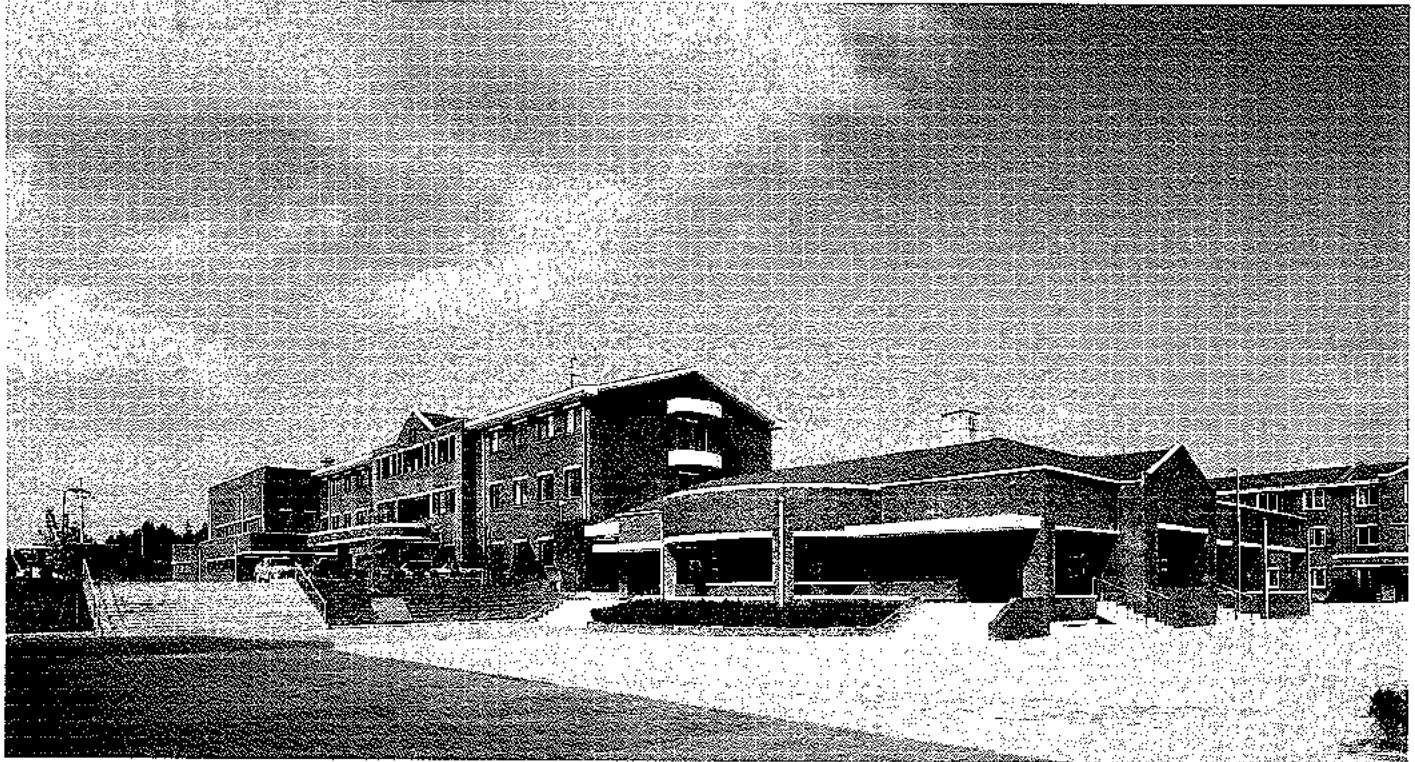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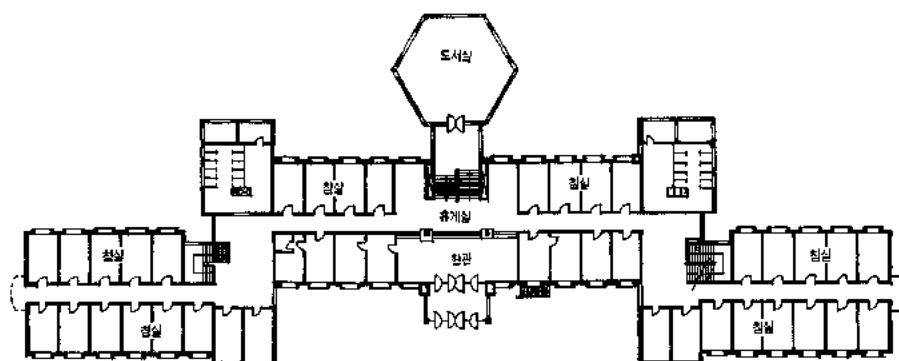
4

- ① 본관 전경
- ② 배치도
- ③ 본관 출입구측 상세
- ④ 식당동에서 본 기숙사동
- ⑤ 식당동 및 기숙사동 전경
- ⑥ 본관 1층 평면도
- ⑦ 본관 현관 캐노피
- ⑧ 조감도



-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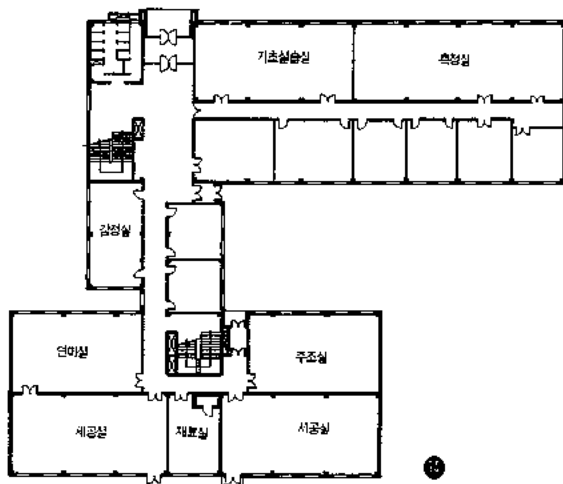
- ① 기숙사동 전경
- ② 식당동에서 본 기숙사
- ③ 실습동 1층 평면도
- ④ 본관에서 본 실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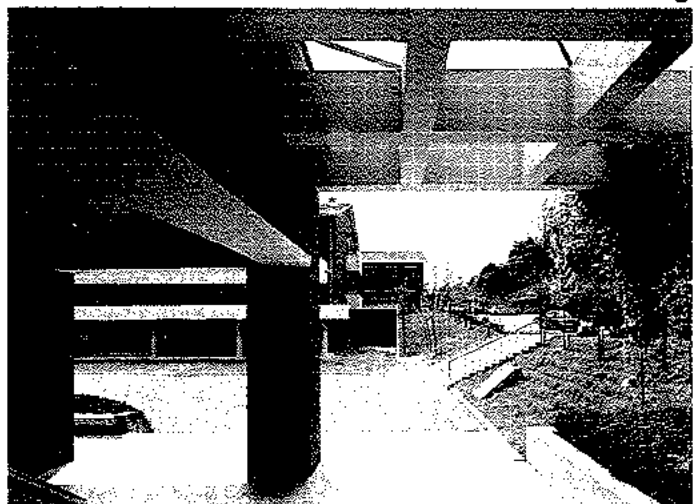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대전 센트리아 오피스텔

Daejeon Centrea Officetel

安吉元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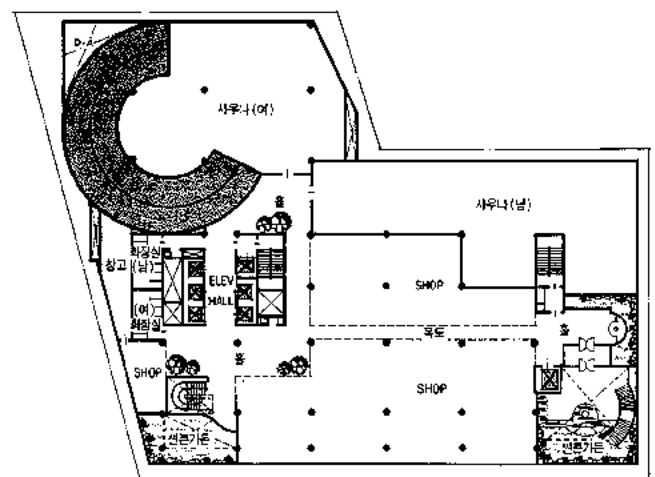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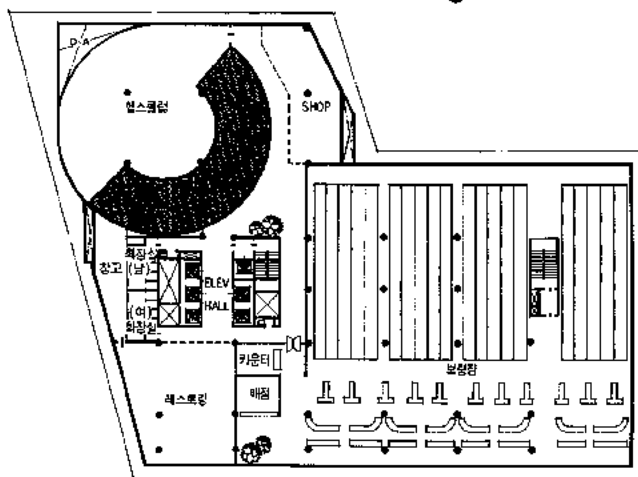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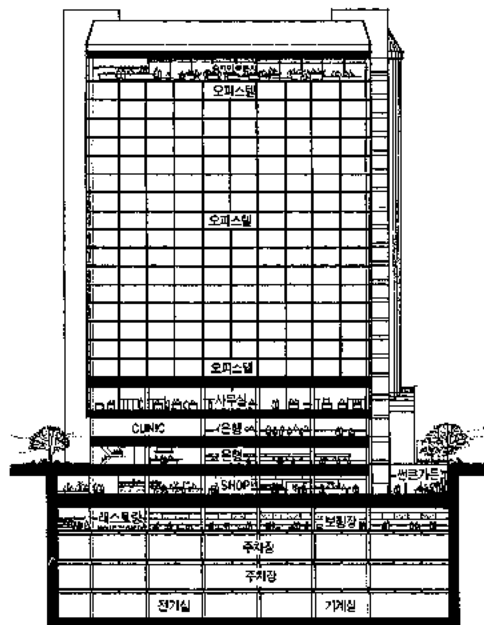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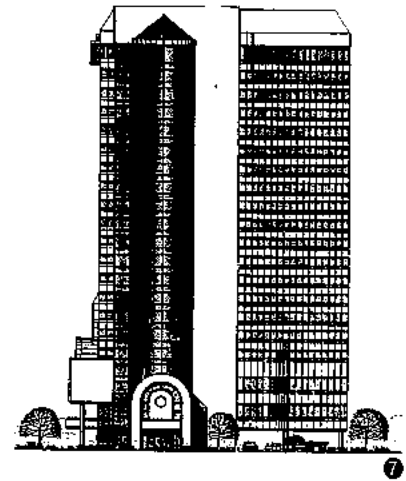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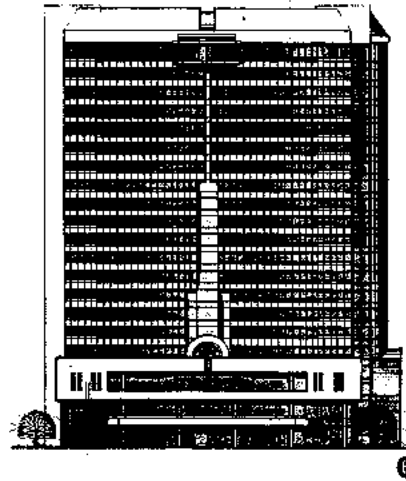
Designed by Ahn, Gil -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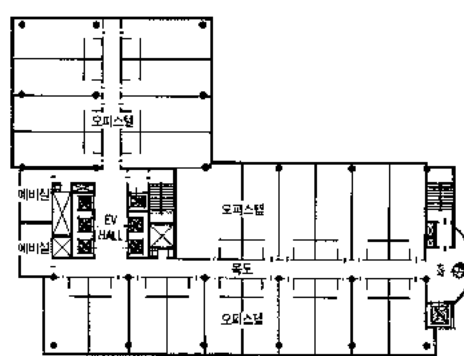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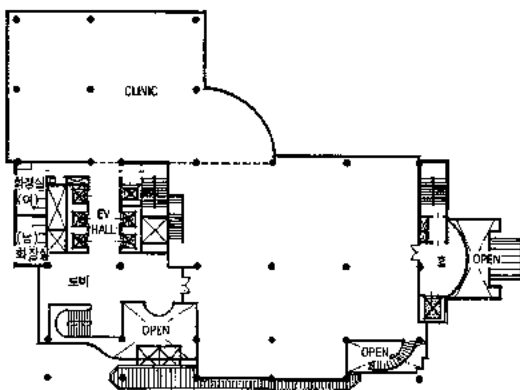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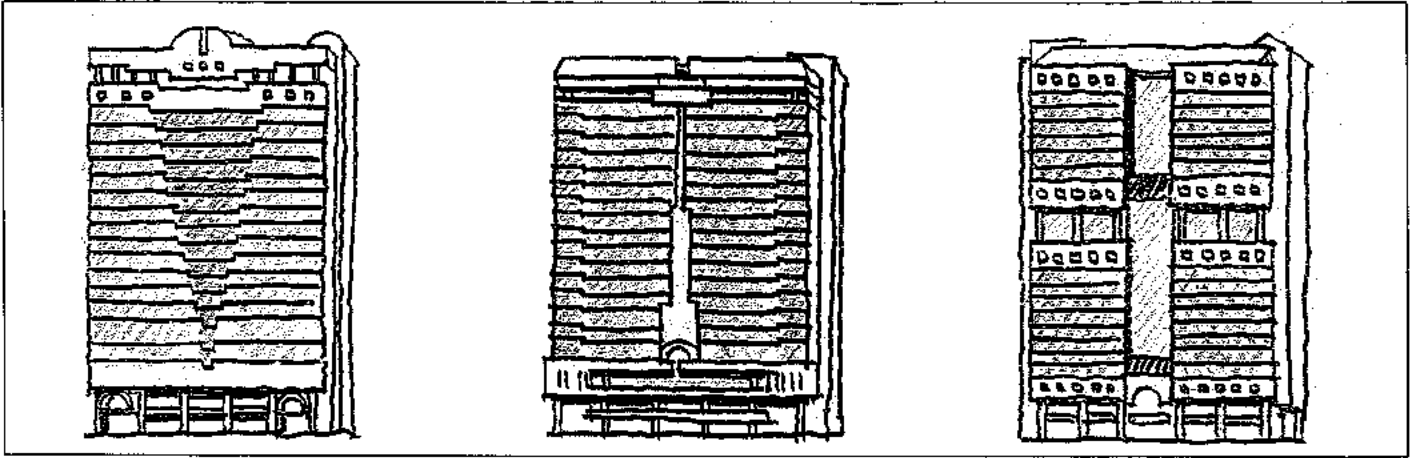


설계하였다.

건축을 하면서 항상 느껴지는 것이지만, 최초의 개념을 갖고 완공 후 주변에서 건물에 대하여 느끼는 도시맥락적 측면과 실사용자들이 느끼는 실용적 측면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공간을 만들어 풀어나가는 건축행위에서도 순간적으로 지나간 판단에 많은 후회를 한다. 주어진 시간 내에 보다 많은 사고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안이한 계으로 인하여 차후에 돌출되는 곤란함이 본인에게 계속되는 건축가의 책임감이라는 체적질이 되고 있다. 미련과 아쉬움이 있으나 어려운 산고 끝에 태어난 본 건물이 도심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 동트는 아침의 햇빛을 받을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건축가만이 느낄 수 있는 창작의 화신(Incar-nation)이 아닐까 한다.

- ⑥ 정면도
- ⑦ 우측면도
- ⑧ 단면도
- ⑨ 남측면도
- ⑩ 지하 2층 평면도
- ⑪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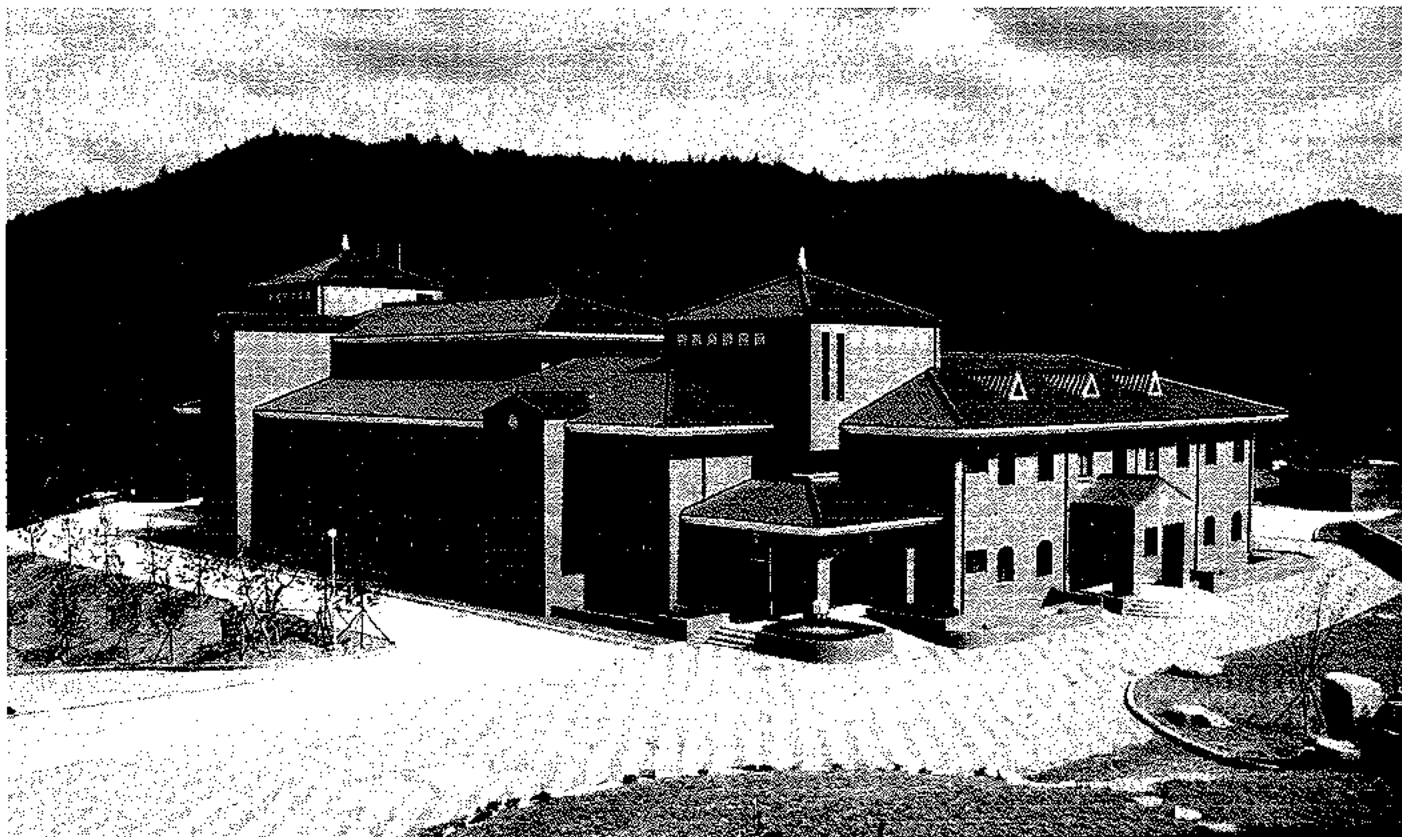
- ⑦ 초기안 입면스케치
- ⑧ 주출입구 상세
- ⑨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측 상세
- ⑩ 지하연결 계단부
- ⑪ 지하층에서 본 연결계단
- ⑫ 2층 평면도
- ⑬ 기준층 (5~19층) 평면도

성 바오로 안나의 집

St. Paul's Ann House

徐輔光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

Designed by Seo, Bo-Kwang



대지위치 /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지면적 / 47,313㎡

건축면적 / 1,943.02㎡

연면적 / 5,40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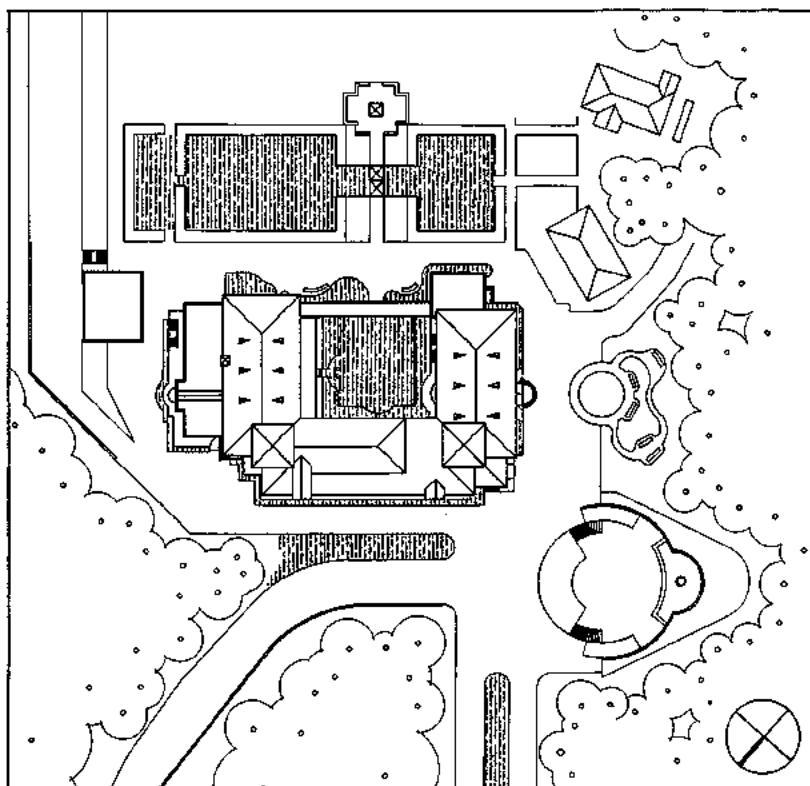
건폐율 / 4.11%

용적률 / 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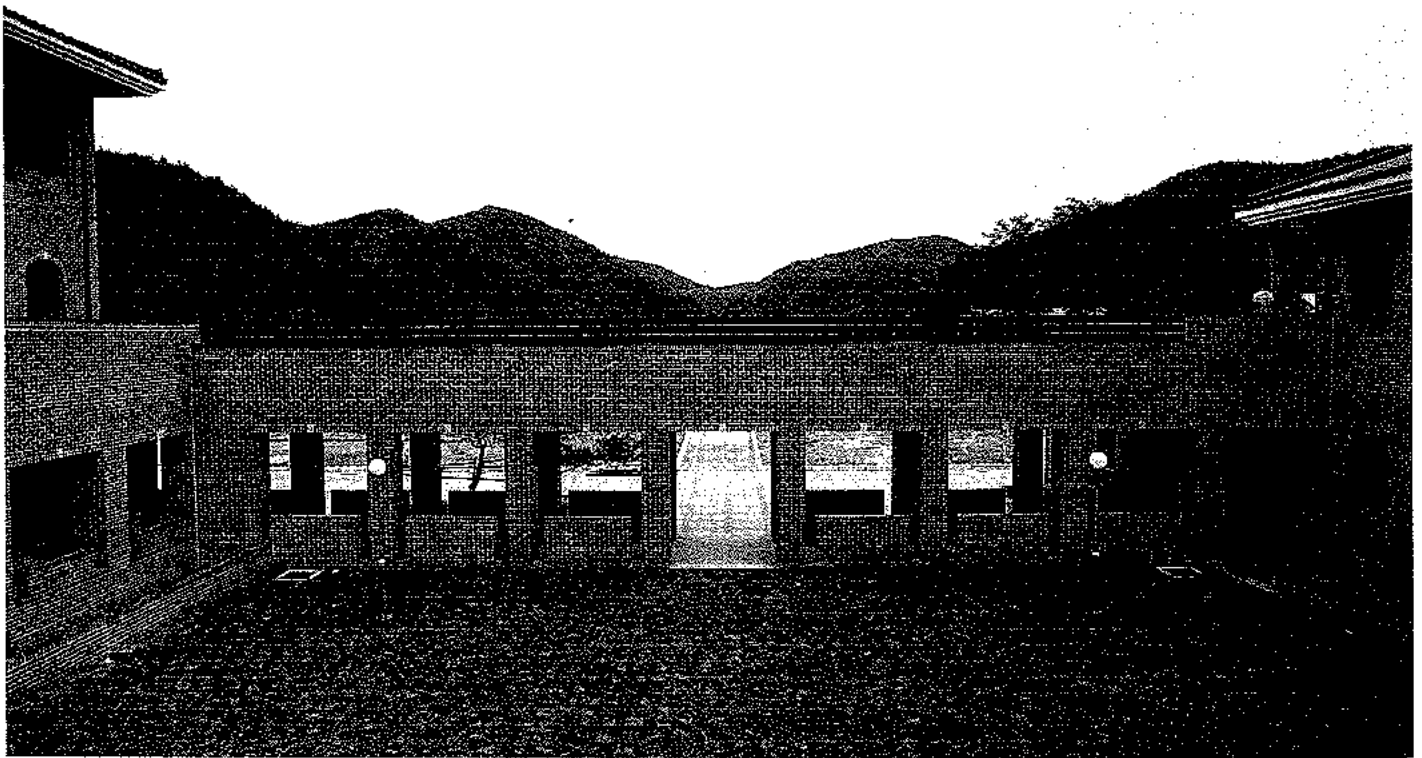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변색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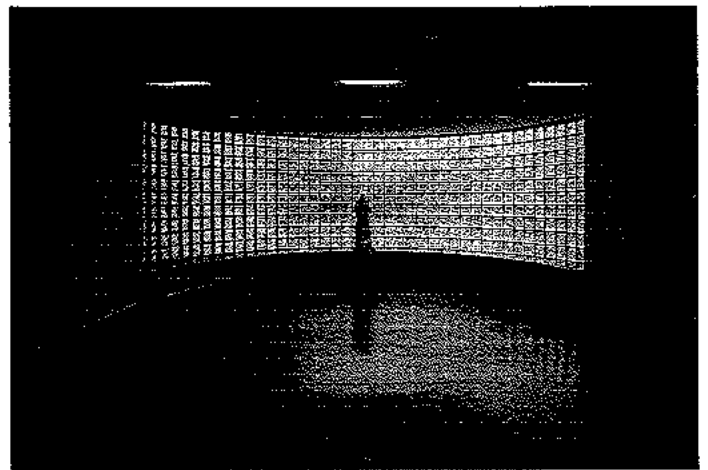
- | | |
|---------------|-----------------------|
| ① 전경 | ⑩ 1층 평면도 |
| ② 배치도 | ⑪ 동측면도 |
| ③ 중정 | ⑫ 북측면도 |
| ④ 연결복도에서 본 중정 | ⑬ 지하층 휴게실로 연결 되는 외벽상세 |
| ⑤ 수녀원 로비 | ⑭ 수녀원과 양로원을 연결하는 피로티 |
| ⑥ 서측면도 | ⑮ 연결복도 |
| ⑦ 남측면도 | ⑯ 다목적 대강당 내부 |
| ⑧ 소성당 내부 | ⑰ 2층 평면도 |
| ⑨ 지하 1층 평면도 | ⑱ 3층 평면도 |



①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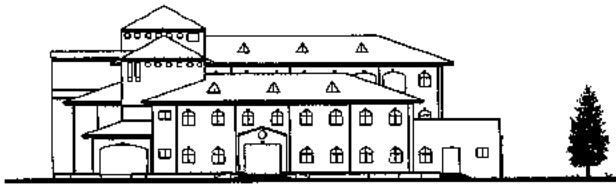
⑤

■ 사회의 고령화와 핵가족의 보편화에 따른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노인계층의 급속한 증가를 유발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의 지할 곳 없는 무연고 노인들과 이들을 보호할 수녀님들을 함께 수용할 본 시설은 형태적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조용한 교외에 입지하여 이용자들에게 전원생활을 통한 자립, 수도생활의 지속을 가능케하는 여러 요소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둘러싸여진 공간의 아늑함등을 제공함으로써 친화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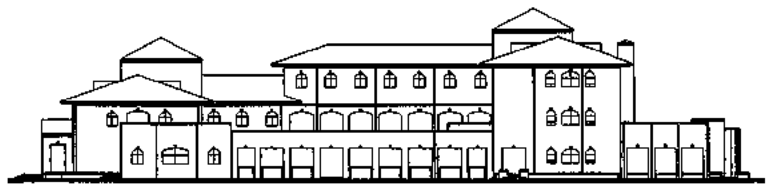
을 느낄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주사용자인 노인들의 보수적인 관점에 부합될 수 있는 전통형태의 현대적인 표현과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외장재료를 사용하여 아늑함과 친화력을 부각 시켰다. 수녀님들에 대해서는 3층의 경당을 중심으로 경건하고 독립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노년기의 심신저하에 따른 자립, 외존의 정도에 따라 독립생활의 단계 및 전문간호서비스 단계등을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에서의 요구에 대응한 필요공간을 조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행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전체적으로 사적, 공적공간의 적당한 분리와 자립 및 수도를 도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의 조성, 안전에 대한 배려등을 계획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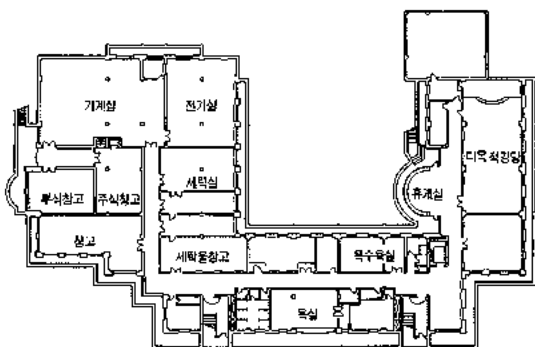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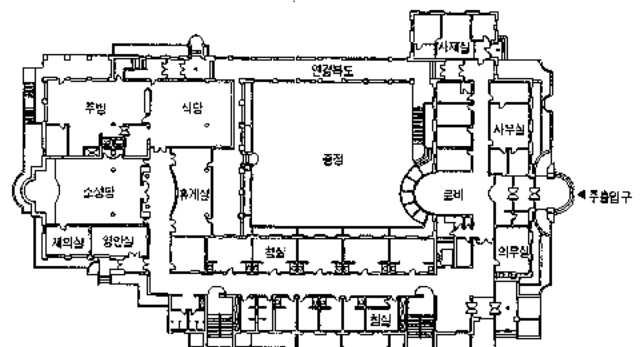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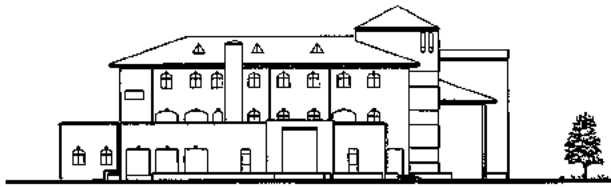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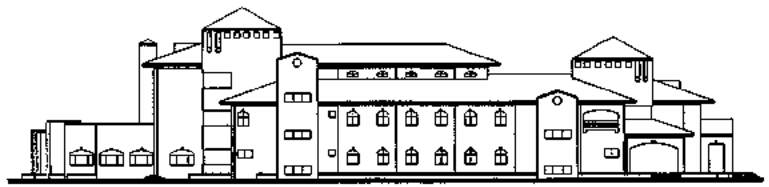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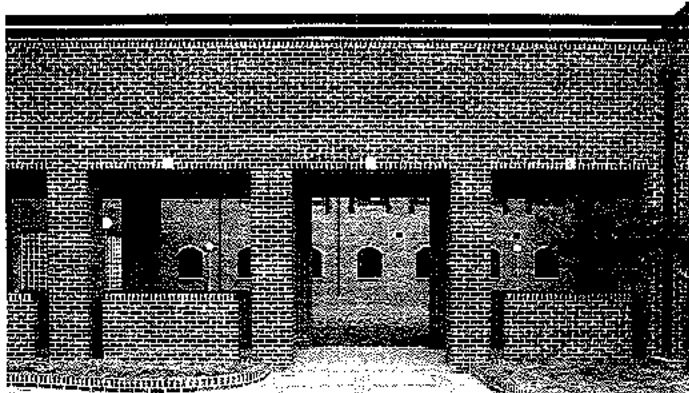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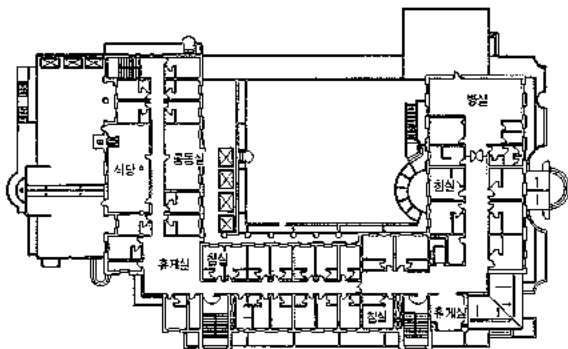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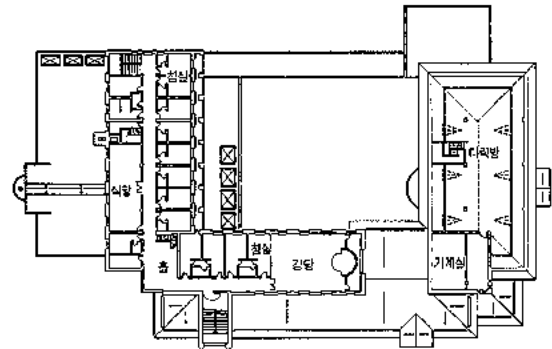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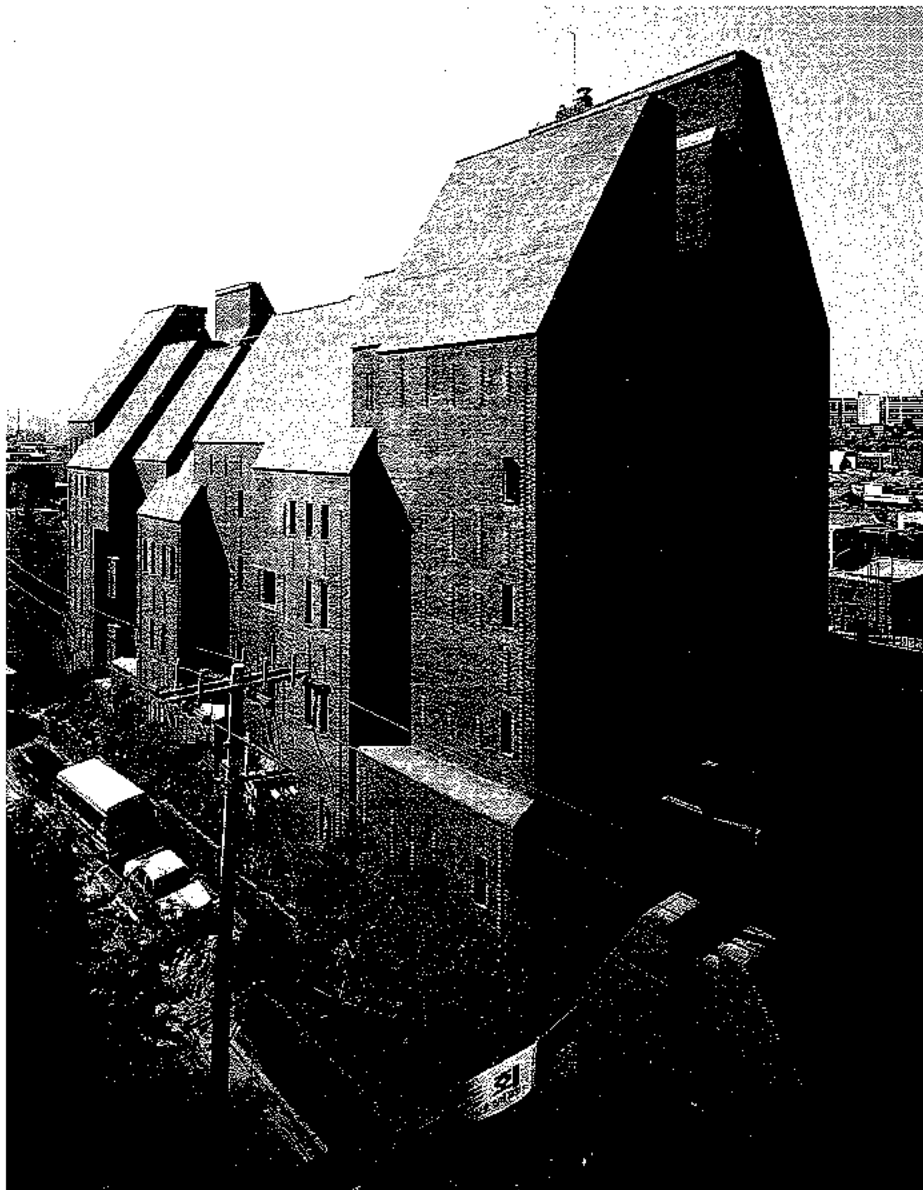
18

방배동 삼호 침례교회

Samho Baptist Church

禹時庸 /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Designed by Woo, Si-Yong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7

지역·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1,314.6㎡

건축면적 / 602.89㎡

연면적 / 4,740.04㎡

건폐율 / 46%

용적률 / 200%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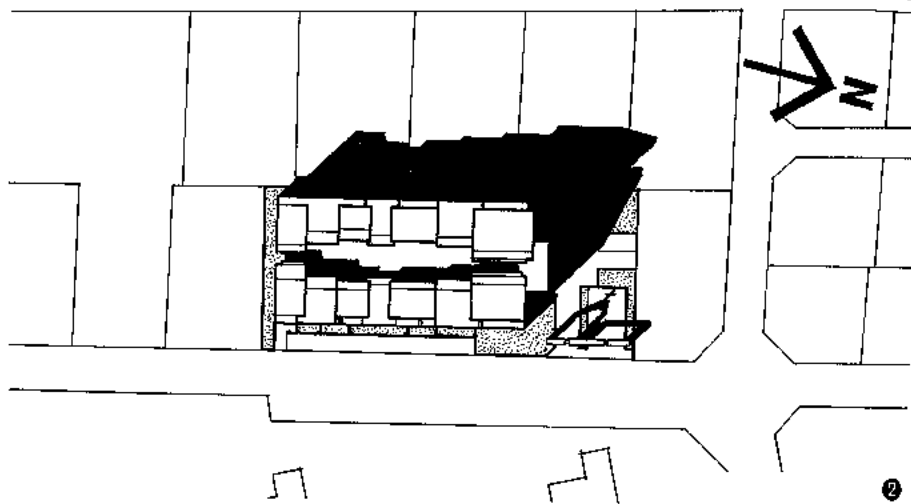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현대교회는 교회 고유의 예배기능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한 교육 및 친교기능 그리고 신의 뜻에 따른 전도와 공공을 위한 사회적 봉사의 기능의 종합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만남의 행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존재의미가 상승된다. 따라서 교회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기도하는 생활 속에 부여해 주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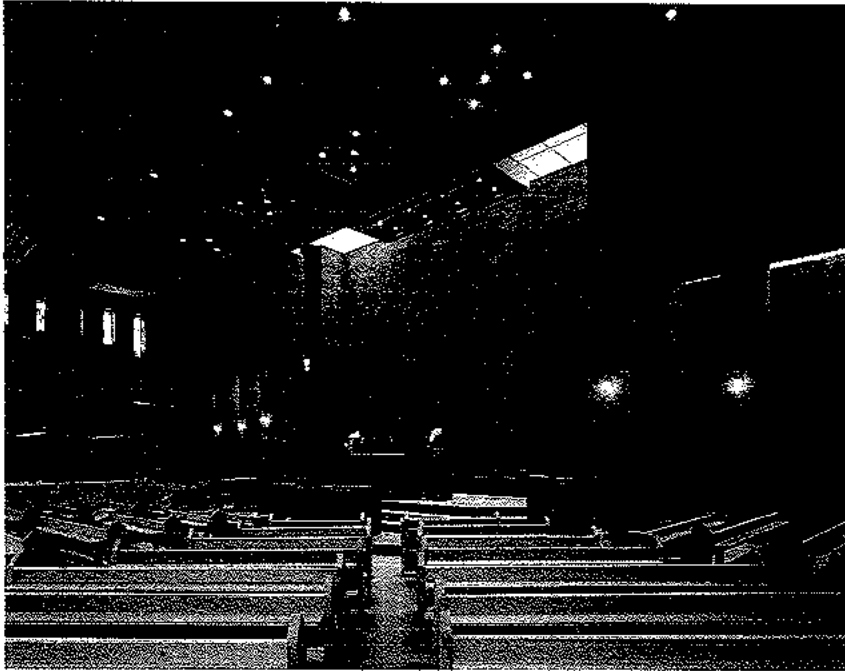
교회가 갖는 전도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갖는 환경적인 요소로서의 의미는 크다. 그것은 교회건축 본연의 특성인 상징성 그 자체로 신도·비신도를 가리지 않고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회건물은 그 외형에 있어서나 내적인 면에서도 독특한 조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권위를 돋보이기 위한 위압감을 주는 크기보다는 주위 환경과 조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회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속세에서도 신의 입김과 삶의 본질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건물내·외부에 조형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내부공간은 장엄하고 엄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비로움을 지닌 공간의 보편성이 필요하다. 이를 성취키 위해 폐쇄되고 속세로부터 보호되는 내부공간과 분위기의 도출이 요구된다. 이런 면에서 교회건축은 합리성보다는 사적이고 서정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본 교회가 들어선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의 속칭 카페골목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동측에는 궁전아파트 등 주택들이 있어 대지가 유흥가와 주택들의 중간길에 위치하여 마치 인간이 속세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문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의 배치시 대지의 북쪽에 교회의 외부 진입공간을 두고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각 방향의 도로에서 진입이 용이하게 하였다. 이 외부공간은 교회의 앞마당으로 신도들의 친교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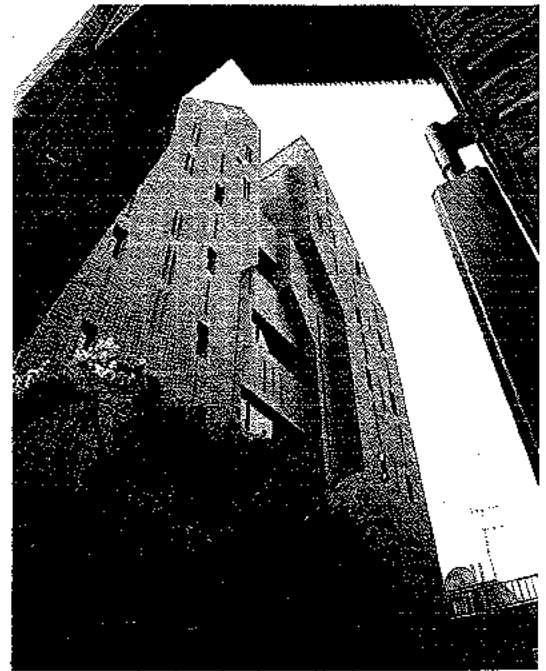
삼호 침례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다르게 예배외에 교육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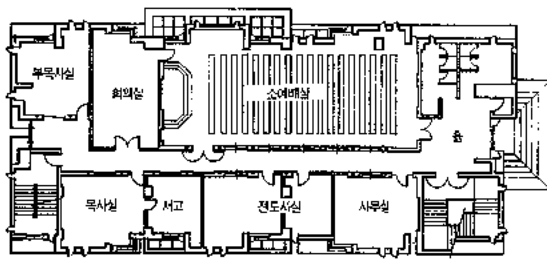
- | | |
|--|-------------|
| ① 위에서 내려다본 전경 | ⑤ 2층 평면도 |
| ② 배치도 | ⑥ 1층 평면도 |
| ③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의
음영 효과가 뛰어난 제단측
상세 | ⑦ 지하 1층 평면도 |
| ④ 올라다 본 외벽상세 | ⑧ 5층 평면도 |
| | ⑨ 4층 평면도 |
| | ⑩ 3층 평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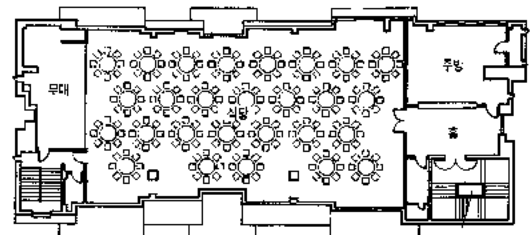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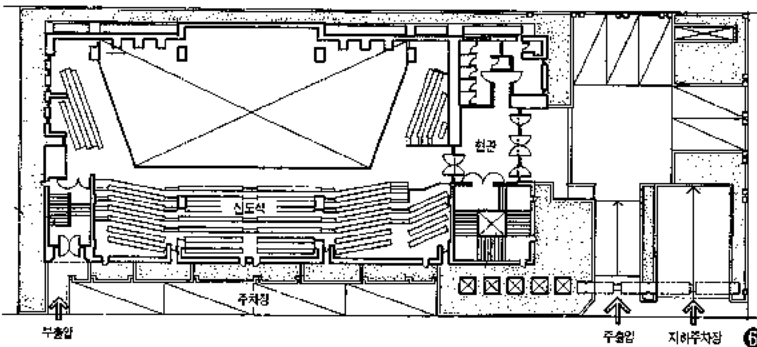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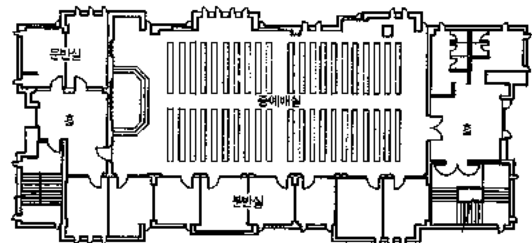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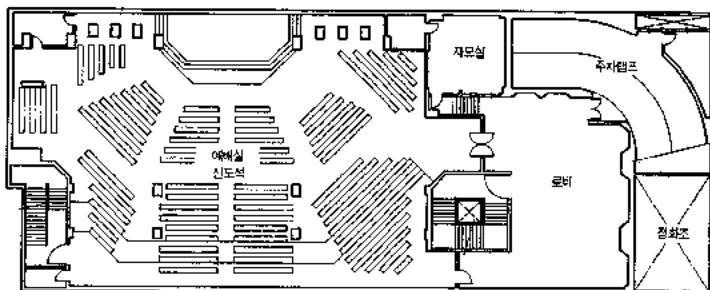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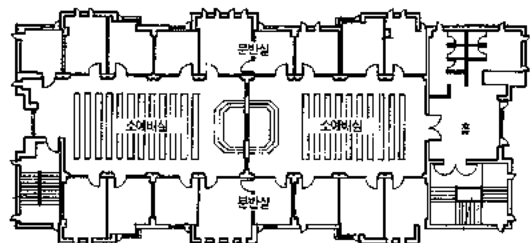
⑦



⑧



⑨



⑩

때라는 의식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봉사를 균형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교육에 필요한 면적이 전체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기 위한 교육공간과 교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친공공간이 확보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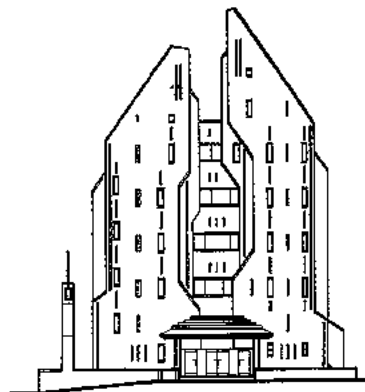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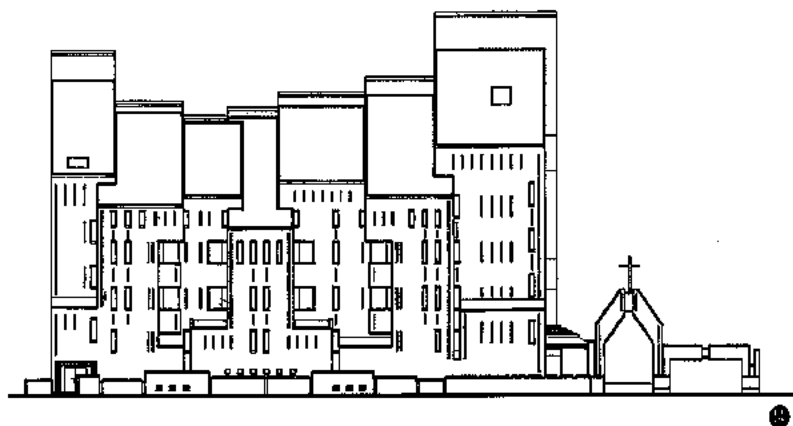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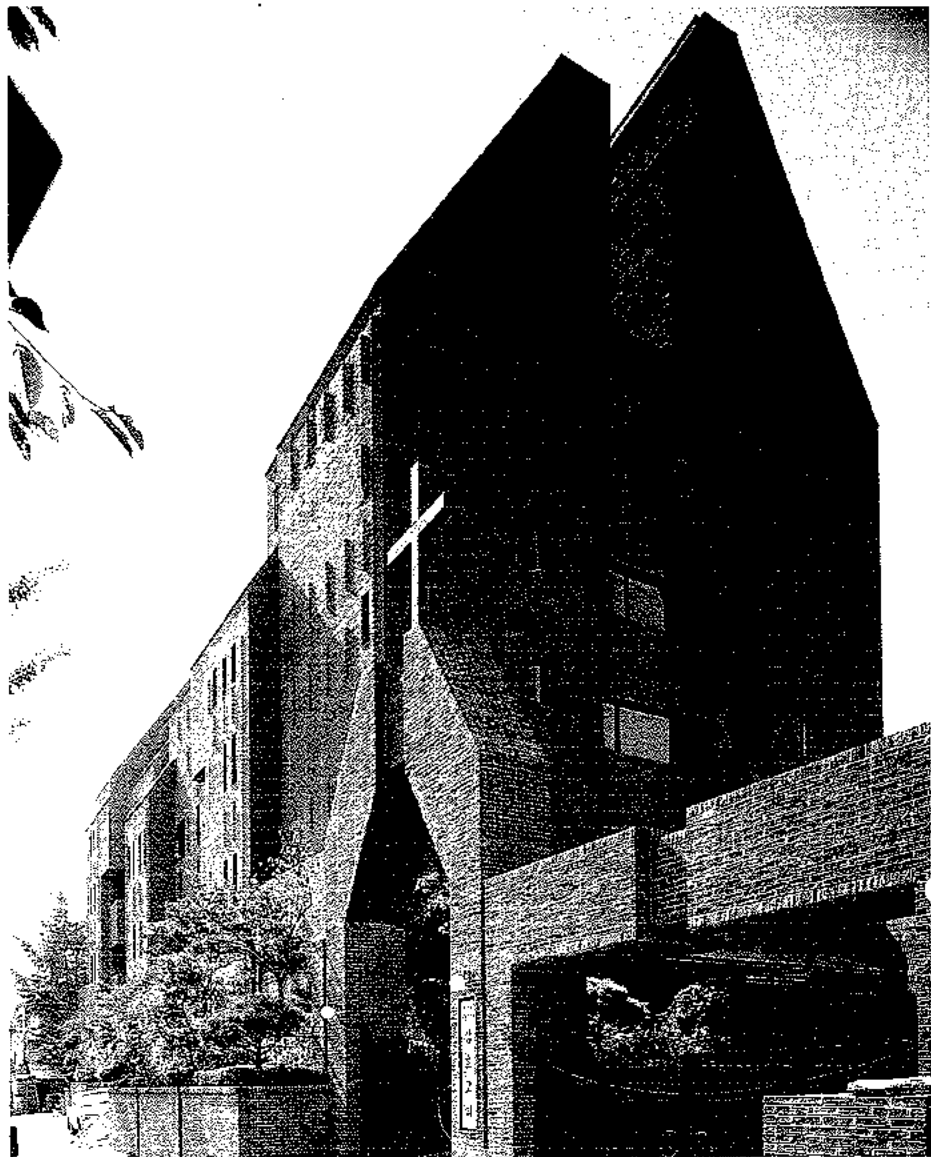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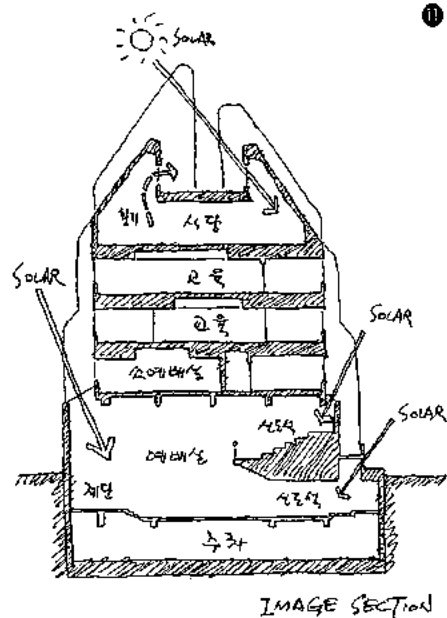
지하2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지하1층과 1층에는 본당, 2층부터 4층까지 연령별 교육관이 있어 성경

공부 및 교회 훈련에 적합하게 하며 5층은 식당을 두어 찬교활동 및 세미나는 열 수 있게 하며 각 교육시설의 보조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하는 다목적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많은 수의 신도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본당을 두는데, 이경우 방수·환기·채광 및 신도들의 수직동선이 길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 본 교회는 지하1층과 1층에 본당

을 두어 환기·채광, 신도들의 짧은 수직동선을 확보하고 있다. 장축 방향의 예배당의 일반 형태에서는 긴 회중석을 가지고 있으나 단축 방향에 제단을 두어 설교 중심의 교회로서 목회자와 신도가 좀더 가까워짐으로써 신앙공동체의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현관 홀에서 본당 2층은 직접 진입이 되고 본당 1층은 좌측 계단을 이용하게 된다. 격자보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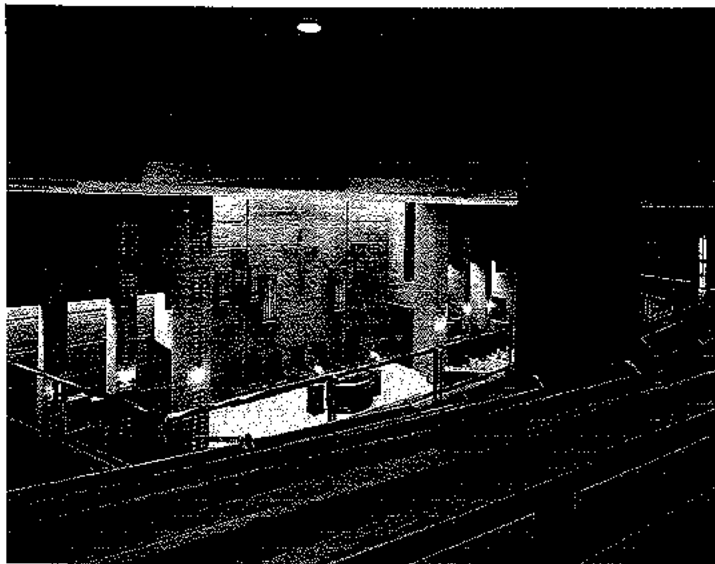


되는 본당의 천장은, 제단 상부와 신도석 끝 부분에 유리블럭의 천장을 두어 쏟아지는 빛에 의하여 폐쇄된 공간감을 반감시키고, 공간의 중량감을 줄이고 있다. 또한 신도석 정면 제단의 좌우 열주 뒷편 상부 천장에서 떨어지는 빛의 음영효과에 의하여 열주는 상징적으로 어둡게 표현되며 제단은 강조된다. 5층 식당은 건물의 경사진 벽면을 내부에서도 느낄 수 있으며, 천창으로의 직접적인 빛의

유입은 밝고 환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전체적인 외형의 구성은 일반적인 교회건축이 지나는 규범을 탈피하여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구현하도록 한다. 건물의 각 면이 상이한 형태를 갖게함으로써 큰 건물이 갖는 단순한 매스를 잘게 쪼개고 중첩시켜 4면 건축의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사회의

만남의 장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교회의 분위기를 해치는 지나친 개방도 적당하지 못하나 주일에만 이용되는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닌 평일에도 이용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친교 및 대화의 장으로 쓰이도록 하여 공간의 생명력을 살려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상징성과 그 존재가치가 더욱 돋보일 것이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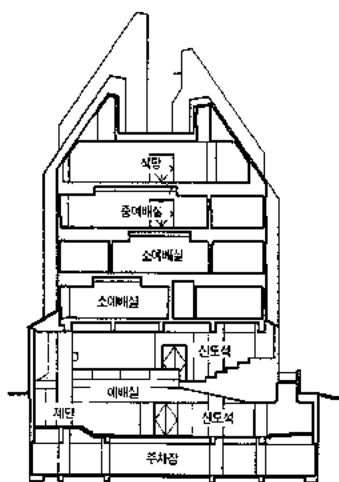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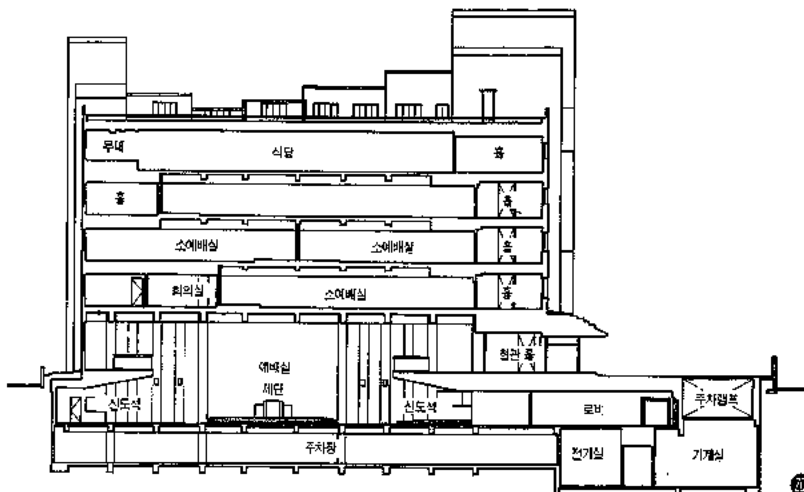


13

- 11 교회 정문 진입부
- 12 단면스케치
- 13 도로에서 본 전경
- 14 동측 입면도
- 15 북측 입면도
- 16 2층에서 본 제단측 상세
- 17 2층에서 본 예배당 전경
- 18 외벽상세
- 19 횡단면도
- 20 종단면도



16



20

남양농협 단위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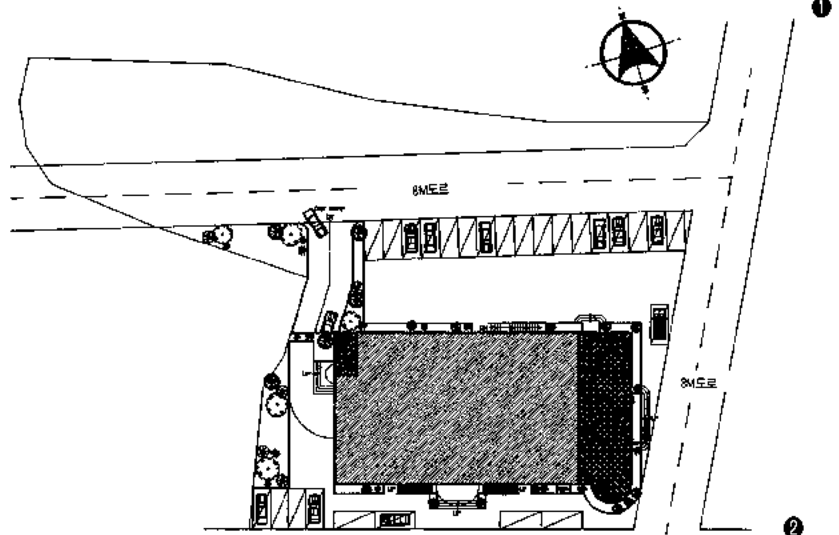
Namyang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鄭求榮 / 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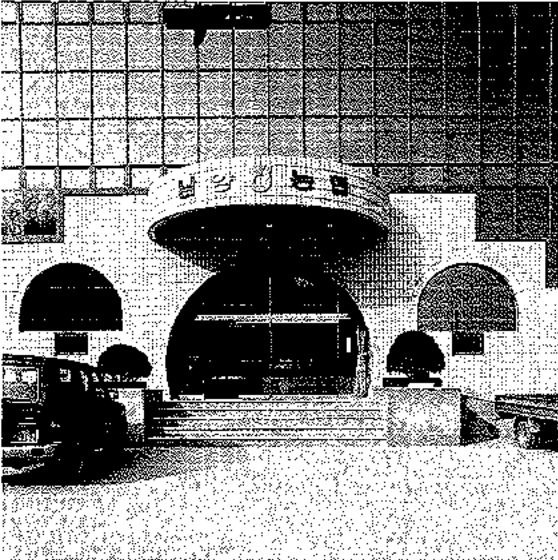
Designed by Jeong, Goo-Young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663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2116.00㎡
 건축면적 / 698.94㎡
 연면적 / 3,629.79㎡
 건폐율 / 33.03%
 용적율 / 135.87%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마감 / 외장용석기질타일, 16 mm 만사복층 유리
 주차대수 / 지하11대, 지상26대(총3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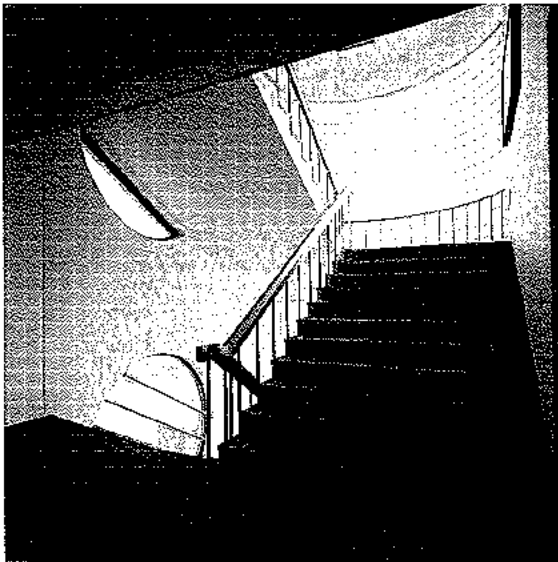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전면 출입구 상세
- ④ 1층 영업장 전경
- ⑤ 연결 계단부 상세
- ⑥ 3층 로비
- ⑦ 1층 평면도
- ⑧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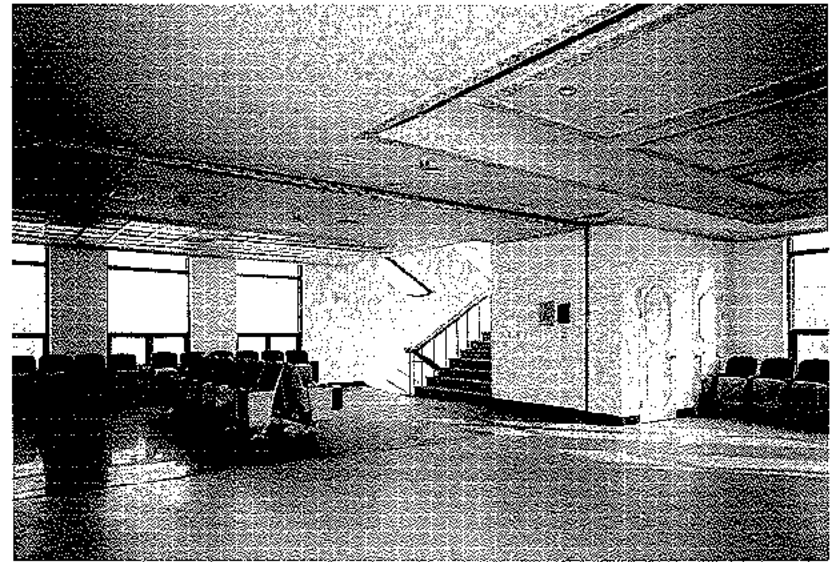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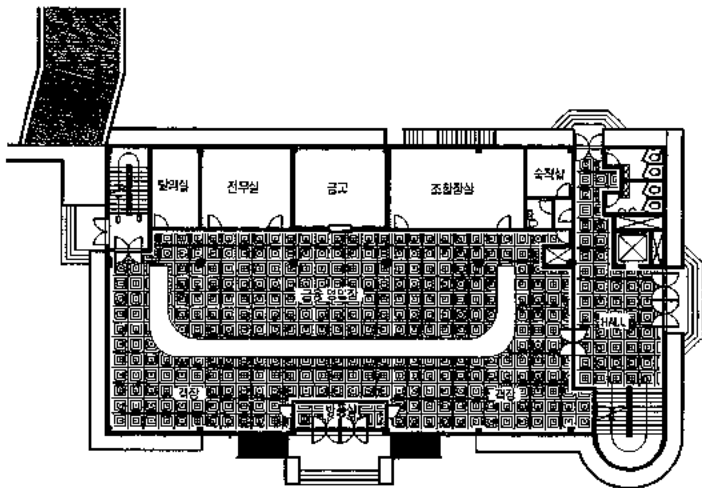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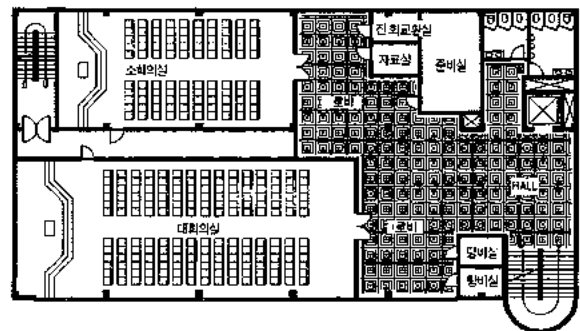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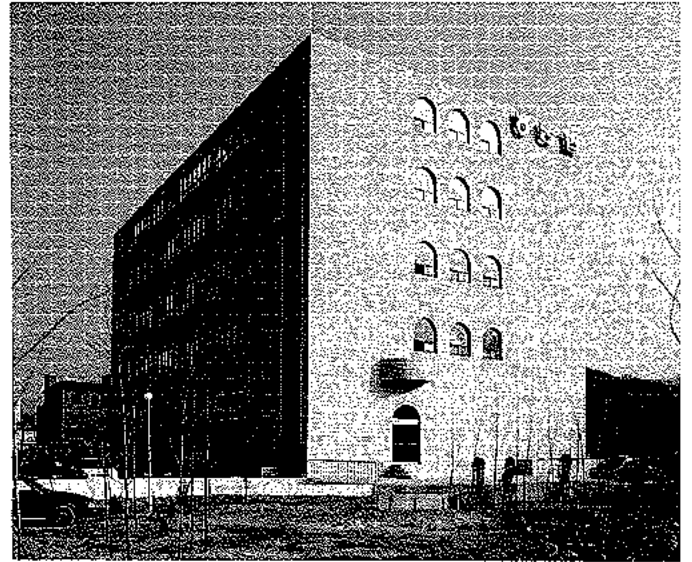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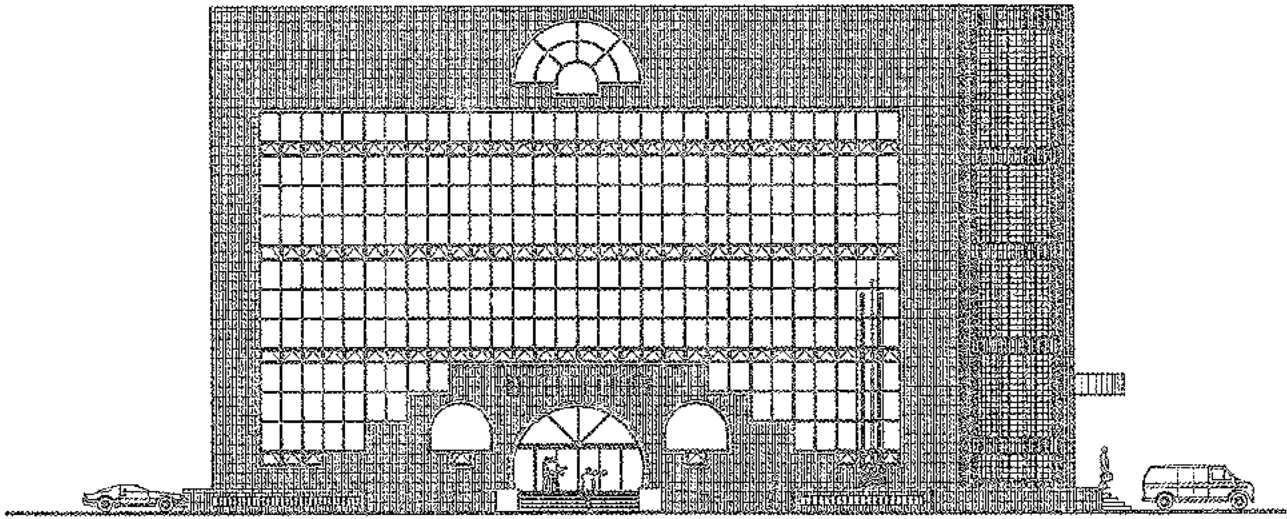
- ⑨ 측면 전경
- ⑩ 남동측 전경
- ⑪ 정면도
- ⑫ 대회의실 (예식홀)전경
- ⑬ 외벽상세
- ⑭ 복도에서 본 연결 계단부
- ⑮ 측면 연쇄점 출입구측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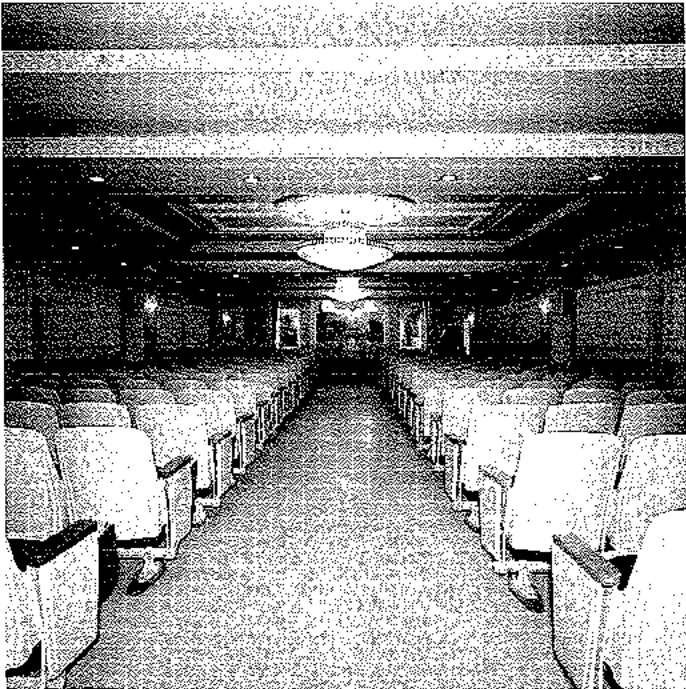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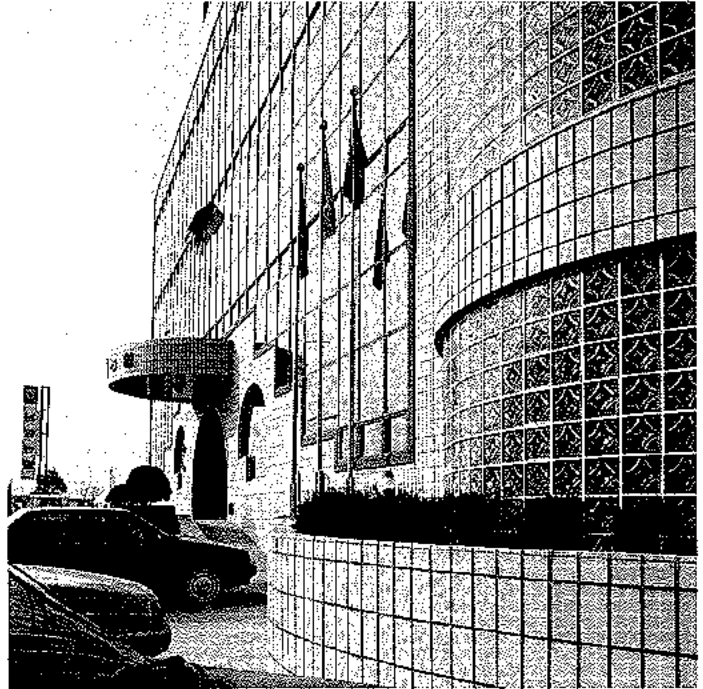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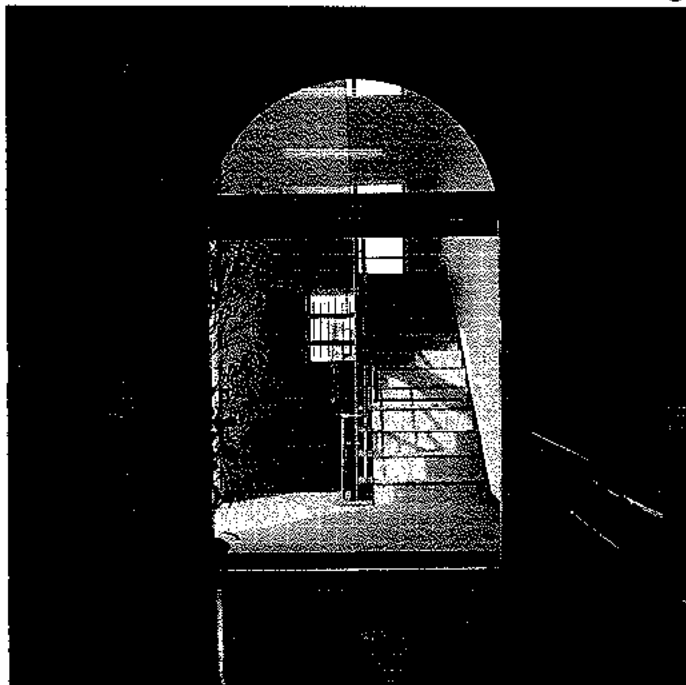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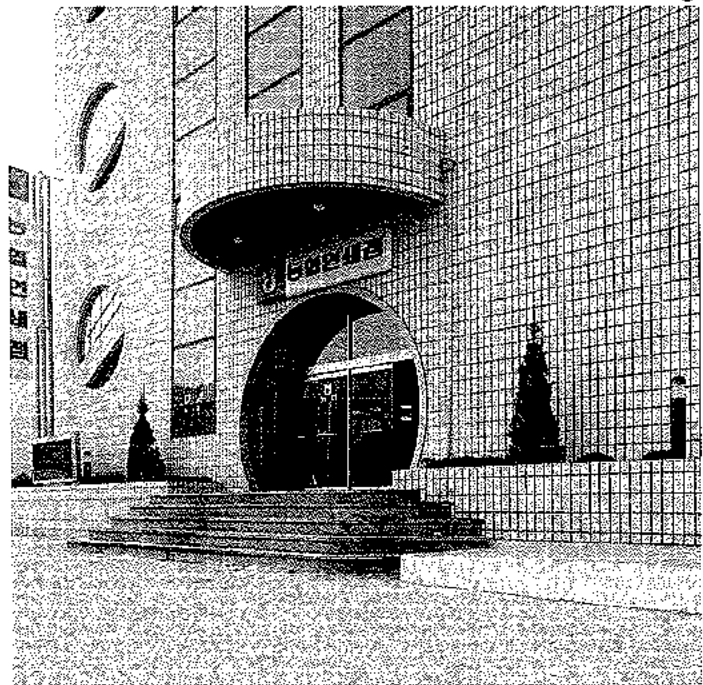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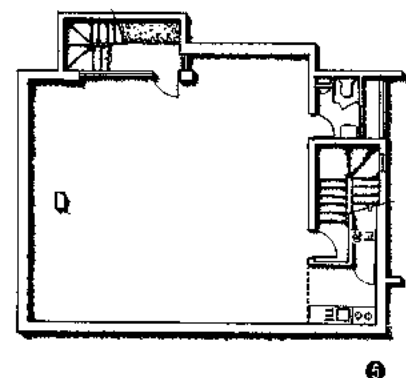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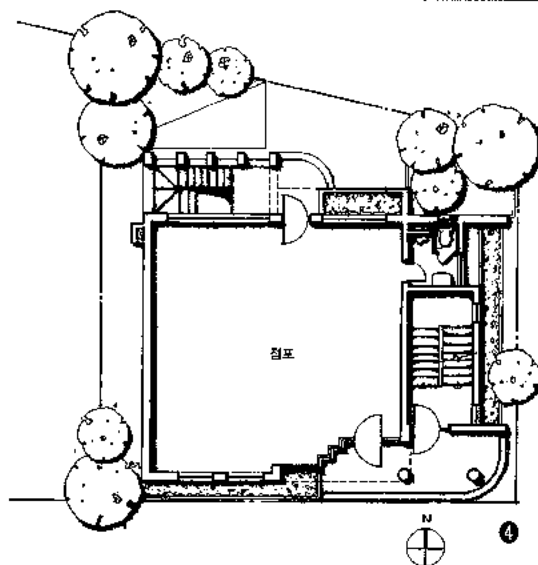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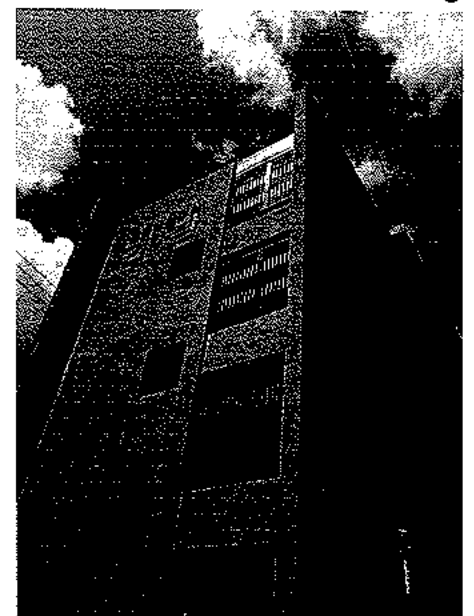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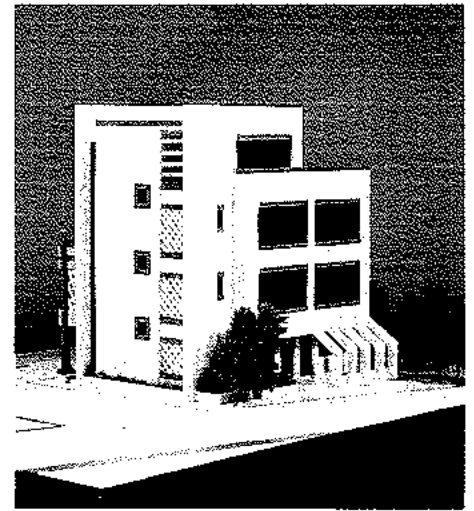


15

경주 석구빌딩

Kyungju Sukgu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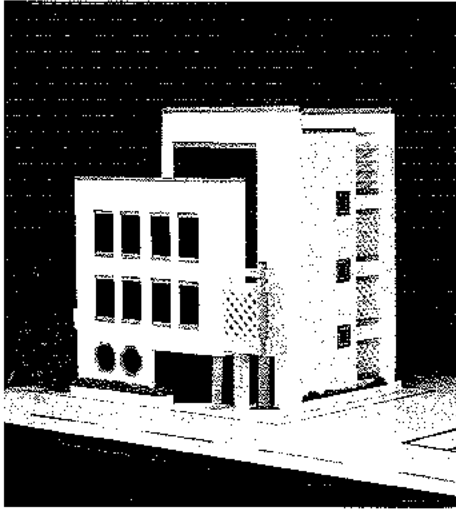
孫明文 / 건축사사무소 建·環
Designed by Son, Myung - Moon



대지위치 / 경북 경주시 성진동 620-166
 대지면적 / 170㎡
 건축면적 / 90㎡
 연면적 / 390㎡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드라이버트

- ① 전경
- ② 모형사진 I
- ③ 아래에서 올라다 본 외벽상세
- ④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⑤ 지하 1층 평면도
- ⑥ 모형사진 II
- ⑦ 전면 출입구 올라다본 외부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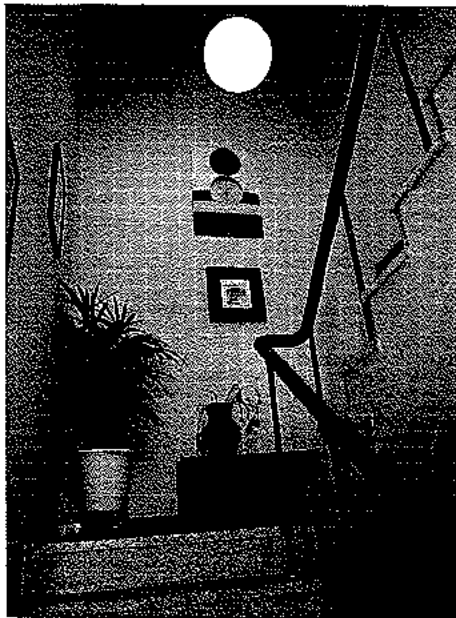
- ⑧ 연결 계단부
- ⑨ 3층 사무실 내부
- ⑩ 2층 평면도
- ⑪ 3층 평면도
- ⑫ 엑소노메트릭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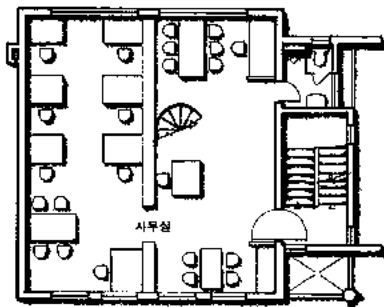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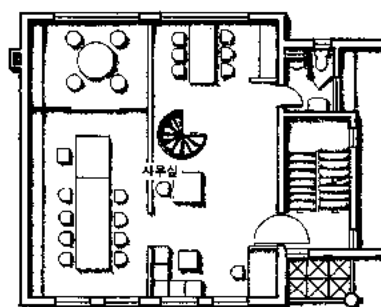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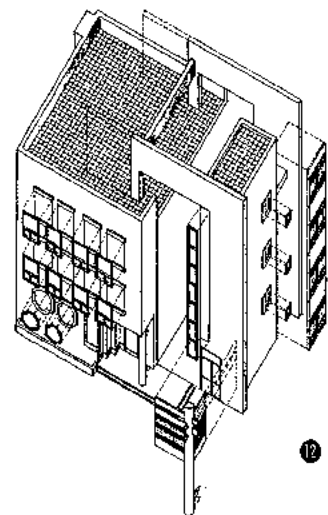
⑨



⑩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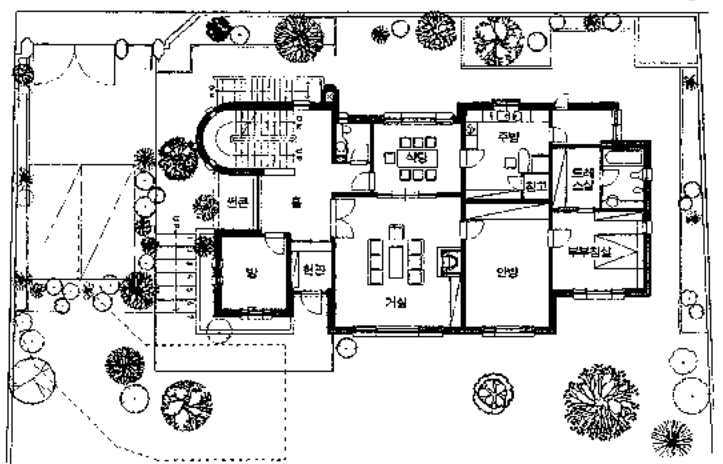
⑫

기흥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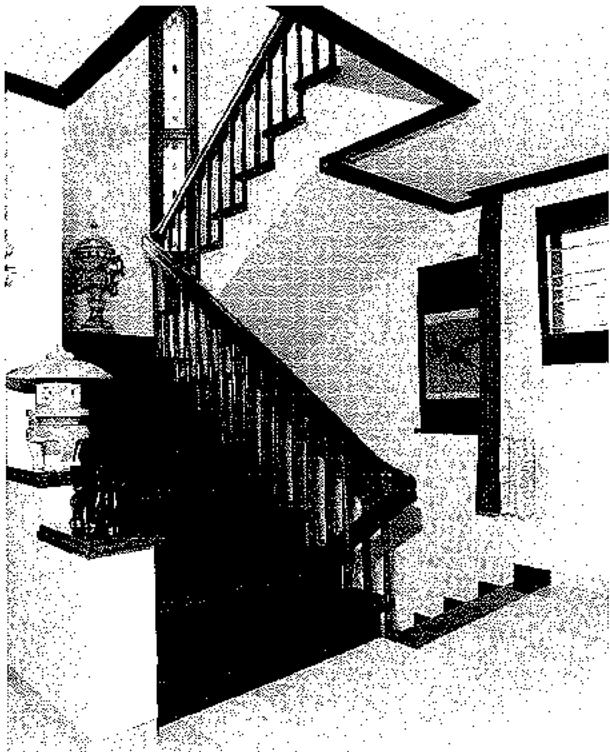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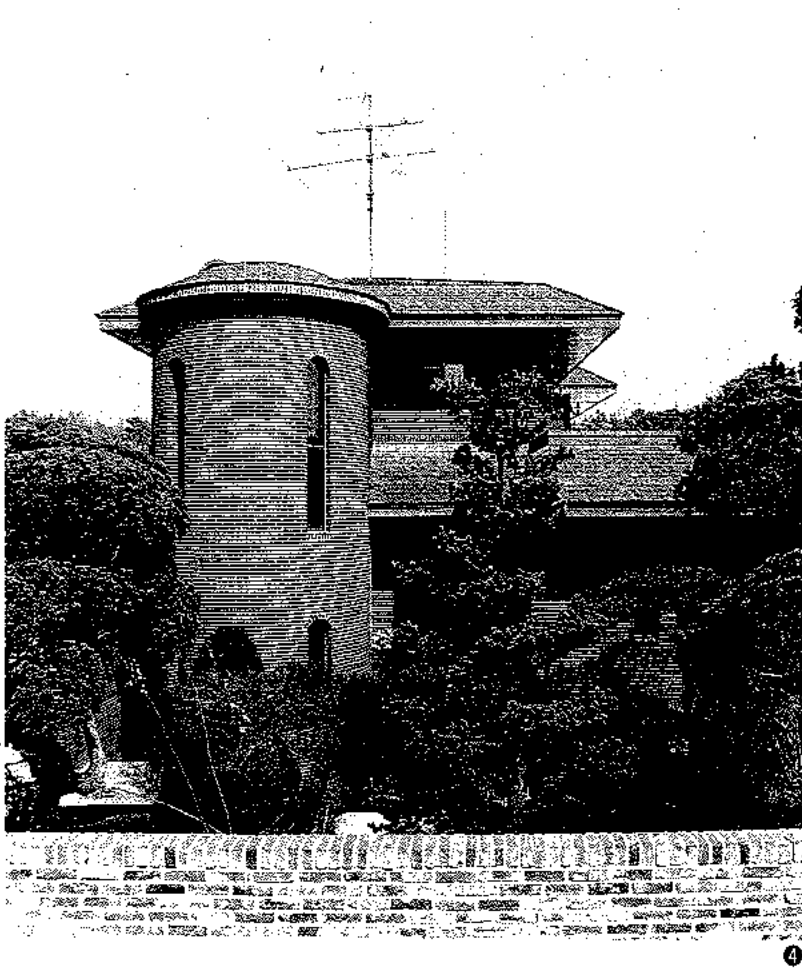
Keeheung Residence

金得洙 / 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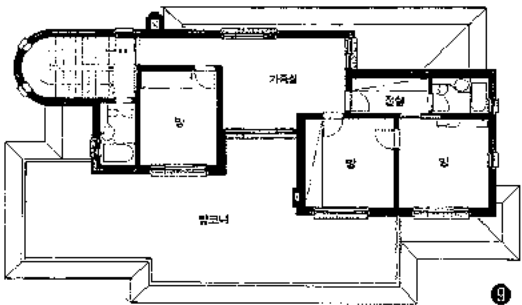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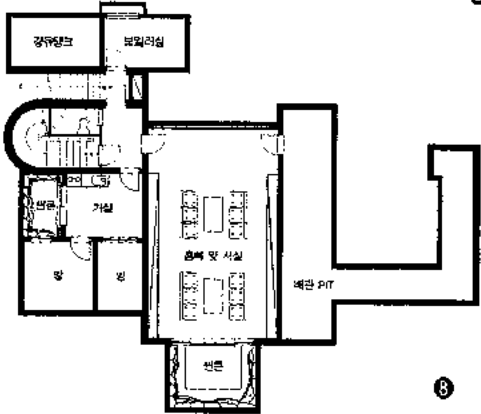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Deuk-Soo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대지면적 / 1,496.0㎡
 건축면적 / 185.76㎡
 연면적 / 409.61㎡
 외부미감 / J.M붉은 벽돌 + 천연슬레이트



- ① 전면 전경
- ② 원경
- ③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④ 측면전경
- ⑤ 거실에서 본 식당
- ⑥ 거실 전경
- ⑦ 2층 연결계단
- ⑧ 지하층 평면도
- ⑨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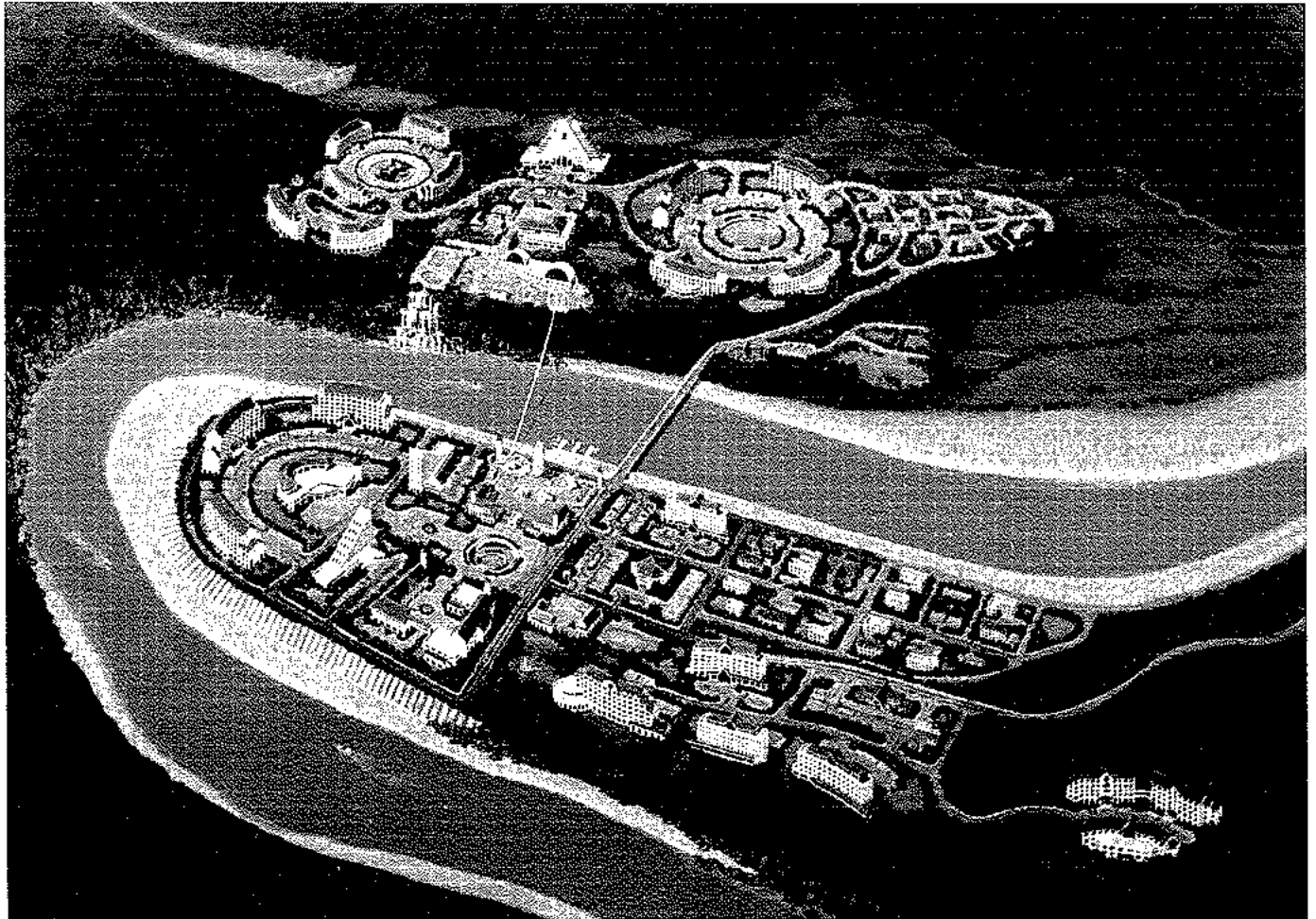
홍천온천 개발 계획

Hongchun Spring Resort Complex Plan

(주)동영건축+정덕훈 / (주) 청전건축

Designed by Jung, Duck-Hoon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9인지 일대
 대지면적 / 370,630㎡
 연면적 / 523,350㎡
 기계설비 / 삼우기연사
 전기설비 / 우림건설터팅
 토 목 / 서일종합설계공사
 조 경 / 가나 조정



①

우린 변화를 느끼는 시간속에 서있다.
 2년여에 걸친 지루한 국토개발의 법적인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게 된 홍천온천 관광단지는 인간과 자연의 만남이라는 계획의 전체아래, 산천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품게되는 그런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계획초기 6만여평의 대지에서 출발한 개발계획은 개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총 11만여평의 대지에 A.B단지로 구분되어 숙박·위락·휴양·운동오락·교육·상가·공공시설등 연면적 16만여평의 이용형태를 갖추어 넉넉한 웃음이 있는 삶

의 공간을 마련하고, 건전한 국민레저문화를 유도하게 될 본 관광단지는 총 4단계 사업으로 시행되어 95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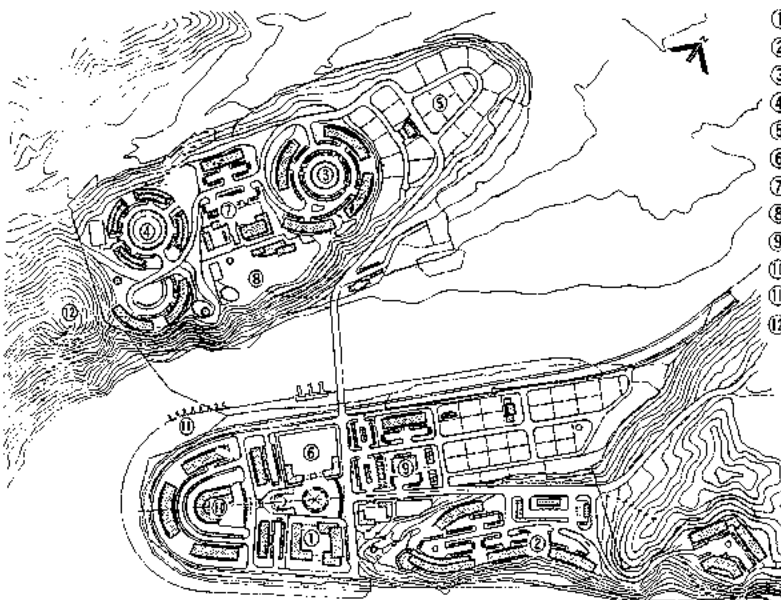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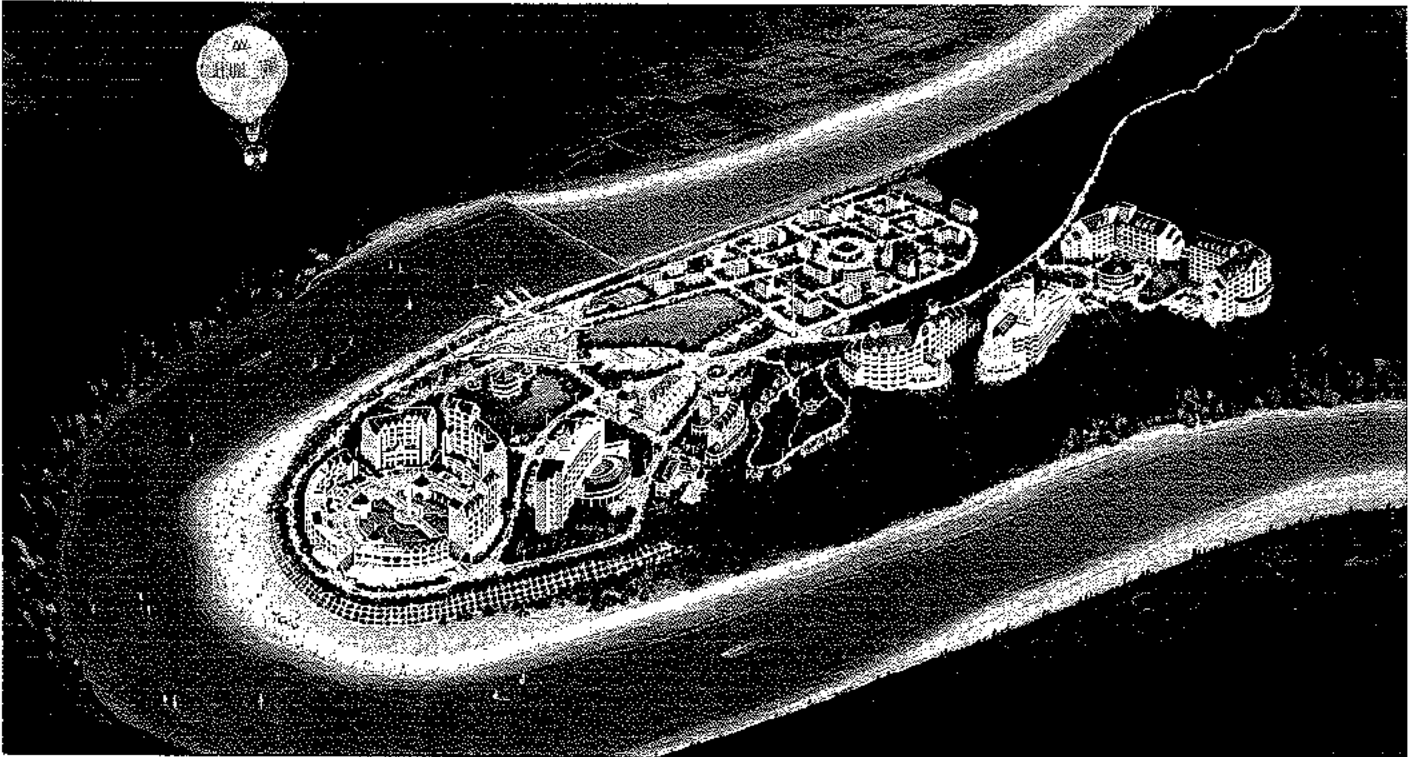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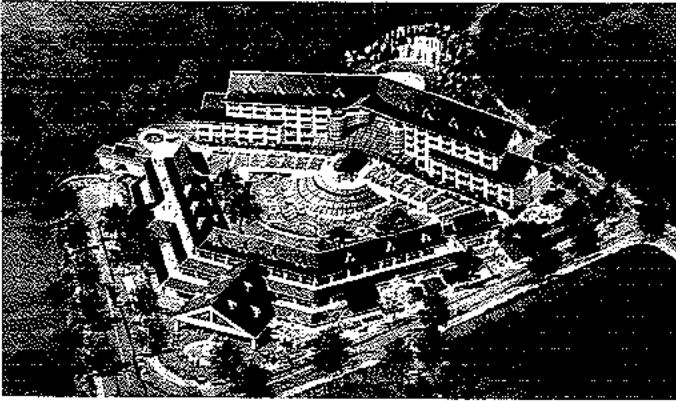
●입지 환경

본 계획 대상지는 서울-춘천간 국도 5호선과 지방도로에 의해 접근되며, 전국5대 관광권 중 중부관광권에 속하는 춘천관광권으로서 수도권권과 실악권의 연계관광권으로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홍천강변의 수려한 자연적 특성과 주변의 문화적 유물과 함께 온천이라는 특색있는 자원을 가미함으로써 다양하고 양질의 레저문화가 기대된다.

●배치 계획

홍천강이라는 자연적 요소에 의해 A단지와 B단지로 구분되어있는 개발단지는 탐방객의 이용과 단지관리상 공공시설로 단지의 중심부에 진입도로와 내부동선의 분기점에 배치하고, 위락 및 운동 오락시설을 연계배치하여 이용객의 흐름을 유도하고, 관광의 주된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한다. 단지의 중심부로부터 전이공간에 의해 분리되는 휴양 숙박시설은 정적인 공간속에서 사인과 호흡할 수 있게 배치되었다. 그리고 교육 및 청소년수련원은 기능의 성격상 단지의 외곽에 배치하였다.

- ① 최종안 마스터플랜 투시도
- ② 관광호텔 계획안
- ③ 콘도미니엄계획안 (B형) 투시도
- ④ 초기안 마스터플랜투시도
- ⑤ 최종안 마스터 플랜 배치도



- ① 관광호텔
- ② 일반호텔
- ③ 콘도미니엄
- ④ 실버스텔
- ⑤ 여관단지
- ⑥ 연수원
- ⑦ 종합상가
- ⑧ 유키시설
- ⑨ 스포츠센터
- ⑩ 종합위락시설
- ⑪ 수변시설 (마리나)
- ⑫ 기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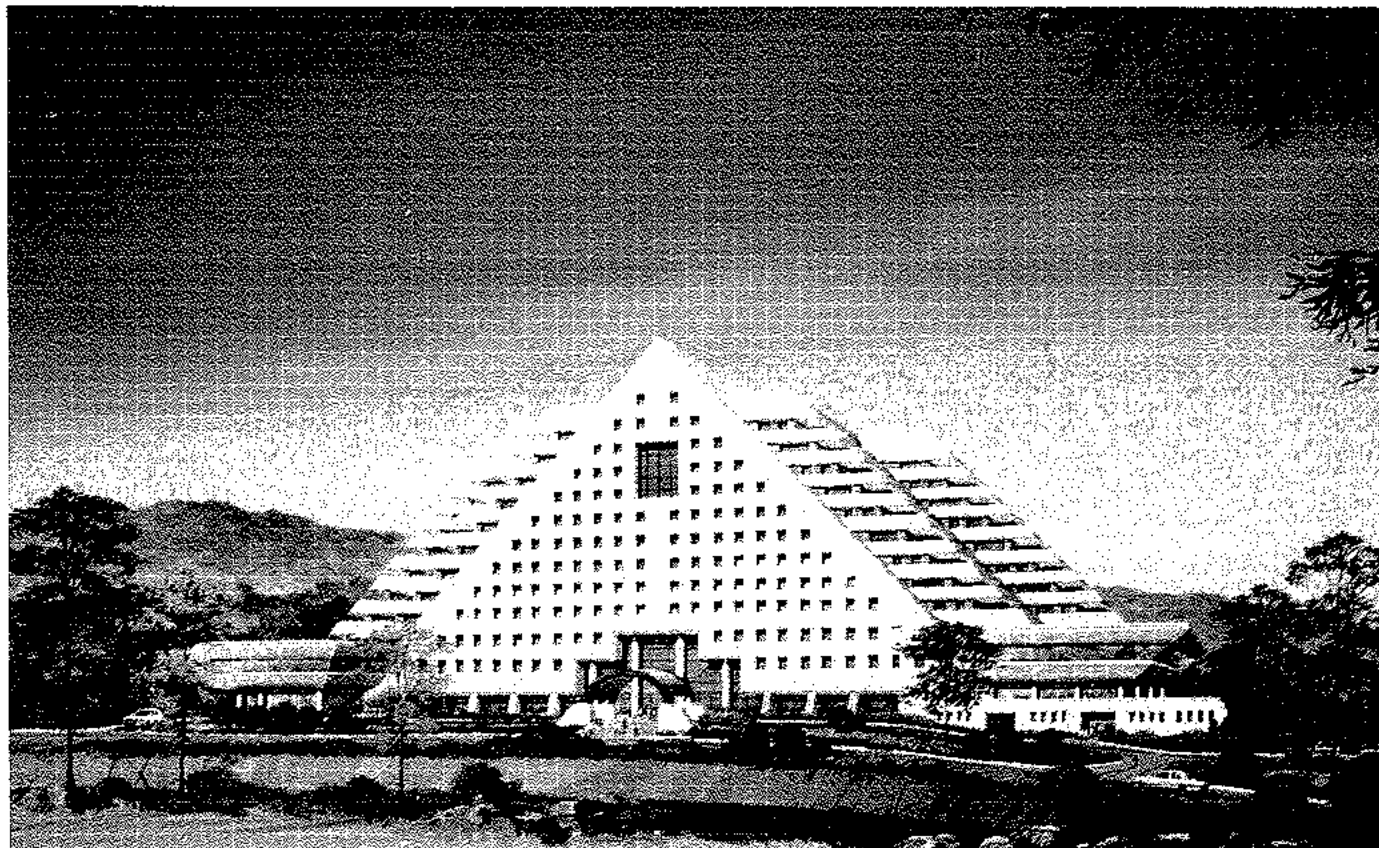
•동선 계획

진입로는 서울-춘천간 국도5호선에서 분기되어 지방도로를 이용하며, 12m의 단지내 주도로에서 지구내 간선도로를 통하여 각 시설물로 접근시켜 원활한 동선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보차동선을 이용하여 지구내 간 공간의 분리 및 연계를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산책로는 강변과 구릉지를 이용하여 사색의 공간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조경 계획

각 시설별 (5개시설-숙박·휴양·상가·운동오락·공공시설)로 특성을 부여하여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자연조경 소재위주로 성격을 배분하였고, 지역특성에 따른 향토 수종식재로 형태, 색채변화, 계절변화를 고려하였으며, 각시설물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의 수목군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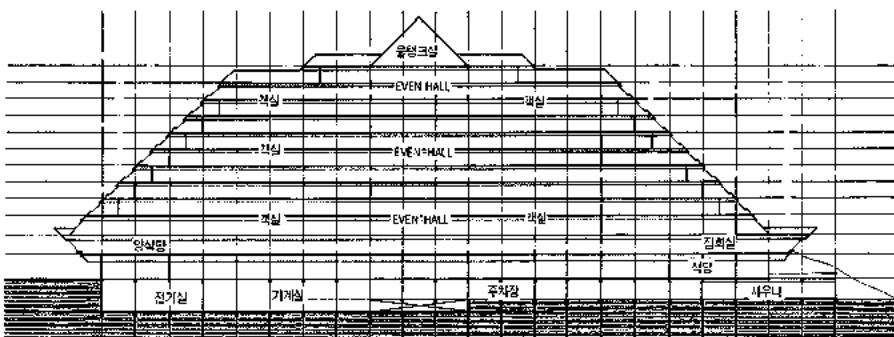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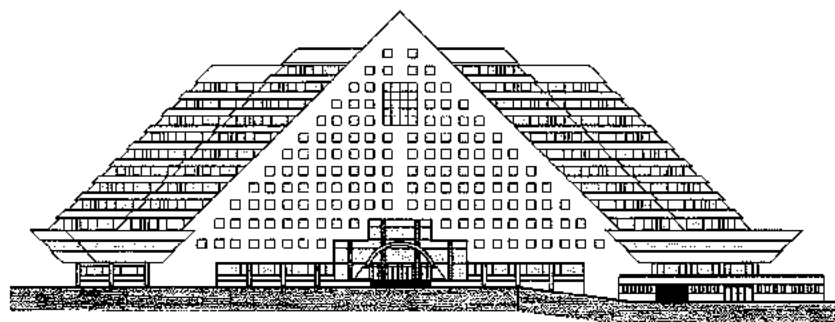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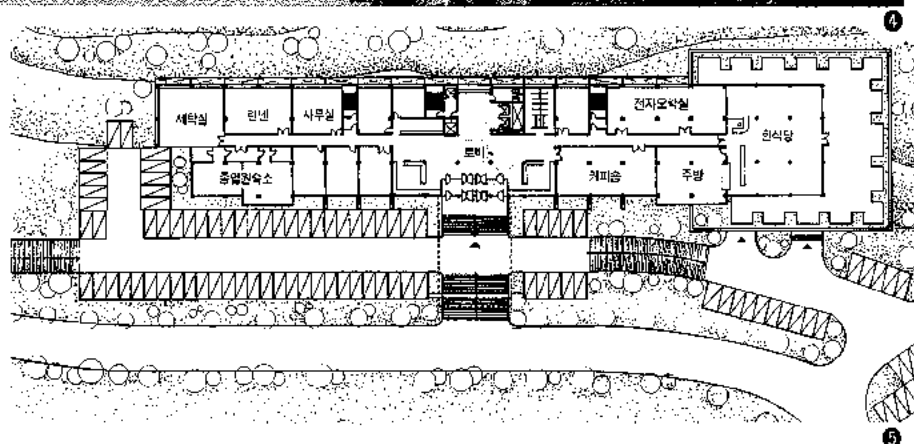


홍천온천 콘도미니엄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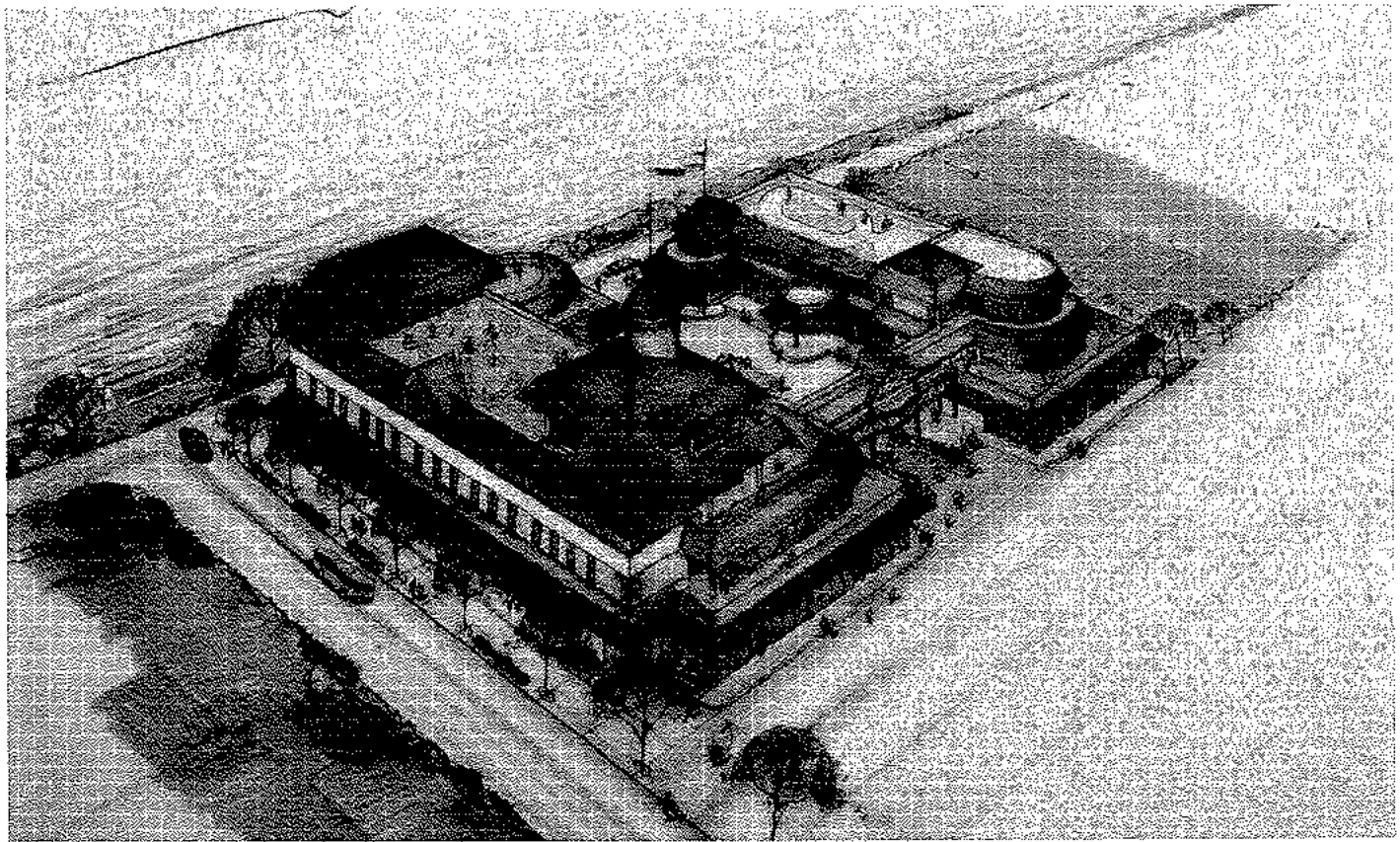
위치 / 홍천온천 관광단지내
 지역·지구 /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지역
 대지면적 / 약8,500㎡
 건축면적 / 3,120㎡
 연면적 / 23,643㎡
 건폐율 / 36.70%
 용적률 / 244.89%
 규 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옥탑 1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호텔과 아파트의 장점을 발해하여 가족 혹은 4~6인 정도의 숙박과 취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양숙박시설로 정의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을 홍천온천관광단지의 개발과 병행하여 계획하게 되었다.

대지가 주는 강한 인상(대지의 주변을 홍천강이 둘러싸고, 강 건너편 기암괴석의 절벽을 형성)을 받고 발걸음을 멈춘 그곳엔 이미 황색 돌트레이싱지가 깔리고 있었다. 삼각형의 안정감속에서 역삼각형을 이용한 메스의 결합을 휴양숙박시설의 다양한 경험을 입면의 형태감에 부여하고, 공용부분과 객실부분의 효율적인 연결로 내부기능을 충족시킴으로써, 이제 그곳엔 어린아이의 웃음이 있고 자연의 넉넉함이 어우러지는 조용한 레저시설이 홍천강을 따라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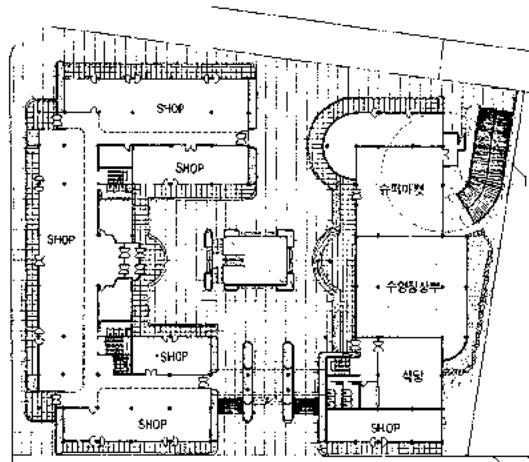
- ④ 콘도미니엄 (A형) 부시도
- ⑤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⑥ 입면도
- ⑦ 단면도



8

홍천온천 종합상가 및 온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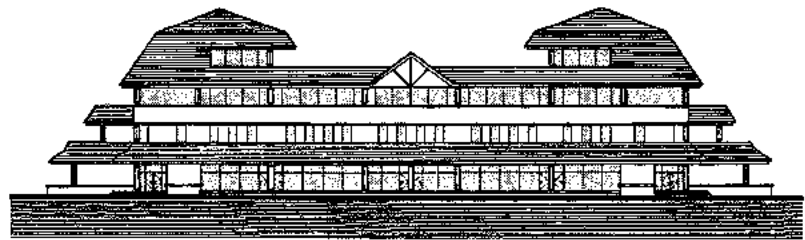
위치 / 홍천온천 관광단지내
 대지면적 / 7,408㎡
 건축면적 / 3,272㎡
 연면적 / 22,010㎡
 건폐율 / 44.17%
 용적률 / 96.02%
 규 모 / 지하 3층, 지상 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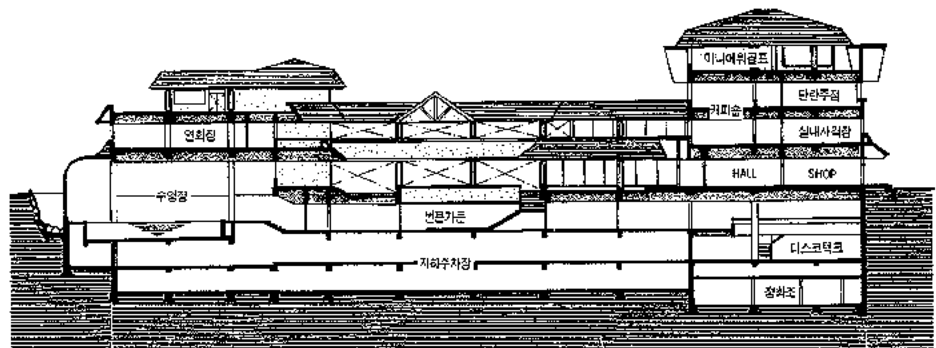
9

흐르는 홍천강을 마주보며 일상의 생활에서 떠나 휴식을 취하고 쇼핑을 즐길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홍천온천 종합상가 및 온천장은 시작되었다.

풍부한 전망과 햇살이 넘치는 대지의 남쪽에는 휴식공간을 배치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행위들이 일어나는 북쪽에는 쇼핑공간을 두어 성격이 다른 많은 기능들이 중정을 중심으로 서로 어우러져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건물군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제 홍천강과 단지내 광장으로 둘러싸인 좋은 자연적조건은 제대로 건축된 공간을 찾으려는 크라이언트와 건축가의 만남을 통해 굳이 그자리에 그 모습이어야 할 건물의 형상을 곧 현실로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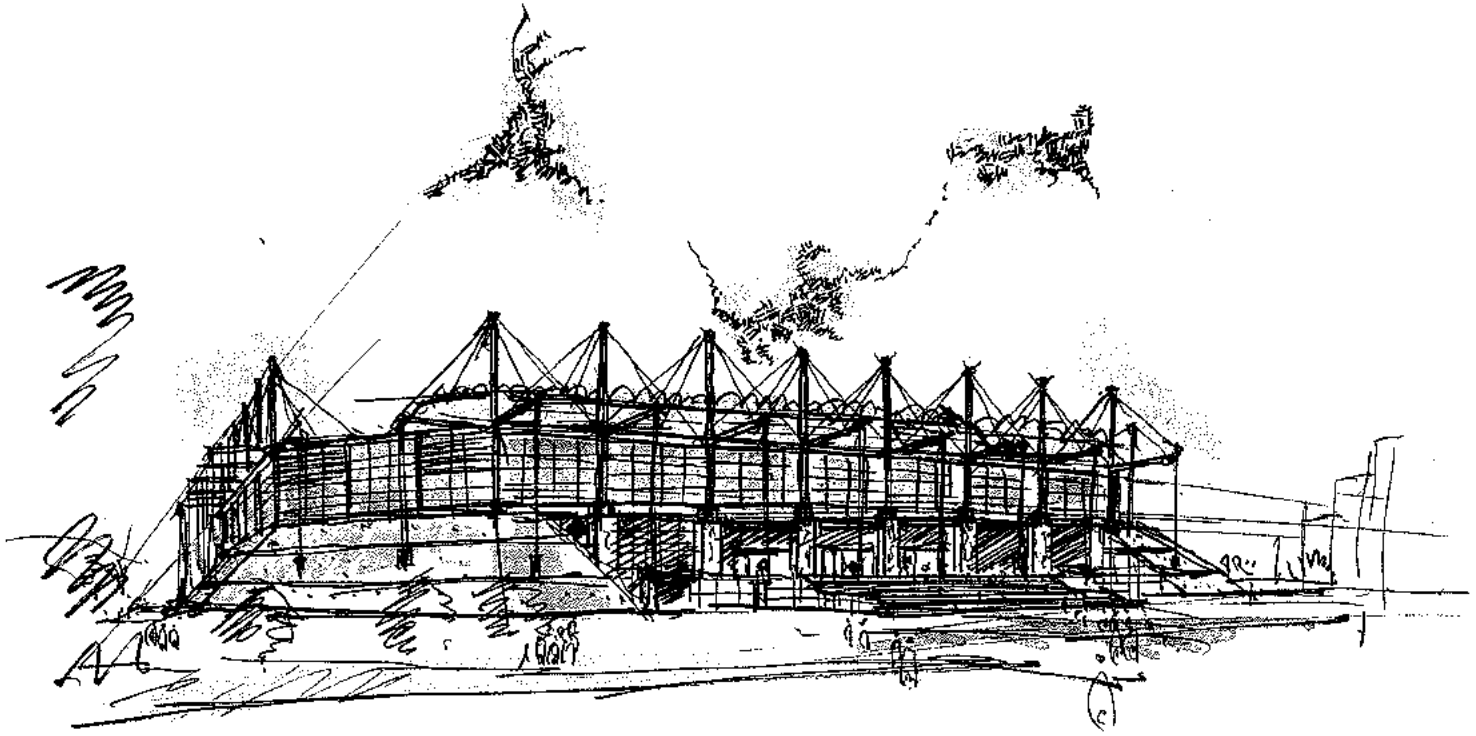
11

- ⑧ 종합상가 및 온천장 개념 스케치
- ⑨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 ⑩ 입면도
- ⑪ 단면도

경주실내체육관

Kyongju Indoor Gymnasium

閔泳浩 / 소리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in, Young -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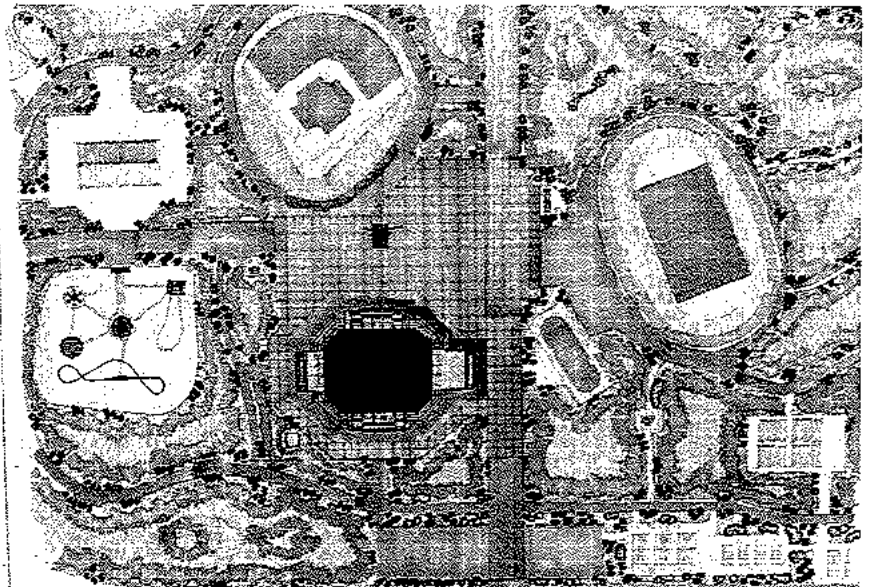
이 경주실내 체육관 계획안은 몇개의 체육관 Sketch중의 하나로 현상공모의 벽을 뚫고 빛을 보게된 것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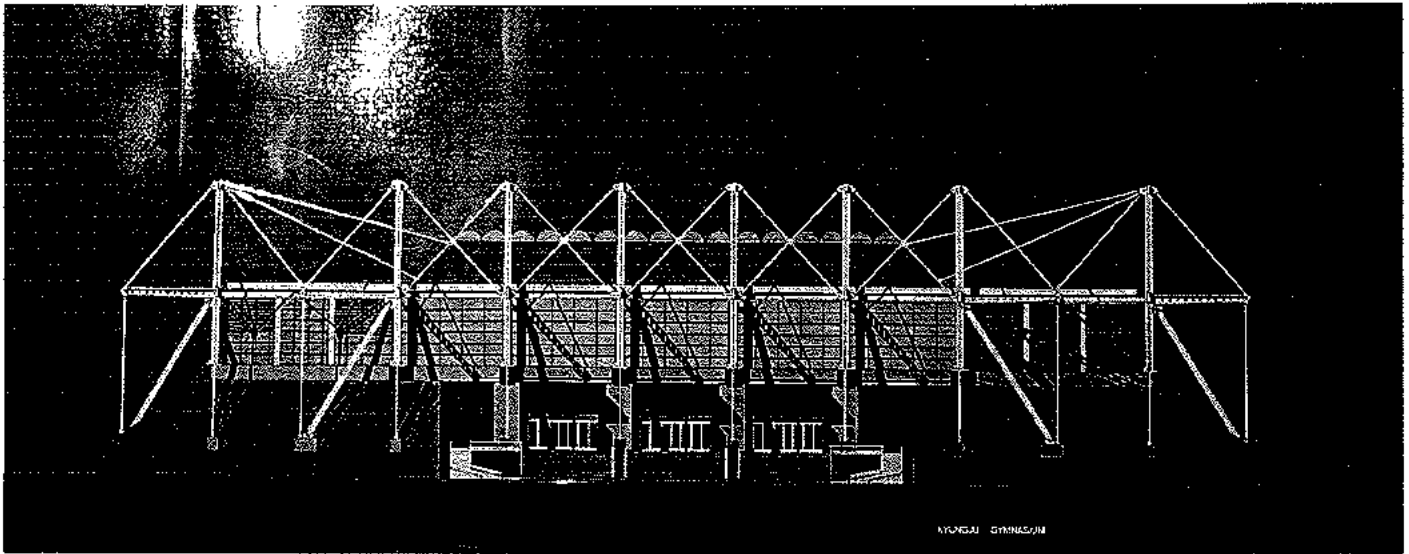
전통과 현대 그리고 체육관이라는 구조적 건축, 그 위에다 많은 고민의 쓰레가를 만들었던 결과라 더욱 애착이 가는 것이며 고도라는 경주의 체질적 사고는 자못 길긴것이어서 이 High Tech 하다고들 말하는 계획안과 끈질지게 투쟁을 했던터라 더 깊은 애정을 갖게 한다.

당선작 발표가 취소될뻔 했다. 이 Sketch가 현실로 나타나 준공되는 95년에 또한번의 평가가 내려 질것이며 그 평가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develop을 하고 있는 우리 만큼이나 경주도 초현대적 감각으로 도시를 조화롭게 더욱 고풍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파리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새해에 꼬르뷰제의 말을 다시한번 되새긴다.

진지한 건축가라면 경멸할만한 과거의 노예근성으로 부터 자유로와짐을 중기전에서 발견하게 될것이다.





본도는 체육장
 건축을 계획함
 이 계획은 1931년에
 성립 시에 주로 본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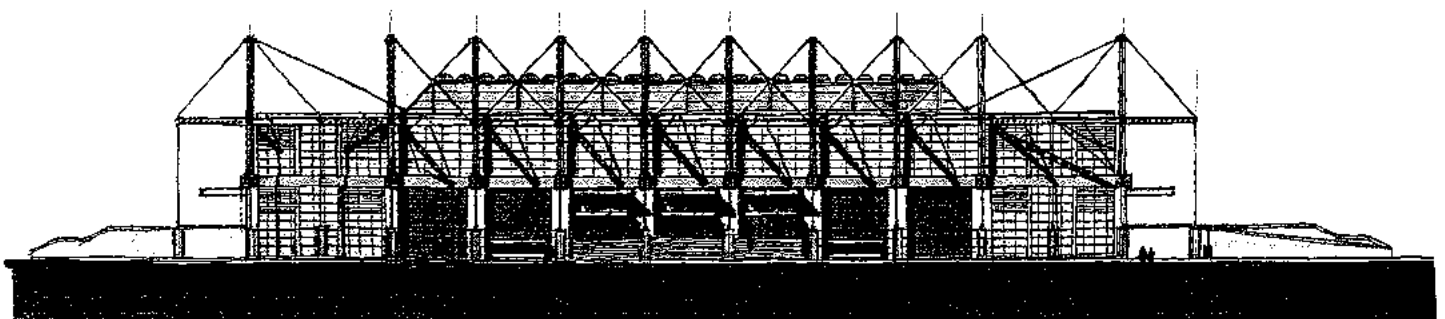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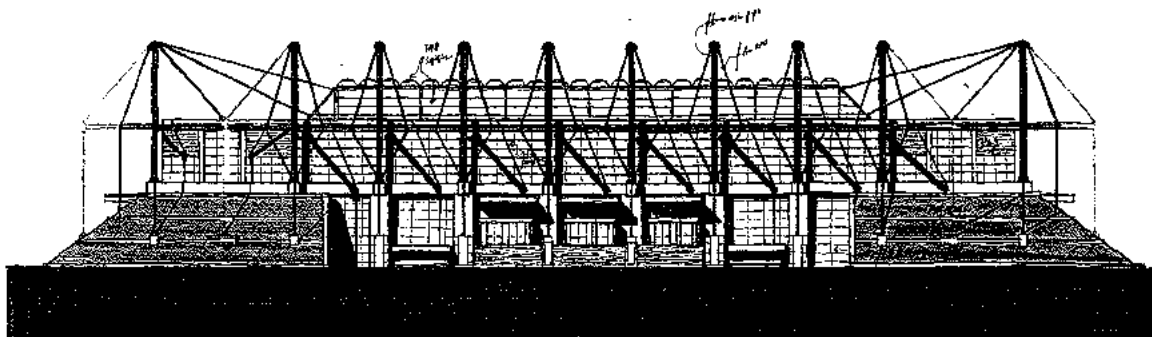
구체적 계획은
 1932년에 완성함
 이 계획은 본래의
 계획에 주안점을 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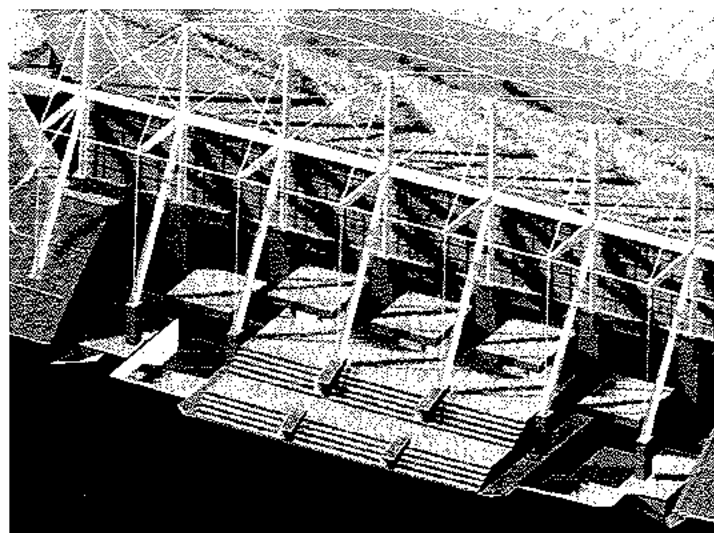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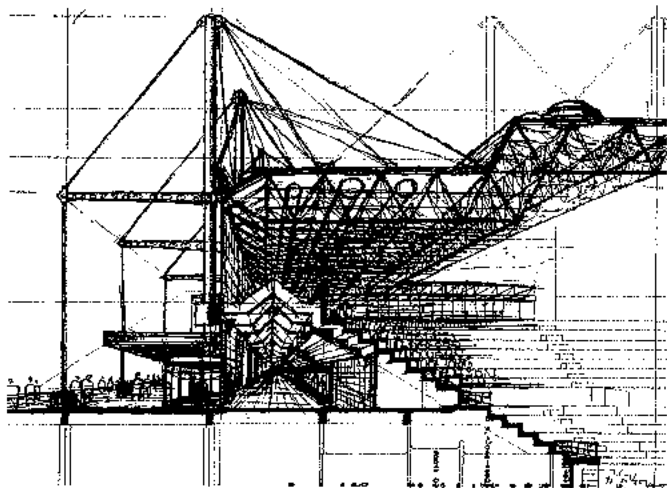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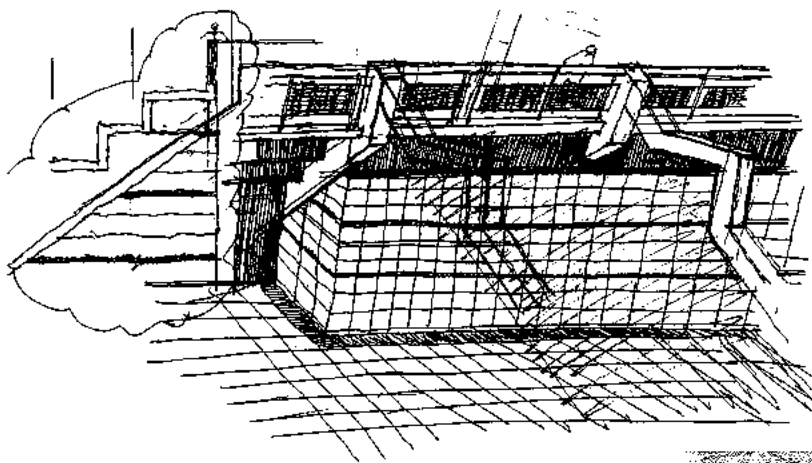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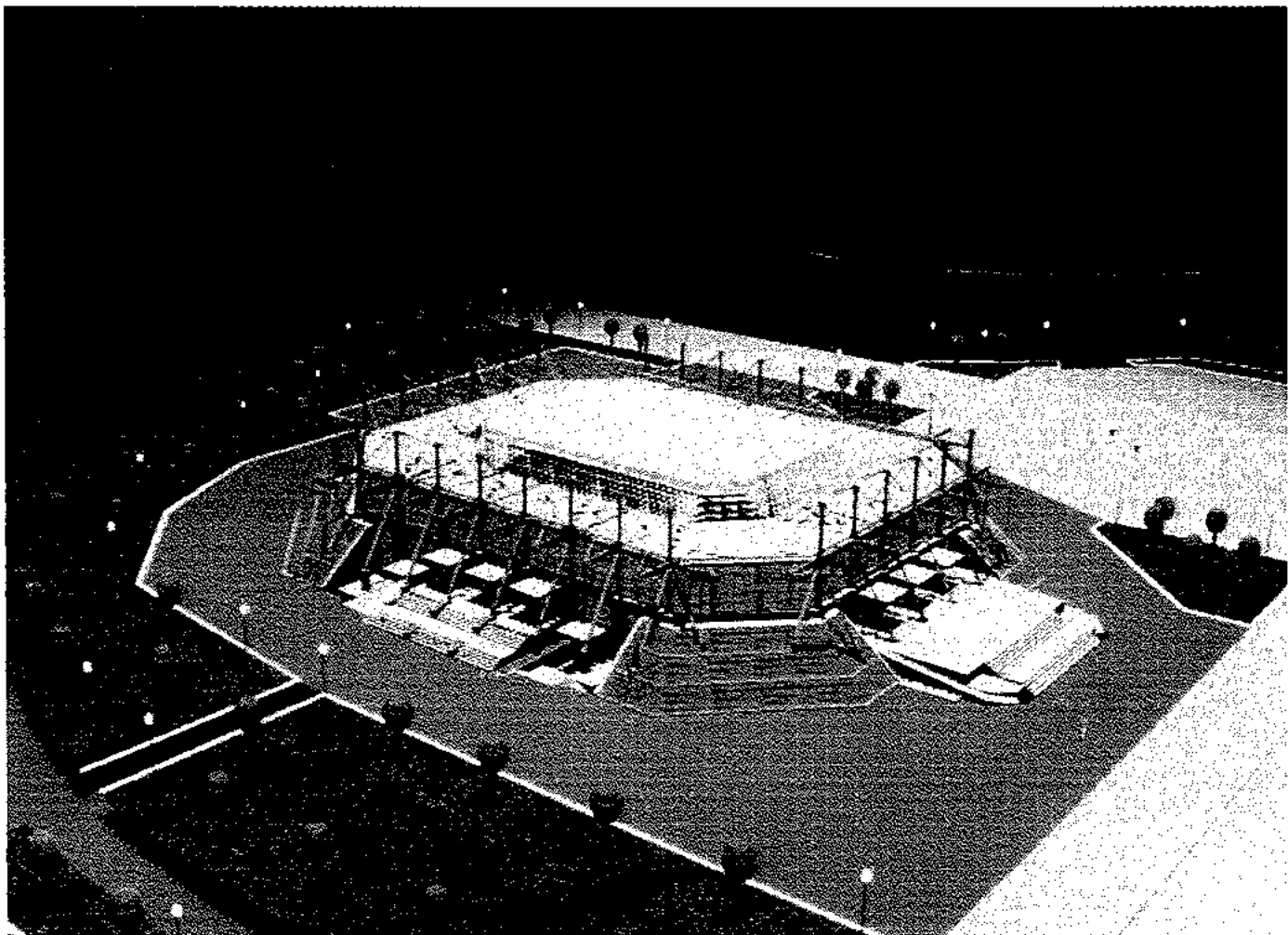
본래의 구상대로
 건축을 계획함
 이 계획은 본래의
 계획에 주안점을 두어

본래의 구상대로
 건축을 계획함
 이 계획은 본래의
 계획에 주안점을 두어

본래의 구상대로
 건축을 계획함
 이 계획은 본래의
 계획에 주안점을 두어

<본래의 구상> - David Wilson -





新年斷想

Fragmentary Thoughts of the New Year

金自浩 / (주)간·삼중합건축사사무소

by Kim, Ja-Ho

매년 돌아오는 망년과 새해를 맞이하며 항상 새로운 뜻과 희망과 포부를 가져보았지만 매년 결과는 언제나 똑같은 것 같다. 금년에 만은 하고 결심하였던 것이 5/10만이라도 성취하였다면 만족하였다고 느껴졌으리라!

요즘 혼한말로 몇장수 마음대로 꿈도 못꾸나 하는 식으로 많은 뜻과 포부의 희망사항은 자기계획대로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여기에는 조건이라는 것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회적인 현실, 정치적인 현황, 문화적인 시대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는 반비례하는 것 같다.

바로 지난해만도 그렇다.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자재품귀로 경제정책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모든 건축설계의 인·허가 규제가 있었고, 14대 대통령선거의 당선자가 어느 누구가 당선 될 것인가에 따른 불안과 눈치로 공직자는 물론 재벌기업,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까지도 줄줄이 사탕으로 모든 중요한 계획은 93년으로 미루어지고 또 새로운 정부에 맡겨지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가 알게 모르게 관계되는 국민 각각의 개인에게는 엄청난 계획 차질과 피해가 따르게 되었다.

얼마전에 모월간지에 게재된 칼럼 한편을 재미있게 읽었다.

내용인즉, 젊은청년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등교육까지 받고는 무의도식하다가 아무런 연고도 계획도 없이 무작정 서울에 상경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건설현장의 막노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대로 현장을 다니며 무리하게 고생을 하고는 도저히 서울에서 견딜 수 없어 이번에는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돈벌이가 될수있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하였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할 바에야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부자고 잘산다고 하니 그곳이라도 건너가 돈을 벌어보려고 결심하고는 무조건 부산으로 가서 돈을 주고 여권을 만든 후 15일짜리 관광 Viza를 받은다음 해리편으로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다.

그리고는 3개월동안 불법체류를 하면서 막노동을 하여 돈도 벌고 여행도 즐기기는 결국 불법체류자로 벌금내고 강제귀국하였다.

이 청년이 일본서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기고한 글이었는데 그 청년이 느낀 결론이 참으로 재미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단 한가지점이 다른데 이웃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회 전체의 체제가 되는 일은 되고 안되는 일은 절대로 죽어도 안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되는 일도 어떤때는 안되고 안되는 일도 어떤때는 되더라는 것이다. 라고 써어 있었다.

무심코 읽고나면 재미있게만 느껴졌겠지만 이 청년의 관찰력이란 대단한 것이라고 느껴졌다.

현재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은 과거보다 물론 경제성장도 하고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자부아닌 자부를 하면서 지내는지는 몰라도 사회전반에는 기본적인 원칙을 모두 잊고 있는것 같다.

과거 우리는 30여년 동안 군사문화의 배려아닌 영향에서 기본적인 질서가 모두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나 자신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대처하여 생활하고 있었지만 매우 부끄럽게 생각되어진다.

한 예를 들면 우리는 질서의식(사물의 조리 순서를 깨닫는 일절의 작용)에 대하여 무관심 무심경해졌다.

한 사회에는 일반적인 관습과 관례가 있고 다만 그것이 체계화된 시행령과 법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헌법이라는 기본법이 있고 헌법위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체계가 모두 엉망이 되어 버렸다.

이씨조선 시대의 사회생활에서는 삼강오륜은 절대적이었다.

유교·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삼강과 오륜은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요구되는 도덕적인 항목이다.

삼강은 군신과 부자와 부부의 관계에서 아래사람은 위사람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인은 남편을 섬긴다. 또한 아래사람과 위사람과의 의리(義), 이들과 아버지간의 친숙함(親), 부부사이의 다름(別),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차례순서(序), 친구지간의 믿음(信)이 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헌법보다도 법보다도 더 위에 존재하는 도덕적인 질서이다. 이러한 도덕적인 질서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질서가 있다.

“

설계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모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고 항상 진취적인 자세에서 첨단을 걸어야하는 집단이 우리 자신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우리 자신이 무질서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1993년부터는 건축 3단체는 물론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야도 새로운 각오로 개혁을 하고 반성하여야 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이전에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건축행정업무의 개선과 이를위한 법적인 뒷받침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허가행정 업무도 법의 질서속에 의한 건축설계도서의 확인신청만으로도 충분히 가름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 자신이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예를 들면 교통의 질서 여기에도 교통법시행령이 있고 법이 있다. 차선을 지킨다든지 속도를 위반하지 않는다든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없는 장소가 있고 신호등에 의하여 정차와 출발이 있듯이 모두 질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질서도 엉망이지만 특히나 우리들의 생활수단으로 영유하고 있는 건축계의 질서는 왜 이다지도 남들 눈에 돌보이게 질서의식이 없는지 모르겠다.

우선 관공서의 인·허가 문제를 들어보자. 건축허가신청은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민원서류이다.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게 하여 주듯이 허가부서에서도 기본법에 준하는 것을 올바르게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왜 그다지도 무슨 심의라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

수도권정비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국토심의 등 때때로 일관성있는 질서 속에서 처리되는 것은 극소수인 것 같다.

또 방침과 지시사항 체크사항은 법에도 없는 것이 왜그리도 많은지 이것도 담당자와 상위 책임자간의 의견도 다르다.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야말로 몇장수 마음대로이다. 시시각각 부지런히 판정출입을 하지 않으면 작품에 대한 설계는 커녕 행정처리하기에 무수한 시간이 소비된다.

대규모 건축물을 행정처리 하려면 수도권정비심의의 뭐다 1년이상을 쫓아다녀야 한다. 이에 당달아 건축주 또한 설계사무소 능력을 이러한 대판청업무능력으로 평가하는 수가 많아졌다.

심의를 한번 통과하고나면 다른심의에서 또다른 의견이 제시된다. 설계자는 어느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판청의 일하는 분들도 속상하실거다. 그때 그때마다 본인들의 권위와 근시안적인 처리방법이 고쳐져야만 하겠다. 허가를 득하고나면 건설시공과정에서도 기초중간점사다 단열제점사다 수없는 검사가 행하여진다.

건축물이 완성되면 준공검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얼마전 30여개월 걸쳐 완공단계에 있는 현장에서 난리가 났다.

어느 거북하신분이 출퇴근하는 거리에 그건물이 있었다. 출근하시면서 즉흥적으로 본 1층부분의 화단이 높아보였던 모양이다. 출근하여 관계자에게 그건물 화단이 왜 높으냐고 질문만 한것이 화근이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담당자는 현장에 나와 무조건 낮게 부수라는 것이다. 말도 안된다. 건물 건축설계시에도 논란이 되었고 무엇이 심의과정에서도 조정이 된 시안을 살리고 일주일만에 없었던 일로 되고 말았다. 여기에 장단맞추어 건축주 말씀이 그것도 해결못하느냐고 설계사무소 무능력만 평가받게 되었다. 이러한 웃지못할 행위가 모두 허가관청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사리사욕의 욕심만 부리는 건축주에게도 많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것은 못하겠느냐는 생각에서 사회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또한 이에 대한 설득은 제대로 못하고 지내는 설계사무소 역시 불쌍하다. 모든 것이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에서 행하여졌던 군사문화의 산물인지도 모르겠다.

설계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고 항상 진취적인 자세에서 첨단을 걸어야 하는 집단이 우리 자신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우리 자신이 무질서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1993년부터는 건축 3단체는 물론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야도 새로운 각오로 개혁을 하고 반성하여야 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이전에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건축행정업무의 개선과 이를위한 법적인 뒷받침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허가행정 업무도 법의 질서속에 의한 건축설계도서의 확인신청만으로도 충분히 가름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 자신이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0여년동안 일그러진 사회의 무질서를 어느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기때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는 2000년을 향한 90년대에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절대로 안되는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여야겠다.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Ⅳ)

A Methodological Study of the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Planning

REPORT

張順鏞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탐
by Jang, Soon-Yong

11. 입조계획과 처마구성

지역적인 기후특성과 위도에 따라서 채광과 환기, 또는 차광과 보온 등의 목적으로 최적의 건축환경을 만들어내는 건축역사의 과정에서 수많은 종류의 건축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한옥의 처마깊이와 한반도의 위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의 위도는 제주도 남쪽의 마라도에서 두만강 북단까지로 대략 북위 33°5'에서 42°30'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은 대략 북위 37°30'내외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의 중부권을 36°에서 38°사이로 본다면 중부권의 평균 위도는 37°라 하겠고, 이 위도에 해당하는 도시는 평택, 안성, 충주, 울진 등이 있다.

계산의 편의상 여기서는 북위 37°를 기준하여 서술한다. 하지때 태양이 남중하는 위도인 23°27'이 북회귀선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춘분과 추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적도에서는 90°이고 북극에서는 0°이므로 북위 37°의 남중고도는 90°에서 그지역의 위도를 제한 53°가 된다. 하지에는 북위 23°27'의 남중고도가 90°이고 북극에서는 23°27'이므로 북위 37°의 남중고도는 춘추분의 남중고도보다 23°27'이 큰 76°27'이 되며, 동지에는 32°33'이 남중고도가 된다. 따라서 하지와 동지의 남중고도의 차이는 43°54'으로 45°에 가까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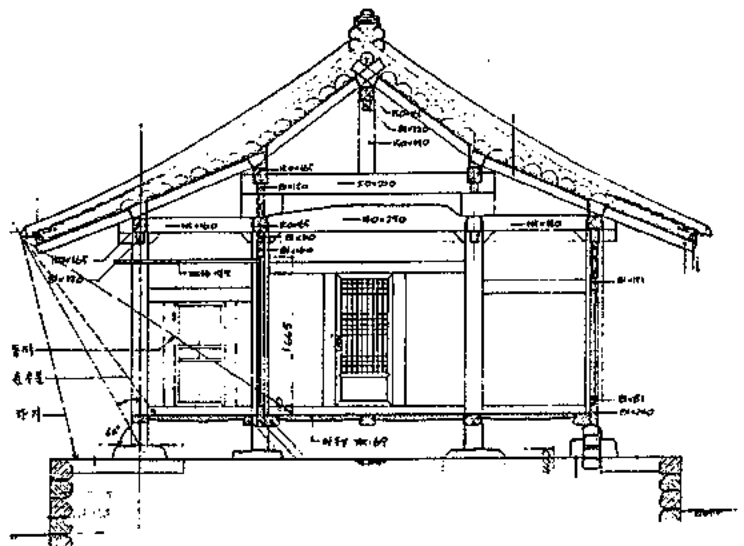
한반도의 일반적인 기후특성은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북서풍의 한랭한 기후이므로 여름에는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높고, 겨울에는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여름에는 직사광선이 건물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반면에 겨울철에는 최대한으로 직사광선이 유입되도록 하며, 봄과 가을에는 중간정도가 되도록 처마깊이가

설정되는 것이다.

여러건물의 실측도면을 분석하여 보면 한옥에서는 기둥중심선의 주초석 상단부에서 처마끝을 연결한 직선의 양각은 대체적으로 60°내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치수개념으로 환산하여 보면 주초석 상단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8자라면 처마깊이는 약 4.6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루는 주초석 상단에서 1자 내외의 높이로 구성되므로 마루끝에서 처마끝까지의 양각은 57° 내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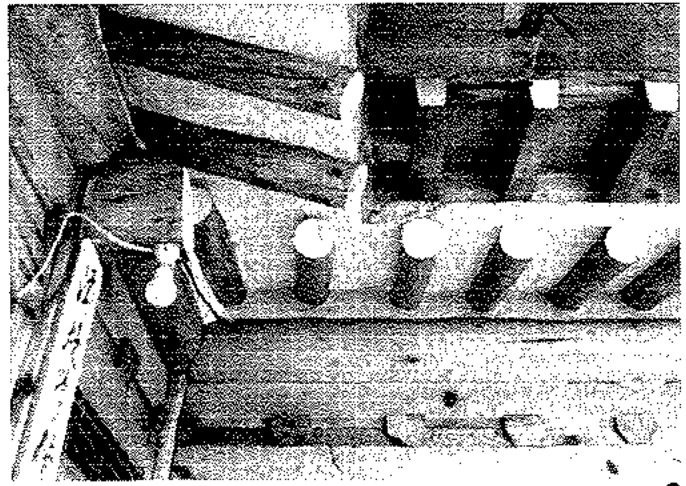
처마의 양각과 태양의 남중고도를 비교하면 하지의 정오에는 처마의 그늘이 마루 외부로 형성되며, 춘추분의 변화과정을 거쳐 동지에는 실내로 태양광선이 깊숙히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정오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므로 오전과 오후에는 태양의 고도가 정오보다 낮으므로





2



3

태양광선이 실내로 많이 유입되므로 채광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처마깊이라 하겠다.

위에서 처마높이가 8자 일 때 처마깊이는 4.6자로 계산되었는데, 처마깊이 중에서 6치 정도는 기와가 내밀어지고 있으므로 서까래가 형성하는 처마깊이는 4자 정도가 표준이라 하겠고, 이것은 한칸의 길이를 8자로 하였을 때 절반에 해당하므로 중도리의 배치와 서까래의 안팎길이가 균형되는 치수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설계시에 적용한다면 기둥중심선의 주초석 상단에서 양각 60°선에 처마끝이 위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기둥높이에 따라 처마깊이가 4자 내지 5자 정도가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둥이 높다고 하여 무작정 이 비례를 적용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편적인 예를 벗어날 경우에는 중도리의 위치라든가 서까래의 길이와 처마의 하중에 대한 구조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한편, 처마깊이가 4.6자이면 건물의 기반은 지붕의 낙수물이 떨어지는 안쪽에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기반의 폭이 처마깊이 보다 작아야 하고, 따라서 보통 4자 이내로 기반의 폭이 제한되는 이유가 된다.

서까래의 직경은 3.5치 내지 7치의 범위로 사용되며 주택에서는 보편적으로 4치에서 5치가 많이 사용된다. 서까래의 배치 간격은 1자 정도가 되나 서까래의 직경에 따라, 또한 지역의 목재조달 형편에 따라 가감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서까래 간격이 1자인 것은 기와의 폭이 1자인 것과 연결되며, 또한 서까래 사이로 앙토하고 회반죽으로 미장할 때 흠손질이 가능한 간격이며 아울러 앙토한 미장바름이 내구성을 갖는 적당한 간격이 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회지의 한옥에서의 처마의 구성에서 부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연사용의 미적효과외에는 구조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장대한 처마서까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처마를 깊게 만들려는 의도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부연의 서까래 위는 못으로 고정되며 단면의 형태는 변의 비례가 2 : 3, 또는 3 : 4 정도인 직각사각형이 된다. 부연의 굵은 서까래 직경의 2/3정도가 사용되므로 직경 4치의 서까래에 부연의 단면은 높이 2.7 내지 3치에 폭은 2치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한옥에서는 부연은 서까래의 직경보다 작은 단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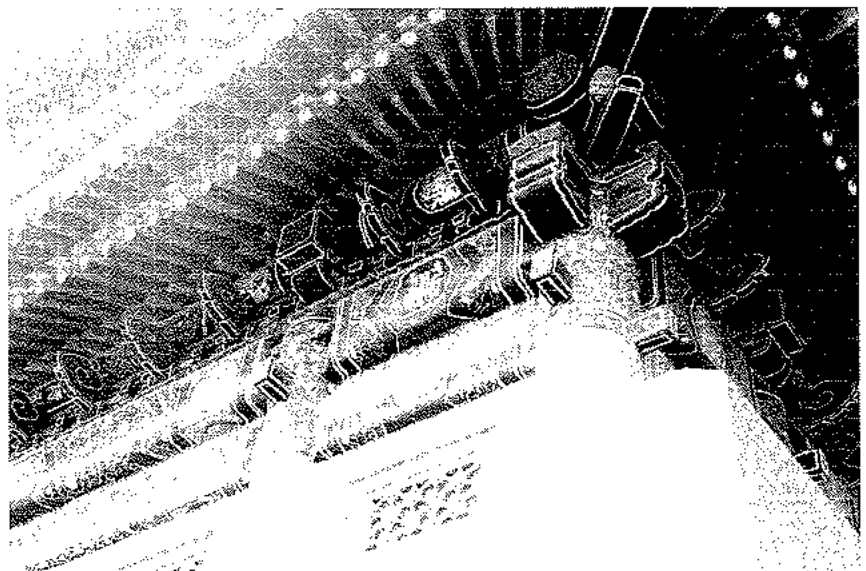
사용하고 있기에 한옥에 눈이 익은 사람의 눈으로 중국의 건물을 볼때에 중국건축의 처마가 둔중하게 보이는 이유중에는 중국에서는 서까래의 직경과 부연의 밑변이 같은 치수로 구성된다는 차이점에도 기인한다고 하겠다.

처마의 구성에서 부연이 사용될 경우에는 서까래와 부연이 노출되는 비례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여러 건물의 통계적인 분석에 의하면 주택에서는 통상적으로 처마깊이의 2/3는 서까래이고 1/3은 부연이 차지하게 되는데 서까래의 길이는 2/3보다 약간 길게 되는 경향이 있다. 아첨은 설계시에는 처마깊이를 수평길이로 치수계획을 하지만 시공시에는 서까래의 실제 길이를 척수로 맞추어 설치하므로 서까래 실장이 척수로 정리되면서 생겨나는 편차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처마깊이가 4자일 경우에 서까래는 2.7자에 부연이 1.3자 정도로 형성되는 것이다. (사진②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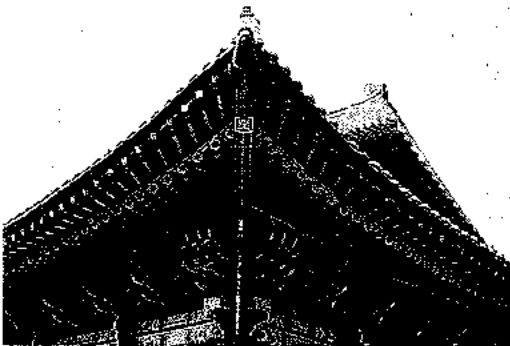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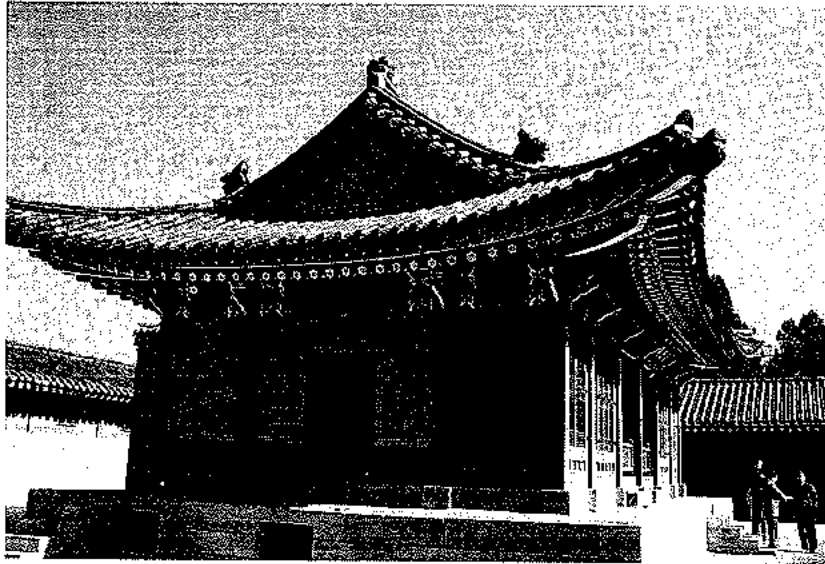
그러나 처마깊이가 커질수록 서까래가 깊어지는 비례를 보이고 있어 경복궁 경희루에서는 처마깊이 11자에 부연이 3자이고 서까래가 8자로 구성되어 3 : 8의 비례가 사용되고 있다.

부연의 물매는 서까래보다 낮게 잡으며 처마 서까래의 물매가 4치물매로 사용되면 부연은 2.5치 내지 3치 물매가 사용되어 동일한 처마깊이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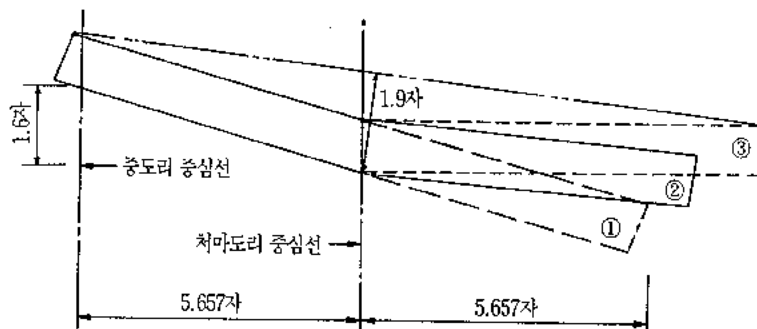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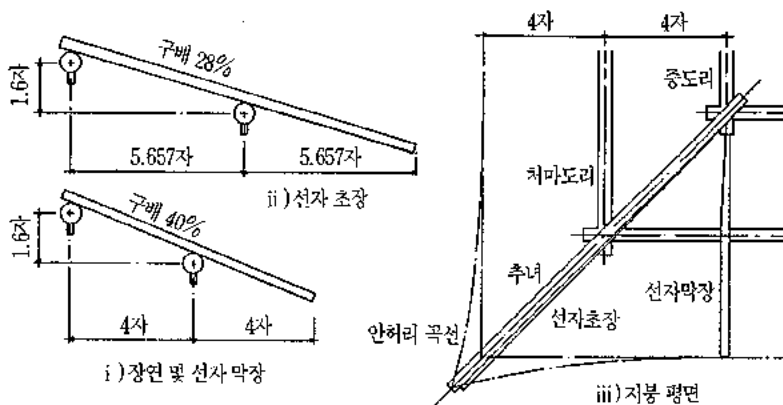
- ① 계절별 정오때 처마 그들의 위치
- ② 서울 효자동 주택 : 부연과 서까래의 비례
- ③ 서울 효자동 주택 : 부연과 서까래의 단면치수의 비례
- ④ 중국 북경 옹화궁 (雍和宮) 건물의 처마 : 부연의 밑변이 서까래의 직경과 같아 부연이 우람하게 보이고 선자의 배열이 등간격이어서 추녀쪽에서 선자가 촘촘히 배열된다.



4



- ⑤ 경복궁 만춘전 측면모습
처마곡선이 유연하다.
- ⑥ 경복궁 사정전 추녀와 선자
선자와 부연의 배열간격이
조화롭다.
- ⑦ 장연과 선자 초장의 구성
- ⑧ 추녀의 형상개념도



- ①은 암곡과 안허리가 없는 경우
- ②는 암곡과 안허리가 1자씩인 경우
- ③은 암곡과 안허리가 1.6자씩인 경우

서까래만 사용된 처마 (이것을 훌처마라 한다)보다는 부연이 사용된 겹처마는 처마끝이 높아진다. 따라서 태양의 고도와 관련한 처마깊이 구성에서는 겹처마일 경우에는 처마가 더 깊어져야 훌처마일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설계시에는 이점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측면길이가 커서 지붕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경우에 일면 비례상으로 지붕의 높이를 축소시키려 할 경우에 부연을 사용하면 시각적인 처마높이는 높아지고 동시에 지붕의 높이는 작아지는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지형의 경사가 심해서 건물의 전면에 높은 석축이 형성될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지붕의 높이는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훌처마로 계획하여 입면상의 균형을 취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12. 추녀의 구성

한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생각 하자면 추녀와 그주변에 부채살처럼 펼쳐진 선자서까래가 이루어 내는 곡선과 율동미의 조화를 손꼽을 수 있다. 반면에 목수의 일종에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또한 추녀부분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화의 특징적인 표현을 인용하자면 “여백 (餘白)의 미”라고도 하는데, 서양화에서는 화폭 전체에 색채로 채워지는 기법에 비하여 배경의 부분을 칠하지 않고 그대로 남긴채로 그림이 완성되는 차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알고 있다. 한옥에서도 이와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양건축에서처럼 정확하게 치수와 비례가 계산되어 구성하며, 새세한 부분에서도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는 방법에 비하면, 한옥에서는 원리적인 면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개성과 기술에 따라 변수가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시공상의 융통성 또는 적응성이 넓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한반도의 지리환경적인 특성과 그 토양에서 생장한 소나무가 갖는 재료적 특성과 이 땅에 살고있는 백성들의 심리적 특성이 어울려 일구어낸 지혜가 담긴 건축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인 비교로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그 특징과 개성을 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대화 되어가는 생활 환경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현대적인 보완방법이 연구되어야 하겠다.

추녀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같은 비유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추녀구성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목수의 계보와 지역과 시대적인 차이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구사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이점은 한옥을 주의깊게 접해보지 않으면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유심히 여러건물을 관찰하면 느껴질 수 있다. 마치 다같은 한국사람들이되 그 얼굴모습은 각각 다르다는 표현과 같은 상황이라 하겠다.

처마곡선의 구성은 추녀가 있음으로 생겨난다. 추녀가 없는 박공지붕에서는 곡선이 있되 추녀가 있는 건물에 비하면 직선적인 곡선인 것이다. 또한 중국의

건물과 일본의 건물에도 처마곡선의 감각에 차이가 있고,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한국의 처마곡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추녀의 구성을 평면도에서 보면 돌출되어 나오고 입면도에서는 솟아 오른다.

건축용어로는 추녀의 돌출된 상황 또는 평면도상의 처마곡선을 안허리라 하고 솟구친 상황을 앙곡(仰曲)이라 칭한다.

추녀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물의 규모와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앙곡과 안허리를 여하히 설정할 것인가이다.

처마곡선의 설정에는 다분히 심미적인 요소가 많고, 또한 목수들의 개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수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는 심히 곤란하다.

추녀의 곡선 설정에는 특히 건물의 측면길이가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측면이 짧은 건물에 정면위주로 추녀를 설정하면 측면에서는 처마곡선이 과도하게 휘어져야 하기 때문에 측면의 길이에 따라 추녀의 설정은 조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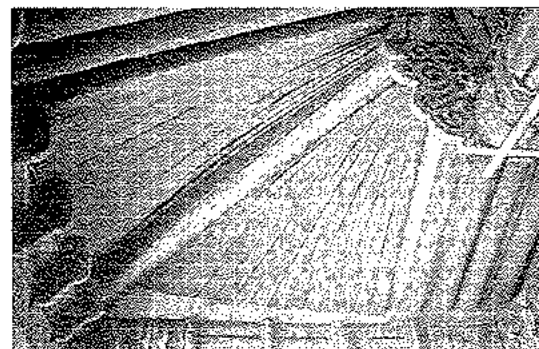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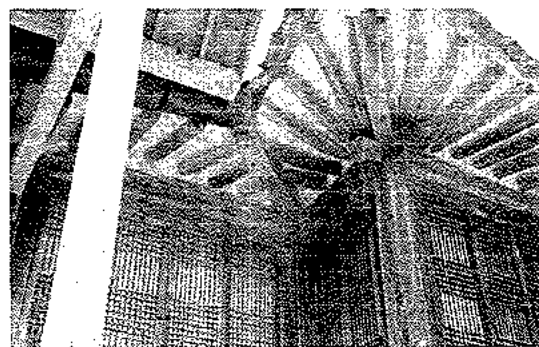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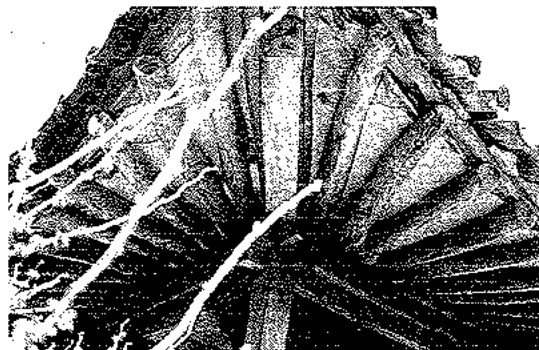
주택에서 처마곡선 설정의 수차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안허리와 앙곡은 각각 1자에서 3자의 범위에 있다고 하겠으며, 평균적으로는 한자반 내외로 설정되는 것이 보편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안허리와 앙곡이 동일한 치수로 설정되지만은 않는다. 이점을 이해하려면 선자서까래의 설치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여기에서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림 ⑦참조)와 같이 처마도리와 중도리의 수평간격이 4자에 서까래를 4치목매로 하면 중도리는 처마도리보다 1.6자 높게 구성되고, 처마깊이를 4자로 하면 장연의 실제길이는 약 8.6자에 좌우의 여분을 고려하면 9자 길이가 된다.

반면에 추녀부분에서는 도리의 높이차는 변함이 없고, 안허리와 앙곡이 없이 처마선이 수평으로 연속된다고 하면 추녀의 실장은 약 11.76자가 되고 좌우의 여분을 고려하면 최소 12자 길이는 되어야 한다. 여기에 안허리와 앙곡을 각각 1자로 잡으면 (그림 ⑧참조) 추녀의 최소길이는 13자가 되고, 추녀는 처마도리에서 꺾여지는 형상이 되어 추녀의 내측은 2.83치 물매가 되고, 외측은 0.85치 물매로 구성된다. 그리고 추녀의 춤을 1자로 보면 추녀가 꺾임으로 직선부재로 추녀를 가공한다면 추녀의 춤은 약 1.6자로 증대된다.

위의 계산에서 안허리는 그대로 두고 앙곡을 1.6자로 잡으면 추녀의 외측 밀변은 수평으로 형성된다. 다시 안허리와 앙곡을 각각 1.6자로 잡으면 그림에서와 같이 추녀의 전체길이는 약 14자로 되고 절곡부의 높이는 약 1.9자로 증대된다. 처마의 곡이 커서 절곡부의 높이가 심하게 커질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녀 밑으로 처마도리 부위에 알추녀(사진 ⑩참조)라 하는 별도의 부재를 놓고 그위에 추녀를 포개어 절곡부의 높이를 낮추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주택에서는 처마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알추녀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주택에서는 앙곡과 안허리를 각각 1.5자



내외로 설정하되 건물의 측면길이와 건물주위의 환경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가감되어야 한다.

안허리와 앙곡이 각각 1자라면 실제의 곡선은 45° 경사진 평면상에 $\sqrt{2}$ 배, 즉 약 1.4자의 높이차가 있는 곡선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이 곡선은 경사진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곡선이지만, 서까래의 끝을 연결하는 부재인 평고대가 갖고 있는 단면치수가 있고, 또한 시공과정에서는 기하학적인 완전한 처마곡선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처마곡선이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구성된 곡선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목수가 구사하는 기법의 원리로 보아서는 분명히 평면곡선이지만 시공상의 오차때문에 입체곡선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과, 기와 끝의 단속되는 곡선의 굴곡진 형상이 그 왜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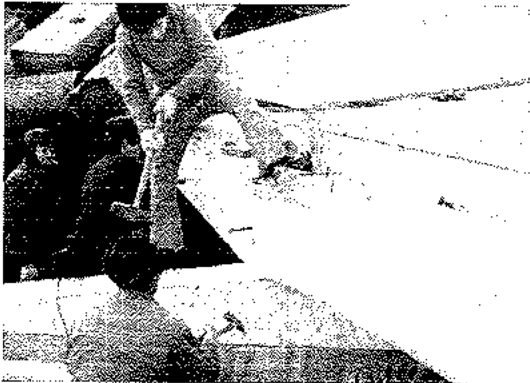
예전에는 추녀감으로 산판에서 적당히 굵은 목재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목재소에서 굵은 목재도 취급하였기 때문에 목재의 허실이 적었는데, 근자에는 목재소에서 굵은 재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녀도 굵은 목재로부터 처목한다.

따라서 목재의 허실도 많아지고, 특히 목재의 섬유방향이 추녀의 재축과 평행하지 않게 되어 휘어진 목재로 만든 추녀에 비하면 구조적인 내구성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굵은 원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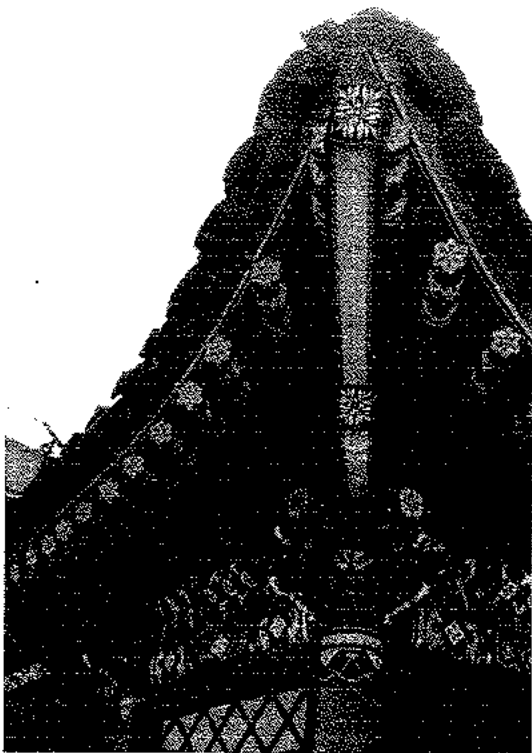
- ④ 문경 황씨종택 사랑채
엇선자 외관
- ⑩ 강릉 선교장 사랑채
엇선자와 골추녀
- ⑪ 경희루 선자서까래의
내부모습과 갈고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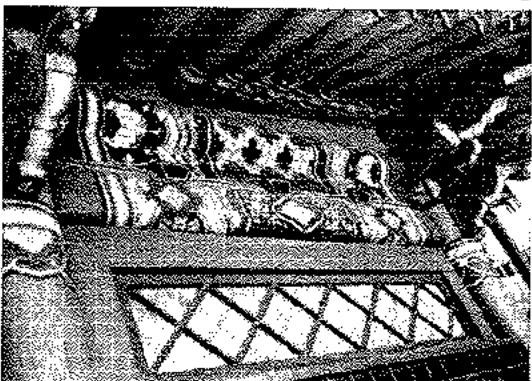
12



13



14



15

- 12 경희부의 갈모산방 1980년도에 해체보수공사 사진이며 갈모산방도 상면은 곡면으로 구성된다.
- 13 경희루 선자 조립 : 선자 제3장을 조립하고 있으며 갈모산방과 선자의 가공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14 서울 우정총국 처마의 알추녀 도리 위에 있는 것이 알추녀이고 그 상부로 추녀가 포개어 진다.
- 15 서울 우정총국 처마 선자가 서로 맞대어지고 그 하부에 갈모산방이 길게 놓이고 그 우측에 알추녀의 측면이 보인다.

만든 추녀는 지붕에 하중이 실리면 약간 휘어내리는 정도로 탄력성이 있지만, 곧은 재목으로 만든 추녀는 어느정도 이상으로 휘어 내리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녀 부재만 고려한다면 안허리가 커지는 것은 추녀의 길이만 길어지면 되지만, 양쪽이 커지면 원목의 규격이 커져야 하므로 재료의 소모량이 늘어난다. 반면에 안허리가 클수록 추녀의 외측 길이가 길어져 추녀하중의 중심점이 처마도리 밖에서 형성되므로 추녀의 내측단이 들리는 구조적 현상이 야기된다.

이와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녀뿌리를 띠철로 감아 도리와 기둥에 못박는 보강방법이 사용된다. 전에는 추녀가 있으면 목수가 알아서 이와같은 보강을 하였으나 근래에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으면 보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설계도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고 따라서 전보다 더욱 세세한 표현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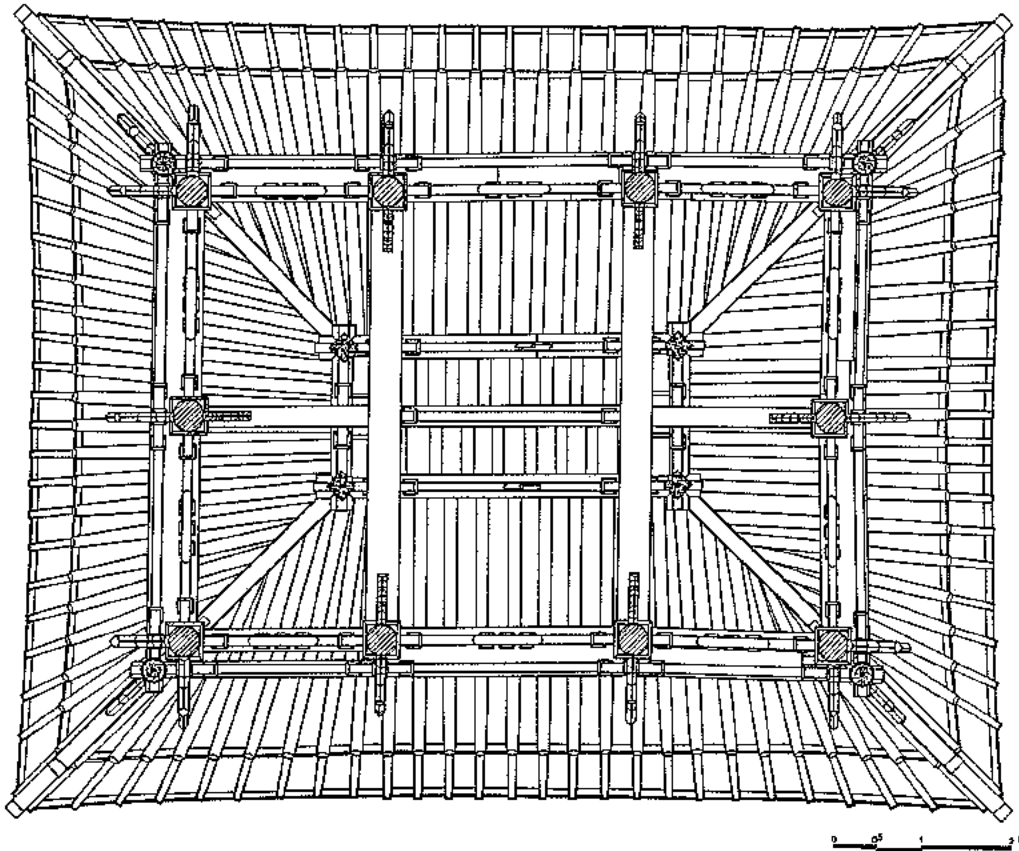
추녀의 폭은 주택에서는 6치 내지 9치 사이에서 선택되고, 또한 서까래의 직경과도 비례적인 면이 있어 직경 4치 서까래에 7치 또는 8치 폭의 추녀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선자서까래

추녀와 함께 선자서까래의 구성은 목수의 숙련된 경험과 솜씨가 발휘된다는 점은 언급한 바와 같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여도 솜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쉽상이다. 초가집이나 목재의 사용이 빈약한 시골집에서는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추녀부분에 서까래를 배열하는데, 이런 것을 엇선자 또는 말굽선자라 호칭하며 서까래의 내측단이 한점에 모이지 않고 분산되는 구성법이다. (그림 16 참조)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형적인 선자서까래를 논의하고자 하므로 엇선자에 대한 개념과 배경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엇선자에서 선자서까래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선자구성의 기법은 중국이나 일본과도 다르게 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추녀에서 안허리와 양쪽이 설정된 다음에는 선자서까래의 배열간격과 수량의 결정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그리고 부연이 달린 겹처마지붕인가, 홑처마지붕인가에 따라 선자의 간격이 달라지고 처마의 깊이도 고려되어야 하나 여기에서는 홑처마 위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선자의 조립순서는 추녀쪽에서 시작되어 추녀옆으로 반쪽으로 켜낸 서까래가 밀착되어 이것을 초장이라 부르고, 차례로 2장, 3장의 순서로 조립되고 제일 마지막에 설치되는 것을 막장이라 칭한다. 그리고 조립시에는 선자의 측면에서 추녀방향으로 못박아 나가기 때문에 일반의 서까래는 못 한 두개만 제거하면 해체가 되지만, 선자는 해체가 용이하지 않고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치목시부터 내구성이 있도록 좋은 목재를 선택해야 하는 배려가 있어야 뒷날 보수공사시에 용이하게 된다. 주택에서는 단청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단청일에서는 도채순서가 선자의



조립과는 반대로 되므로 초장과 막장의 호칭이 반대로 되고, 이런점은 서까래의 평고대를 초평고대, 부연의 것을 재평고대라고 하는데 단청에서는 이것도 반대로 호칭한다. 현장에서 단청장과 의논할 때는 언어소통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선자의 막장은 장연과 평행으로 직선제가 사용되지만 초장쪽으로 갈수록 추녀와 마찬가지로 흰 부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녀와 같이 크게 흰 서까래는 구하기 어려우므로 선자부위의 처마도리 상부로 긴 삼각형의 부제 (이것을 갈모산방이라 칭한다)를 설치하고 그 위로 선자가 고정된다. 추녀에서 알추녀가 사용되는 원리와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추녀가 있으면 반드시 추녀 좌우로 처마도리 위에 갈모산방이 배치되어, 선자의 굽어진 상황을 완화시키는 목적이 되기도 하며, 추녀의 양쪽에 클수록 갈모산방의 높이도 커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선자는 이 갈모산방 부위에서 단면이 사각형으로 치목되어 서까래가 서로 밀착되도록 만든다. 일반의 장연에서는 서까래 사이를 진흙으로 바르고 표면에는 회벽으로 곱게 미장하지만, 선자에서는 그 간격이 좁고 예리한 형태로 형성될 것이기에 손으로 미장하기가 곤란하여, 선자서까래 자체로 밀착시키는 방안이 선택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형단면의 원목을 치목하여 갈모산방 부위에서는 사각형 단면으로 만들고, 그 밖으로는 다시 원형단면의 서까래 형태로 치목되어야 하므로 선자는 장연에 비해 길이도 길어질 뿐 아니라 작경도 큰 것이 사용되어야 하고 동시에 휘어진 형태가 필요하다.

⑫ 부산 동래향교 반화루
암시도
잇선자로 구성하였다.

장연에 4치 직경을 사용하였다면 선자에서는 4치에서 8치 직경의 범위로 막장에서 초장으로 갈수록 굵은 것이 사용된다. 여기에 선자가 휘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굵은 직경이 필요하게 된다.

전에는 목재소에서 선자서까래 용도를 취급하였으나 근래는 상황이 달라져서 원칙대로 치목하려면 도리감의 목재로 선자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두되어 선자의 배열은 잇선자로 하고 처마도리 안쪽으로 선자가 노출되는 부위에는 별도로 판재를 대어 선자서까래처럼 꾸미는 편법이 사용되기도 하나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이다.

주택에서 처마도리와 중도리의 간격은 4자 내지 6자의 범위로 사용되고 처마깊이도 같은 범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중도리 간격 4자에 처마깊이 4자라 하면 선자가 배열된 평고대의 길이는 8자에 안허리와 양쪽에 의한 길이가 추가되고, 서까래의 간격은 일반의 장연에서는 1자정도가 되므로, 선자서까래의 장수는 8장 내지 12장의 범위로 사용되며 보편적으로 10장의 빈도가 높다.

한편 선자의 배열간격은 처마끝에서 측정하면 막장에서 초장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막장에서 1자 간격이 사용되면 초장에서는 1.4자 내지 1.8자의 간격이 형성되고, 선자의 장수가 많을수록 간격이 증대되는 폭이 커진다. 이에 비하면 중국건축에서는 평고대에서 등간격으로 선자를 배열하므로 추녀쪽에 갈수록 선자가 촘촘히 배열되는 시각적 차이가 있어, 한국의 선자서까래 배열이 시각적으로는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반면에 시공은 그만큼 어렵다 하겠다.

21C 건축을 향하여

크리스티앙 드 뽀잠박

Christian de Portzamparc

번역 : 이용재

Translation by Lee, Yong-Jae

-크리스티앙 드 뽀잠박 / 대립의 조화

'자끄 라캉'

1. 이원성의 건축

1971년 마르느-라-발레의 신도시에 뽀잠박(1944-, 모로코출신 프랑스건축가)이 설계한 급수탑은 바벨탑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외도적으로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기념비적 거대 구조물이다. 이 급수탑은 단순한 불투명한 무기질 구조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외부스킨은 덩굴식물을 뒤집어쓴 격자무늬의 세련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1974년 작품인 파리의 로베르 가로 현상안은 왕궁에 자주 사용되는 대규모의 에워싸인 정원을 채용하여 사면을 직사각형으로 나무를 심어 에워싼다.

흔히 뽀잠박의 초기 디자인은 자유로운 형태나, 오픈 엔클로저, 보텀, 투명함중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든지에 관계없이 두가지의 양구성 사이에서 망설인다. 그것은 확신의 결여때문이기 보다 최소한 두가지 선택사이에서의 신중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의 하나는 위치(location)를 탐구하기 위한 독립적인 사인으로서의 단일 오브제에 대한 고려이다. 두번째 관심사는 기존구조의 긴밀한 그물내에서 열린 실체를 탐구하기 위해 빈 공간들을 찾는 작업이다. 뽀잠박은 이 장소와 공간찾기 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규칙성과, 비규칙성, 안정성과 움직임, 균제와 비균제, 전체와 단편, 단색과 다채색간의 광범위한 영역을 세심하게 연구한다. 이들 정반대 대립물들간의 가능한 조화관계를 찾기 위해 뽀잠박은 아직도 건축적 형상화에 있어서 원근화법의 평형상태를 계속 고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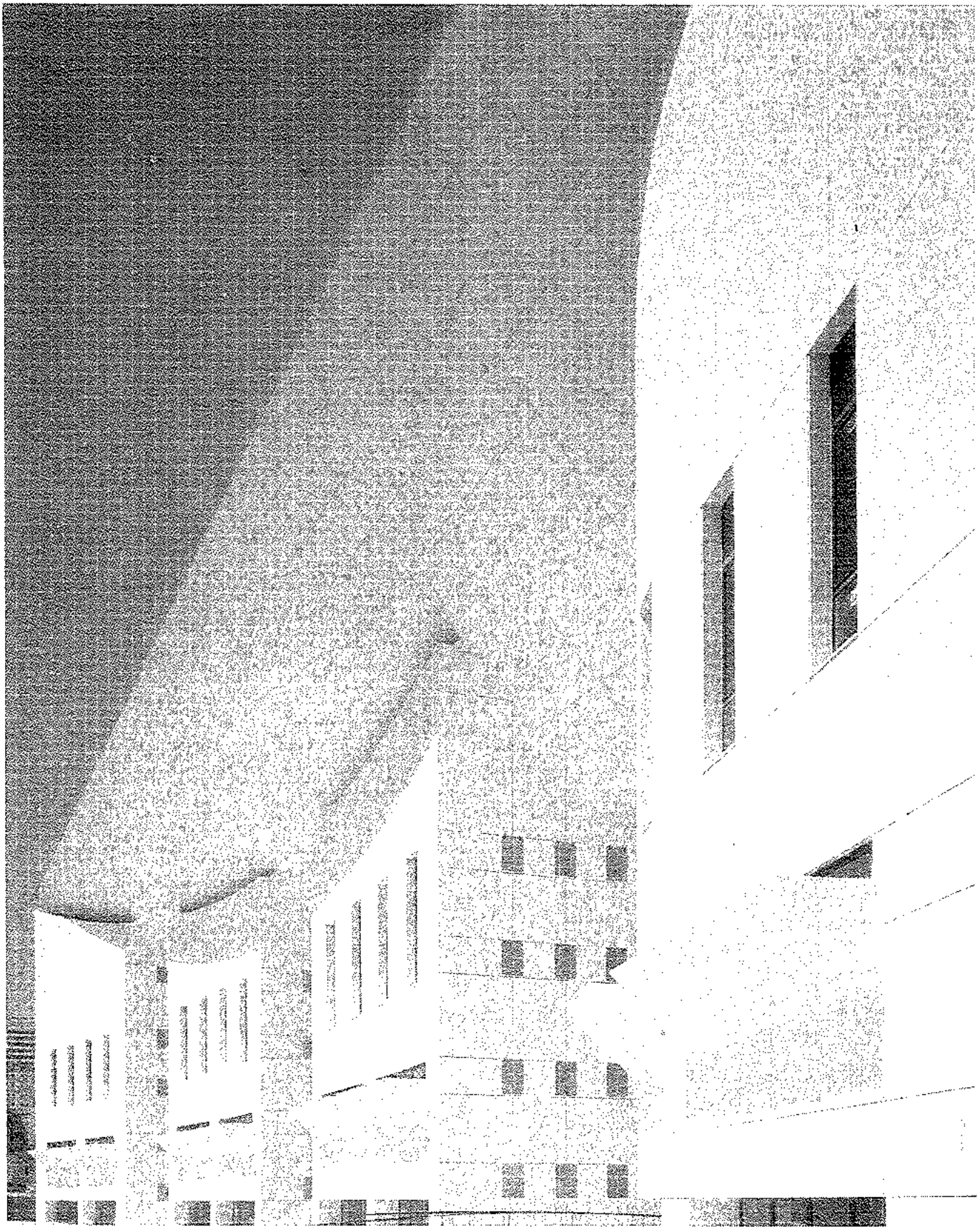
그에따른 첫번째 종합은 파리의 13구에 위치한 209호 규모의 사회집합주거(1975-79)인 '오프 포름'에서 성취된다. 여기서 뽀잠박은 비좁고 불규칙한 대지상의 악조건을 중심광상과 그것을 관통하는 유보로를 이용해 오픈시켜 고밀도의 집합주거문제를 해결한다. 그 결과 여러 '고층 형태'로 구성된 집합주거불력은 다이나믹한 수직성을 강조하면서 열림과 에워싸임, 일체감과 파편화, 구심력과 원심력간의 팽팽한 긴장을 파사드에 표현한다. 파리 집합주거의 이 참신한 해석을 통해 뽀잠박은 '불력의 중심'을

에워싸는 연속적인 파사드라는 유사깊은 해결책이 그렇게 진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물론 그를 위해 각 공정의 구성 요소에 자율권을 부여한 것은 물론이다.

이런 양면적인 특성은 5~60년대의 도시계획이론이나 에워싸인 불력도시같은 전통적인 도시성으로 무조건 회귀하려는 최근의 경향에서 보여지는 독단주의나 향수에 젖은 형태들과 대비되면서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70년대 내내 뽀잠박은 프랑스와 유럽의 문맥내에서와 작업해 왔다. 그는 건축계에서 새로운 도시개념의 선구자로 인정받으면서 그 특유의 변형의 특성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다. 그가 새로운 평형을 구하기 위해 통합된 합성물과 가끔은 모순적인 자료까지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은 60년대에 받은 교육의 영향이다. 그는 처음에 한스 샤로운이 베를린에서 그에게 보여준 표현주의 형태들에 매혹됐었다. 특히 스승인 에콜 데 보자르의 보드맹은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는 칸디리시에게서 그리드의 수법을 배우면서 화려한 전환을 경험한다. 그 이후 그는 회상적인 형태보다는 망상조직의 형상을 즐겨 사용하게 된다. 왜 뽀잠박은 근본적인 반향을 중시했던 초기건축경력을 과감히 버리고 공간속에 조직되어 있는 솔리드로서의 보이드에 집착하게 될까! 그 이유는 그 보이드가 바로 솔리드한 형태를 결정시킨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2. 단편화(fragmentation)의 이론

전문적인 형태로부터의 전략적인 후퇴는 분명히 분석적인 분해의 과정을 동반하여 미래의 재구성에 대비케 한다. 크리스티앙 드 뽀잠박 역시 이 과정은 두가지 수평적인 연구의 길을 밟게 된다. 그 첫번째 길은 현대도시의 비전에서 기인된 형식적 분해의 과정이다. 이제 더이상 도시는 통합된 전체가 아니다. (모든 가변성이 계획가의 단순한 각본에 맡겨진다.) 또한 도시는 점점 더 이질화되어 내부적인 격변에 휩싸이고 있다. 만약 도시가 새로운 패적합의 단편적인 이식을 통해서라도 생존하고자 한다면 강제된 동질화의 모든 관념들은 환상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확실적인 대규모 도시계획은 지양돼야 한다. 다시말해 구성요소들간의 변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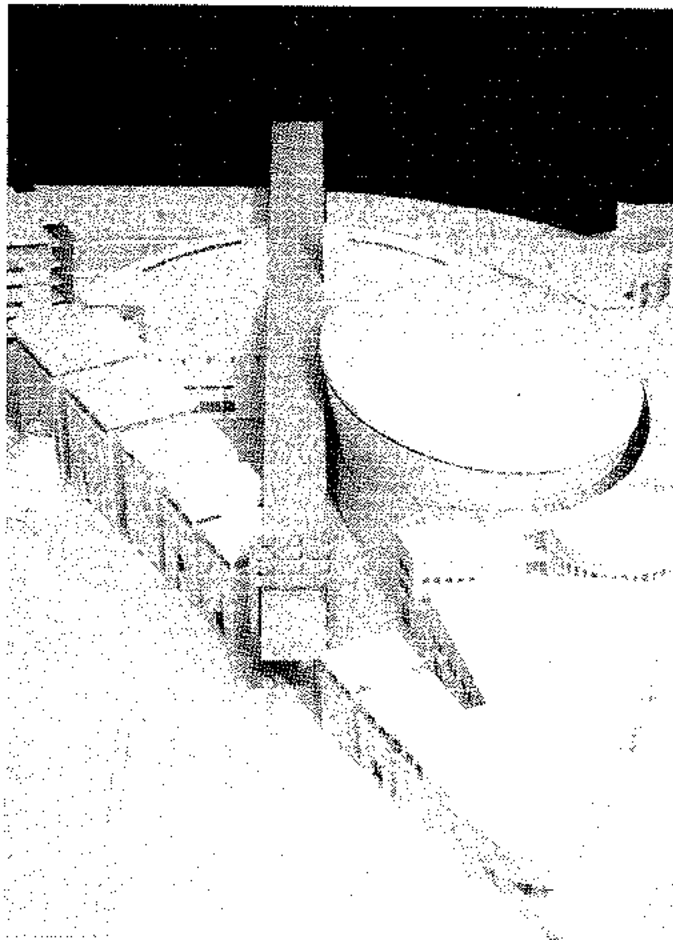


①

의해서만 지배돼 오던 스킴들은 독자적인 특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픽처레스크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간섭의 제한을 정형화하고 명확한 변형의 이미지를 창출해내야 한다. 그래서 주변의 건물과 공간들은 다만 재구성되기 위한 배경에 불과하게 된다.

뽀팜박이 추구하는 두번째 길은 직접적인 형태적 결과물로 나타나는 문제론적인 분해 (programatic decomposition)의

- ① '음악도시'의 남측면 전경
- ② '음악도시'동측 날개 모형
- ③ '마님 자우레' 모형
- ④ '마님 자우레'의 배치도
- ⑤ '마님 자우레'의 기준층평면도
- ⑥ 파리 오페라좌 부속 무용학교의 중정과 현관전경
- ⑦ 파리 오페라좌 부속 무용학교의 옥내 나선형계단
- ⑧ 파리음악학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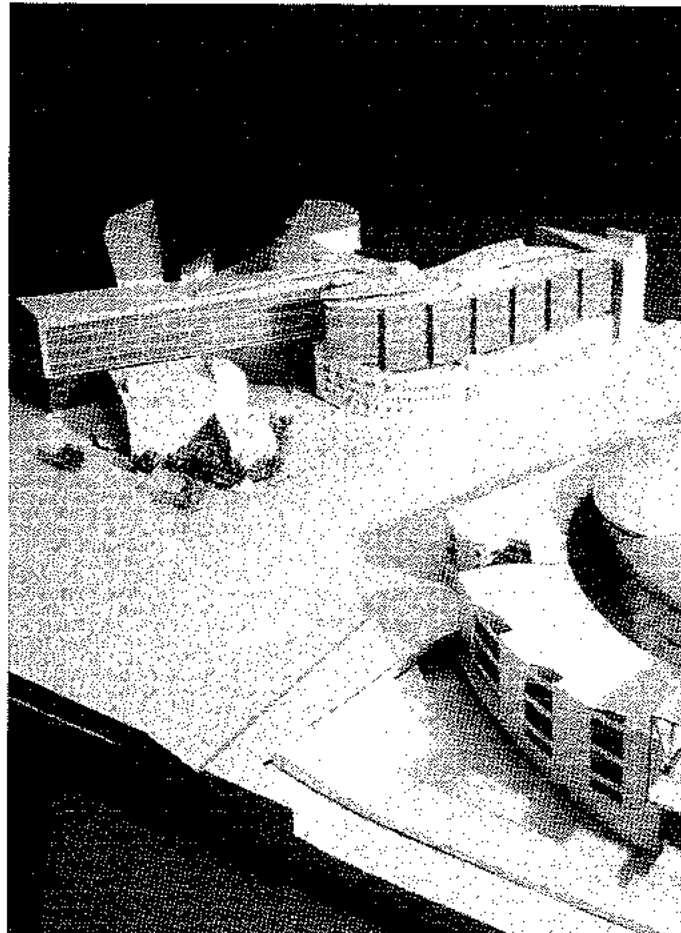


2

과정이다. 이 방법은 건축가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그 주변 문맥간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에릭 사티음악원(1981-84)이나 파리 오페라 무용학교(1983-88), 라벨레프 공원의 음악도시(1984-90) 등에 이르는 대부분의 문제제적인 프로젝트들에서 그같은 단편화의 과정이 목격된다. 이를테면 에릭사티 음악원은 두 가로의 모서리에 독립적으로 서서 가로변의 기존건물들과 일직선으로 엄격하게 순응하는 양로원과 대비된다. 이 두 볼륨의 사이는 이웃 아파트 블럭과의 건축적, 도시적 관계를 고려하여 오픈시킨다. 낭테르 무용학교에서 이 구성요소들은 세계의 구성분자로 차별화되어 각기 학교와 스튜디오, 주거영역을 형태적으로 구분한다. 또한 이 세계의 구성요소들은 수직적인 유리구조물로 만들어진 중앙공간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입구로부터 중앙광장에 이르는 동선상에 시각적 연속성을 제공한다.

음악도시에서 뽀팜박은 명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분할한 탁월한 컴플렉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조와 상보성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분할에 대한 결정은 프로그램상의 다양한 구성분자에 개성을 부여하는 작업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각 구성분자는 완전한 자율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도 개성적인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뽀팜박은 닫힌 하이여라키 대신에 여러개의 중심을 갖는 무한한 유흥학을 선호하여 전체 요소들의 네트워크가 각기 독립적인 역할과 중요도를 갖도록 한다. 이 명제는 독단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 의미를 갖는다. 그런 성공적인 예가 바스며유 오페라 디자인이다. 여기서는 건물의 스케일과 비례는 대지조건이 모든 분할을 방해하고 있지만 거대한 오픈광장과 천장을 이용해 다이내믹한 파사드를 연출해 보인다. 음악 도시의 파사드에서도 넓직한 캐노피를 설치하여 전면성을 강화하면서 라 빌레르 공원으로의 시각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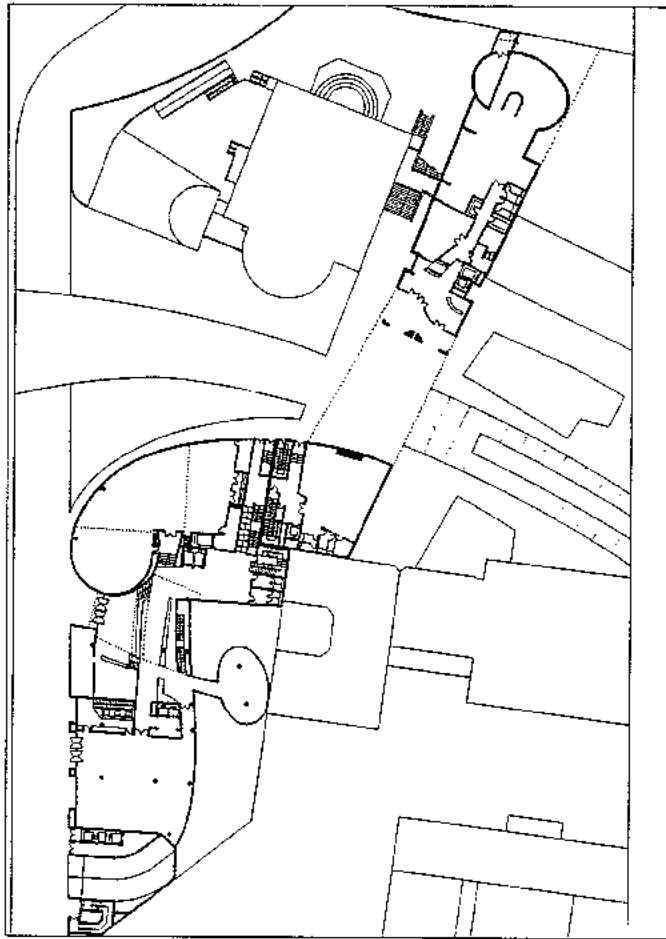
3

3. 시각적 음향학

단편화의 과정과 다의적인 이중성의 탐구는 이제 더이상 정적인 규칙성을 고집할 수 없게 만든다. 뽀팜박의 개성은 구성부제들간의 균형을 찾는데서 여실히 발휘된다. 그는 우하하지만 믿을수 없는 매너리즘을 피하기 위해 격렬한 요소들을 약화시키고 형태의 조형성과 다이내미즘을 부각시킨다. 이같은 수법은 내이브를 가로지르는 브리지와 당당한 계단이 설치된 카페 보부르나 중앙의 두개의 이치형 칸막이 벽이 대조를 강조하는 웅가로숍에서 뿐아니라 음악도시나 낭테르 무용학교의 사인곡선처럼 파동치는 지붕에서도 발휘된다.

최근 뽀팜박은 50년대에 유행하던 자유로운 형태에 대한 낙관적인 조작으로 회귀하고 있다. 여기서 자주 보이는 볼륨과 곡면의 관능성은 최근 몇년간 정기적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건축은 '형태들의 음악'이거나 '형태들의 음향학'이어야 하며 건물자체가 '소리의 조가비들'이라고 믿었던 르 꼬르뷔제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음악 도시의 중정에서 공원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 시각적 음향학이 그저 빈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테라스의 로지아, 정원들은 각기 다른 레벨에 자리잡아 방문자로 하여금 소리의 공명속에서 선과 표피, 볼륨을 느끼도록 해준다. 이처럼 중정을 설계하면서 형태들의 대화를 연출하는 것은 당연한 시도이다.

최근 뽀팜박의 형태 다이내미즘은 가볍고 세밀하고 거의 수정체에 가까운 오브제들에서 탈피하여 매시브하고 조소적인 형태들을 추구해 나간다. 예를들어 유로디즈니랜드 디자인과 후쿠오카의 집합주거 개발안은 창백하고 가벼운 오브제와 검고 땅에 깊이 뿌리박은 매스, 자유로운 점묘화 스케치의 미묘함과 단단한 등고선,



4

복잡하고 무한한 배열과 보호겹질로 에워싸인 자율적인 볼륨같은 대비적인 요소들을 병치시켜 원근화법적인 긴장감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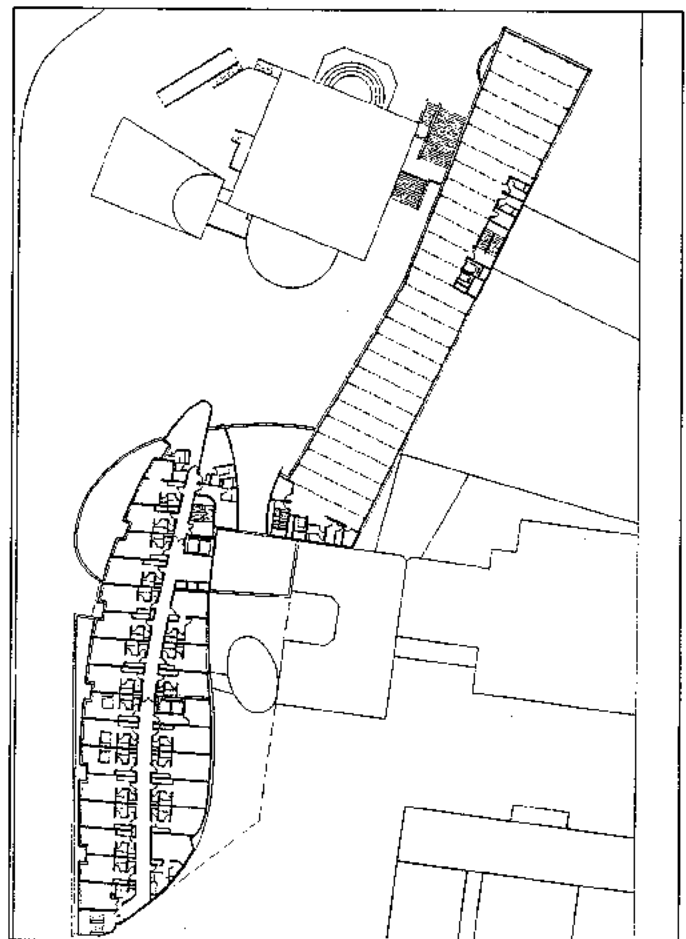
그렇다면 뽀팜박의 제안하고 싶어하는 건축의 실체가 공급해진다. 그는 우선 이질적인 요소들간의 특이한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어한다. 물론 그러면서도 그 요소들의 특이한 개별성은 유지된다. 이것은 대립보다는 공존과 대결의 문제에 더 가깝다. 주어진 오브제의 개별성은 이제 관계들의 네트워크를 설정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건축 이미지들간의 드라마틱한 조화를 유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역으로 뽀팜박은 대비의 조화라는 새로운 조화유형을 제안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로운 재료, 색채, 볼륨, 공간들을 통해 촉각적이고 회화적이고 조형적인 차원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우리 도시의 변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환상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를 위해 그는 현실적인 재구축과 변환에 계속 도전한다. 하나의 건축세계를 고집하는 그의 집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환이 수반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작가의 말 - 크리스티앙 드 뽀팜박

1-1 음악도시

라 빌레뜨공원의 남문근처에 자리잡은 '음악도시'는 전혀 다른 두개의 대형날개로 구성돼 있다. 그중 서쪽 날개는 교육공간과 공공공간을 덮고있고 미술회관의 실기실과 콘서트홀을 담고 있는 동쪽 날개는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이처럼 이 '음악도시'는 음악과 무용을 위한 특수시설인 만큼 독특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1989년에 완공된 서쪽날개는 불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 대형 곡면 백색 파사드로 처리됐다. 서쪽 날개가 긴 장 자우레 에버뉴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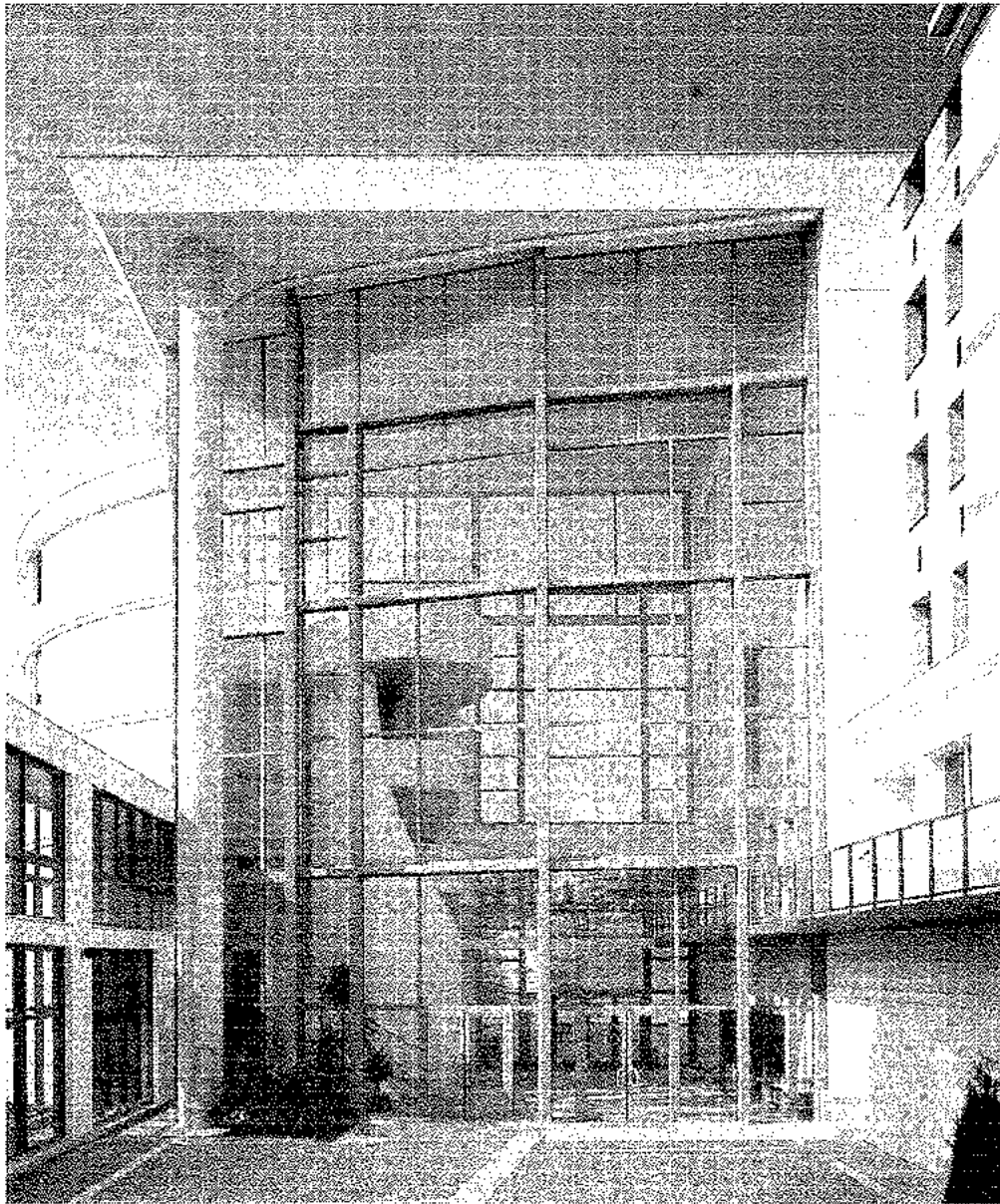
끝에 위치한 반면 공원을 향한 동쪽날개는 자유로운 기하학형태를 생각했다. 이 두 날개사이의 비대칭은 내부 프로그램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그 비대칭의 결과 만들어진 두 건물사이의 삼각형 공간은 이곳이 새로운 만남의 공간임을 강조한다. 그곳은 또한 기존 도시와 라 빌레뜨 공원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이곳이 도시의 종착점임을 알려주는 사인의 역할도 한다. 예전처럼 도시광장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도시를 대형공원을 향해 열어 놓음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해방감을 경험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결국 이 공간은 기존 그랑홀의 정적인 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에 동서쪽으로 날개를 벌림으로써 새로운 다이내믹한 축을 중첩시킨 것이다.

1-2 서쪽날개 : 교육의 장

'음악도시'의 서쪽날개는 교육장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홀이다. 그렇지만 내부 기능간의 관계는 옥외와 일체화된 채 자연빛이 충만하는 장소이다.

그런 배려로 '거대구조'가 유발하는 밀실공포증이나 현기증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 음향학적으로 이 홀들은 소리를 발생시키는 시설별로 소그롭화하여 방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날개에는 두가지의 대규모 공간체계가 설정되어 있다. 하나는 중소규모의 방들(스튜디오, 연구실 등)을 하나로 묶은 연구지역이고 또 하나는 리허설을 위한 대규모 홀같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들을 하나로 묶은 공간체계이다.

전체 건물은 빛이 떨어지는 복도를 중심으로 4개의 남북측 띠로 구분된다. 그중 가로비에 만한 남측면의 연구동은 4층 규모의 '블럭들'로 그룹화된다. 또한 각 블럭사이에는 커다란 오픈 스페이스가 배려되어 상호 연관관계를 강화한다. 길다란 연속공간으로 처리된 서쪽 띠에는 교육센터, 학교,



학생기숙사 등이 배려된다.

이 띠의 지붕은 크게 주름잡힌다. '리용의 분수'에 면한 동쪽띠에는 무용동이 자리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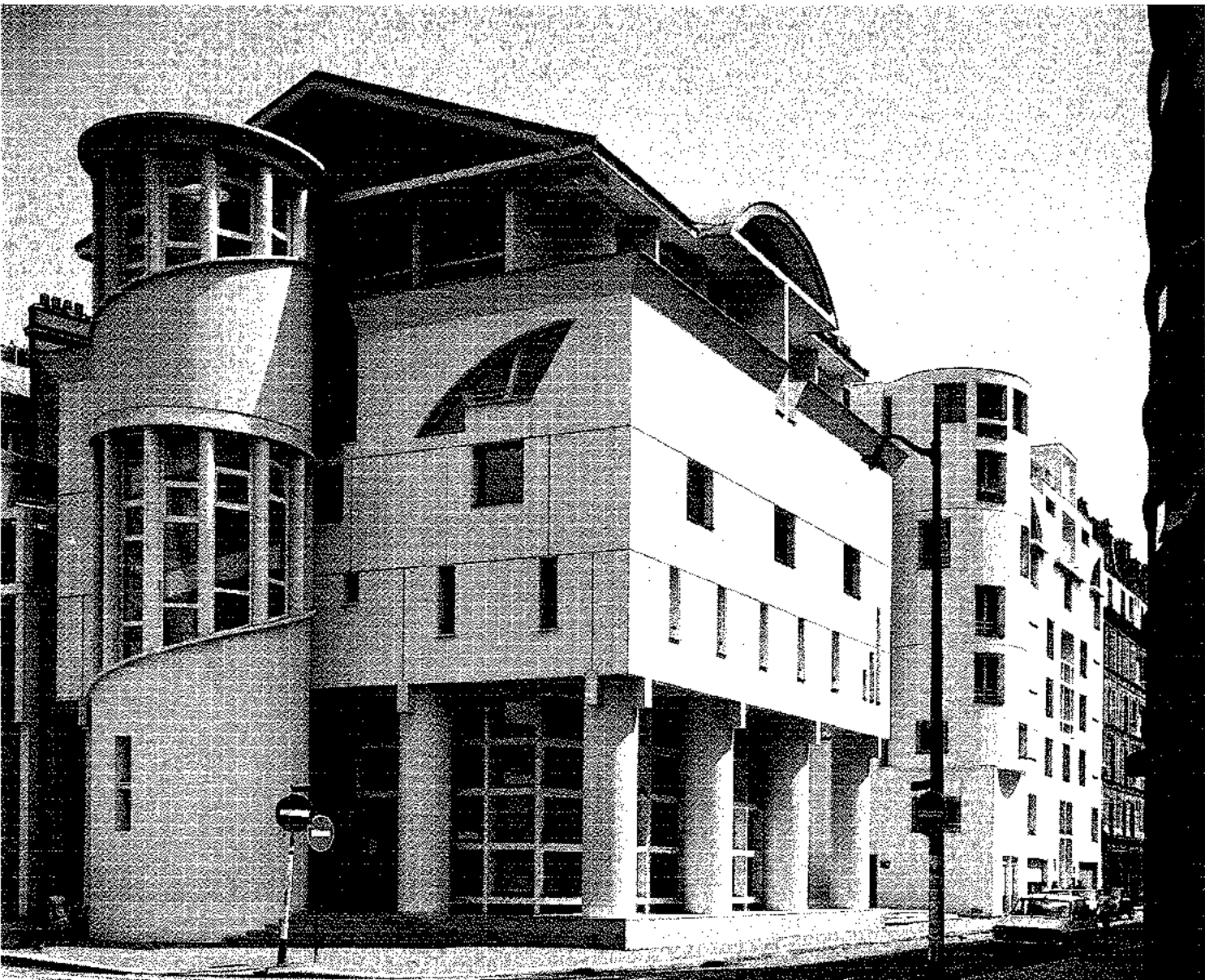
이 무용홀과 연구홀 사이에 만들어진 투명한 '네트워크'가 이곳이 공공홀의 입구임을 알려준다.

정적인 외관에 비해 내부정원에는 다양한 건축적 효과들이 배려된다. 이를테면 오르간홀의 원추형공간은 주랑의 셸구조를 반영한 결과이다. 서쪽날개의 주름잡힌 지붕아래에는 다채로운 야외시설들이 자리잡는다. 이 시설군의 중심은 회랑으로 에워싸인 정원을 가진 대형홀이다. 이곳은 도로면보다 7미터 낮게 처리되어 있다.

1-4동쪽날개 : 시민에 개방된 공간들

비교적 단순한 서쪽날개의 기능에 비해 동쪽날개에는 음악박물관, 오르간 스튜디오센터, 반원형극장, 기숙사, 강의실, 사무실, 실기실, 음악관련 매장 등 흡사 작은 도시를 연상시킬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아야 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은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모든 기능이 투명한 공간이나 만남의 장소같은 네트워크에 의해 긴밀하게 하나로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800~1,200명 규모의 콘서트홀은 교향악단의 연주뿐 아니라 청중과 음악가의 만남을 중시하는 현대음악의 연주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시티 이스트의 삼각형 기하학 형상 중앙에는 타원형의 홀이 설치된다. 타원형 실린더에 어울리게 타원형 원추로 처리된 이 홀은 나선형 동선이 정점을 이룬다. 단면상으로 가장 긴 오디오리엄은 미술회관과 연결된다. 반면에 3~5층 규모로 늘어진 일련의 지상공간들은 '호른'을 중심으로 포개진다.

콘서트홀과 뮤직 뮤지엄 사이의 시티 이스트를 가로지르는 길다란 철재 빔은 미로같은 프로미나드를 연출한다. 학생 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개방되는 이 뮤지엄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이다. 각 갤러리들은 일련의 예기치 못한 공간들을 경험케 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소와 기능들이 형태를 그대로 치환한다. 여기서 건축은 움직임의 예술이 되며 그것이 그대로 소리를 만들어낸다.

2-1파리오페라와 부속 무용학교

내부로부터 외부로, 움직임, '파리 오페라와 부속 무용학교'. 낭페르 속이 텅 빈 형태에 잔디와 하늘만 보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교. 24시간 사이클의 리듬. 오전에는 공부, 오후에는 무용. 춤을 추고 먹고, 자고 기숙학교.

하루에 세번. 원심운동속의 세계의 우주와 세계의 건물. 지금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게 도와주는 연동장치.

침실로부터 스튜디오로, 스튜디오로부터 교실로. 내외부에 설치된 절절점은 키가 큰 유리 캐노피이다. 이 절절점은 현관과 직접 연결된다. 남측 정원쪽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수직적으로 투명한 계단. 세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네번쨰 세계를 만든다. 중정, 정원, 동물, 식물, 꽃들.

무용 : 빛과 운동.

무용은 배경막, 볼륨, 벽, 기본방위를 갖는다.

무용 스튜디오는 화가의 캔버스이자 연필로 첫 스케치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이다.

중앙의 대형 나선형 계단은 파노라마 프로미나드를 연출한다.

계단을 올라감에 따라 스튜디오와 멀리 공원전경이 시야에 들어온다. 뒤로 돌아 남측면에 앉으며 태양이 눈에 들어온다. 나는 언제나 나의 프로젝트를 세분화하거나 단편화한다. 도시통합에서의 단편화는 여러 '존제이유'를 가진다. 무용학교는 닫힌기관이다. 그것을 열고 싶었다.

기하학의 대비를 통해 죽어있는 아카데미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고 싶었다. 단빈에 그것을 성취하기는 어렵다. 각 공간과 파사드는 건축적 '프로미나드'로 발길을 유도한다. 그것은 마치 자유로운 무용의 동작과 같은 것이다. 건축처럼 무용도 공간에 대한 한가이다. 장소는 움직임을 창출하고 움직임은 안정된 장소내에서 전개된다.

中國 台海花園 / 국제현상설계경기

Taihai Garden Project

中國 民源海南公司에서는 지난 12월 22일 21세기를 주도할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台海花園을 건립하기 위하여 중국 1팀을 비롯한 미국, 일본, 한국 등 총 4팀을 지명하여 국제현상설계를 실시한 결과 동양적인 사상과 자연관이 서구적인 합리성과 훌륭하게 접

합된 우리나라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異空 (대표: 柳春秀)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異空 (案)을 게재코자 한다.

당선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異空 (대표: 柳春秀)

대지위치: 中國 海南省 海口市

金融區內

대지면적: 29,582.42m²건축면적: 18,182.15m²연면적: 430,069.9m²

건폐율: 61.46%

용적률: 958.13%

규모: 主樓 (Main Building) -

지하 6층, 지상 69층

配樓 (Apartment) -

지하 6층 지상 68층

주차대수: 2,683대

■ 개념설계의 배경사상과 시대

기원전 6세기경 중국의 道家思想 체계를 이룩한 老子는 陰陽의 상호보완작용의 힘으로 완성되는 자연의 이치를 嚆破하였다.

음양으로 표현되는 고저, 장단이나 허와 실의 모든 상대적 존재들은 상호 대립 상충함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이치를 설하였다.

道는 바어있는 것이며 무형적이라는 상징적표현을 강조함으로써 가시적인 것의 가치 (Profitable)는 不可視의이며 무형적인 것의 쓰임 (用)에 있음을 갈파하였다.

“만물은 음을 업고 양을 안아서 바어있는 기운이 서로 화하여 있다.” (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爲和)는 말은 “양을 아는 방법은 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知雄守雌)라는 단순한 표현과 동의어이다.

이러한 노자의 사상은 모든 정신적인 것, 불가시적인 만물의 표현인 공이 물질적인 것의 의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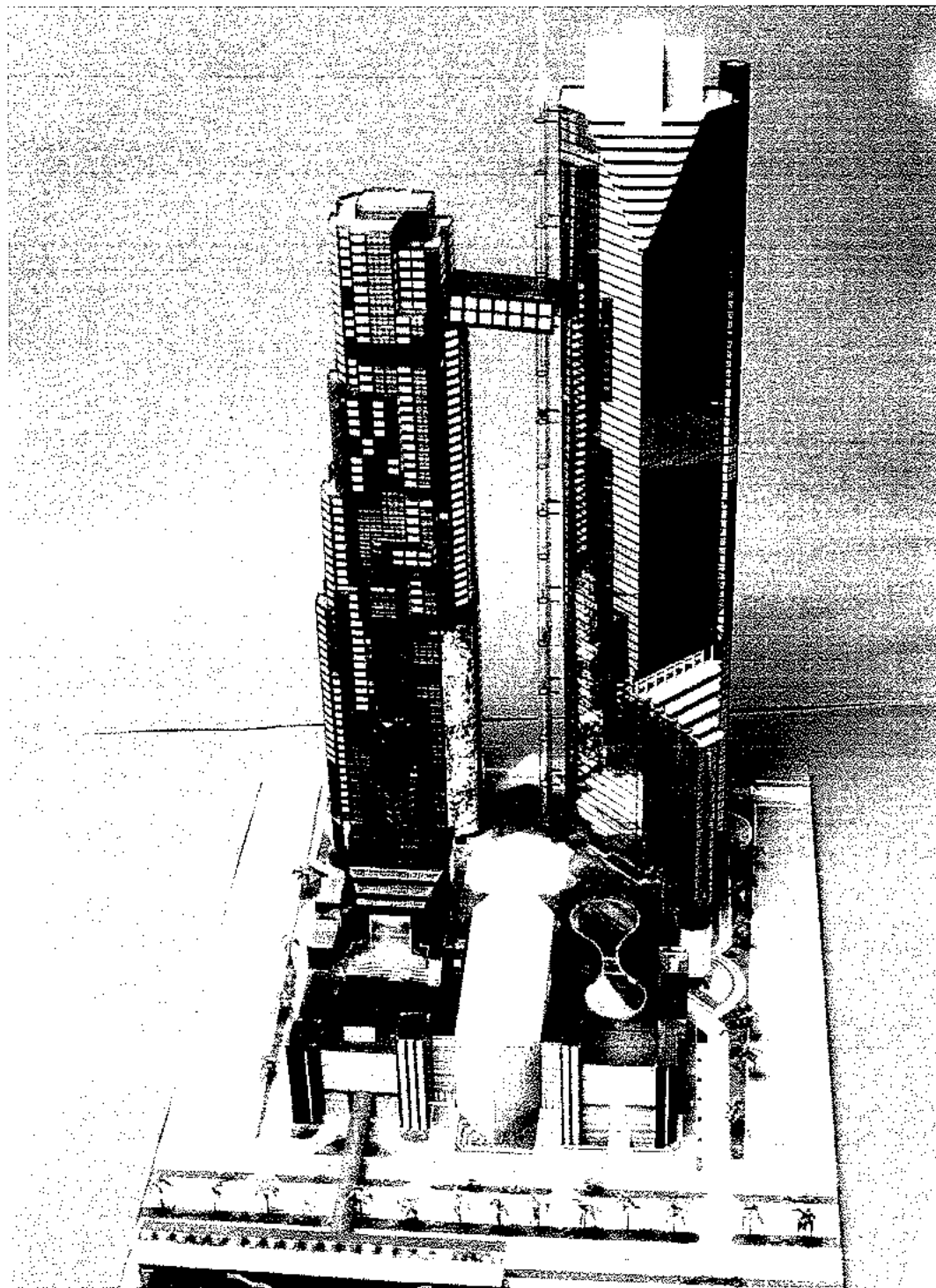
색과 서로 다르지 않다 (色不異空)라고 한 불교의 사상과도 서로 일맥이 상통한다.

이러한 동양의 무형적인 것에 대한 중시사상은 서양의 가시적이

며 물질적인 과학사상과 비교될 수 있으며, 서양의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가 현 20세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혹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오는 21세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보이는 서양사상과 전통적인 우리 동양사상의 접합에 의한 새로운 보편적 가치기준의 사상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 가능성은 실로 중국에 있다.



북측 (정면) 모형도

1세기전 波壽와 같은 서양의 진출에 밀려 마지막 封建國家인 淸은 망했으며, 공산혁명에 의해 중국대륙을 지배한 중화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의 암울한 시련을 극복하고, 개혁시대를 맞이하여 동구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중국의 사상에 기초한 중국풍 사회주의의 굳건한 반석위에 서구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세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전개시키는 국가로 발전해가고 있다.

중국은 21세기에 동서양의 사상을 상호 대칭적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노자적 조화를 이루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적으로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 사상의 건축적 도입 (조형계획)

20세기말 중국에 세워지는 최대, 최고의 台海花園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적 이론에만 적합한 기능적 산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동양적인 사상과 자연관이 서구적인 합리성과 접합한 최상의 건축으로서, 20세기말에 세워진 중국의 상징적 건축유산으로 21세기인을 위하여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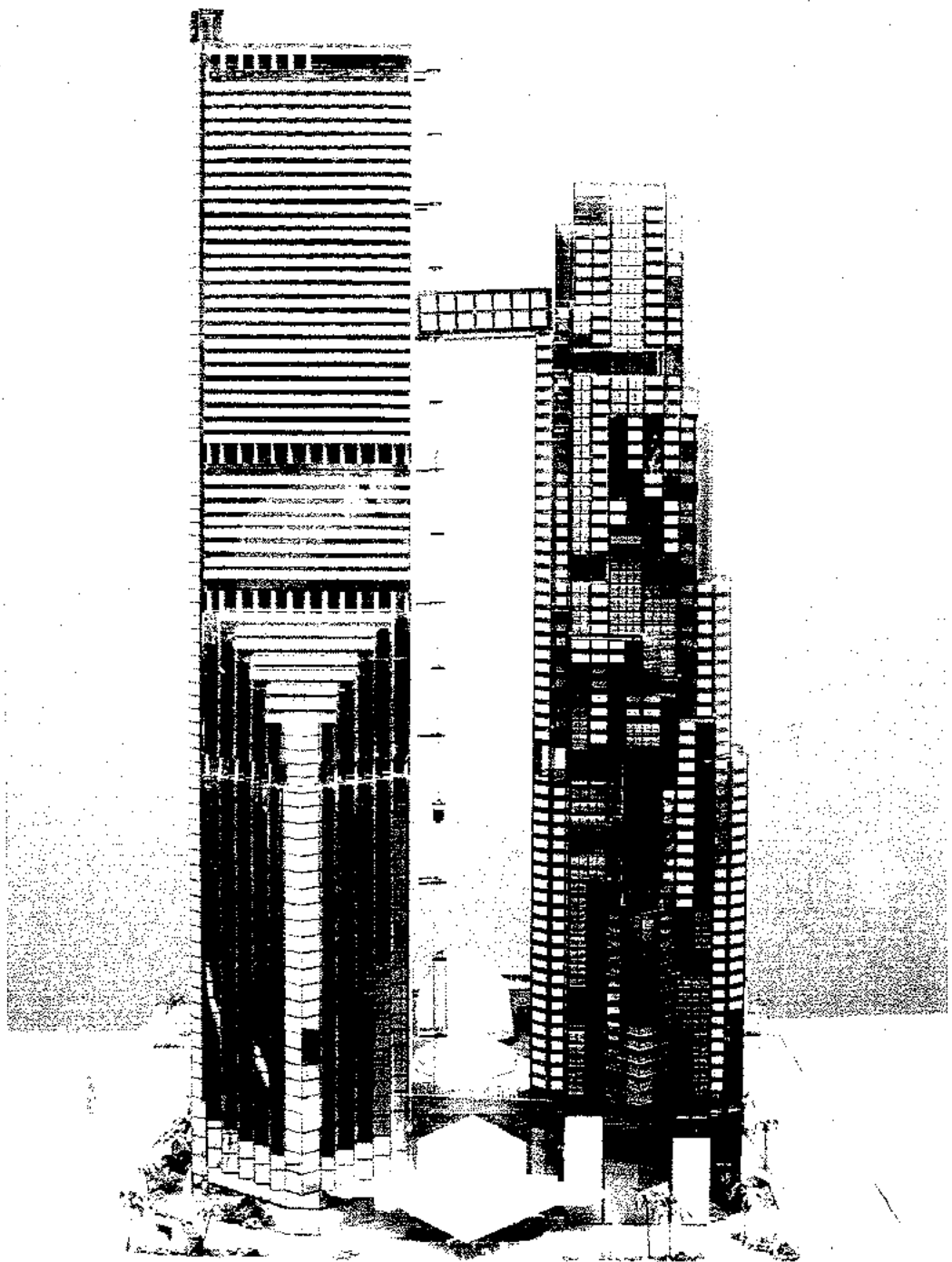
노자가 말한 “長短相較 高下相傾”처럼, 장단과 고저의 상대적 조화와 음양의 화합 이치에 따라 건축의 외형적 조형이 완전대칭이 되거나 비슷한 형상이 됨을 피하였다.

고저와 조형이 상이한 主樓와 配樓의 양건축을 서로 조화시킴으로 음양의 이치에 맞도록 하며 서양적인 功能主義의 건축의 상징으로 세운 字間 및 配樓 (Office+Hotel) 80층의 외관을 황금색 반사경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공능과 조형이 전혀 다른 69층의 낮은 公寓棟 (Apartment)이 반사되도록 함으로써 “知基雄 守基雌”의 합일사상에 접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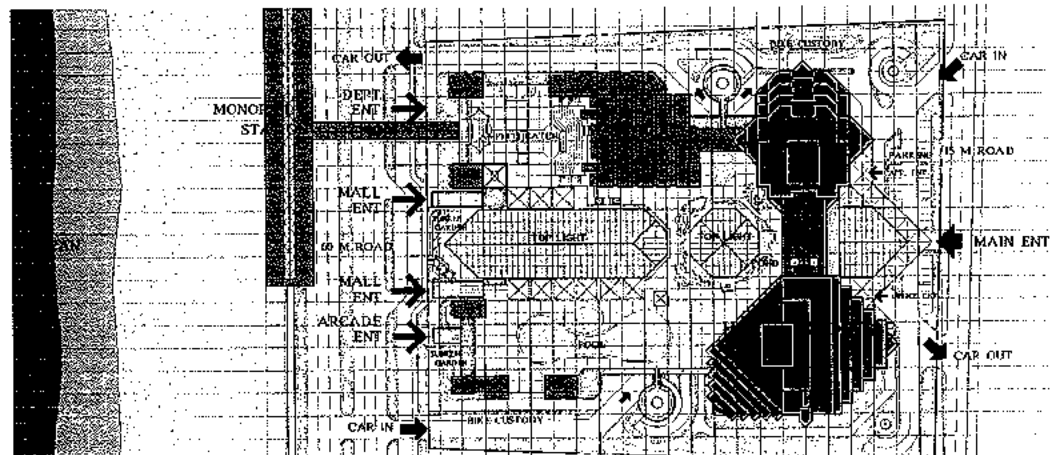
■ 배치 및 동선계획

●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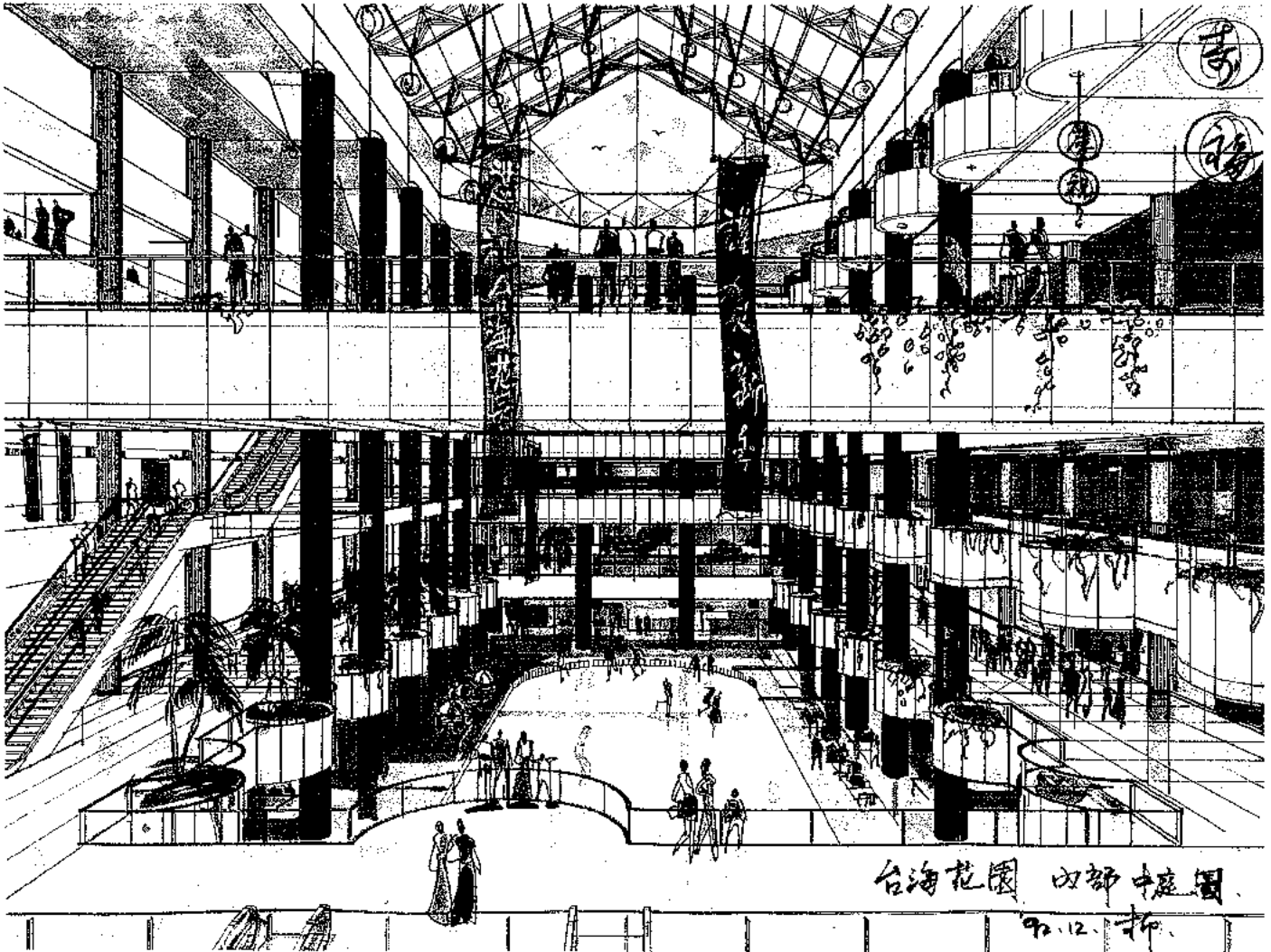
크게 나누어 5개로 구분할 수 있는 商場, 오락 (餐飮, 會長包舍), Apartment (公寓) Office (寫字間) 및 Hotel (酒樓) 등 多功能을 명확히 분리 배치함으로써 사



남측 (배면)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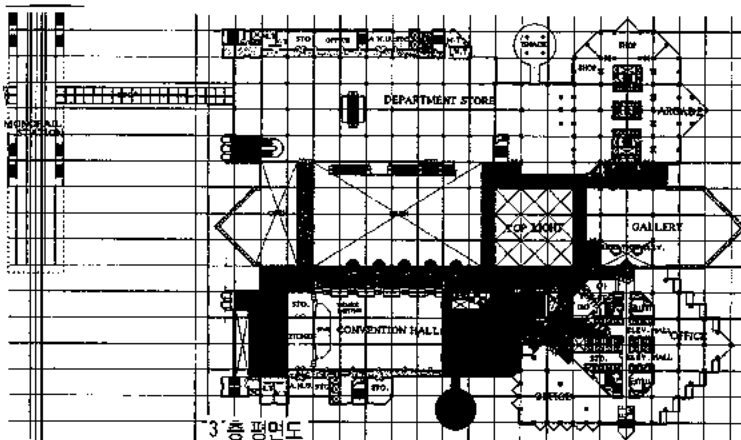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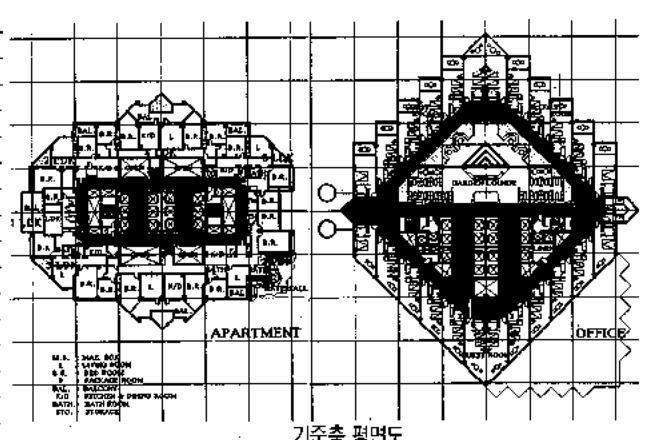
台海花園 内部中庭圖

9.12. 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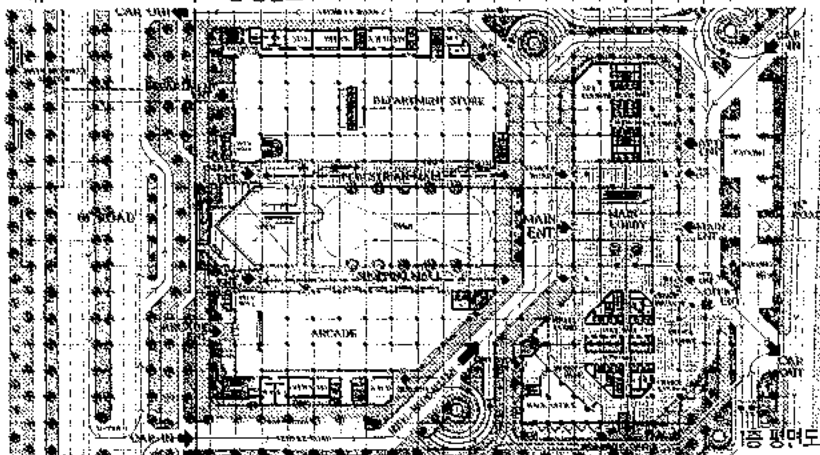
아트리움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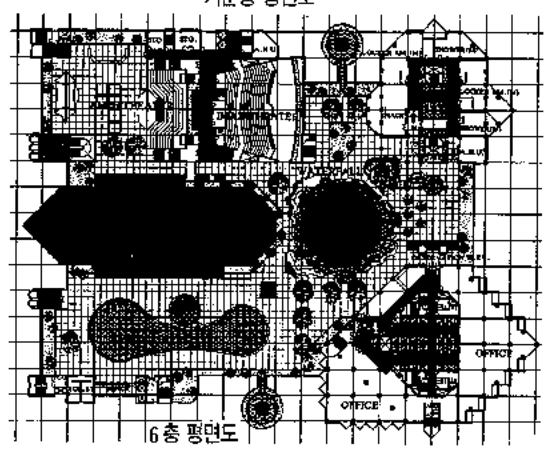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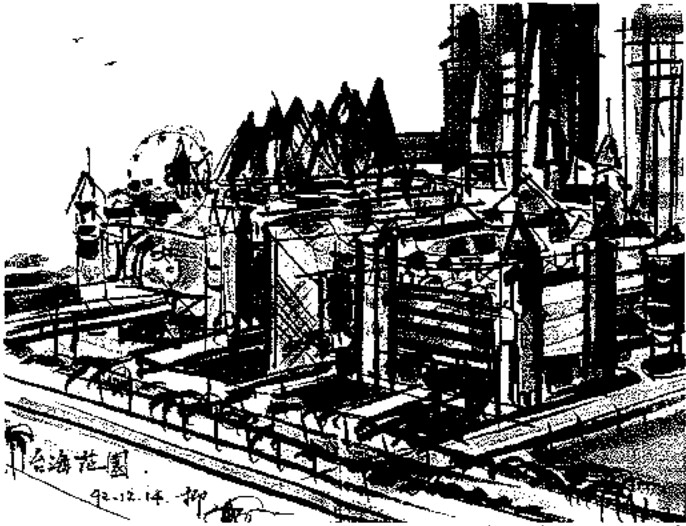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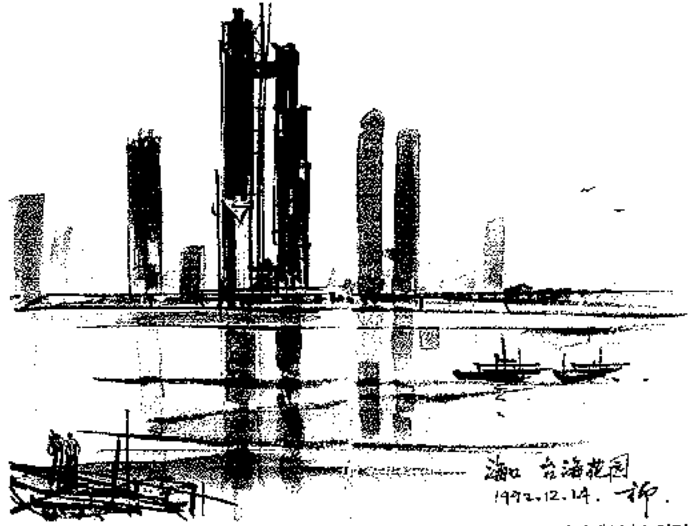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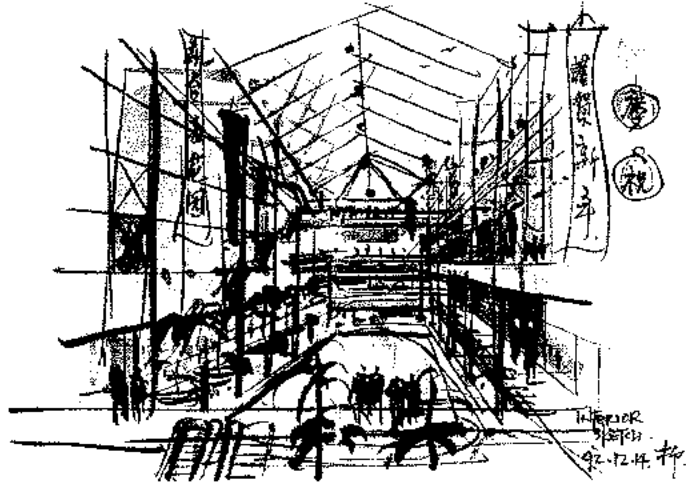
1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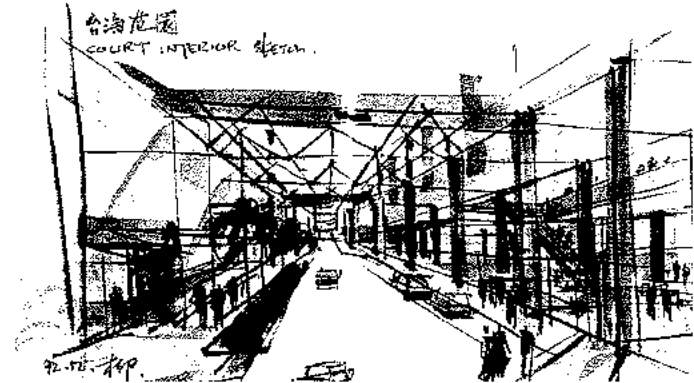
저층부 외부 (백화점, Shopping Mall)



바다에서 본 원경



아트리움



Main ENT

용자의 이용시간 및 관리 방식이 다른 각 공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교통

-북측 濱海大道의 반대쪽에 A partment (公寓)와 Hotel (酒樓)의 主樓가 배치됨으로서 저층동과 고층동 사이의 용지 중심의 진입도로는 필연적인 방식으로 사

료된다.

-장차 도심과 선동향으로 연결될 Monorail역의 계획은 濱海大道 북측 인도에 두어 상장과 연결 시킴으로서 상업적 기능의 활성화는 물론 보행시민의 편의를 고양시키도록 하였다.

•보행중심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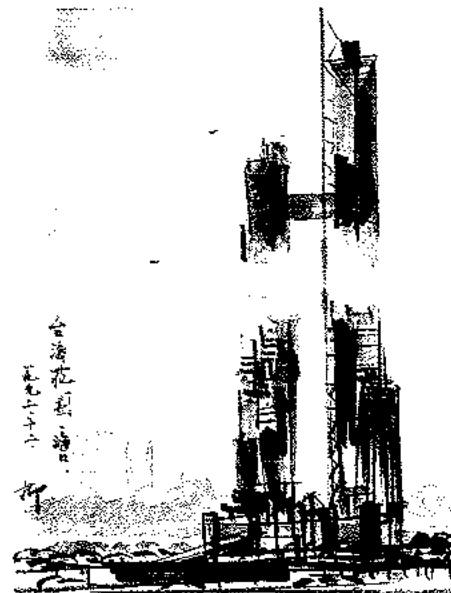
-중심의 6층 높이로 개방된 실내공간은 각 기능을 연결하는 보행자의 동선 및 남북의 녹지대 연결과 상하공간의 시각적인 개방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노자가 말한 “大成若著結其用不弊 大盈若冲其用不窮”이며 “無之以爲用”의 窮極空間이다.

■층별功能배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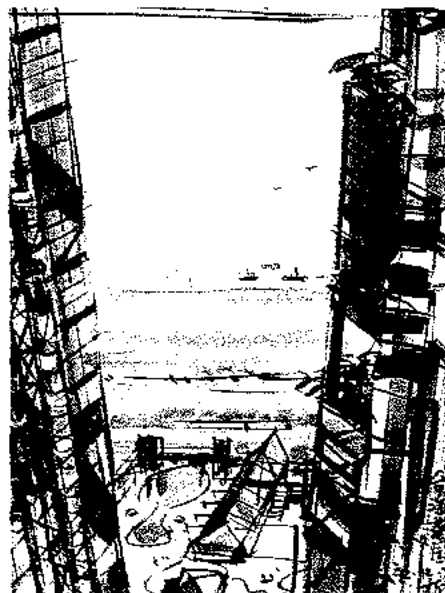
Functional Distribution of Each Floor

•저층부 (1층~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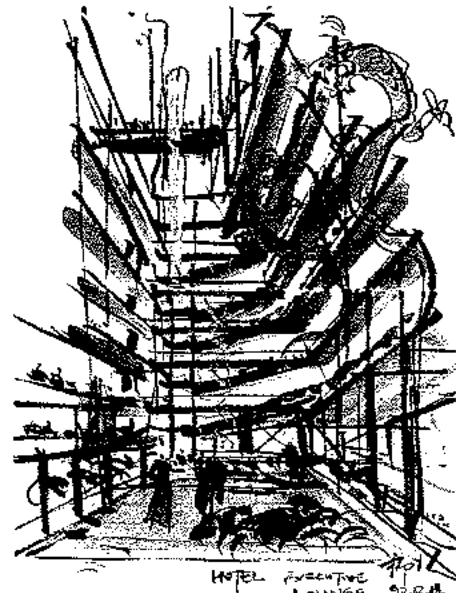
동측동은 백화점 (商場)을 두며 서측동은 1층에 商場을 두고 2층 이상은 대, 소회장과 餐飲 등 酒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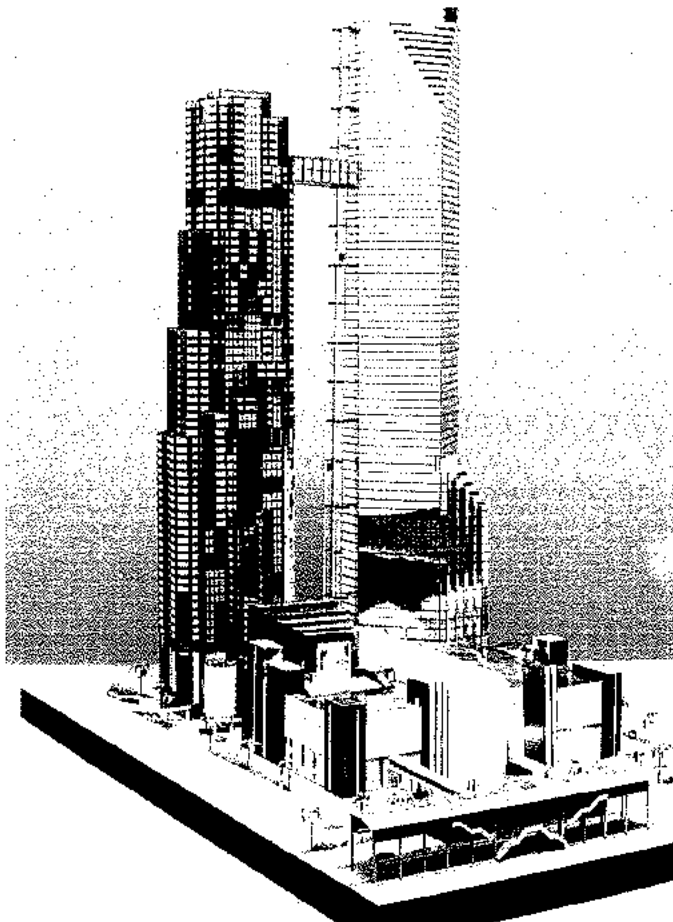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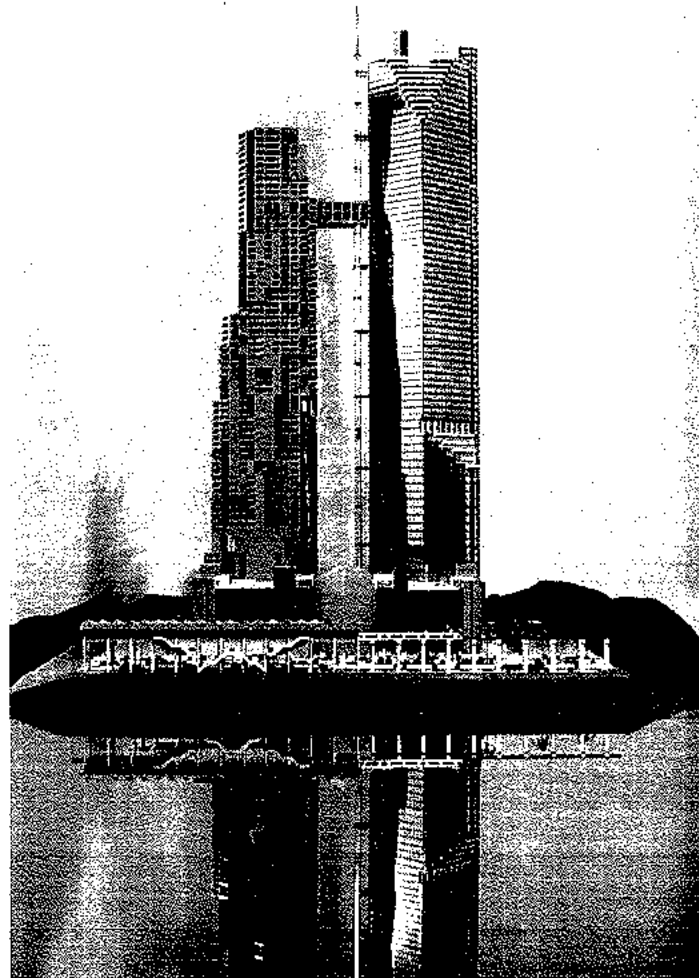
56층 Sky Lounge에서 본 원경



호텔동 Garden Lounge (28~39층)



모형 I



모형 II

의 기능에 관한 제방들이 배분되었다.

중심의 옥내중정은 동서남북의 각 기능을 연결하며 지하1층 오락 공간으로 이용객과 자연광이 함께 유입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지하부(지하3층~6층)

지하 1,2층에는 주루와 백화점(商場)의 보조방들과 일부 차고를 두며, 지하3층~6층까지는 차고와 전기, 기계 및 정화조, 수조 등을 두었다.

●配樓와 조형

69층 配樓棟 저층부(1층~6층)는 商場棟과 연결되지만 7층~69층은 타공능과 불혼용된 Apartment(公寓)棟으로 설계되어, Balcony(露臺)와 수목과 음영이 있어 변화있는 조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배루의 조형은 반대측 주루의 서구기계 문명적 조형과 대비되는 동양적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主樓의 기능과 조형

主樓棟은 이용, 공능, 관리방식이 유사한 寫字間과 주루동으로 Apartment(公寓)棟과 결합이 지

의 불가하며, 중앙집중식 냉방 설비가 요하는 현대적 공능의 필요에 따라 서구적 최첨단 건축의 외형을 표방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황금색 鏡面에 반사되는 동측配樓와 함께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結構體系 및 설비계획

●평면柱間계통(Span Mo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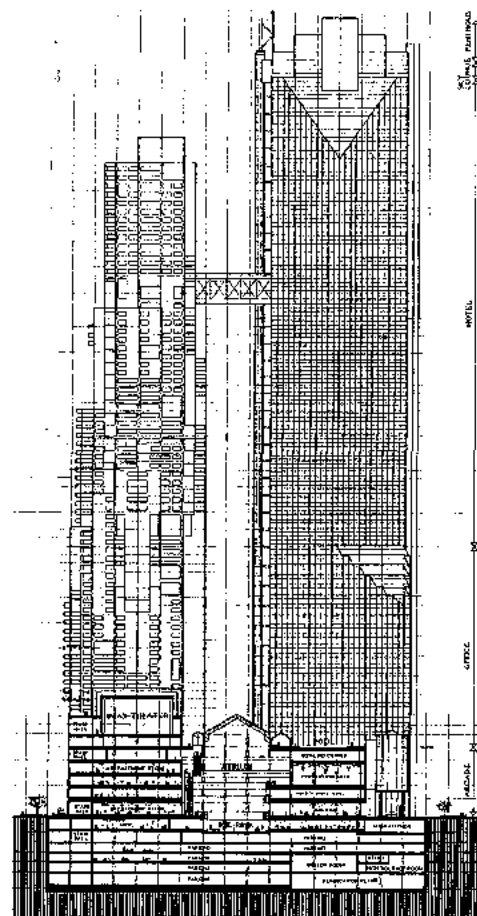
8.4m × 8.4m를 柱間계통으로 채용함으로써 특히 지하층의 차고공간과 주루와 각 객방의 단위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차고 배치도에서 보여지듯이, 柱間이 다소 여유가 있어보이나 고층의 하부 및 장차의 기계식 차고의 설치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적정 柱間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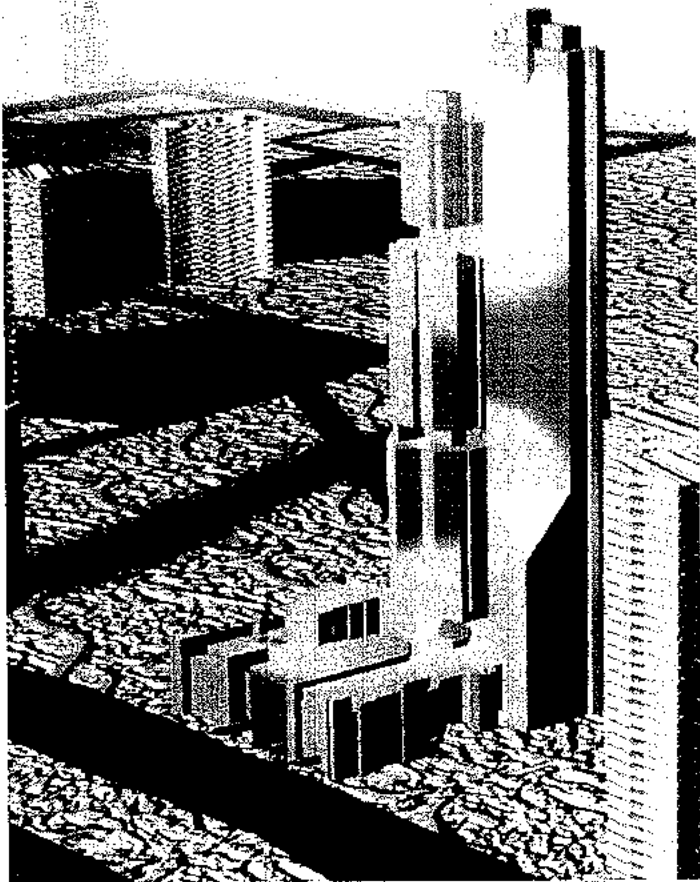
●층고 및 승직 Module 계획

180mm 계단을 최소단위로 하며, 모든 각층고를 540mm(180×3)의 배수로 한다. (外觀 天井高 公寓 및 객방층) 字間층 사무자동화 설비를 위하여 Access Floor를 둘 수 있도록 층고에 여유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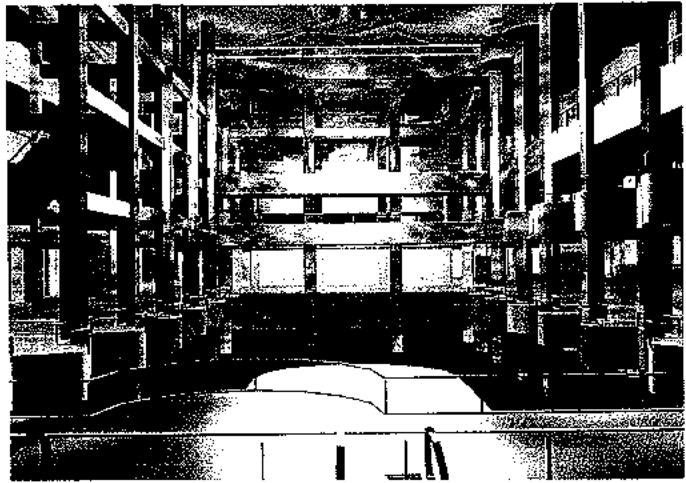
●저층동 결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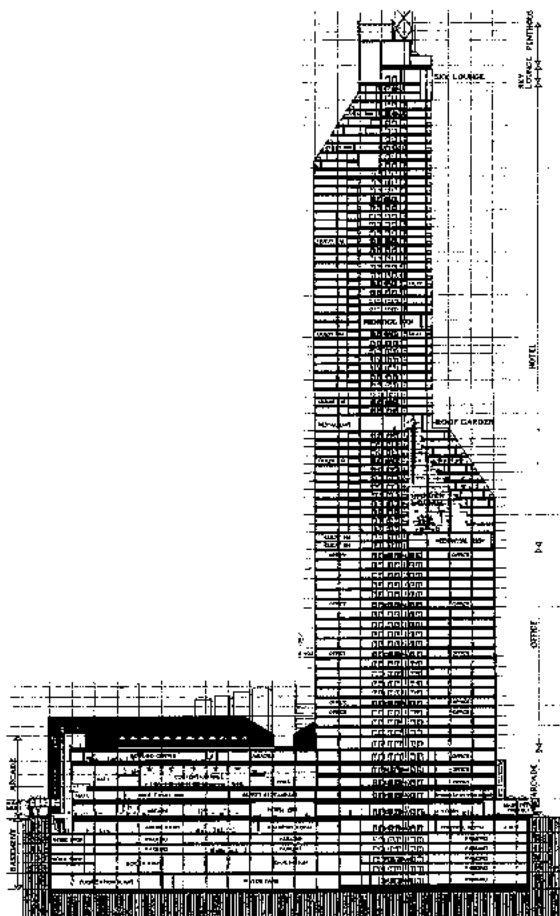
복층 입면도



전경 Simulation



아트리움 Simulation II



단면도

저층결구의 재료는 Concrete (300kg/cm²) 架構式으로 한다.

●공층동 結構방식

配樓 및 配樓의 고층부분은 철강과 Concrete의 합성에 의한 Composite Tubular 체계가 철강 Tube 보다 방열, 방열, 내수에 필요한 외벽의 시공성에 보다 우수하며, 경제적인 체계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결구를 Tube체제로 선택함으로써 지진과 태풍의 수평 하중에 가장 잘 적응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설비·전기계획

公寓는 각 주호별 단위로 냉방을 하고 寫字間, 주무동의 냉방은 중앙집중식공급으로 하며, 특히 주루는 20~25층마다 공조방을 두어 상하로 분산 공급한다.

寫字間層은 장치의 知的建築 (Intelligent Building)이 되도록 통신, 사무, 관리의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高層大樓 건축설계의 기본적인 고려사항

- 합리성 : 수평, 수직의 합리적인 柱間, 층고의 Module 체계총 체적 정보, 통신망의 구축 (Integrated System Data Network)
- 경제성 : 공사비의 절감, 공기의 단축, 지역자재사용의 최대화
- 공간활용의 융통성 : 간벽의 경량화, 수직교통체계의 합리화
- Energy의 절감 : Energy와 Lighting의 조절, 외벽의 단열
- 효율적인 관리체계 : 소수인원, 단동선, 유지보수의 용이

한국 청소년수련 마을

체육청소년부에서는 한국 청소년 계층에 대한 교육, 연수, 체육, 휴식 등의 수련활동을 유도하여, 정신 순화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수련의 장을 마련키 위하여 '한국 청소년 수련마을'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하였다.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하게 될 이번 청소년 수련마을 현상공모에는 총 8개 사무소가 응모를 하여 창우·정 종합건축+정덕훈(案)이 당선작으로 선정 되었으며, 예건종합건축(案)과 이방종합건축(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

창우·정종합건축 +정덕훈(案)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 154-1 외 24필지
지역·지구 / 국토이용계획상 경지
지역 및 산림보전 지역
대지면적 / 383,000㎡
건축면적 / 7,020.72㎡
연면적 / 16,294.64㎡
연수동-7,018.07㎡
숙박동-6,666.57㎡
규모 / 연수동-지하1층, 지상 4층
숙박동-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트러스
주요외장재 / 석재형 자기질 타일,
착색복층유리, 불소수지 알루미늄 후
레이미
주차대수 / 옥외 95대

■ 배치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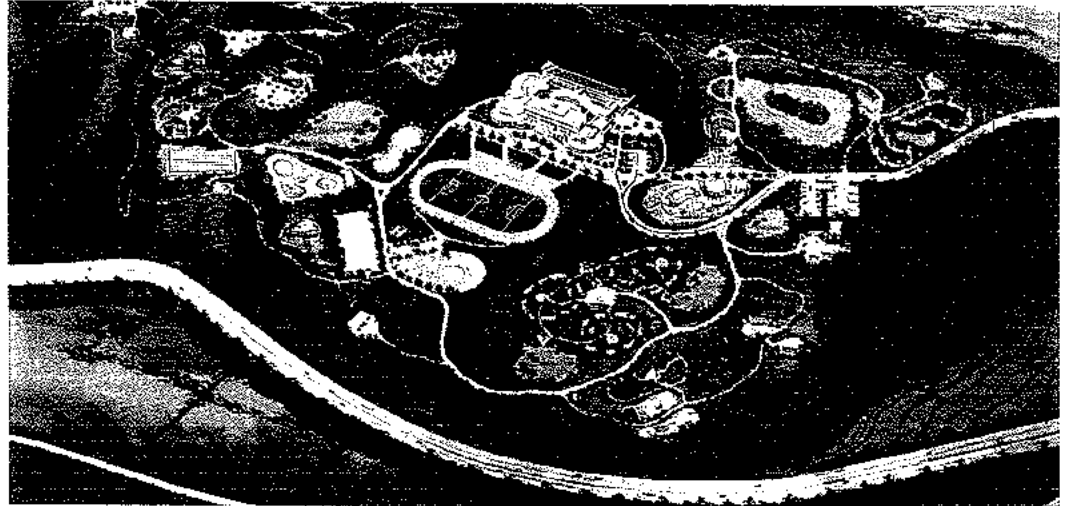
- 계획대상지 중심부 위치
- 각종 수련활동 총괄지원
- 이용객에 편안하고 인락한 휴식
처 제공
- 주변 수련시설과 연계 및 이동
이 편리하도록 계획
- 수련의 호기심과 안락한 분위기
조성

연수동

- 체육시설, 자연학습시설, 극기훈
련시설 등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중심공간 형성
- 숙박동과 연계한 동선고려
- 수련마을 입소 동선과 수련시설
이용 동선 분리
- 운동장에서의 전면성 고려한 배
치
- 남향의 저층 복합 건물로 배치

숙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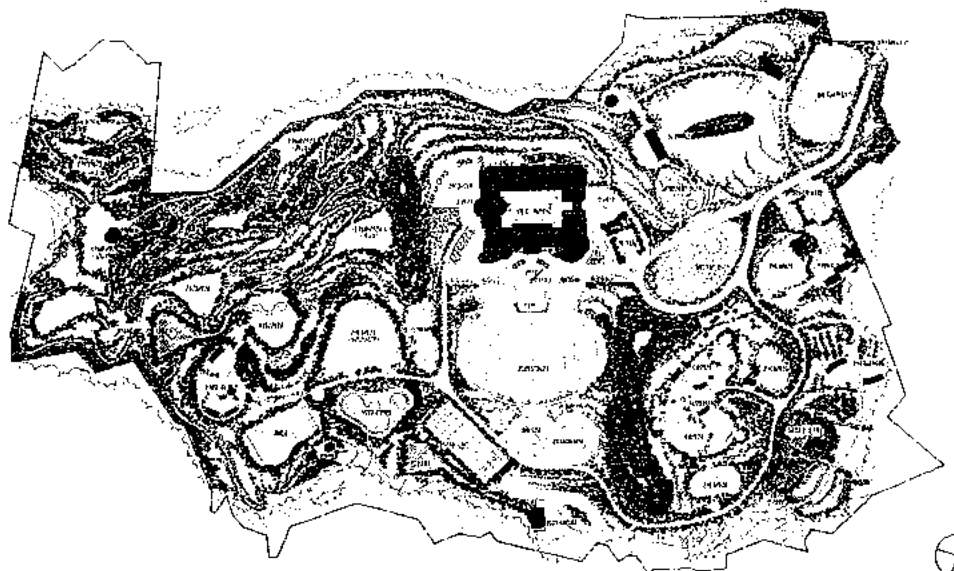
- 연수동과 중정으로 연결하는 건
물군 형성



조감도



투시도



단지계획 종합배치도

- 연수시설 이용의 편리성 도로 - 회랑설치
- 남향배치 - 에너지 절약
- 주변 휴식과 담화를 위한 옥외광장 조성

중정

- 숙소동과 연수동의 연결점 역할
- 한국적 풍취의 정원 구성
- 외형적으로 폐쇄공간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개방공간형성 (동서로 진입구, 남북으로 출입구, Open 공간의 개방공간)
- 안뜰공간 형성

■ 평면계획

연수동

- 이동동선 및 이용자수가 빈번한 강당, 체육시설을 저층부배치
- 저층부는 외부로의 진출입이 쉽게 계획 - 타시설과 연결
- 반공용공간 (Semi Public Space)은 상층부 배치
- 대강당부 - 750인 수용의 다목적 강당으로 계획
- 가시선 계획에 의한 시야확보
- 영사각 15° 이내 유지
- 음향적 결합 제거 - 반사 및 흡음재 사용
- 소강당부 - 소규모 다목적 강당

으로 계획 (400인 수용)

- 융통성 있는 내부 공간 계획
- 이동식 칸막이, 이동식의자
- 세미나실 - 회의, 집회, 토의 기능 - 이동식 칸막이 설치로 융통성 고려
- 박물관 - 전시공간, 수집공간 계획 및 조명시설 계획
-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
- 천체과학관 - 최상층부 위치: 돔 (Dome) 설치 - 천체관측
- 수영장 -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 (Passive Solar System) 설치로 에너지 절감효과
- 외부 Pool과 연결통로 설치

- 체육관 - 실내 체육에 필요한 교보재 창고 확보

숙박동

- 수련기간중 심리적 안정감 유지를 고려한 실 계획
- 복사난방에 의한 실내쾌적감 유지
- 층별 휴게공간 및 세면장, 욕실 계획
- 주위 식당·도서관에 연결하여 편의시설 제공
- 식당 - 식수인원 380명 고려 (2교대 배식 원칙)

■ 입면계획

- 한국적 이미지 부각
- 기단부 설치
- 처마의 우아한 곡선 연출
- 친근감 있는 재료의 사용
- 열주, 주두의 적절한 조화
- 현대적 조형이 가미된 아니덴티티 (Identity) 부각
-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레벨 차이에 의한 자연적 스카이라인 (Sky Silin) 형성
- 연수원 분위기에 맞는 아카데미 한 입면 계획
- 남측창을 크게, 북측창을 작게 하여 에너지절감 (Energy Saving)
- 대지에 안착하는 형태감
- 접지성 강조에 의한 시각적·역학적 안전성 부여
- 현대와 고전의 건축미가 어우러진 형태 계획

■ 단면계획

개념

- 지형에 의한 남측 북고의 단면 형태유지
- 일사·일조조절 개념에 따른 인동거리유지
- 기능별 분류에 의한 실의 저·고층부 배치

연수동

- 실의 기능에 따른 층고 설정
- 남측면의 일사량 확보에 의한 개구부 조성
- 천체 관측을 위한 수평·수직 개구부 형성
- 지형에 의한 단면고려 - 1층 북측면은 지면에 묻힘

숙소동

- 경제적인 층고 설정 : 3.3M
- 연수동에 의한 일사유영 배제
- 인동거리 확보
- 전면 상층부의 지형 레벨 (Level) 차이에 의한 조망 확보



남측면도 (연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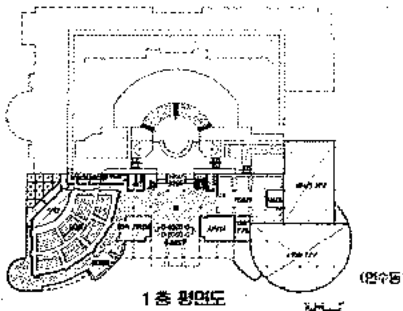
남측면도 (숙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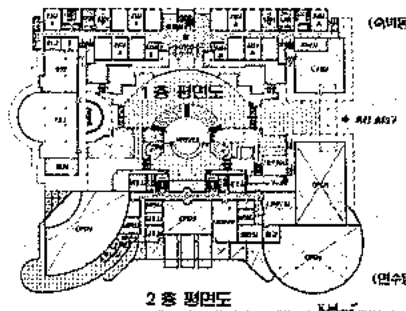
서측면도



동측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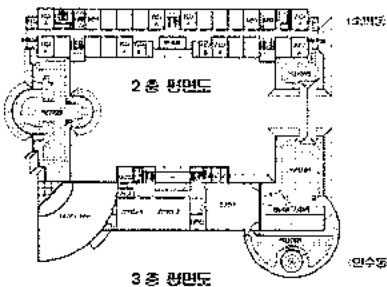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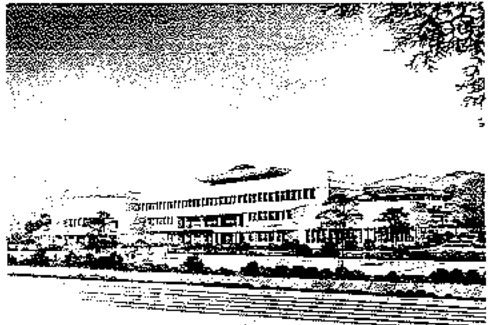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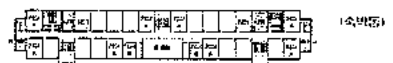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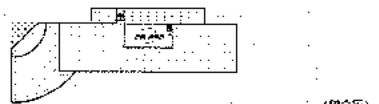
동측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우수작

예건종합건축(案)

(대표: 주영정)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 154-1 일원

지역·지구 /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상 경지지역 및 산림 보전 지역

대지면적 / 383,000㎡

건축면적 / 6,016㎡

연면적 / 16,295.1㎡

연수동 - 5,474.1㎡

숙박동 - 7,949.91㎡

부대시설 - 2,871.09㎡

건폐율 / 1.57%

용적률 / 3.79%

건물규모 / 연수동 - 지상 3층

숙박동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

Space Frame

주요외장재 / 화강석 버너구이,

외벽단열재, 아스팔트 성냥

THK24 갈라 페이글라스

주차대수 / 80대

■ 배치계획

-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동심원상에 숙박동, 연수동, 식당동을 분리 배치

- 남북방향으로 체육공간, 잔디광장, 연수동, 식당동, 숙박동, 야외공연장의 위계적 배치

- 진입로에 의한 사선축방향으로 실내수영장을 연수동쪽에 배치하고 야외공연장을 숙박동후면 계곡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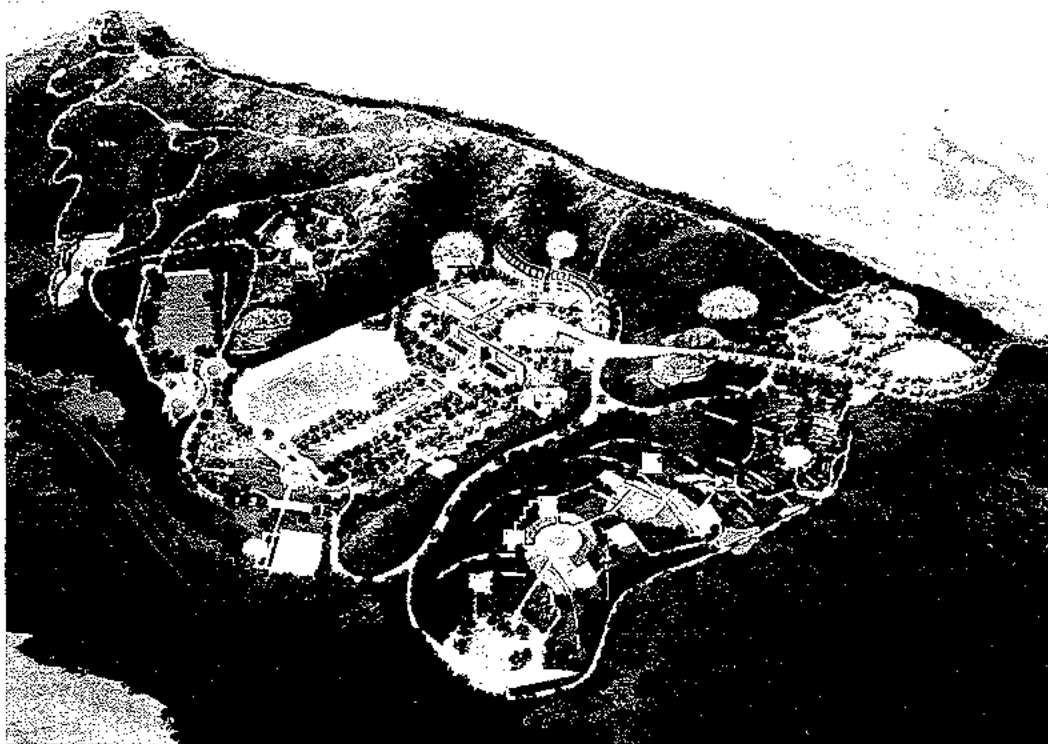
- 북측 후면 산세 및 지형과의 조화를 고려한 곡선형의 숙박동 배치

● 광장 계획

- 접근성이 용이한 주접근로에 중앙광장 배치

- 주변부대 시설과 연수 숙박동의 기능적 연계성을 둔 가변적 동심원의 배치로 매개공간 및 상징적 중심공간의 성격을 강조함과 동시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 연수동 남쪽에 중앙광장의 폐쇄적 성격과 대비되는 개방적 공간으로서 체육시설 및 자연과 연계되는 잔디광장 배치



조감도

● 주차장 배치 계획

-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경제적 배치

- 중심광장의 동심원이 확산 반복되는 환경과의 통일성

- 주접근로의 좌측에 배치하여 시각적 부담감 해소 및 동선의 원활성 추구

- 일반 차량과 서비스 차량의 주차 분리

■ 평면 계획

● 연수동

- 중앙 광장에서 진입하는 북쪽의 주출입구는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2층으로 진입하고 남쪽의 북출입구는 1층으로 진입하여 고저차이를 극복하면서 중앙홀을 크게 두어 동선의 혼잡을 피하며 밝은 공간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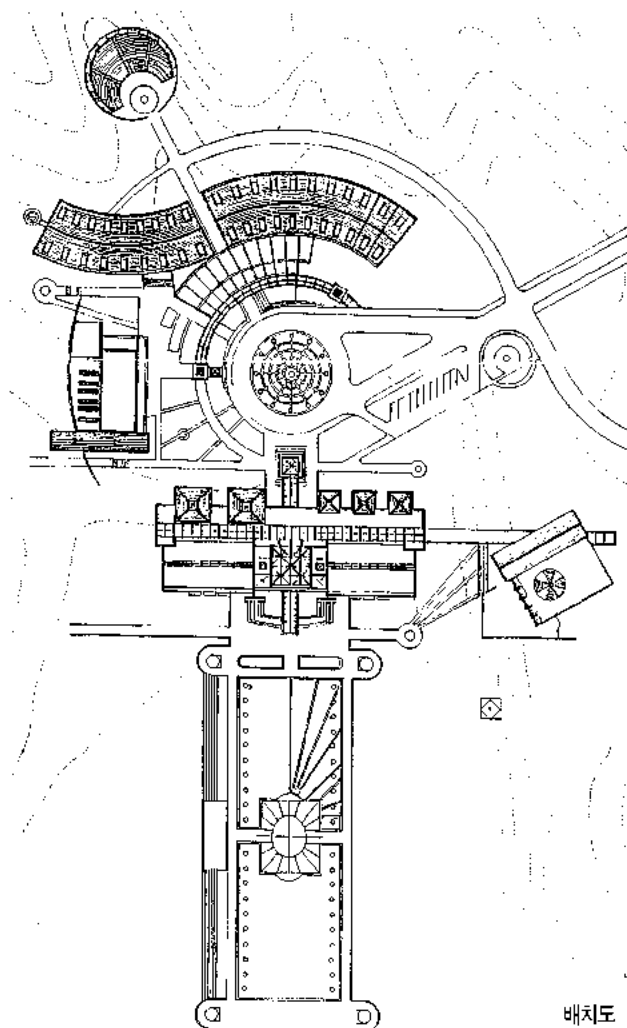
- 층별로 유사 기능의 시설을 묶어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분리 배치하여 공간의 효율적 배치

- 피난 공간 인지가 쉽도록 각공간을 복도로 연결하는 자연스런 동선 체계

- 가장 동선이 혼잡한 대강당 및 체육관을 남측 피난층으로 두어 피난이 쉽게 하고 동선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홀의 연장 데크 설치

- 긴급대피시 두 방향의 외면 피난이 가능케 한다.

- 건물 장변방향 양측에 계단을 두어 수직동선을 유기적으로 해결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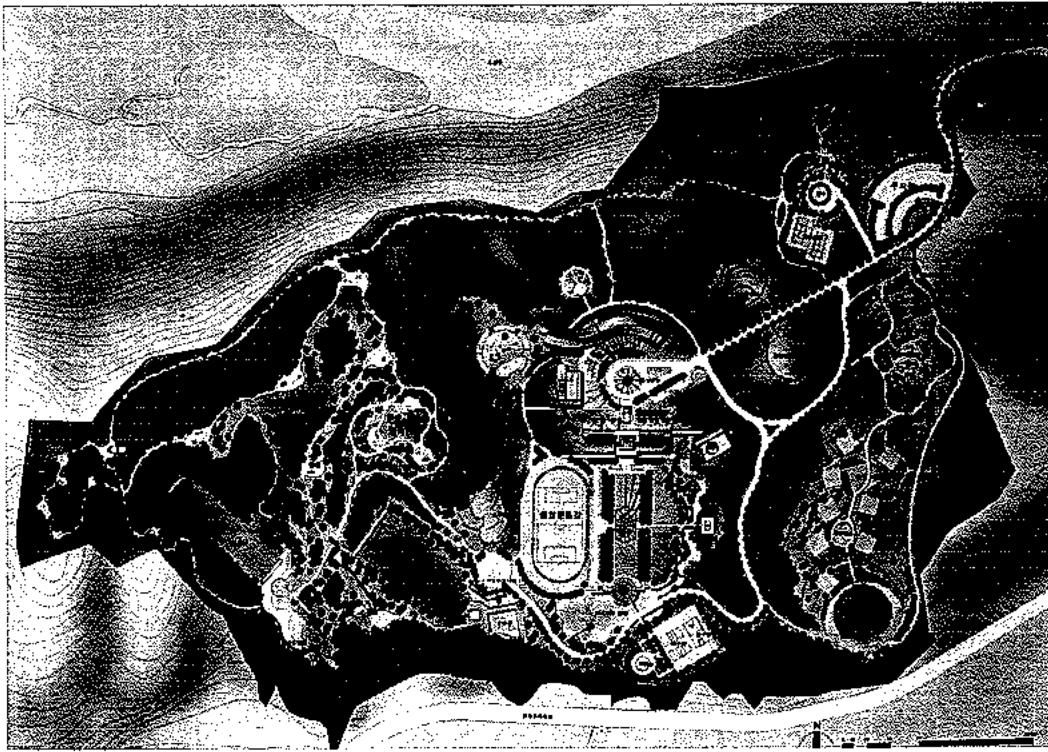
다.

- 공간의 균일성, 실용성, 시공성의 높은 효율성과 구조합리적인 선정에 의한 6.0M×6.0M의 모듈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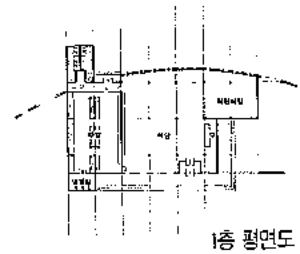
● 숙박동

- 중앙광장에서 주진입을 두고 동을 2개로 분리시킨과 동시에 평면



단지계획 종합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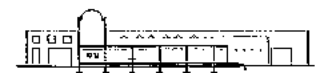
식당동



1층 평면도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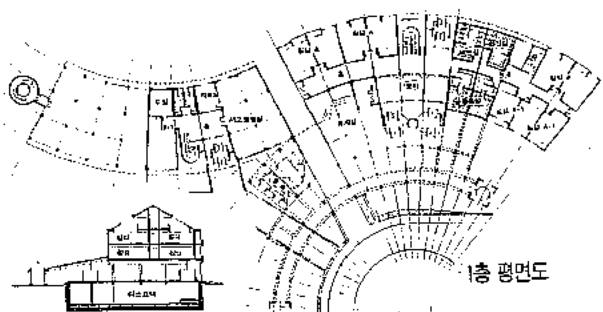


일반 단면도

숙박동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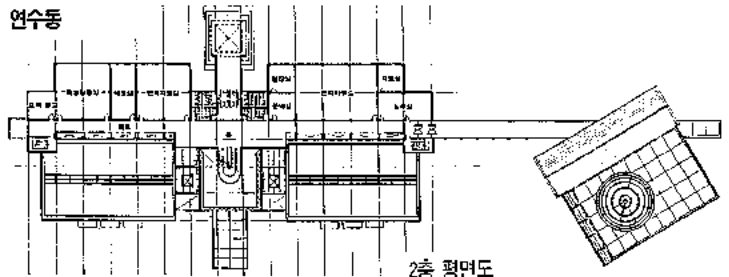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숙박동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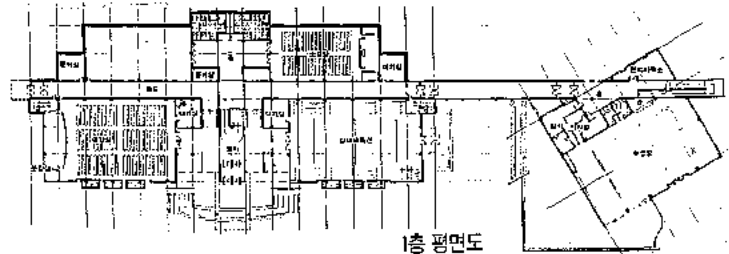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연수동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측 입면도

상에서 S자 굴곡을 주어 평면과 입면의 단순함을 완화시키고 전면 광장과 후면의 옥외 공연장을 연결시키는 통과동선은 2층에서 다리를 통해 연결됨

—계단 주위로 세면실과 화장실을 두어 코아 집중

• 식당동

—연수동과 숙박동에서 중앙광장을 통한 주 진입

—중앙광장의 동심원상의 곡선을 활용한 평면형태

—중앙광장의 전면부와 연수동쪽

의 코아 부분의 직선적인 요소와 녹지공간과 숙박동이 연결되는 곡선적인 요소가 조합된 평면형

■ 입면 계획

—대장지의 지세가 산세임을 고려하여 산의 형상에서 지붕 형태로 유추된 전체 매스(Mass)형태에 은유적으로 표현 (박공지붕 사용) 하고 마감재료에서도 자연적인 화강암을 사용한다.

—전통적인 곡선을 사용하여 여성미를 나타낸 숙박동과 현대적이고

남성적인 역동성을 나타내는 연수동의 대비된 통일감을 표현

—지루한 긴입면을 분절시킴으로써 입면의 단조로움을 없앴

—정면과 측면의 상층부분의 형태 분절로 시각적 충격을 완화시키며 각 형태요소들의 집합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

■ 단면 계획

—양호한 시계를 확보한다.

—천창을 이용한 자연채광의 적극

도입 및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의 활용으로 에너지절약 효과추구(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 복도상부 아치형 채광창)

—실내체육관과 대강당은 측창의 루비를 이용하여 각 기능별로 실내 유입 주광을 조절하고 경기시에는 폐쇄하여 선수들의 양호한 시야조건을 확보한다.

—경사지인 자연대지를 이용 절토와 성토의 토목량을 최소화한다. (경제성 및 자연환경 보존)

우수작

이방중합건축(案) (최태용 + 김광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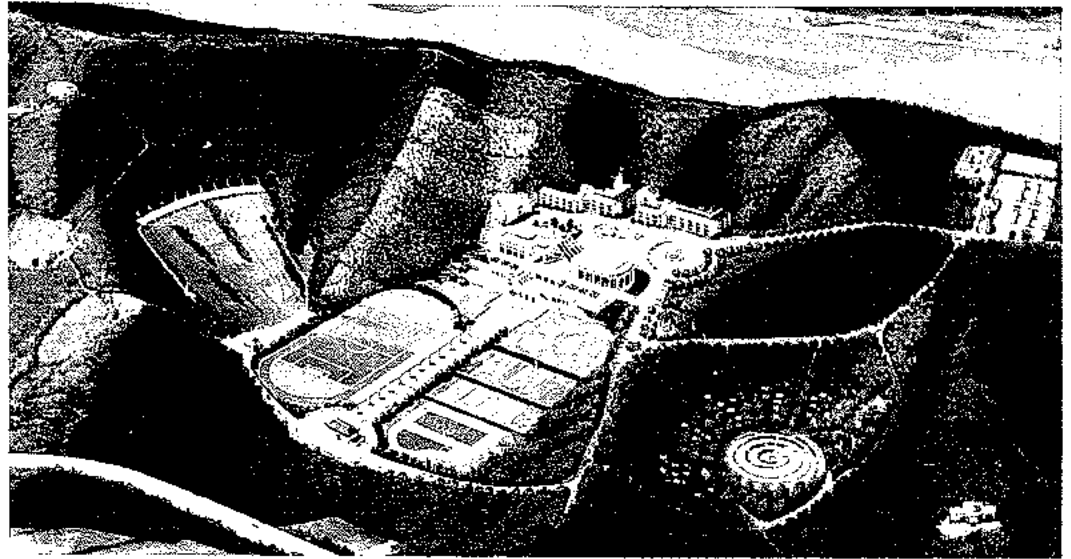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 154-1의 24필지
지역·지구 /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상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
대지면적 / 383,000㎡
건축면적 / 13,702.33㎡
숙박동 - 7,929.39㎡
연수동 - 5,772.94㎡
주요의장제 / 숙박동 - 드라이비트,
복층유리
연수동 - 화강석 버너구이,
복층유리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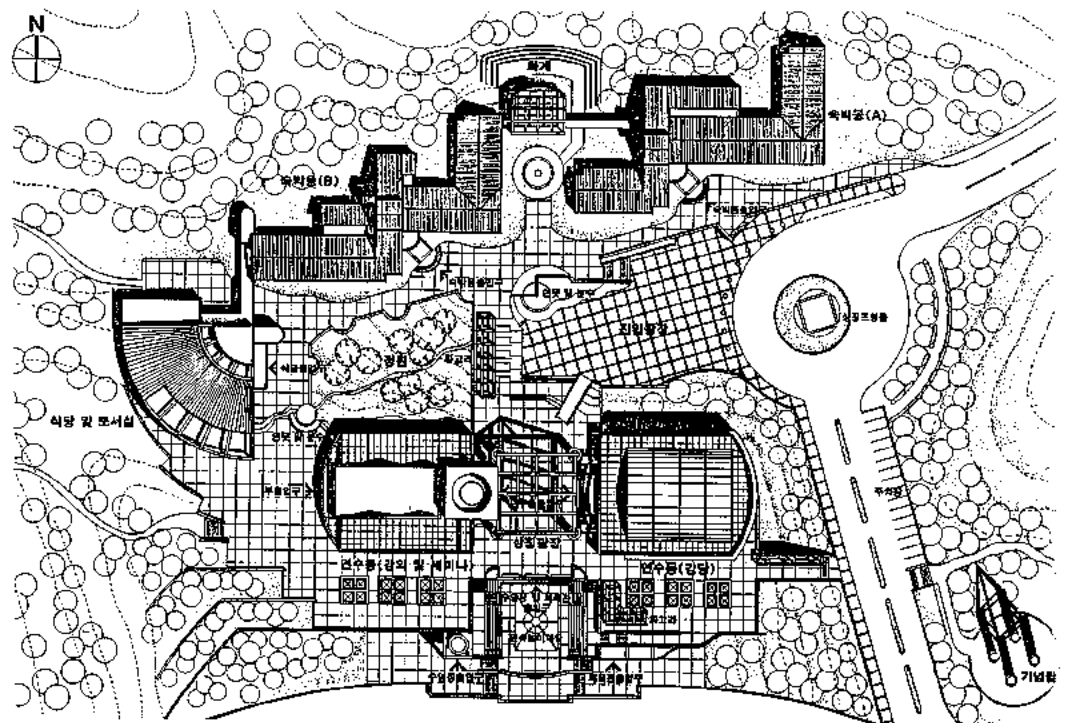
- 부지 중앙 평탄지에 주제마당을 두어 청소년 수련 마을의 중심으로 각 시설지로 연결되고, 집회 및 휴식등의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다목적 마당으로 계획
- 주제광장 북측기단 위에 숙박동 배치. 북쪽으로 산을 끼고 남쪽으로 전망이 매우 좋은 곳에 남향배치
- 에너지 절약을 고려해 숙박동의 모든 거실은 남향배치
- 수련마을 전체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고려해 연수동은 시설지 대부분이 조망가능한 광장 남측에 배치
- 식당 및 도서관은 숙박동과 연수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메밀꽃 동산 및 달맞이 동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배치

■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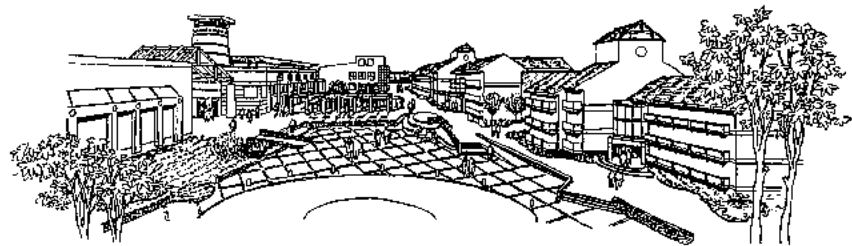
- 숙박동
 - 평면의 굴곡을 이용하여 형태의 변화를 유도하여 각 굴곡을 하나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보이게 하여 자연생성된 마을의 이미지를 연상케 계획
 - 숙박동, 6개 수련단위로 보고, 각 단위별 독립된 수련활동 가능하게 계획
 - 모든 거실의 남향배치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 써비스 시설 집중배치로 배관 거리 및 에너지 손실 최소화



조감도



배치도



진입광장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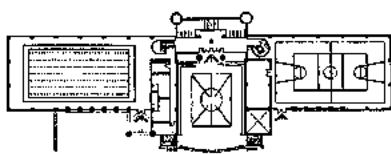
-진입현관의 축 변화로 시각적 인지도를 높임
-휴게공간 집중으로 각 수련단위 간의 교류 유도
-동선의 굴절부의 여유있는 공간 계획으로 간이 휴게공간으로 활용
-공동이용시설을 숙박동과 연수동 연결부에 위치-식당(400석)

매점, 도서관
•연수동
-소음과 하중을 고려하여 실내수영장과 체육관을 지하에 계획
-광장의 성격에 따라 크기 및 포장재를 달리하여 각 광장의 특색있는 분위기 연출
-광장주변에 충분한 휴게시설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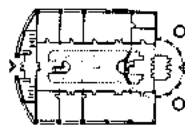
치
-중앙의 주제 마당에 직접 진입 가능한 곳에 강당(객석: 750석)을 계획
-천체과학관을 대지의 랜드마크로 중심부에 별도의 매스(Mass)로 처리
-강의동은 중복도의 답답함을 고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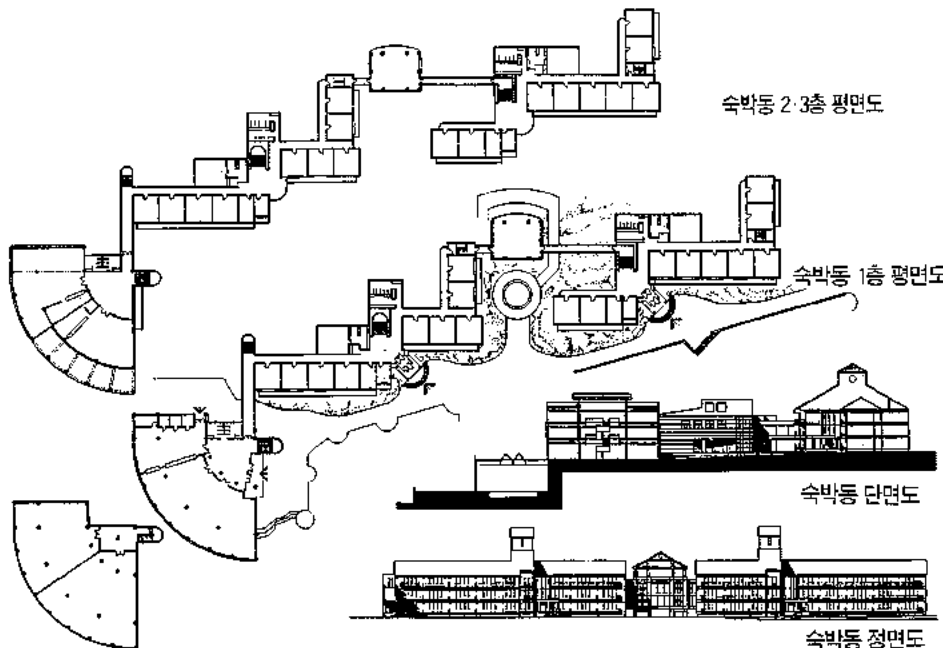
연수동 지하층 평면도



연수동 1층 평면도



정면도



숙박동 2,3층 평면도

숙박동 1층 평면도

숙박동 단면도

숙박동 정면도

려해 중정설치 하여 해소
-강당과 강의동 사이에 고저차를
이용한 민속놀이마당-야외 집회
및 공연시설 (Arena)설치

■ 입면 계획

-전통건축어휘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전통성 구현

-각 건물의 기능과 연관된 디자인
어휘의 사용으로 특색있는 입면 이
미지 연출

● 숙박동

-지붕의 중첩효과를 전통마을의
진입에 느껴지는 전경을 연상하는
지붕의 중첩효과
-숙박동은 주제마당 윗쪽 기단위

에 두어 안정감 있는 입면으로 계
획

-휴게실을 남북축선의 중심에 두
고, 1층은 피로타로 계획하여 뒷산
의 풍경을 주제마당에 자연스럽게
연결

-휴게실은 별도의 매스 (Mass)
로 처리하여 인식도를 높이고, 동

시에 투명한 재료로 마감하여 뒷산
과 시각적 연결을 시도

● 연수동

-위풍당당한 파사드로 계획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에 면하는 지하층
은 노출시켜 건물의 기단으로 보이
게 계획

-입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전통건축어휘를 현대적 해
석하여 전통성 표현

-강의동과 강당동의 연결부에 5
량가구를 형상화한 구조물을 상징
적 중심으로 설정

-강당동과 강의동 입면과 창호에
전통적 비례 적용하여 통일성 속에
변화 추구

-천체과학관을 독특한 형태로 다
자인하여 청소년 수련마을의 랜드
마크로 계획

■ 단면 계획

-기존 지형에 최대한 순응하고 자
연생태계에 보존에 역점

-고저차에 의한 공간의 기능과 성
격을 차별화

-민속놀이마당

-상징광장-중정

-진입광장-정원

-후원

● 숙박동

-각 수련단위별 구획으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진입광장과 고저차를 두어 정적
인 공간으로 조성

-휴게실 뒤에 화계(꽃단)를 설
치하여 뒷산과의 자연스런 시각적
연결을 시도

● 연수동

-지하의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
관을 중합운동장 쪽으로 노출 배치
함으로써 천창과 고창으로 채광 및
환기가능

-좌측 연수동 1층에 행정부대시
설, 2층에 강의 세미나, 3층에 박
물관 및 천체과학관 계획

-우측 강당동은 1층 소강당, 2층
대강당, 3층은 영사실 계획

-연수동과 강당사이에 파발리용
계획

-파발은 지하에 대규모 노천극장
를 계획하여 야외공연 및 집회 장
소로 활용

-좌측 연수동 1층에 행정부대시
설, 2층에 강의세미나, 3층에 박물
관 및 천체과학관 계획

-우측 강당동은 1층 소강당, 2층
대강당, 3층은 영사실계획

구리시 실내체육관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구리 시민의 심신 단련 및 체력향상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구리시의 특징을 상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현상 설계 경기를 실시하였다.

교문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게 될 이번 실내체육관 현상공모에는 총 8개 작품이 응모하여 예건종합건축(案)이 당선작으로 선정 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이공종합건축(案)이 선정되었다.

당선작

예건종합건축 (案)
(대표:주영정)

대지위치 / 구리시 교문동 산 60번지
지역지구 / 교문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름

대지면적 / 51,000.00㎡
건축면적 / 2,246.28㎡
연면적 / 3,350.28㎡
지하층 - 336.00㎡
1층 - 2,246.28㎡
2층 - 768.00㎡

건폐율 / 4.40%
용적율 / 5.91%
규 모 / 지하 2층, 지하 1층
구 조 / 철제 Pipe Truss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
외벽 - 화강석 버너구이, 알루미늄
복합판넬, 불소수지 페인트
지붕 - 메탈 라이너 샌드위치 패널
주차대수 / 총 76대

■ 계획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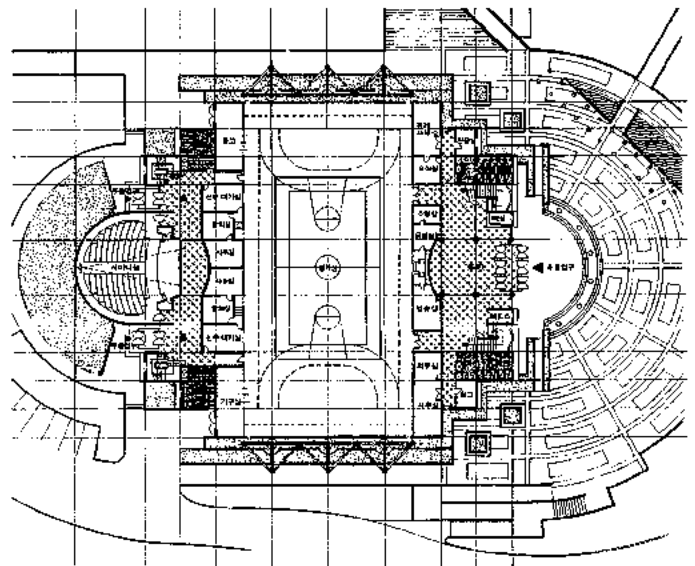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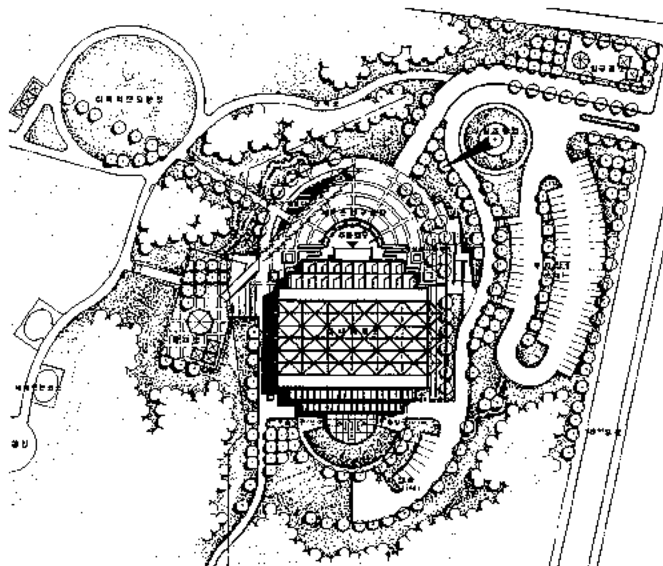
- 구리 시민의 심신단련 및 체력향상과 문화창달에 기여
- 구리시의 특징을 상징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 시민 이용의 편의와 현대적인 설계
- 주변환경과 조화
- 사회체육에 기여 및 실내 체육경기의 활성화 기대
- 전천후 체육시설 공간의 확보

■ 배치계획

- 1) 대지이용
 - 교문공원의 정상에 배치시킴으로써 Open 된 시각축을 형성하여 구리시의 Landmark 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 주거단지와 체육관과의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여 소음을 차단한다.
 - 북쪽에 주 진입로장을 형성하고 남쪽에 부 진입로를 두어 체육공원의 휴게광장과 정상부의 전망 휴게소 등을 연계시킨다.

- 2) 동선 계획
 - 지형 지체에 따른 배치로 인한 시공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 진입부, 전면광장, 녹지공원 등 면적인 공간요소의 전개와 건축물, 녹지 등 입체적, 수직적인 공간 요소를 중첩해서 구성한다.
- 2) 동선 계획
 - 교문공원 시설의 각 공간을 결집하는 중심부의 기능을 하며 각 시설과 순환적인 연결을 유도한다.
 - 일반 관람인은 북쪽 주출입구로 진입하고 VIP 및 선수, 임원진은

조감도



1층 평면도

남쪽 부출입구로 진입을 유도한다.

-소규모 행사시에 남쪽 부출입구로 일반인의 진입을 유도한다.

-주 진입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완전 분리한다.

-접근성이 용이한 주접근로에 전면광장을 배치한다.

-주변의 공원시설과 체육관의 기능적 연계성을 둔 격자형의 정연한 체육관의 질서체계에 자유롭고 가변성이 큰 동심원의 오픈스페이스를 위치시킴으로써 지나친 인공성과 정형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3) 주차장 계획

-지형 지세에 순응하는 배치로 시공비를 절감한다.

-전면광장의 동심원적인 배치가 확산 반복되어 전체 지형 지세와 통일감을 유도한다.

-주접근로 좌측에 배치하여 시각적 부담감 해소 및 동선의 원활성을 추구한다.

-일반인과 선수, 코빈, 임원 및 서비스 주차를 별도 분리한다.

■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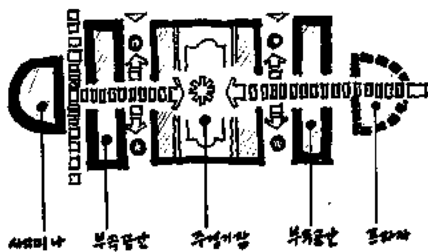
-경기장으로 주진입하는 북쪽의 주출입구에 로비 및 매점은 일반 관람객을 위한 시설로 구성하고 VIP 및 선수 입원은 남쪽 부출입

구로 유도하여 동선 및 기능을 분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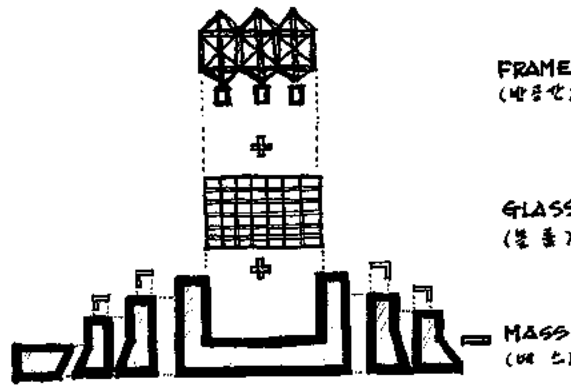
-관람객 편의시설을 북쪽 주출입구의 로비에 집중 배치하여 경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와 소규모 행사의 경우 경기운영 시설과 분리가 되어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에너지 절감의 효과도 상승한다.

-경사진 지형 지세의 상승적인 이미지가 Mass에서도 연계되어 자연과 인위가 조화되는 형태를 형성화

-균질하고 기계적인 이미지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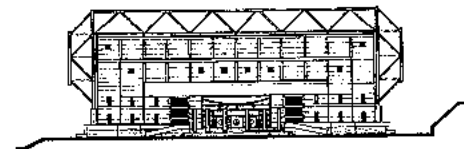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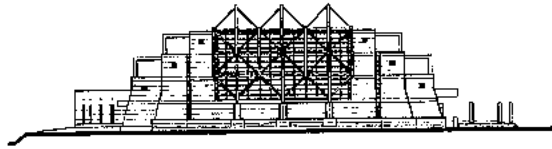
FRAME
(바닥판)

GLASS
(볼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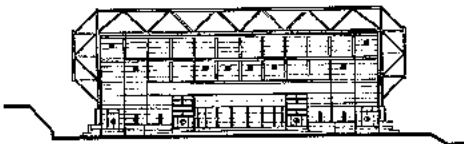
MASS
(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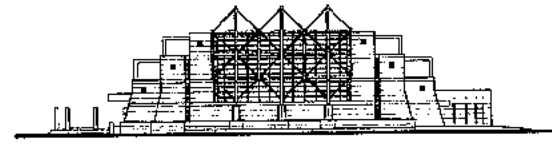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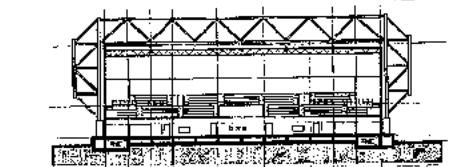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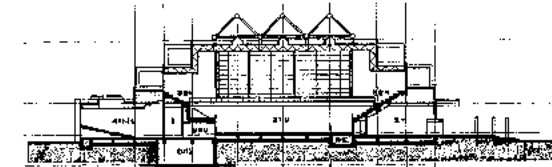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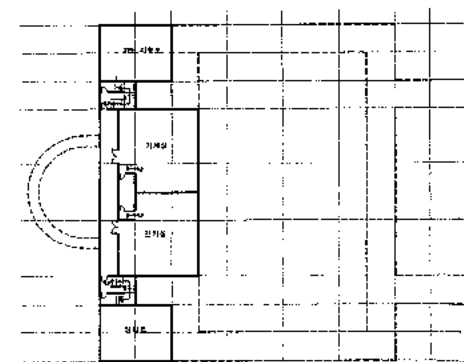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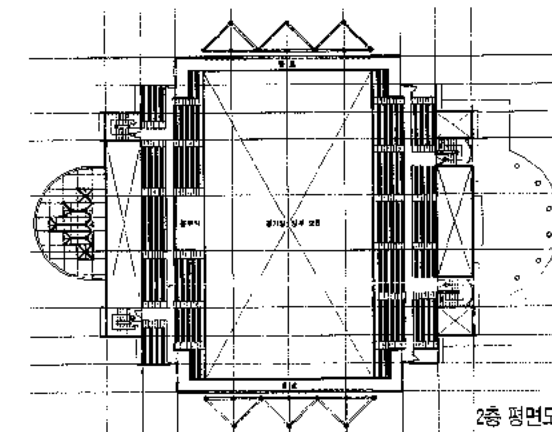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태와 재료를 사용하여 체육관의 역동성을 형성화

-육중한 Mass와 시각적 분절화로 심리적 충격완화

-각 공간의 기능적 차별성이 외관에서 솔직하게 표현

■ 입면 계획

-정형적인 상부와 지붕의 곡면 형태를 피하고 절제 Truss의 인장 부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힘찬 구조미를 표현한다.

-대상지의 지세가 산세임을 고려하여 산의 형상에서 입면 형태를 추출하여 전체 Mass 형태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마감재료에서도 자연적인 화강암을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인위성이 강한 알루미늄 복합 패널과 절제 Truss의 구조노출로 경기장부분을 마감하고 자연적인 화강석으로 관람석을 외부마감하여 기능에 따른 공간분할을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두 재료의 대조적인 느낌을 외장요소로 적극활용한다.

-하늘의 색과 숲의 색을 측면의 유리외장벽의 프레임에 통하여 표현하고 이에 대한 액센트 칼라 붉은색으로 대조의 효과를 표현한다.

-현존의 산세에 의한 선을 최대한 존중한다.

-정면과 측면의 상층부분을 형태적으로 분절함으로써 관람인의 시각적 충격을 완화시키며 각 형태요소들의 접합부분을 강조 표현함으로써 시각적 지루함을 경감시킨다.

-평면에서 적용된 8.1M×8.1M의 모듈이 Truss구조체를 비롯한 입면에도 적용되어 구조와의 합리성, 외장적 효과와 함께 시공비 절감효과를 유도한다.

■ 단면 계획

-안전하면서도 양호한 시선을 확보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자연광선을 천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측창의 루버를 이용하여 각 기능별로 실내유입 주광을 조절하고 경기시에는 폐쇄하여 선수들의 양호한 시야조건을 확보한다.

-2층 관람석을 1층의 로비를 통하여 직접 진입하므로 동선혼잡을 피한다.

-경사지인 자연대지를 이용 절토와 성토의 토목량을 최소화한다.

응모작

이공종합건축(案)

(대표: 류춘수)

대지위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산 60번지 일대
대지면적 / 51,000㎡
건축면적 / 3,584.7㎡
연면적 / 5,168.52㎡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트러스조
층수 / 지하 1층, 지상 2층
관람석 / 최소-756석, 최대 2886석
고정식-756석
이동식: 최소-402석
최대-2,130석

■ 배치 및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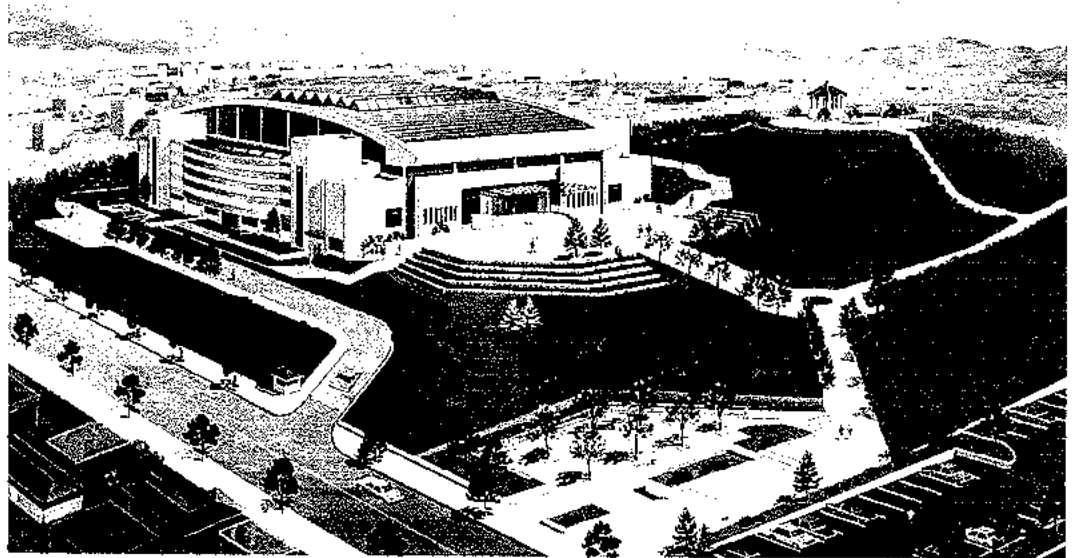
- 진입광장-매개공간-주광장-실내체육관으로 이어지는 진입동선의 활성화
- 전망대와의 유기적 연결, 전체 공원 구역내 시설간의 유기적 연결
- 도시속에 순응하는 배치
- 관람자와 선수, 임원간의 동선의 분리
- 명쾌한 동선 및 합리적 공간구성

■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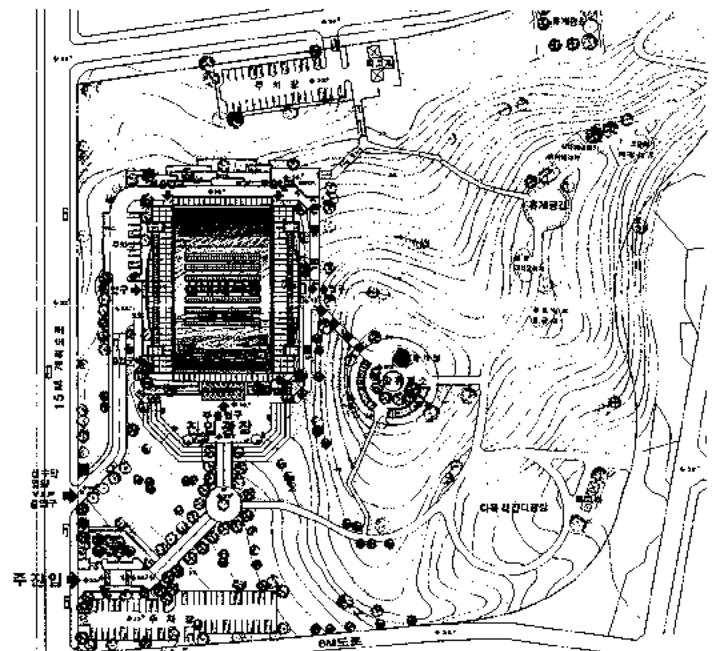
- 자연지형의 맥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연속성 확보
- Level 차를 이용한 적극적 진입
- 전망대 기능 활성화
-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입면 및 재료 색채계획

■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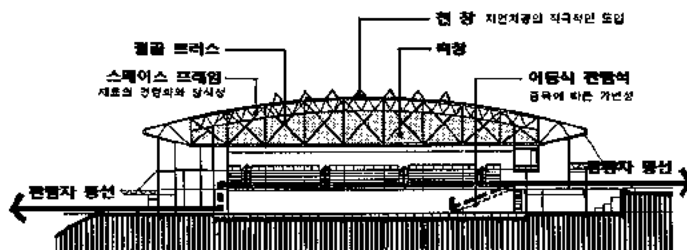
- 스페이스 프레임 (Space Frame)의 사용으로 재료의 경량화와 장식성
- 자연채광의 적극적 도입: 천창 및 측창
- 용도에 따른 공간의 가변성: 수납식 이동 관람석
- 관람장의 쾌적성: 가시선 검토에 의한 시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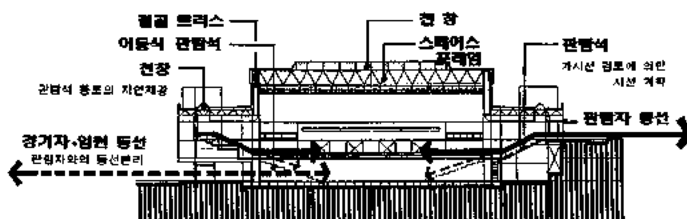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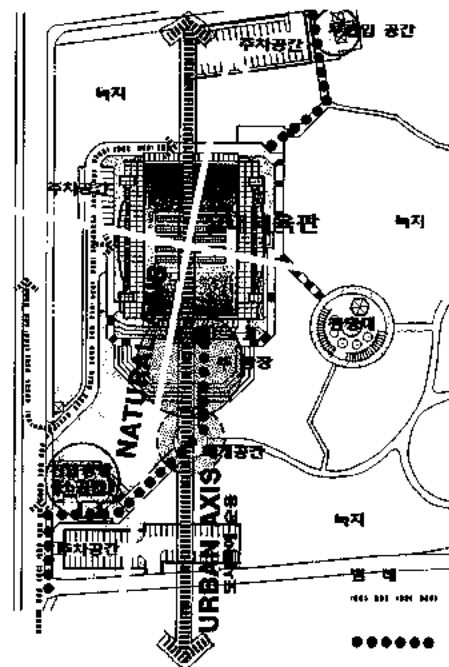
배치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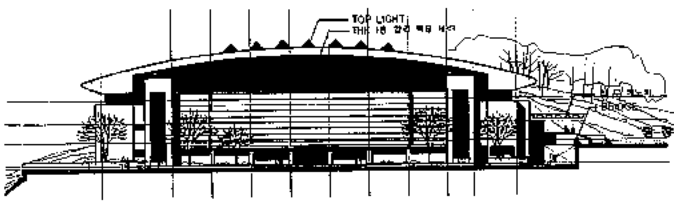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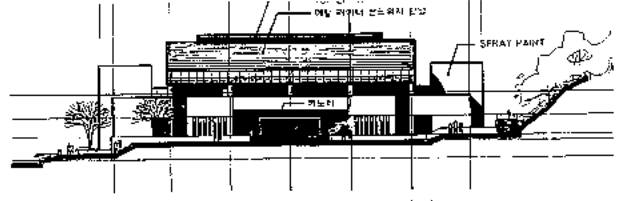
단면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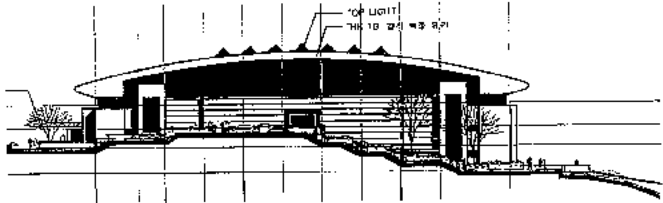
배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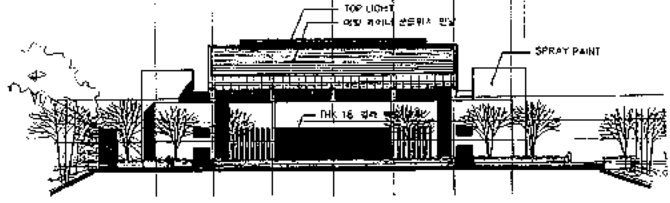
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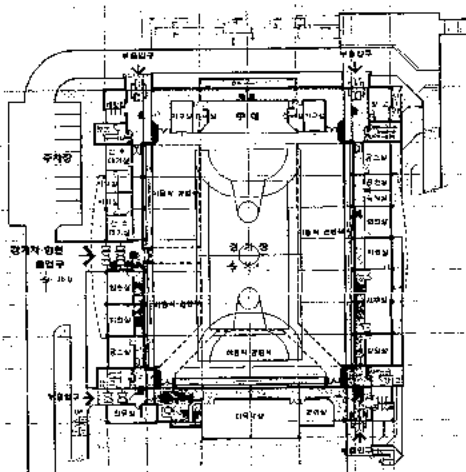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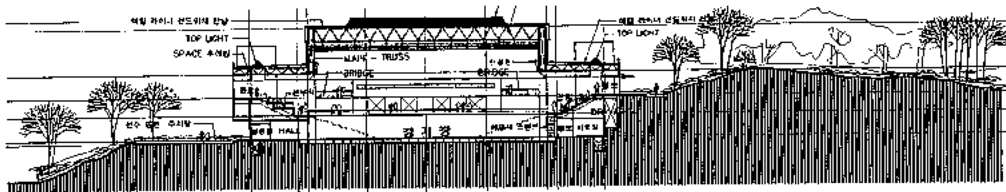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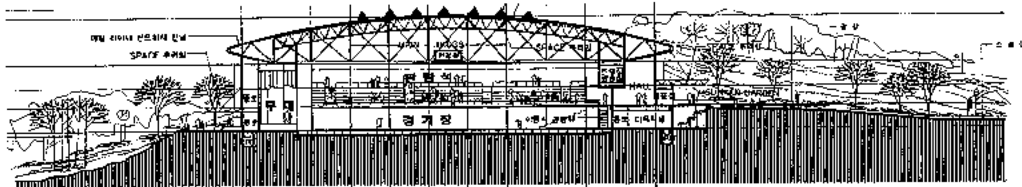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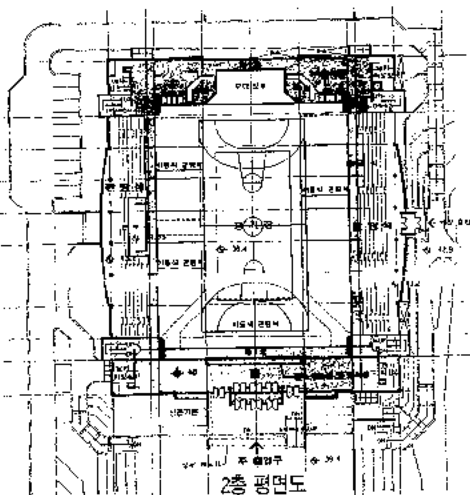
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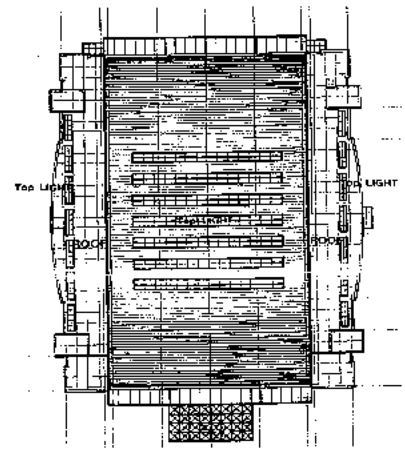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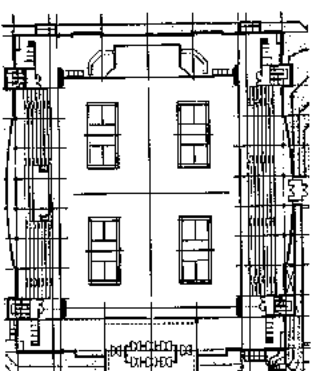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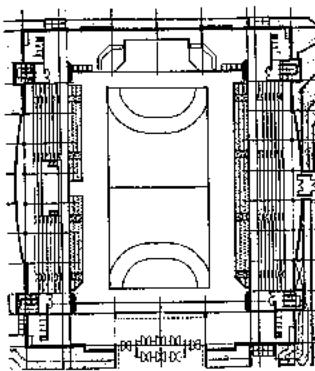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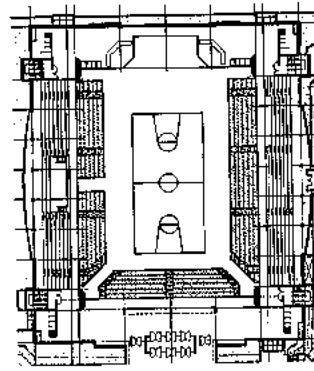
관람석의 가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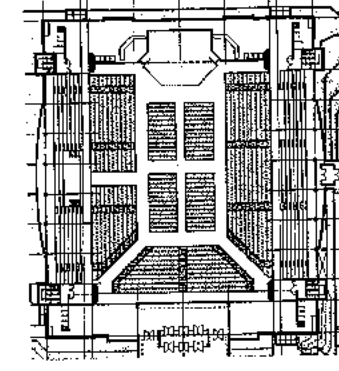
생활체육·밴드민턴



핸드볼



농구·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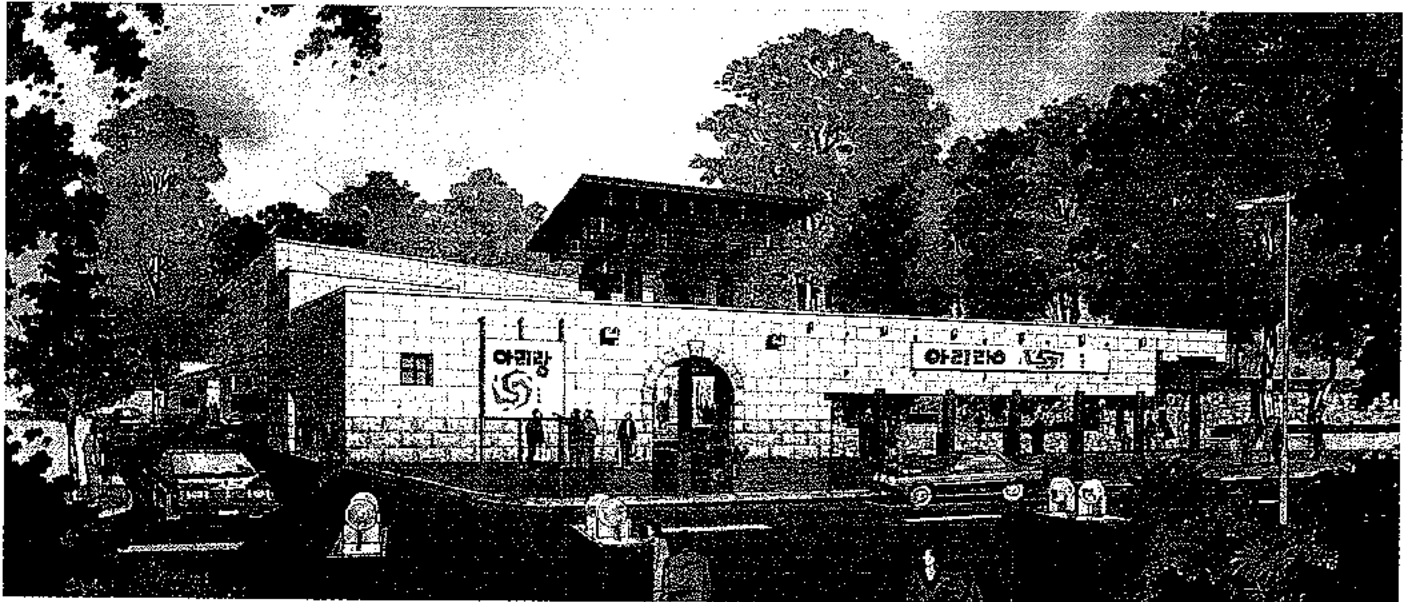
강연 및 공연

연극 전용극장 '원각사'

문화부에서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추구하고 문화를 보호육성하며 연극 및 전통예술의 공연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소극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연극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극장인 '원각사'를 재현한다는 취지아래 연극전용극장 '원각

사'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하였다.

지명현상설계로 실시된 이번 설계경기에서는 금성건축+대우건축이 당선작으로 선정 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간·삼건축사와 ALS 건축사가 선정되었다.



투시도

당선작

금성건축(김상식)+
대우건축(이상현)案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8-11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516.1㎡
건축면적 / 427.61㎡
연면적 / 1,498.56㎡
건폐율 / 28.20%
용적율 / 12.26%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일부
철골트러스)
외부 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복층 유리
주차대수 / 지상 34대

■ 건립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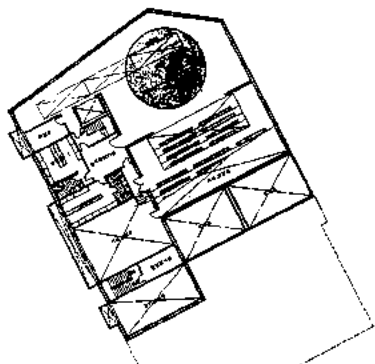
-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추구하고 문화를 보호 육성하여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이루도록 한다.
- 연극 및 전통예술의 공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의 가변성과 완벽성을 기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 일상 생활 속의 일부분이 되게 한다.
-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공간적 내용에 충실을 기하여 실용적인 문화공간이 되도록 한다.
- 문화예술공간은 시민을 위한 시설임을 고려하여 형태적인 위압감

이나 이용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감 있고 개방된 공간이 조성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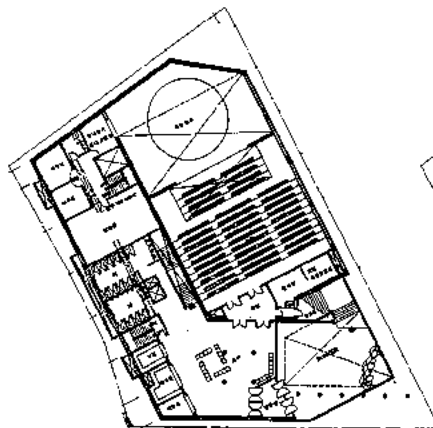
■ 계획의 기본 개념

정동교회와 나란히 가는 도시축과 미대사관 돌탑으로 구획된 대지의 직교축이라는 이원적 요소를 수용하여 건축적인 처리는 대지의 직교축에, 정면성의 가벽은 도로의 도시축에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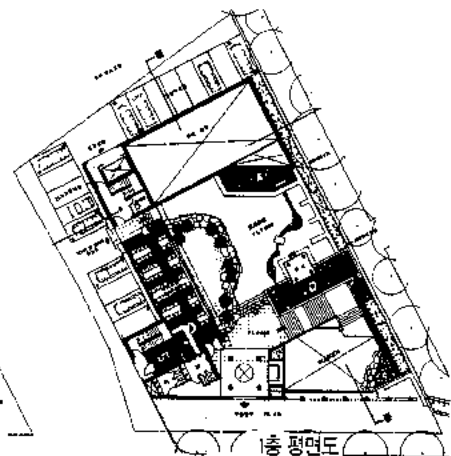
극장을 지하에 위치 시킴으로써 협소한 대지조건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소음문제를 해결하였고, 가변성과 여유로운 부대시설을 확보



지하 2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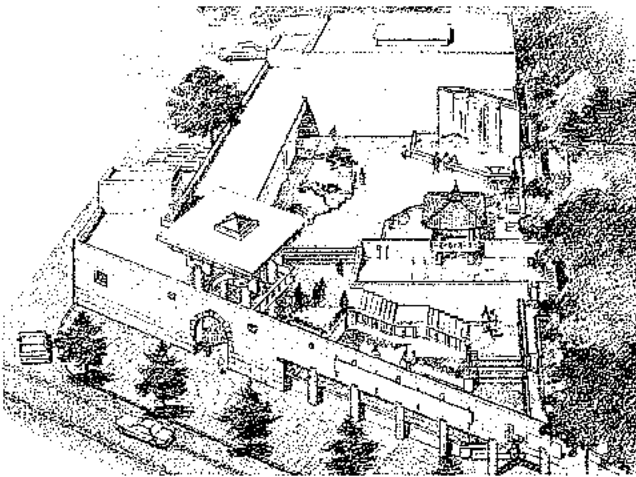
지상층에는 무대 Fly Tower만 노출되므로 여유있는 자상층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각사의 이미지와 정분의 상징성·인자성을

부각시키는 상징루를 두었고, 가벽은 홍보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레스토랑, 선관가든, 연못, 여유 있는 진입계단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동선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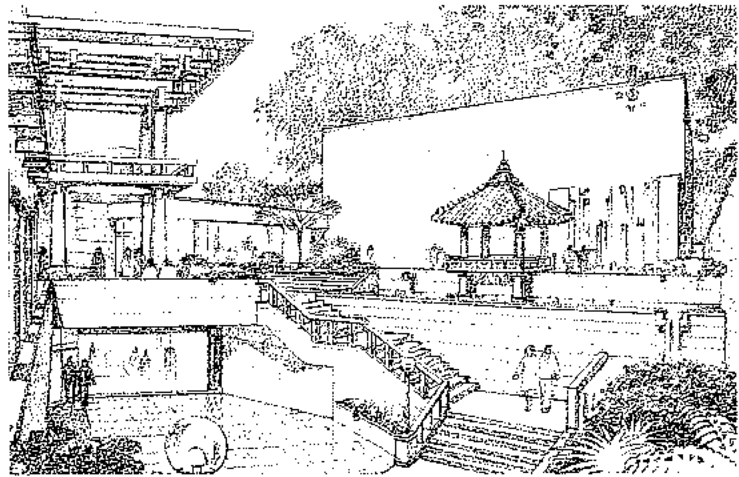
극장의 구성에 있어서는 400명

수용의 소극장이지만 후부대의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였고, Fly Tower, 회전무대 등을 설치하여 극장의 격을 높였으며, 그 밖에는 무대 크기와 같은 연습실, 20명 이상의 출연자 분장실, 의상·소도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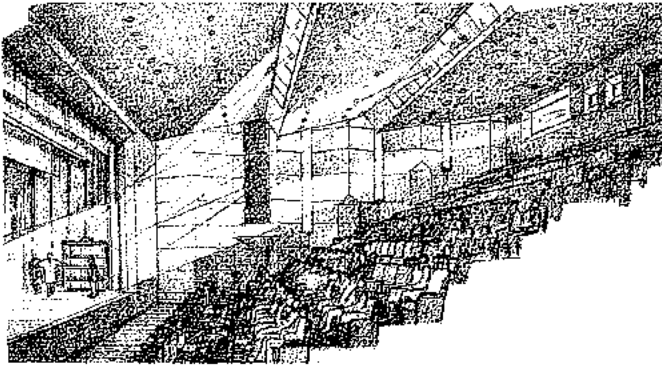
도구제작실을 갖추었고, 회전무대 기계실 PIT 공간도 높혀 창고 기능을 겸비하도록 했다. 하나의 공간으로 네가지 극장을 만들 수 있고, 가변성을 주어 다양한 변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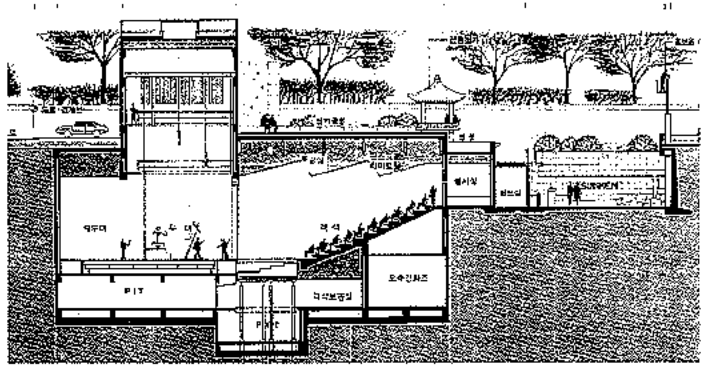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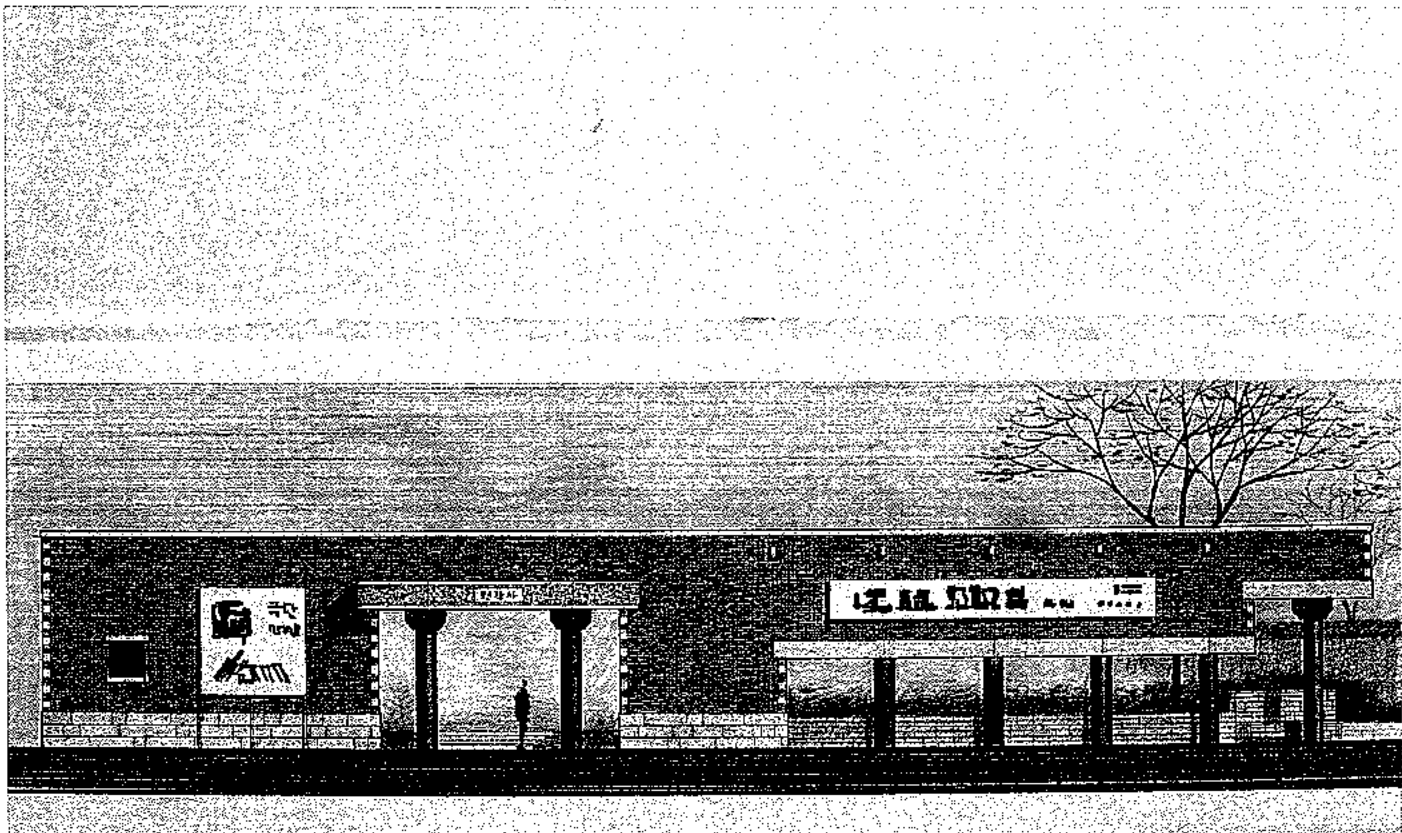
선관 투시도



극장 내부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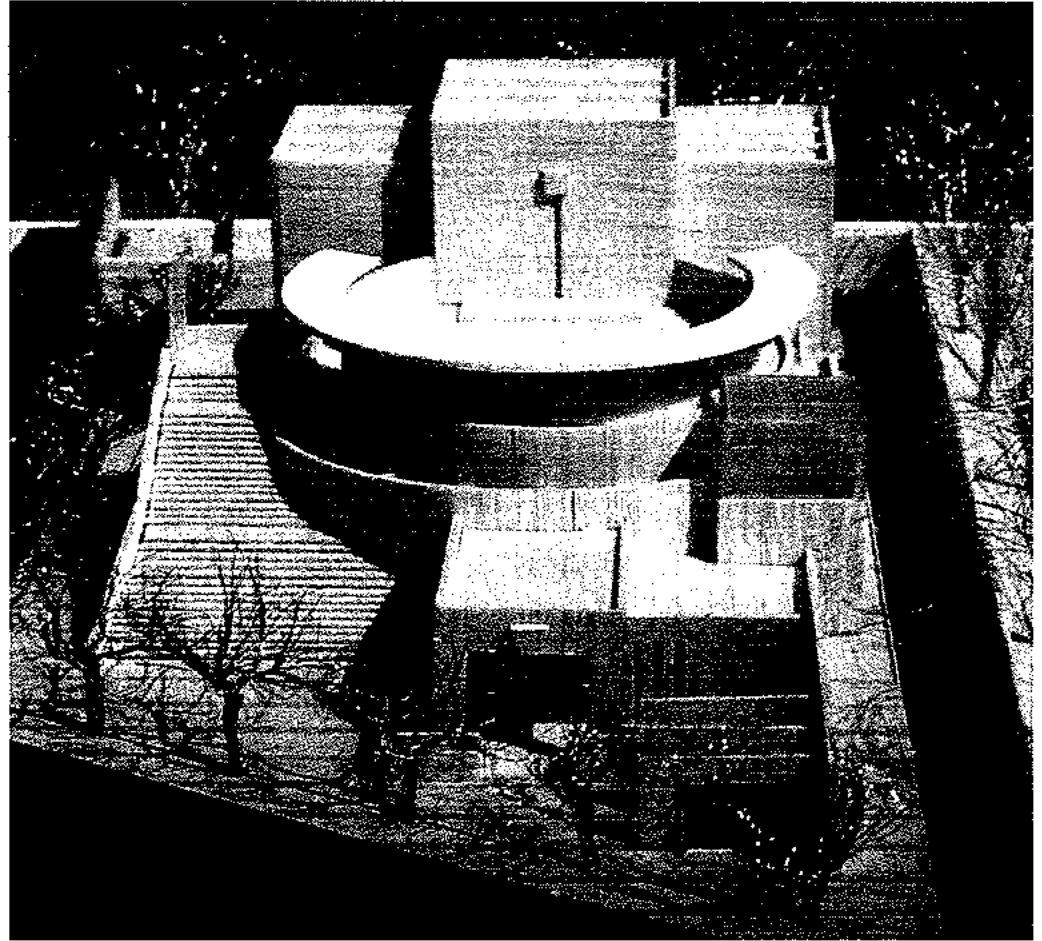
종단면도



최종안 가벽 입면도

응모작

간·삼건축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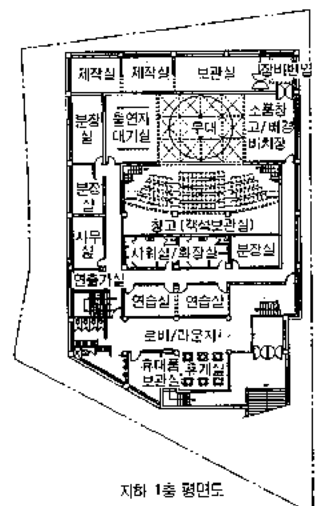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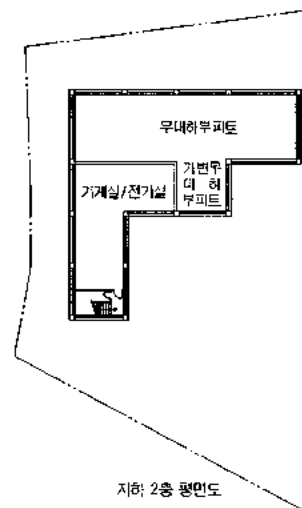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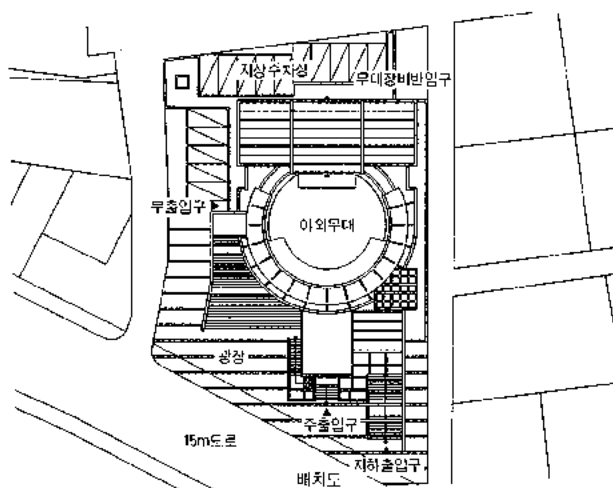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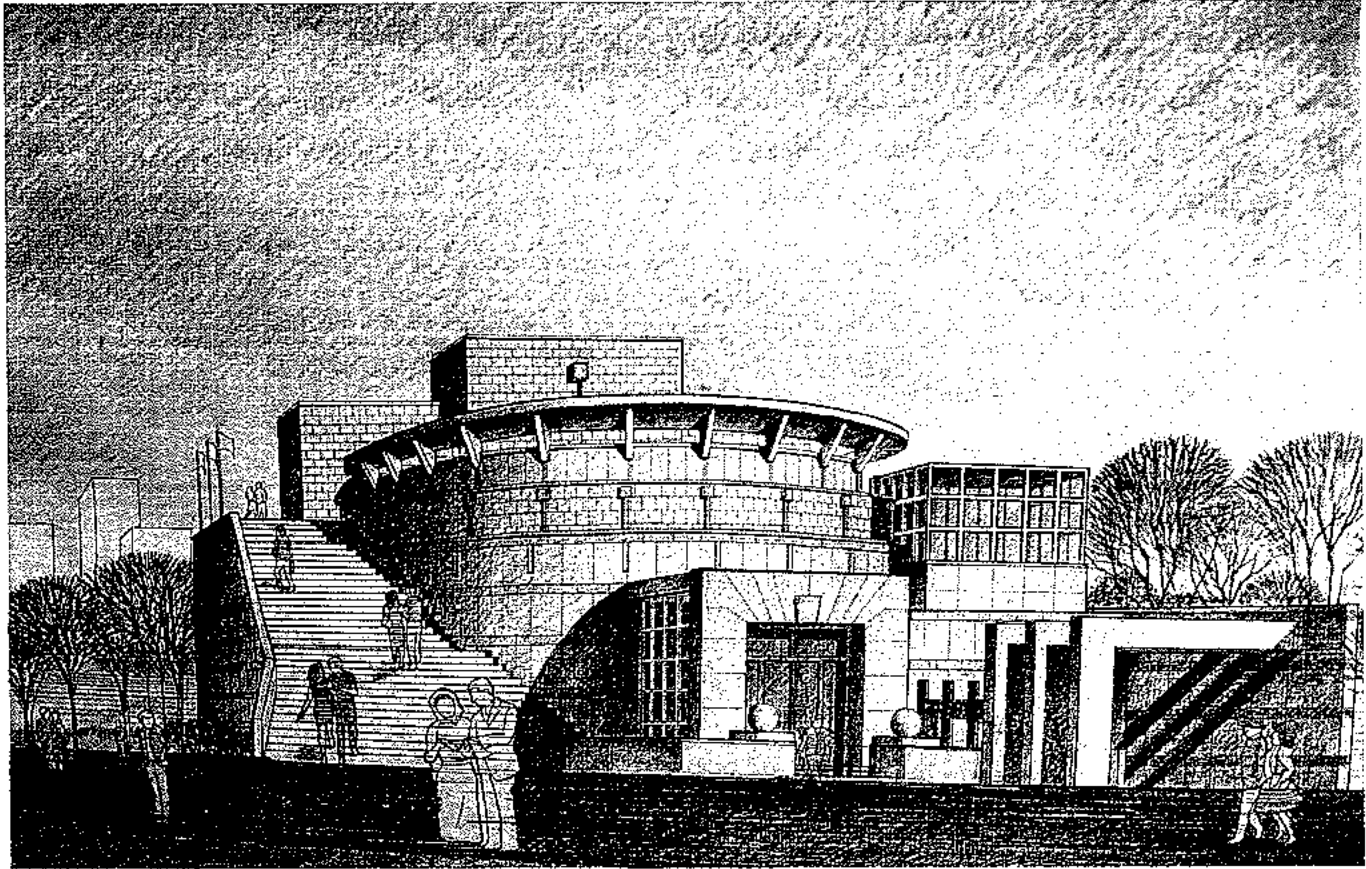
모형사진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8-11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516.1㎡
 건축면적 / 669.1㎡
 연면적 / 1,602.0㎡
 건폐율 / 44.8%
 용적율 / 52.6%
 규 모 / 지하 2층, 지상 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주차대수 / 지상1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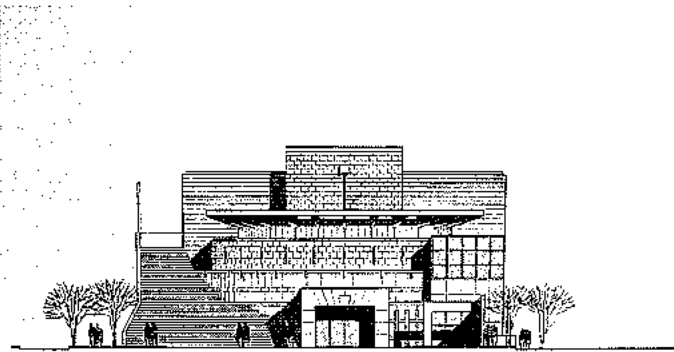
■ 상정성, 융통성, 기능성을 주요 개념으로 하여 원각사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건축계획으로 원형조형 요소를 적용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꾀하였으며, 접근성을 고려한 공개공간의 확보하기 위하여 진여출입공간의 다층화 및 야외무대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배려를 하였다.
 또한 연극 전통예술 공연의 장으로

써 연극전용극장 으로서의 Open 무대 극장을 구현하였고, 다양한 연극형태의 수용에 따른 가변무대 공간을 구성 함으로써 연극형태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였다.
 그리고 기능성에 있어서는 부대의 효율적 이용과 부대시설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가변무대공간을 적용하였고, 음향, 조명 등 부대설비들을 최첨단화한 첨단부대시설들을 설치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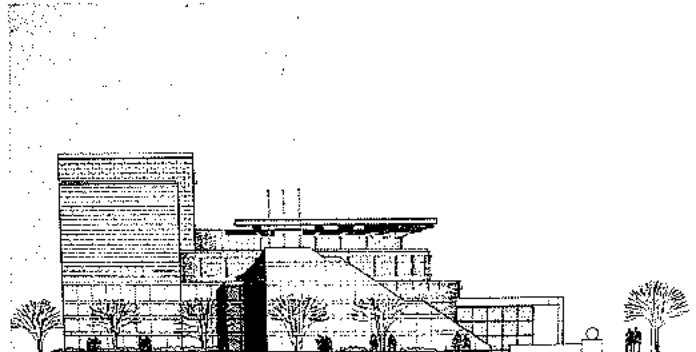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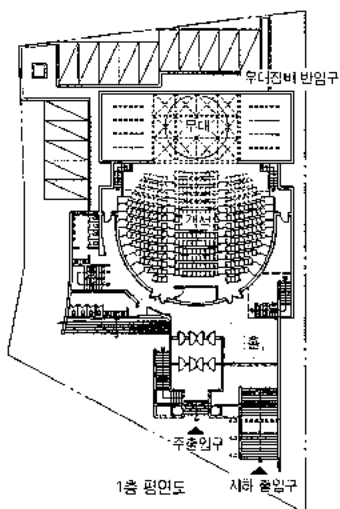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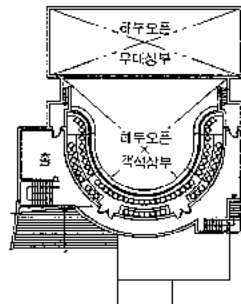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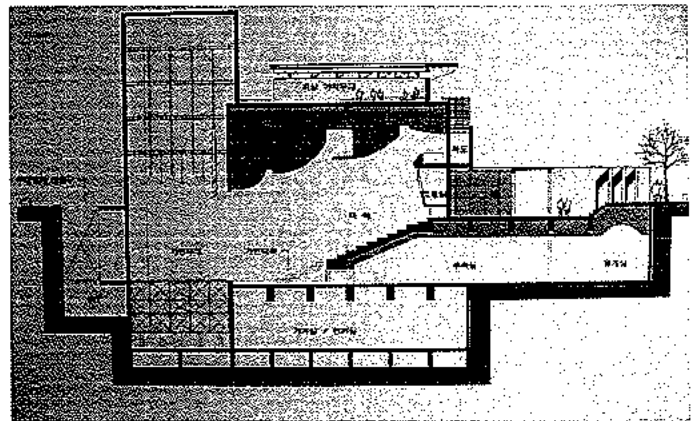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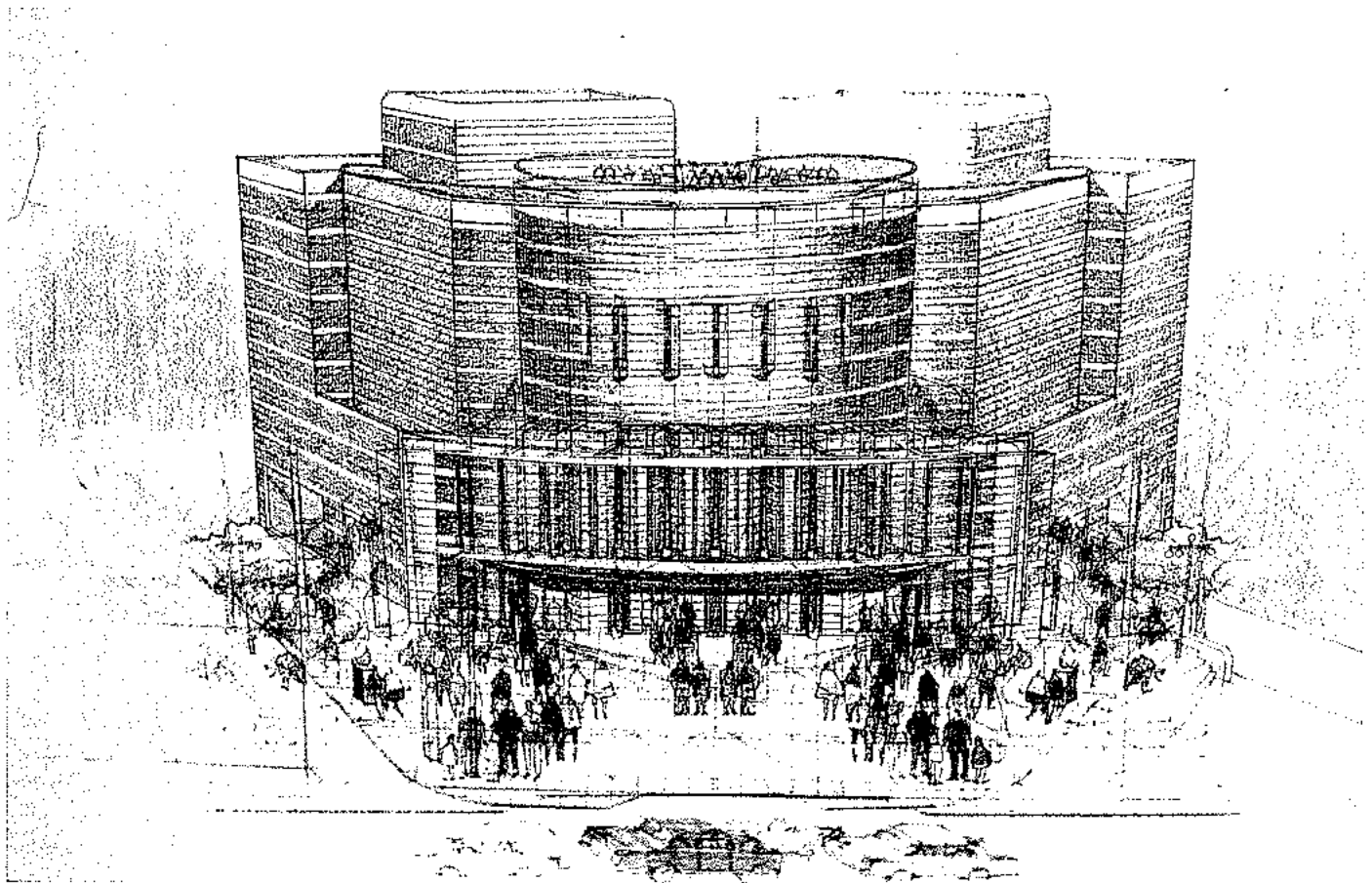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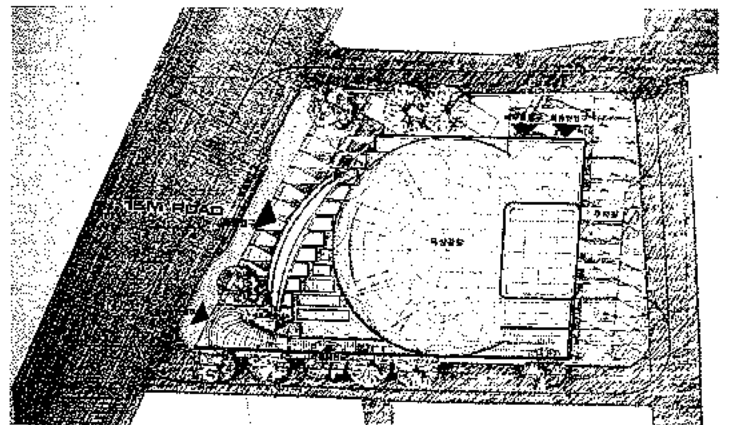
단면도



투시도

응모작 AVS건축 案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경동 8-11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516.1㎡
 건축면적 / 681.7㎡
 연면적 / 1,496.0㎡
 건폐율 / 44.9%
 용적율 / 64.5%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주차대수 / 법정 1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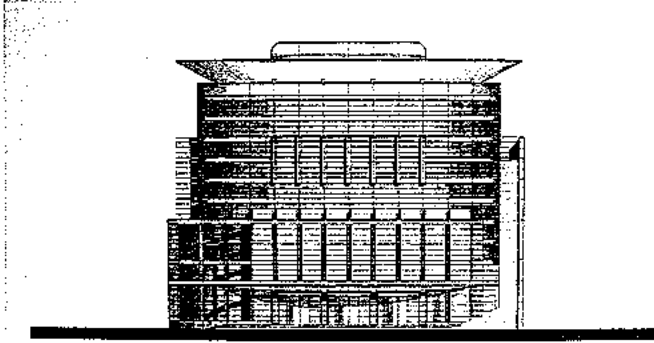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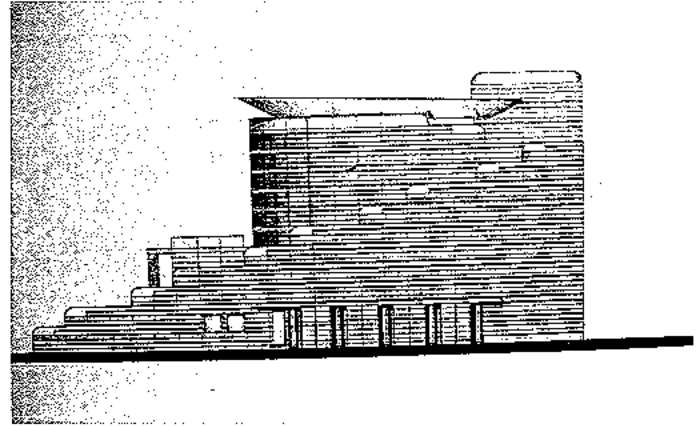
■ 이 건축은 유서깊은 서울의 옛 장소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가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덕수궁의 돌담길을 끼고 돌아가면 낮은 담장들의 연속이다. 이 낮은 담장의 연속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건너편에는 정동교회가 있다. 하나 하나씩 쌓아올린 벽들의 휴머니티한 느낌을 우리가 건축에서의 오랜 역사와 그 거리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것이란 점을 인식하게 한다. 동측의 덕수궁 돌담길에 면해있는

부분은 그래서 벽이 되어야 한다. 잘 다듬어진 스케일의 돌들의 집적으로 계단벽이 되어야 한다. 이는 땅에서부터 극장의 옥상정원까지의 자연스러운 계단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 통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덕수궁도 보이고 주위의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붉은 색조를 띠게 되어있는 이 건물의 가장 큰 이슈는 거리에서의 인식과 휴머니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극장은 연극전용극장으로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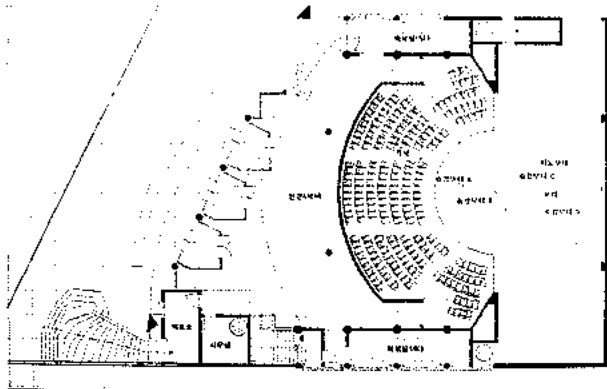
서 앞의 플라자와 내부의 로비가 그냥 연결되는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언제라도 길거리가 함께 공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전체는 마치 그 거리에 옛날부터 그냥 있어 왔던 것처럼 느껴졌으면 하였다. 충격을 주거나 조화롭지 못한 것은 배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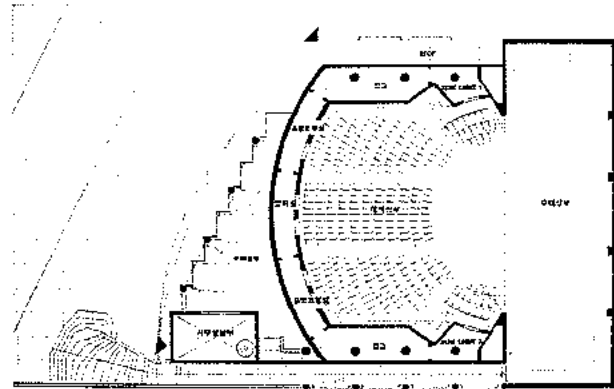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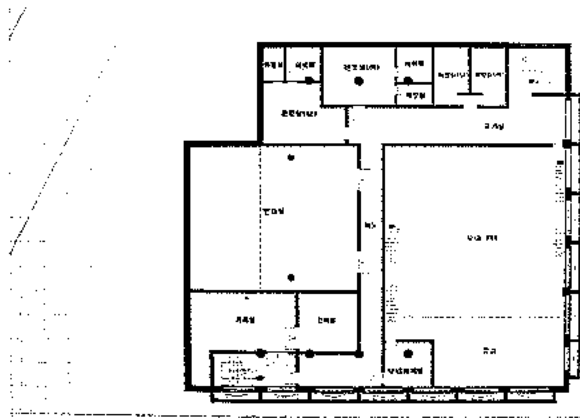
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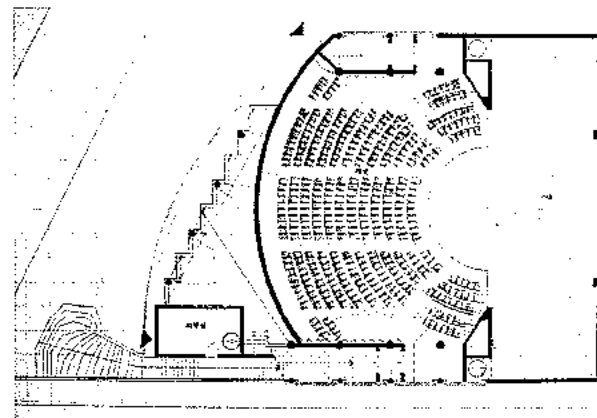
1층 (로비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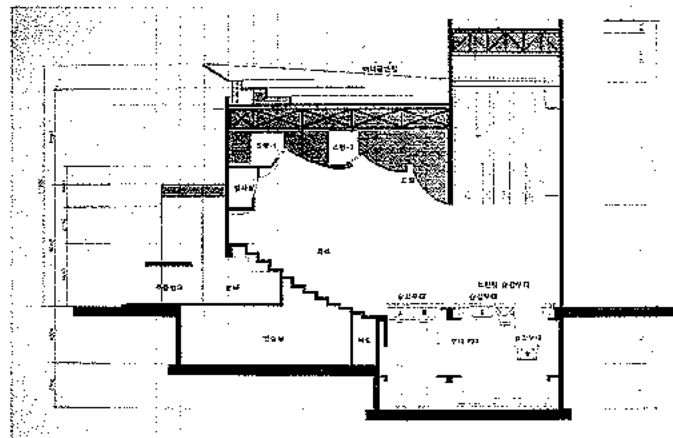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1층 (객석층) 평면도



주단면도

건축법 질의·회신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건설부 건축계획과〉

▶ 질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네델란드 Delsem사가 제작한 유리온실 설계도면을 번역 농촌 보급형으로 권장한 도면을 본 회사에서 농업용고정온실 (건축법 제15조 ② 동시행령 ④ 제11호) 신고설계도면으로 사용할 때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설계)에 의한 건축사가 설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자 : '92.12.1 서울 영등포 강승용)

▶ 회신

질의와 같은 농업용 고정식온실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신고로서 설치가능한 것인 바, 이때 동 가설건축물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생산농지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의 용도가 농수산물창고 및 관리사무실로 되어 있는 바, 대지 소유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농업용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질의자 : '92.12.1 서울 성동 김현택)

▶ 회신

생산농지지역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 및 동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농업용 창고시설의 건축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농업용 창고라 하면 대지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에 사용하는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

개인의 주택건축전에 주식회사 (주택단종면허, 서울시장발행)대표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종합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시공한 경우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 책임한계를 추궁할 때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이 되는지 또는 도급인 주식회사 대표가 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2.1 서울 서대문 정완기)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받아 동 공사를 도급준 개인이 건축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

일반주거지역안의 대지가 73제곱미터이었으나 6미터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31제곱미터만 남게되었는 바, 동

잔여대지에 건축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2.4 서울 강동 김영식)

▶ 회신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더욱 미달되게 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례적용이 가능하나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가. 공도가 사유지를 일부 무단점유하고 있을시 적법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는?

나. 지적도상의 도로와 사실상의 도로가 차이있을 때 적용하는 도로경계선은? (질의자 : '92.12.7 서울 중구 이광복)

▶ 회신

질의와 같이 공도가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동 도로의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도로의 경계선이 지적도상과 실제도와 차이는 상기와 같이 동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가. 위반건축이나 무허가건축을 하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형사적인 면책과 시효면책이 되는지 여부

나. 위반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9조제2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정상건물과 간이 전기, 전화,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수회에 걸쳐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구청장이 불법 및 위반건물에 대하여 계고장의 행정절차없이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마.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낸 2회만 납부하면 모든벌칙은 종료가 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2.9 부산 남구 박남서)

▶ 회신

가. 질의요지"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벌로서 이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 질의요지"나"에 대하여

시장등은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에게 이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다. 질의요지"다"에 대하여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부과분할할 수 있는 것이며,

라. 질의요지"라"에 대하여

건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31조 및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시장등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이를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마. 질의요지"마"에 대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납부로 그 처벌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

인접한 두개의 대지에 각각의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지하를 합벽하고 사람 또는 자동차의 출입을 위한 통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및 전기실, 정화조, 소방설비관계설 등을 한 곳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2.9 서울 강남 이종복)

▶ 회신

지하로 연결하는 통로가 출입을 위한 최소한의 구조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규모로서 방화셔터 등을 설치하여,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개별건축물로 보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나, 전기실, 정화조, 소방관계설 등을 한곳에 설치하면 개별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

창원시에 지상5층 은행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시 승강기설치를 하는 것으로 득하였으나 예산상으로 승강기기계를 설치하지 못하고, '93년중에 설치하고자 승강기입구 등은 안전조치를 하고 건물준공계를 제출한 바, 가능여부 (질의자 : '92.12.10 서울 송파 김상규)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승강기는 건축물에 있어 기능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판단되므로 승강기를 설치한 후 사용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인천직할시 구월동의 도시설계구역중 10필지에 대하여 대형백화점식 판매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토록 도시설계되어 있는 바, 각 필지 소유자들의 개인간 이해와 막대한 건축비 등으로 공동개발이 불가능할 때 필지별로 개별건축은 불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2.10 서울 강남 송창식)

▶ 회신

질의와 같이 도시설계의 내용에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대지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개별건축도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질의 그림과 같이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질의자 : '92.12.11 서울 동작 윤왕선)

▶ 회신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의 노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대가 접한 외벽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은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노대의 일부분의 폭이 1.5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그 형태 (원형등)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

가. 지하 2층, 지상 7층인 건축물의 설계시 지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설계도면을 건축사로부터 납품받은 경우 관련법 저촉여부

나. 건축사가 열대지를 침범하게 설계하여 설계도서대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건축사의 책임여부 (질의자 : '92.12.14 서울 송파 김인호)

▶ 회신

가. 질의의 경우 지하부분의 지질조사를 의무화한 건축법령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은 고정하중등 각종하중 및 충격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질조사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건축사는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건축사법 및 건축법등 건축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여야 하는등 성실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설계를 하였다면 건축사에게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 질의

전용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주택이 아닌 용도인 건축물의 건축가능 높이는? (질의자 : '92.12.16 서울 중구 김경구)

▶ 회신

질의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11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다가구용단독주택의 1층 일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지하층의 노출한도는? (질의자 : '92.12.16 서울 강남 남승범)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순수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에 한하여 당해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1이상이면 지하층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건축물은 당해층 높이의 3분의 2이상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종전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3항에 판매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라는 명시가 없었고 현행 개정된 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는 바, 동일 건물내 판매시설 (점포 : 800평방미터) 과 근린생활시설 (목욕탕 : 500평방미터, 대중음식점 : 1,500평방미터, 의원 : 500평방미터) 등이 복합 구성되어 있을 경우 판매시설의 면적이 순수한 점포인 800평방미터인지 아니면 점포 이외의 근린생활 시설 모두를 포함시켜 3,300평방미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2.16 서울 강남 조태중)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판매시설과 함께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이는 판매시설의 용도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물의 부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2.21 대구 달서 김성자)

▶ 회신

건축물의 일부 또는 동별로 부분적인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

실내간이수영장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2.22 건설부 주택국장)

▶ 회신

실내수영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 (4)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 (4)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1 제10호의 운동시설 또는 제15호의 관람잡희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다른 업종의 범위안에서 임의로 상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92.12.28 서울 용산 이상봉)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상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없이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연면적 195제곱미터인 주택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 바, 건축물의 준공은 건축주가 필해야 하는지 또는 하도급자가 필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2.28 부산 사하 박정민)

▶ 회신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은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아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종전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이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이었는데 건축법개정 ('92.6.1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이라면 고발조치 등의 처벌없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2.28 충남 대안 강병인)

▶ 회신

질의의 건축물이 종전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나 현재 시행 ('92.6.1)중인 개정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이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면 위법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건축물대장 등재도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건축물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화장실, 계단실 부분의 면적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2.4 경기 광주 이성수)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산정시 화장실, 계단실 부분도 동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고, 참고로 하나의 건축물에 수개의 수용도가 있는 경우에 복도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비례배분하여 각각의 수용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질의

기존적법한 판매시설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데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질의자 : '92.12.10 경기 안산 정미자)

▶ 회신

질의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나. 도시계획외지역에서 1층 창고 (180제곱미터), 2층 주택 (89제곱미터)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다. 단독주택부지로 산림훼손허가 및 준공되어 지목변경 및 분할이 완료된 토지를 다세대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질의자 : '92.12.10 경기 미금 김철수)

▶ 회신

가. 종교집회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며,

나.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야 하며,

다. 단독주택부지로 산림훼손허가 및 준공을 받아 조성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 산림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제재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매각자채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 제1항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취득목적이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 다세대주택건설이 가능하며 기타 토지 이용상 적절한 것임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 허가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

가. 건축물중간검사신청 및 사용검사신청때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사 변경신고시 변경전후 시공자란에 시공자가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2.10 경북 포항 김위순)

▶ 회신

가. 건축물의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신청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제19호 서식에 의해 신청하는 것으로서 사진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 건축주가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전후의 시공자날인은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1면이 인근주민이 농사에 필요한 통로와 제방에 접해 있고 다른 1면은 시설녹지에 접해 있는 경우

가. 통로와 제방을 도로로 보다 등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나. 시설녹지내에 진입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92.12.14 강원 정선 김종운)

▶ 회신

질의"가"에 대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미터 이상을 도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며 이경우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므로 질의의 통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건축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나"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시설녹지토 지정된 토지의 지상에는 원칙적으로 녹지설치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다만 녹지를 가로지르는 경우에 한하여 지사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창문 등"이라함은 현관문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2.10 경기 안양 변인순)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문이라 함은 채광, 환풍, 조망 또는 의장을 위하여 벽면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달아 개폐하는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현관문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현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근주민의 사생활보호측면에서 외부두시가 되지 않는 시설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허가를 받지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가 고발조치 하였으며 건축물은 전폐을 등 건축법령상의 건축기준 및 기타관계법령에 모두 적합한 경우 동건축물에 대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92.12.17 전북 전주 김봉성)

▶ 회신

귀 문의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절차만 결여하여 관련자가 고발조치등 행정조치가 완료되고 당해건축물이 건축법령상의 모든 건축기준과 기타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당해 허가권자는 새로운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건축법 제23조제3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행정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방법은? (질의자 : '92.12.17 경기 부천 강석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기전까지는 건축사법에 근거하여 대행토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이고 당해건축면적의 8분의1이하인 경우 동계단탑에 대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자 : '92.12.29 경기 수원 김주경)

▶ 회신

질의의 경우 계단탑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골프연습장의 건축법상 용도와 500제곱미터미만이라함은 건축물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작물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자 : '92.12.26 경남 김해 조혜옥)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 (4)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며, 이 경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라함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건축허가 (상가)를 득하여 시공중에 있는 지하도점 상가시설 공사에 대한 구조체의 토목공사가 건축법상 중간검사 대상인지 여부 (질의자 : '92.12.4 인천 직할시장)

▶ 회신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중간검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문의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하여 소정의 중간검사만 실시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이동전화, 문선호출 등 무선통신방식에 의한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특정통신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일반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에서 근린공공시설인 전신전화국 및 방송·통신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망 (질의자 : '92.11.25 채신부장관)

▶ 회신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린 공공시설인 전신전화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 은 동법시행령 별표1 제2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시설중 전신전화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5)

Types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

REPORT

吉成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프렌, 공학박사
by Kil, Soung-Ho

1. 패러다임 (Paradigm)과 건축적 사고유형
2.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1)
3.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2)
4. 건축적 사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특성
5. 박물관·기념관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분석
6. 공공청사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 분석
7.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디자인 접근 태도의 전망

5. 박물관, 기념관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 분석

1. 작품 분석의 관점과 대상

지난호에는 설계 경기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개괄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건축의 위상과 작품의 경향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제 특성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적 사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작품에 내재한 건축가의 의도와 이에 관련된 디자인 원리, 요소,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작업을 통해서 한 작가의 의식속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적 사고유형은 비록 건물의 유형이 달라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개념과 원리, 수법 등에서 어떤 공통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우리의 관심사인 한국적 체험구조의 속성과 관련된 인지-행태적인 디자인 개념, 원리, 요소 등이 건축가의 창작 의식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지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해방이후 현재까지 설계 경기를 통해 실시된 박물관,

기념관 건축 중에서 60년대 후반기에 시행된 국립 중앙 박물관의 당선작은 모방에 의한 형태적 복제외에는 이렇다 할 기능적, 공간적인 새로운 해석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70년대의 공백기를 거쳐 80년대에 시행된 대구박물관, 부여박물관, 독립기념관, 전쟁 기념관 등의 응모안들은 보다 성숙된 건축적 사고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4작품의 다양한 건축적 사고유형과 디자인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분석의 영역을 (1)건축적 의도와 주제의 파악, 대지 해석에 대한 입장과 수용방법, 역사 및 맥락에 대한 해석과 수용태도 (2)평면형식 및 공간구성 체계 (3)형태 및 외관 표현의 수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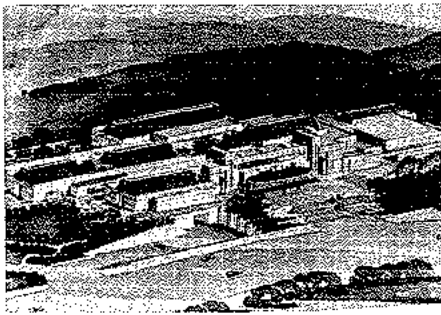
2. 작품 속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분석

1) 건축적 의도 / 대지 해석 / 역사 및 맥락의 해석

한국 현대 건축에서 설계 경기를 통해 시행된 박물관 건축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능적 사고 유형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모습은 주어진 디자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중정형의 집약적 평면구성 개념에 의한 기능의 경제성 추구와 자연 중시의 전통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자연과의 유기적 조화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작품 속에서 잘 나타난다.

최근에 시행된 대구박물관의 경우, 당선작인 공간안 (장세양)은 "프로젝트에 내재한 질서를 올바르게 찾아서 반영해 주는 것"^{주1)}을 기능적, 미학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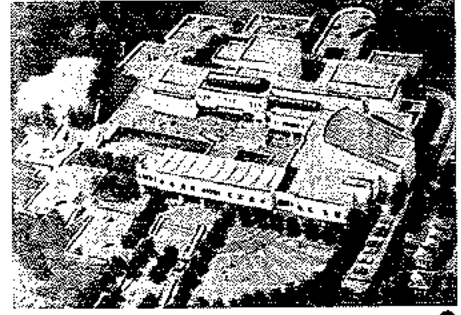
주1) 작가는 이 내재적 질서는 작가의 연상작용에 의한 작위적 태도가 아니라 "그 건물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내서 되고자 하는대로 이끌어 주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에 수용되어질 행위의 올바른 실정과 그 공간을 형성하는 형태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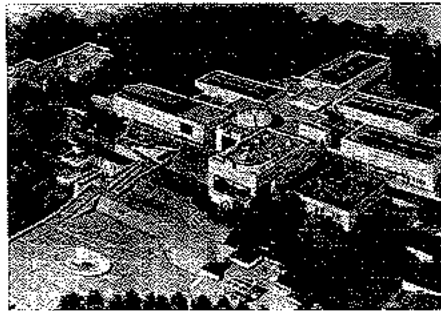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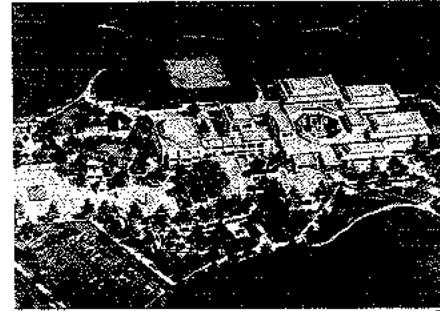
③



⑤



②



④



⑥

우수작인 그룹원안 (류악현)과 천일건축안 (한규봉)은 건축적 질서가 자연의 지형, 지세와 맞게 되는 유기적 조화를 중시하여 "자연 지형에 부합되는 공간 및 입체구성"^{주2)}의 개념을 디자인 사고 과정의 출발점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이들 안은 모두 공간에 수용되어질 행위의 실정과 자연질서에 순응되는 집약형 구성 (공간안, 그룹원안)이나 분산형 구성 (천일안)을 취함으로써 형태적 의도보다 기능과 내부 공간 경험을 중시하여 출발하는 기능적 사고 유형의 특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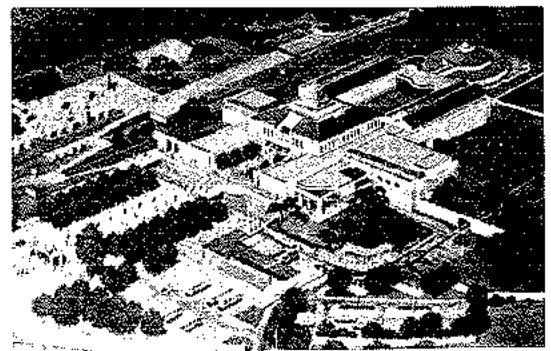
부여박물관의 경우에도 당선작인 천일건축안 (한규봉)은 건축과 자연의 유기적 만남에서 생기는 질서^{주3)}를 찾아 전개하는 것을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고있어 대구박물관에서 보여준 사고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심사평에서 지적된 바처럼 대지 조건의 적절한 해석, 은폐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되는 축의 개념, 통일성 있는 외관구성의 논리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응모안인 그룹원안 (류악현)도 분화된 공간과 형태적 질서를 통해 모래적 전통공간으로서의 지형의 형상에 유기적으로 순응시키고자 한 흔적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유형학적 사고유형의 모습은 60년대 시행된 국립 중앙박물관의 당선작 (강봉진 안)과 최근에 시행되어진 박물관 및 기념관 건축의 응모안들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학적 사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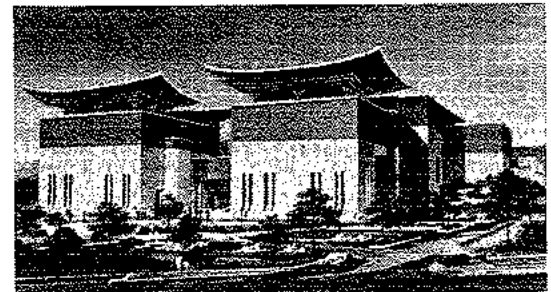
- ①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당선작 (공간안), 1989년
- ②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우수작 (그룹원안), 1989
- ③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우수작 (천일 건축안), 1989
- ④ 국립 부여박물관 설계경기 당선작 (천일건축안), 1989년
- ⑤ 국립 부여박물관 설계경기 응모안 (그룹원안), 1989
- ⑥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우수작 (삼우안), 1989
- ⑦ 국립 부여박물관 설계경기 응모작 (일건안), 1989
- ⑧ 국립 부여박물관 설계경기 응모작 (삼정안), 1989

기초한 디자인 접근은 주로 역사적 형태에서 유추한 이미지 요소의 개념화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배치개념과 공간구성 원리 및 회랑, 누 (樓)형식의 피로티, 처마지붕, 경사진 성벽형상, 전통적인 수경요소 등의 형태적 요소들을 디자인 개념 전개에 도구로 활용하며,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는 강한 축 (軸)과 대칭적 질서를 지향한다.

대구박물관의 우수작인 삼우안 (박승)은 전통 해석의 개념적 도구로 유추 (類推)의 개념에 의한 형태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심적 형태를 이루는 로툰다 (Rotunda)와 진면의 분절된 공간 그리드 (grid)의 결합은 각각 태고의 출발을 의미하는 원시적 형태와 미지의 미래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의 결합을 유추화한 것으로, 이러한 형상화 과정을 통해 자연과 부지의 특성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그 지역의 고대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회상시키고자 의도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또한 토속적 분위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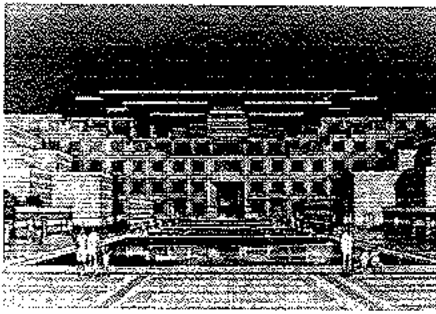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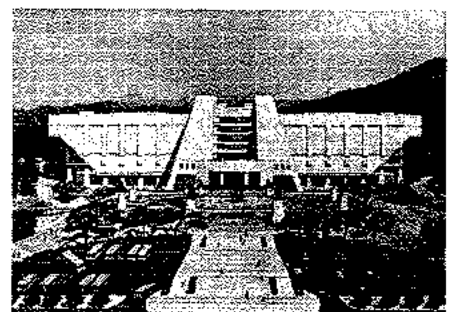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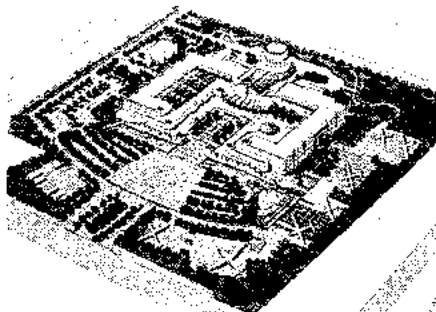
⑦



⑧

주2) 그룹원안은 "역사의 회고 및 확인이라는 정신의식의 상징적 공간을 자연 지형속에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조성하고자 하며, 따라서 구릉과 완만한 지형을 이용해 전면에 전통적인 외부공간적 질서와 외계를 자연스럽게 형성시키고 있다. 천일안은 지형지세에 따라 곡물을 갖는 주 전시관의 맥스를 수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형에 더욱 순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도를 보여준다.

주3) 작가는 부지의 답사를 통해서 부여박물관의 정취에 부합되는 강한 이미지는 "마치 이전부터 그곳에 서 있던 것처럼 생각되는 박물관의 표현"이라는 착상을 얻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환기시키는 원통형의 요소와 기단의 도입, 중정공간의 유형도입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부여 박물관의 경우, 이러한 유형학적 사고의 모습은 대칭적 축 구성과 정면성 부여에 의한 상징성의 강조, 규범적 원리와 전통적인 형태구성의 요소에 대한 유추화 과정을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일건안과 삼정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건안의 경우 주축을 중심으로 한 대칭적인 H자형의 배치 형식과 바깥마당-진입광장-전정-건물의 로비공간-중정-전시실로 연결되는 강한 축방향의 위계적 공간구성의 전개가 중심적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삼정안의 경우는 탑과 건축과 지붕의 처마선 등이 도입되어 있어 전통적 공간구성 방식과 지역적 은유^{주4)}의 흔적을 보여주는 형태요소가 대지의 질서에 강하게 부여되고 있다. 이것은 기능적 사고에 기초한 안들이 축의 정직성에 배이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삼정안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유형학적 사고의 모습은 그 이전에 시행된 독립기념관의 당선작인 삼정안(김기웅)과 입선작인 하나건축안(박성규)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기념비적 체험의 장소연출을 위해 한국의 전통적 공간구성 방식과 시각적 상징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통건축 언어의 분해와 적용^{주5)}이라는 방법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삼정안은 탈근대적인 디자인 개념과 방법들-이중성, 병치, 다양성, 에매성, 층(layer)등-이 역사적인 개념과 요소들을 현대적인 기능과 조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의 2등 입상작인 정길협안과 입선작인 일건안(황일인)은 이외는 다른 시각에서 전통성과 상징성 해석의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또 다른 건축적 사고의 모습 즉, 인지-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길협안은 전통을 단지 시각적 폐적성의 재현이 아닌 역사적 개념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보고 이 원천에서

- 9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당선작(삼정안), 1983
- 10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가작(하나건축안), 1983
- 11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2등작(정길협안), 1983
- 12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가작(일건안), 1983
- 13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우수작(삼정안), 1989
- 14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우수작(일건안),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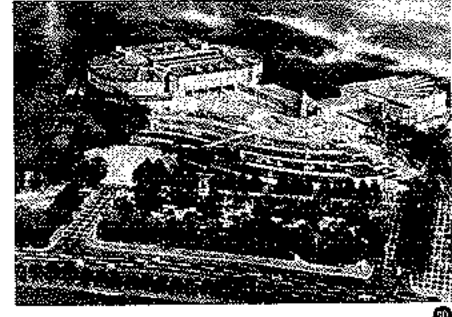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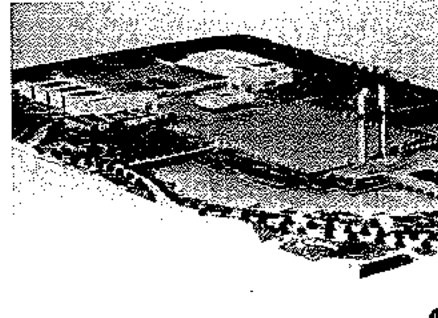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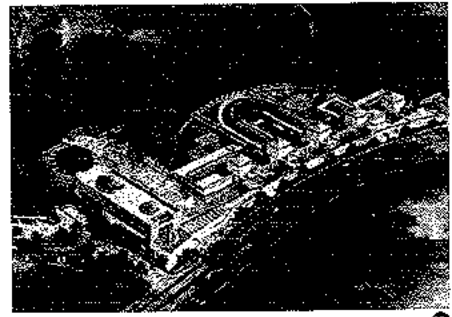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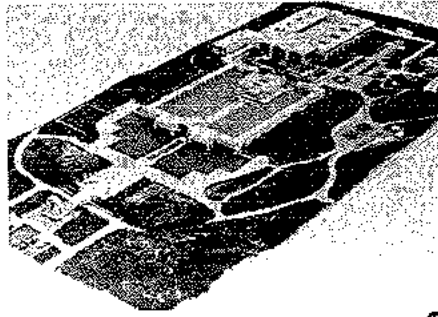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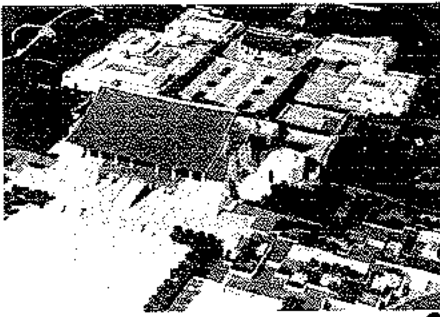
"한국적인 건축 조형의식"과 이미지를 추출하여 이것을 공간과 형태의 경험으로 구체화시키고자 함으로써 유형학적 사고가 빠지기 쉬운 물리적 유형과 형상 이미지의 유추화 개념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통 표현 요소의 외형적인 이미지 재현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길협안은 전통건축의 물리적 구성원리에 따르기 보다는 한국 물리적 구성원리에 따르기 보다는 한국전통건축의 조형 언어로 파악된 가람배치 형식과 비 대칭적 축의 구성개념에 기초하여 공간전개를 순서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전체흐름의 감동구성의 체계화와 기억의 지속화"는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도치된 공간적 질서의 전개와 기념비적 스케일을 강조한 삼정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한편, 일건안에서는 전통적 조형의식에 부합되는 스케일, 색채, 질감, 외부공간감, 주변과의 기법들이 한국적인 공간 경험 의식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공간의 물리적 특성이나 유추화된 형태적 이미지보다 인간의 건축적 경험과 관련된 체험구조적 속성들을 디자인 개념 설정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접근태도는 인지-행태적 사고의 모습을

주4) 삼정안의 김기웅은 "백재를 추상적으로 가미할 수 있는... 하늘을 잘라내는 주녀의 선, 양시적(仰視的)으로 나타나는 처마의 선, 그리고 백제시대의 탑과의 선... 이것들을 단순히 추려서 표현하는 것은 함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라고 착상의 출발점을 진술한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추상화된 지붕형태로 강조되고 있다.

주5) 김기웅은 이것을 공간구성요소(회랑, 건물, 공간), 조형요소(선, 면, 재료), 상징요소(건물의 규모, 높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전통건축에 숨겨진 개념들을 과거의 현재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현재의 입장에서 전통건축이 지니고 있는 외부공간구성 체계, 부재의 형상과 기능, 비례, 스케일, 재료감각 등의 모든 요소들을 선입관없이 해석하여 프로젝트의 개념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관례(Convention)의 사용영역을 확장하고자 시도한다.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에 시행된 대구박물관의 것으로, 최근에 시행된 대구박물관의 삼정안(김기웅)과 일건안(최관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삼정안은 중정, 로툰다 등의 특징의 공간이나 형태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기 보다는 축과 인간행태의 공간적 체험관계를 디자인의 중심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지-행태적 속성을 고려하는 건축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축의 진행 방향을 따라 설정된 가로벽의 개념^{주6)}은 교통소음 차단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경내를 외부와 경계지워주고 선적으로 배치된 5개의 전시장 입구를 상징하는 탑들을 연속시켜 일체감을 주기위한 형태적 제안이기도 하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작가는 이 축상에 배표, 안내, 공중변소, 휴게공간, 공중전화 박스,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일상의 행태적 경험과 통합된 건축적 체험을 만들어 내고자 의도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디자인 의도는 미국의 건축가 찰스무어(C.W.Moore)가 Kresge College의 기숙사 계획안에서 꺾인 통로로 된 중세의 가로(街路)의 개념을 장소성과 신체 중심적인 체험공간 구성을 위해 도입했던 의도와 매우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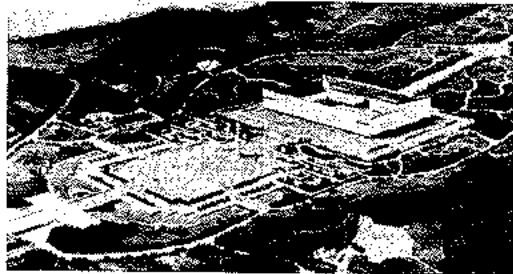
일건안도 구조적 규제의 방법으로 축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축의 개념에 의해서 인간 행태와 체험의 과정을 고려한 공간구성을 구체화 하기 위해 자연 경관에 대한 지각적 체험을 최대로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 전시공간을 능선의 정상에 배치하여 진입에 있어 깊이감을 부여하고, 아울러 다양한 공간적 경관요소를 접하면서 다채로운 지각적 동기가 제공되도록 의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인식할 공간의 경계와 그것에 대한 심상화(心像化)과정이 공간 경험의 주요 속성임을 의미한다.

주6) 작가는 이 가로벽은 탁수궁 돌담길과 같은 표정을 지닌 전통 이미지를 표현해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로벽의 개념은 상업은행 용산지점, 달마회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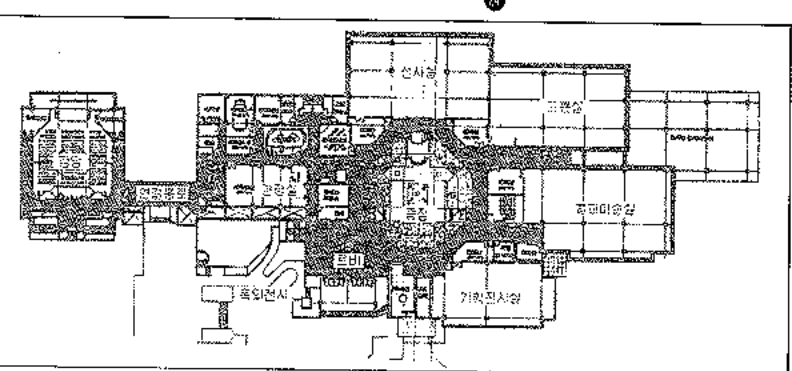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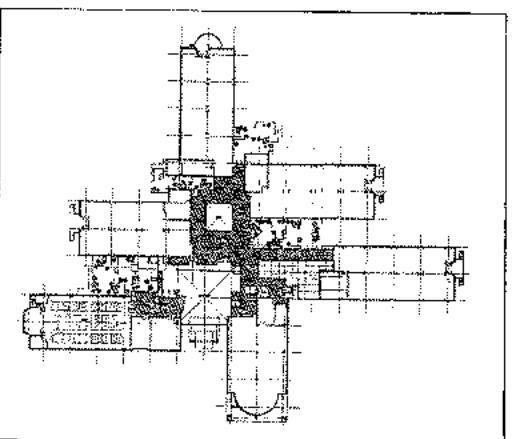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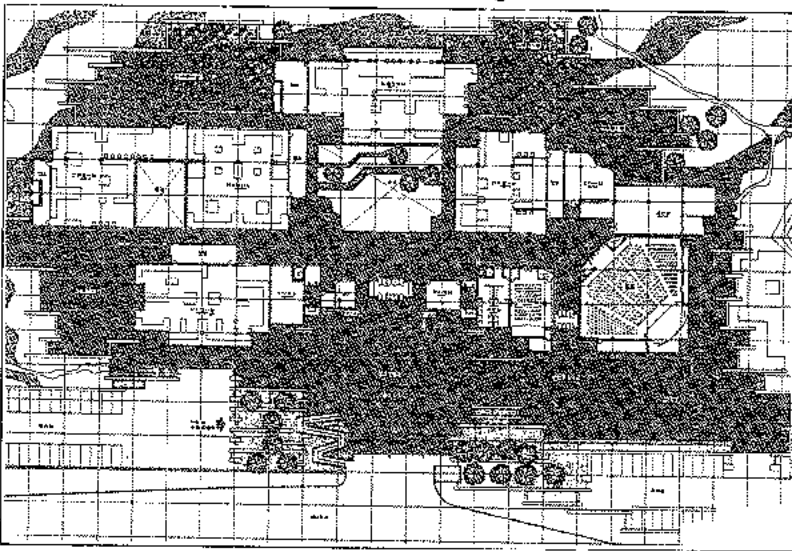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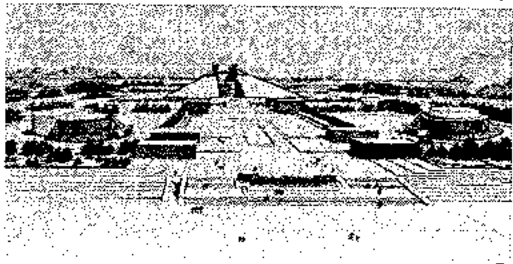
- 15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당선작(건원안), 1989
- 16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가작(창조안), 1989
- 17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우수작(일건안), 1989
- 18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가작(메우안), 1989
- 19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우수작(삼우안), 1989
- 20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가작(건축문화안), 1989

여기서는 전통의 개념과 역사적 형태 및 공간적 요소간 "건축경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해석·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적 사고의 모습과 의도는 전쟁기념관의 경우, 체험적 공간구성과 상징적인 형태표현을 중시하며 접근한 당선작 건원안(곽홍길 외)과 가작 창조안(조재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건원안은 영역적인 공간의 질서와 점진적인 진입동선의 전개에 의해 공간에 위계와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내·외부 공간에서 건축적인 위계성과 기념성의 점진적인 고조 효과를 얻고자 의도하였다. 작가는 이를 위해 "전시기능 + X"라는 개념에 의해 기능의 상징적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X는 주제 전시관을 관람하기 전에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호국관을 경유하도록 동선에 강한 유도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공간의 전개는 진입동선의 축을 따라 승리의 문-수공간-중앙광장-기념관으로 이르는 공간적 질서를 지니며, 내부공간에 있어서도 중앙홀-열주회랑-호국관이라는 공간적 질서가 강하게 의식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질서의식은 공간의 위계성과 진입의 깊이감을 강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여기서 전통적인 좌우대칭의 구성원리, 진입부의 무거운 경사 캐노피, 긴 회랑과 내부공간의 위계적 질서, 원형, 사각형 등의 추상적 기하학적 형태구성, 내부공간에서의 열주와 빛의 도입 등은 건축적 체험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공간적 장치와 요소로 사용되어진 상징적 표현의 도구이다. 창조안의 경우, 내부공간에서 공간적 시퀀스를 경험시키기 위해 결절점의 마디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계성에 의한 공간적 리듬을 관찰자의 공간경험과 연결지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도는 내부공간에서 각 주요 공간마다 결절점 공간을 설정하여 공간의 분절과 아울러 다음 공간으로의 전이에 대한 암시를 제공함으로써 관찰자의 공간 경험의 시퀀스를 강화시키고자 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 ①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3등작 (김형만안), 1983
- ②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가작 (정인국안), 1983
- ③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당선작 (공간안), 1989
- ④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우수작 (그룹원안), 1989
- ⑤ 국립 부여박물관 설계경기 당선작 (천일건축안), 1989



이 두안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축적 사고의 특성은 역사적 이미지의 단순한 재현(再現)보다는 이것을 기능과 함께 해석하여 공간적, 형태적인 경험과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전통이라는 동일한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단지 전통을 물리적 구성원리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유형학적 사고유형의 접근과 그 특성을 달리한다.

전쟁기념관의 일전안과 예우안은 전통적 공간구성 기법과 고전적 형태 이미지에 공간구성 기법과 고전적 형태 이미지에 기초한 유형학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우수작인 삼우안(김창수)과 가작인 건축문화안(김영섭)은 기하학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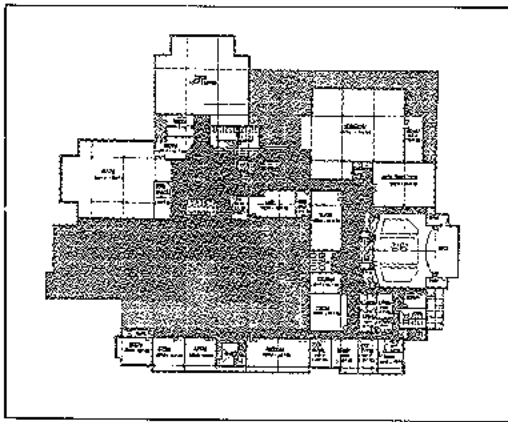
건축적 접근에 있어서 기하학적 사고 유형에 기초한 작품은 박물관 건축보다 기념관 건축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독립기념관의 3등 당선작인 김형만안은 단순한 이미지로부터 출발하여 개념화된 단일의 기하학 형태에 모든 기능과 공간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외부공간은 공간의 연속성과 관람동선의 유도를 위해 위계적 외부공간구성 개념을 취하고 있으나, 그 전개방식이 전통적 공간구성의 기법이나 요소들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타안들에서 볼 수 있는 회랑에 의한 배치방식 중정형의 광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광장은 단지 수목으로 한정되어 경계 영역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의 입선작인 정인국안은 기하학적 형태가 강조되고는 있으나, 그 건축적 의도는 "구조와 기능과 공간의 일체감을 통해 상징성을 구현"함으로써 기념비적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구조-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의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역사적 개념의 수용이나 변용에 구속되지 않고 현대적 기술과 재료의 특성을 통해 기념성 건축을 창출함으로써 전통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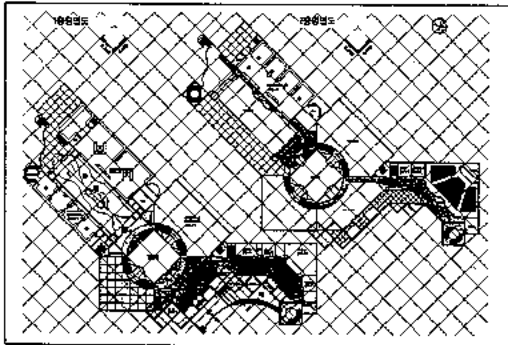
2) 평면형식 및 공간구성 체계

박물관의 평면형식 및 공간구성의 체계에서 발견되는 기본적 개념은 중정형 평면구성의 개념이다. 이것은 기능의 경제성 개념에 기초하여 공간 사용의식과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시킨 새로운 형식으로, 건축적 사고유형에 관계없이 박물관 건축 평면구성의 전형(典型)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기능적 사고유형에 기초한 대구박물관의 공간안과 그룹원안은 중정을 중심으로 각 전시공간과 부수공간들이 분해와 집적의 형식으로 기능의 요구와 지형조건에 따라 결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공간안은 5개의 주채 전시관을 독립된 채의 형식으로 중정 주변으로 상호 분화시키고 있으며, 계단, 경사로 등으로 야외 전시장과 연결되는 전이공간을 설정함으로써 한국적인 공간 사용의식과 경험을 유발시키고자 의도하였다.

그룹원안에서도 4개의 상설전시실은 천창을 지닌 중정공간을 중심으로 풍차형의 집중형 평면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중정과 회랑은 동선의 혼란과 단순함을 극복하고 외부공간과의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각 전시공간의 접합점은 소규모 휴게공간과



76



77

육외전시장으로의 연결통로를 통해 자연과 접촉되는 전이적 연결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중정-전시공간-자연의 유기적 연결관계가 관람자의 의식 속에 지속됨으로써 관람자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적 좌표와 공간적 전이과정에 대한 의식의 깊이를 얻도록 부여한다.

공간안과 그룹원안의 평면 및 공간구성의 방식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의도는 모두 전시공간의 체험을 외부공간적인 체험과 연결시키려는 개방된 (열려진) 공간 속성의 지향이다. 각 공간들은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으나 중정, 회랑, 경사로, 기단, 시각적 연결을 위한 결절점 공간 등을 통해 유기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간체험의 다양성을 공간안의 경우에는 압축된 내부공간과 중정에서 전개하고 있으며, 그룹원안의 경우에는 과정적인 외부공간의 설정과 내·외부공간의 시각적, 행태적인 연결방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였다. 여기서 형태적인 조형적 의도보다 내·외부공간의 체험과 기능의 경제성 개념에 의한

- 76 국립 부여박물관 설계경기 응모작 (그룹원안), 1989
- 77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우수작 (삼우안), 1989
- 78 국립 부여박물관 설계경기 응모안 (일건안), 1989
- 79 국립 부여박물관 설계경기 응모안 (삼정안), 1989

평면구성, 자연과의 유기적 조화 등이 중시되는 기능적 사고의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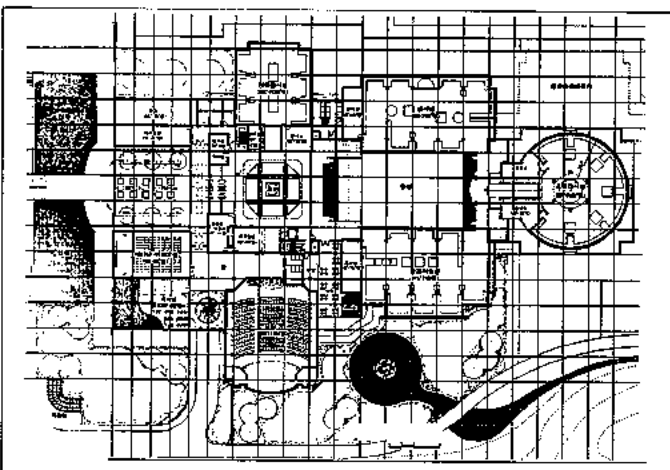
부여박물관에서도 당선작인 천일안은 지형의 고저차에 따라 분절된 전시실의 매스를 중정으로 결속시키는 평면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룹원안의 전시공간 영역은 홀과 내부 회랑을 도입하여 3면의 알코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로비와 회랑을 통해 육외의 자연과 시각적으로 연결되면서 순화되도록 의도하였다.

유형학적 사고에 기초한 공간구성의 개념은 앞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대구박물관의 삼우안과 부여박물관의 삼정안 및 일건안에서 나타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홀이나 중정을 중심으로 한 대칭적 축 구성에 의한 "구심적 공간구성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우안의 평면형식은 2개의 구심축 (주축과 부축의 2중축)이 만나는 곳에 상징성이 강한 로툰다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로툰다는 적인 3분할 공간구성 형식의 중앙 로툰다와 같이 동선의 이합집산을 위한 구심적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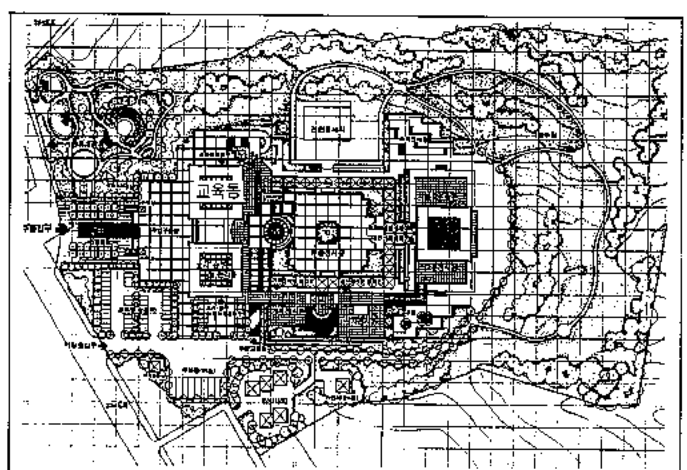
반면에, 부여박물관의 일건안은 주 공간인 로비를 중심으로 각 기능공간들이 구심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삼정안은 중정과 회랑을 통해 공간의 계층적 분할과 완충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큰 실과 실사이에 개방공간, 휴게실, 부속실 등의 전이공간을 삽입하여 각 전시동을 연결하고 있으나 극적인 공간의 전개는 미약하다.

독립기념관의 삼정안과 하나안도 전통적 공간특성을 형태적·물리적인 속성의 차원에서 해석하여 접근한 유형학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배치의 공간구성의 형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구성 축의 개념인 선형축 상에 입구-독립대문-독립광장-독립기념관-기조광장-전시관-후정 (추년의 장)이라는 위계적 공간을 기승전결 (起承轉結)의 점층적 공간으로 전개하는 개념에 의지하고 있다. 여기서 기능적인 주제 공간인 전시공간보다 기념성의 형태와 공간을 먼저 강하게 체험시키는 전조후침의 기법으로 전통건축의 공간체계의 순서를 도치시키고 있으나 다양한 공간적 체험이 결여되어 있다.

공간적 질서의 전개에 있어서 체험적 공간구성보다는 물리적 공간구성의 이미지를 중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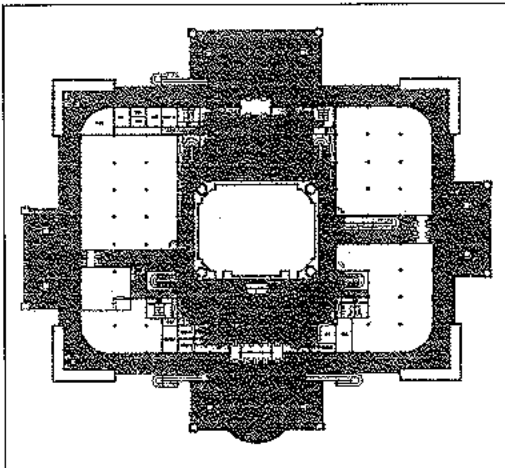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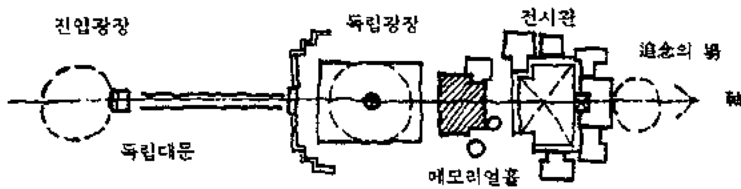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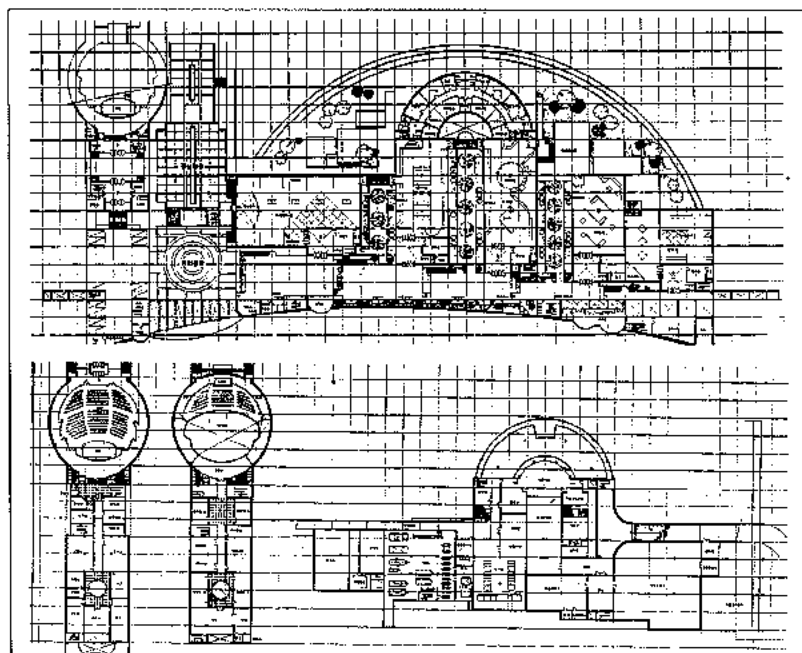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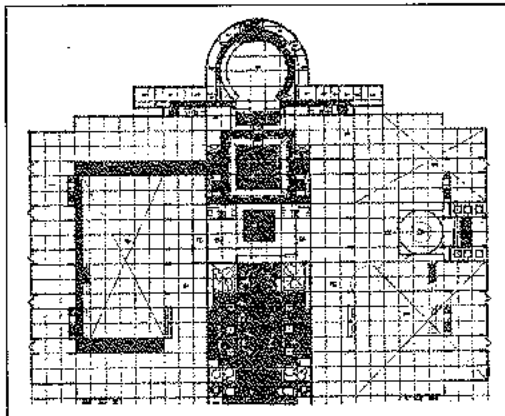


79

삼정案的 軸에 의한 空間展開의 概念



- ②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당선작 (삼정안), 1993
- ①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가작 (예우안), 1989
- ③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우수작 (일건안), 1989
- ④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우수작 (삼정안), 1989



접근하고 있는 이러한 접근태도는 전쟁기념관의 일건안과 예우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우안은 고전적인 공간의 3분할 구성에 의해 단순한 기하형태의 중심부에 홀과 호국관을 수직적으로 위치시키고 있으며, 일건안은 넓은 실내광장과 대칭적 평면구성을 통해 외부 진입공간-반외부 마당공간-실내광장-호국관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부공간보다 외부공간에서의 영역적 공간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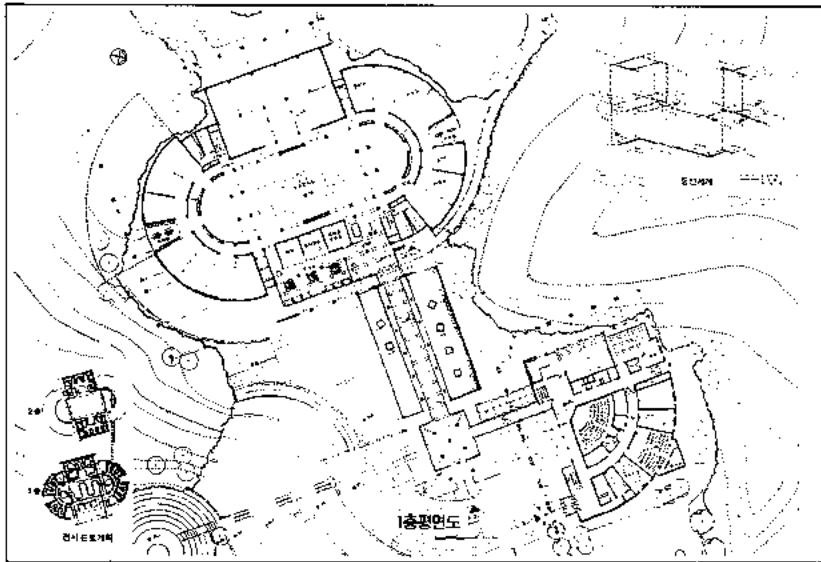
그러나 인간체험 중심적인 공간구성을 중시하는 인지-행태 지향적 사고에 기초한 접근은 대구박물관의 삼정안과 일건안에서처럼 체험되어질 수 있는 인간의 경험적인 속성과 인지들을 공간구성의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구박물관의 천일안, 그룹원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립기념관의 정길협안과 일건안은 인지-행태 지향적 사고의 개념이 전체 디자인의 중심개념을 지배한다. 전쟁기념관에서는 당선작인 건원안과 창조안이 체험적 공간의 전개라는 강한 의도를 보여준다.

대구박물관의 삼정안과 일건안은 전시공간의 영역이 공간적 체험이 집약되는 곳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전시공간의 평면형식은 각 전시실을 분동(分棟)배치 한 후 말굽형의 형태로 결합시키거나 (삼정안), 타원형의 독특한 평면에 전통적 공간의 전개를 도입해 극적인 공간경험이 전개되는 방식 (일건안)을 취하고 있다. 특히 삼정안은 내부의 전시공간보다 가로벽을 이루는 선형축 상에서 전시공간구성에 대한 명료한 인식과 선택적 관람동선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건안은 전시실의 완결된 형태에서 느끼는 폐쇄적 입면의 이미지가 내부의 전시공간에서는 다시 외부로 열려짐으로써 폐쇄에서 개방으로의 공간적 전이의 경험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독립기념관의 정길협안은 축의 격입과 공간영역의 한정을 통해 외적 속에 이미지화 된 공간의식을 강하게 형성시키고자 의도함으로써 인간체험 중심적 공간구성의 개념을 보여준다.

독립대문-독립광장-독립기념관을 연결하는 주축상에 영구 건축공간의 의미를 갖는 기념관을, 제2의 축상에는 가변 건축공간인 전시공간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이 2개의 분절된 축을 통해 상징적인 기념성 공간과 기능적인 전시공간의 분리를 꾀하고 있으며, 상징적인 독립광장은 회랑에 의해 에워 싸여 외부와는 단려진 영역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갖도록 하였다. 반면, 메모리얼 홀은 전시공간을 통하는 통로상에 휴면 스케일을 고려한 작은 규모로 존재한다. 일건안에서는 메모리얼 홀 후면에 일직선상으로 있는 전시공간 영역이 회랑에 의해 ㄷ자형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전면의 독립광장은 망부석 열주조각으로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전쟁기념관의 건원안에서는 공간적 경험과정에서 외부에서 연출된 공간적 위계의 시퀀스가 다시 한번 내부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의도하고 있다. 따라서 호국관에 이르는 긴 통로는 진입부의 로비에서



유도성이 강한 일방향의 동선축을 따라 기념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도록 유도하였으며, 호국관에 이르러서는 기념성과 상징성이 극대화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원통형의 거대한 실내공간인 중앙홀에서 호국관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열주 회랑에 의한 전이적 공간(轉移的空間)을 구성한 점, 빛과 음영이라는 긴장과 이완의 공간적 신축감을 부여함으로써 한정된 내부공간 공간적 위계와 마디의 분절을 의식하도록 한데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대칭적 축(軸)구성은 타안들에 비해 공간의 진입에 따른 공간의 깊이감과 위계를 보다 강하게 보여준다. 이 공간적 질서는 로비-중앙홀-열주에 의한 전이공간-호국관 공간으로 전개되며 각 영역마다 공간체함을 강화시켜주는 요소들이 부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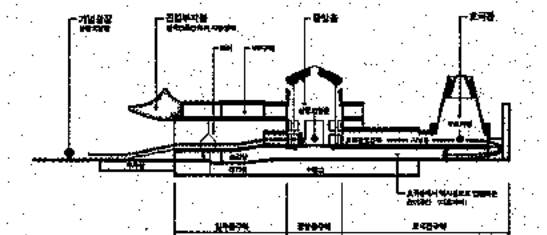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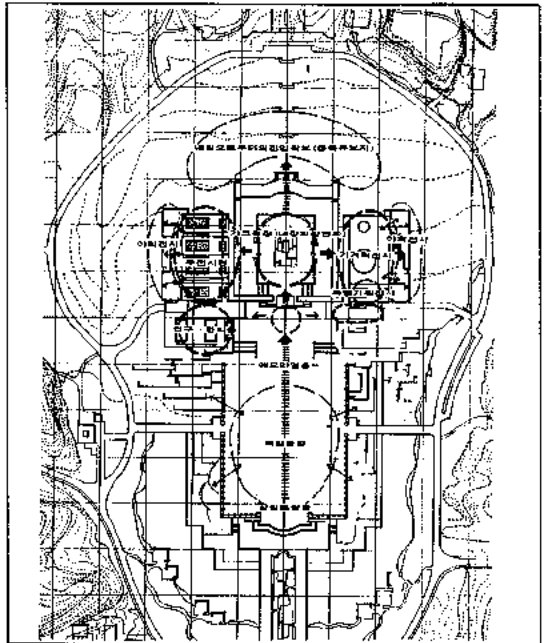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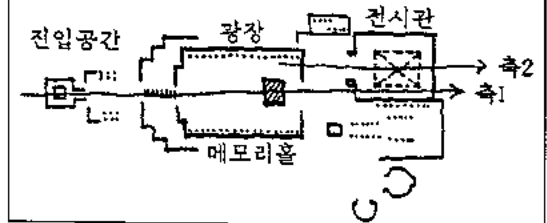
창조안은 이러한 공간적 시퀀스의 경험을 몇 개의 기능공간군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공간마다 배치된 결절점 공간들을 통해 안팎의 크고 작은 공간들을 연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상징적 중심공간인 호국관이 단부에 위치한 건원안과는 달리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 이르는 공간적 경험은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실내의 광장이 지하의 호국관과 중정형의 전시공간을 수평, 수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핵심적 중심마디로 작용한다.

기하학적 사고에 기초한 평면과 공간구성의 개념은 전쟁기념관의 삼우안과 건축문화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경험적 공간의 전개보다는 홀을 중심으로 한 기하학적 공간질서가 강조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평면은 기념비적인 대형 홀을 중심으로 구심적으로 결속되어 있으며, 좌우에 배치된 중정형의 아트리움 공간이 진행 축과는 직교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내부공간의 기하학적 질서에 의한 동선의 흐름은 강한 반면, 공간구성을 통해 암시되는 공간적 위계성과 진입의식은 미약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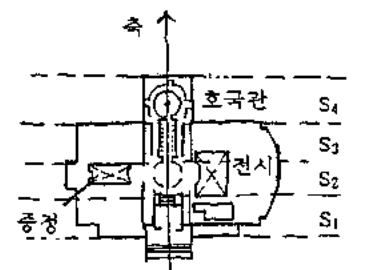
독립기념관의 김형만안도 메모리얼 홀과 주제 전시공간이 고인돌에서 유추한 기하학적 형태로 에워싸여 형성된 중정형의 평면형식에 수직적으로 배분되어지고 있다.

- ① 독립대구박물관 설계경기 우수작 (일건안), 1989
- ②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2등작 (정길협안), 1983
- ③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가작 (일건안), 1983
- ④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당선작 (건원안), 1989
- ⑤ 건원안과 창조안의 평면형식과 공간구성의 위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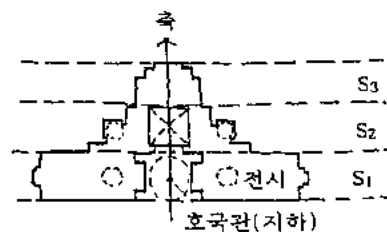
정길협안의 空間構成 概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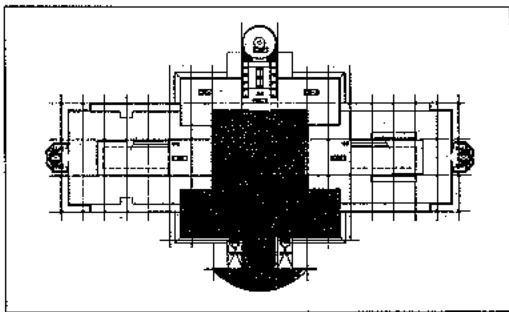
건원案과 창조案의 平面形式과 空間의 位階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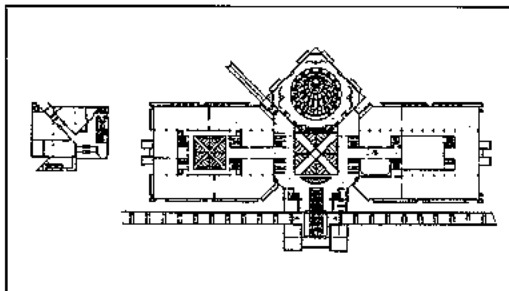
<건원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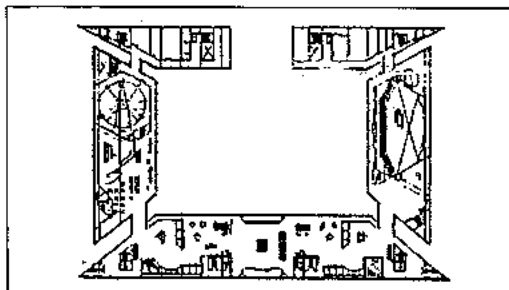
<창조案>



39



40



41

- 39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우수작 평면도 (삼우안), 1989
- 40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가작 평면도 (건축문화안), 1989
- 41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3등작 평면도 (김형만안), 1983
- 42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당선작 (공간안), 1989
- 43 국립 대구박물관 설계경기 우수작 (그룹원), 1989
- 44 국립 부여박물관 설계경기 당선작 (천일건축안), 1989

3) 형태 및 외관 표현

형태 및 외관 표현의 접근방식은 건축적 사고유형에 따라 다양성을 보여준다. 기능적 사고에 기초한 형태 탐구의 자세를 보여주는 대구박물관의 공간안, 그룹원안, 천일안 등은 선입된 형태개념이나 형태가 갖는 이미지를 설정해 두고 접근하기 보다는 "공간을 둘러싸는 그릇으로서의 형태"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공간안에서는 자연에 기술됨없이 공존관계를 갖는 매스와 순화된 지붕형태의 분절과 중첩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조화가 강조된다. 그룹원안에서는 건물의 장엄한 분위기를 표현해주는 옥대와 기단식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 뿌리박은 조형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부여박물관의 천일안은 절제된 전통적인 모티브와 단순한 기능적 입면구성을 통해 전통건축의 디자인 이미지^{주7)}를 현대적인 건축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안은 모두 기능에 충실한 표현과 아울러 전통요소의 단순한 변형보다는 전통을 의식과 개념의 차원에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여박물관의 천일안과 그룹원안 등은 기능상 채광이 필요한 연구·관리공간과 환관, 로비공간들을 진입시 시야에 들어오는 쪽에 배치함으로써 기능의 가시적 표현성과 더불어 전통적인 석탑형상이나 처마선 등을 현대적인 어휘로 정제·치환하여 수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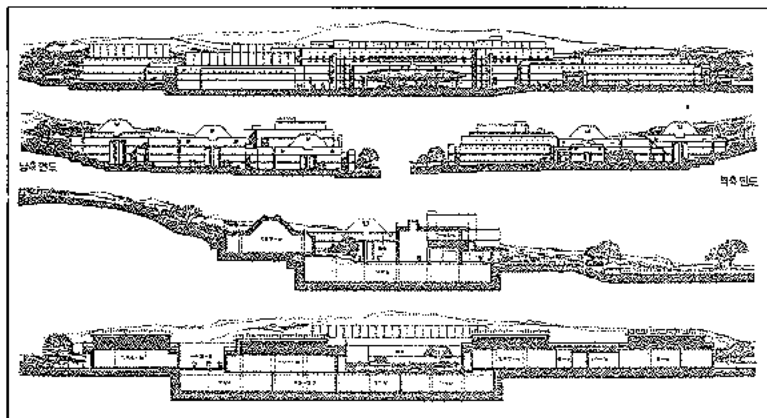
그러나 전통적 형태요소나 모티브에서 강한 형태적 이미지를 유추해 내어 표현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유형학적 사고유형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부여박물관의 일건안과 삼정안, 대구박물관의 삼우안 등은 그 지역의 석탑과 고분 및 전통 문양과 패턴 등을 활용하여 형태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지만 작가의 설명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체계를 보여준다. 특히 독립기념관의 삼정안은 2층기단의 형성, 민홍림식 기둥, 맞배지붕의 해체^{주8)}와 조립, 기와, 담장, 성벽이미지의 경사면 매스 등 전통 건축언어의 변용에 의한 취사선택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지-행태지향적 사고의 특성을 보여주는 독립기념관의 정길협안과 일건안 등은 일주문과 독립광장의 진입분에 독립문을 연상시키는 아치형상(정길협안)을 사용하거나 산성(山城)을 연상시키는 형태와 재료로 고전적 조형성(일건안)을 표현함으로써, 전통형태의 단순한 변형과 모방을 탈피하여 절제된 형태에서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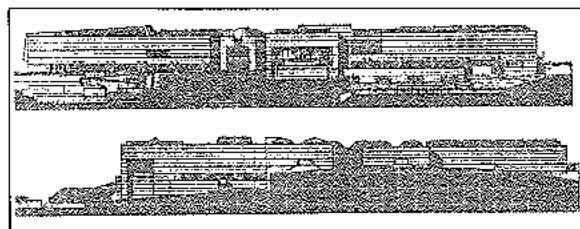
이러한 의도는 전쟁기념관의 건원안에 서처럼 한국건축의 모티브를 추상적으로 현대화하여 그 형태의 지각적 특성을 활용하거나, 창조안의 경우에서처럼 전통건축의 처마지붕에 수평선을 중첩시키거나 선과 선사이에 네가티브한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하단의 기단과 어우러져 지붕선을

주7) 작은 개울, 분수 연못, 아치형 돌다리, 브릿지 너머로 보이는 전시물 등 전통적인 경관요소가 보행동선상에 배치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제공하며 체험을 위한 시각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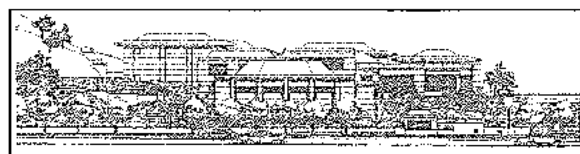
주8) 메모리얼 홀은 좌우대칭의 고전적 구성과 기념비적 척도, 전통적 입면비례, 중후한 지붕의 선 등이 전면의 현대적인 스페이스 프레임과 병치되어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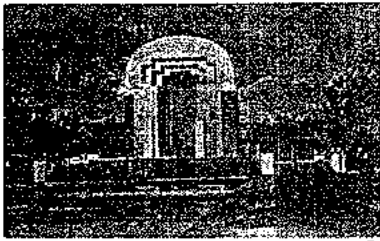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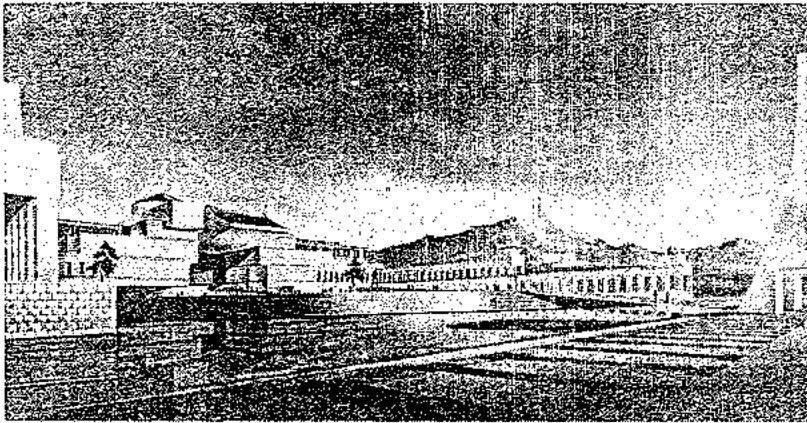
43



44



45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2등작
(정길합안), 1983
46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당선작 (건원안), 1989



암시하는 시각효과를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도 발견된다.

형태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적인 효과는 대구박물관의 삼정안에서도 발견된다. 삼정안은 각 전시실 입구의 인지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 5개의 사각형 탑과 강당의 원형 돔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가 수사적으로 활용되어 그 기능을 암시하거나 특정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행과 자동차에서 보이는 시각적 스케일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표현의 의도는 관찰자의 심상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성의 지각을 단지 기단, 담장, 성벽, 개구부, 전통재료 등의 물리적인 속성과 연관짓고 있는 유형학적 사고와는 다른 접근태도를 지닌다.

반면, 기하학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전쟁기념관의 삼우안에서는 내부기능에 충실하고 과도한 기식을 절제하기 위해 기하학형태의 강직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건축문화안도 단순한 기하형태가 주는 원초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표현을 보여준다. 구조-재료지향적 사고유형의 태도는 독립기념관의 정인국안에서처럼 "기능에 따른 자연스런 입면계획"의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유리사용의 일관성으로 얻어지는 형태적 투명성과 공간적 관입성에 의한 자연광의 도입, 메모리얼 홀의 휴먼스케일, 입면과 높이의 조화에 의한 균형있는 볼륨구성 등은 전통적 규범이나 이미지 요소에 제약받지 않고 건축의 내재적 자율성에서 얻어지는 형식미를 지향하고 있다.

3. 건축적 사고와 접근태도의 다양성

최근에 시행된 박물관, 기념관 건축의 작품들을 비교·분석하여 보면, 설계 경기작품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축적 사고유형은 기능적 사고유형, 유형학적 사고유형은 기능적 사고유형, 유형학적 사고유형, 인지-행태지향적 사고유형임을 알게 된다.

이중 기능적 사고유형은 전사공간의 기능성을 중시하는 박물관 건축에서 지배적이며, 상징성과 기념성의 표현이 중시되는 기념관 건축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기능적 사고유형은 대구박물관의 공간안, 그급원안, 부여박물관의 천일건축안 등에서와 같이 중정형의 집약성 평면형식과 자연과의 유기적 조화를 중시하는 데서 보여지며, 80년대에도 한국건축가의 창작과정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유형학적 사고유형은 박물관과 기념관 건축 모두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배치개념이나 공간구성 원리 및 형태요소 등을 변용하여 디자인 개념의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강한 축을 중심으로 한 좌우 대칭적 질서를 대지의 질서에 부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정형 옥외공간, 회랑, 누형식의 피로티, 처마지붕 등이 전통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60년대의 국립박물관이 보여준 전통형태의 모방과 복제의 방법은 지양되고 개념과 요소의 확장·적용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형태나 공간구성의 기법이 주는 물리적 속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지-행태지향적 사고유형의 모습은 전시 및 기념성 공간이 지니는 체험적 속성을 중시하여 접근한다. 따라서 대구박물관의 삼정안과 일진안에서처럼 전통적인 공간구성 기법이나 형태적 이미지가 주는 연상효과보다는 인간의 체험적인 경험속성을 공간구성에 반영하고자 의도한다. 인지-행태지향적 사고유형은 전통적 개념이나 요소를 차용하는 점에서는 유형학적 사고와 유사성을 가지나, 후자가 주로 외형적 연상과 유추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반면 전자는 아들 개념이나 요소를 활용한 내면적 경험효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기하학적 사고와 구조-재료지향적 사고의 모습은 강한 조형적 의도와 현대성의 추구를 위한 접근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박물관보다 기념관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박물관과 기념관이라는 동일한 건축적 주제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건축적 사고의 다양성에서 연유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건축가의 사고유형의 범주와 그들의 디자인 문제제의 접근태도는 여러 건물을 비교분석하여 보아도 어떤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건축적 사고와 그에 따른 디자인 특성에서의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디자인 접근에 있어서 건축가들의 사고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인지-행태적 속성이 중요한 디자인 개념과 원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체험구조와 관련된 인지-행태적 속성을 공간구성과 형태표현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는 최근의 현상설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디자인 접근에 있어 인지-행태지향적 사고가 갖는 중요성을 재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ARCASIA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에 관하여

金知德 / 본협회 국제 위원회 위원장,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부회장

by Kim, Chi-Tok



본 글에서는 본협회에서 매년 참가하고 있는 국제회의에 대한 건축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ARCASIA란 무슨 일을 하는 국제기구이며, 아카시아 이사회는 어떠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ARCASIA 포럼(Forum)은 어떤 국제기구이며, ARCASIA 건축 교육위원회(ACAE)와 학생 잼버리대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시아 건축사대회(ACA)는 어떤 행사이며, 아카시아 건축상은 어떠한 상인가 등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ARCASIA(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란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이며, 아시아지역의 국가 건축사협회의 회원과 그 협회장을 포함한 이사회를 말한다.

이 국제조직은 각 지역협회 회원에 관한 기획과 관련 문제를 포함한 여러문제들에 관여하여 해결하고, 협의하고, 봉사하는 단체다. 이사회의는 매년 각 국가의 지역에서 발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축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점들을 모아서 지시하고, 발표하고, 의견교환도 한다.

ARCASIA의 창립 목적은 다음의 6가지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있다.

1. 아시아지역 국가간 지성, 예술,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의 우정연계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기초한 국가 건축사협회 사이의 결속을 굳건히 한다.
2. 전문가로서의 접촉, 상호협력 그리고 각국회원 협회사이의 협력을 굳건히 한다.
3. 각 국가간의 협회 회원들과 국제적 수준에 다른 여러 문제들을 제출해서 해결한다.
4.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인식을 위해

출신수범한다.

5. 사회에 봉사하는 건축사의 교육과 개발을 위해 출신수범한다.
6. 건축사들이 연구와 노력으로 선진기술 분야에서 쌓아가는 여러 환경의 문제들에 선두적 역할을 한다.

ARCASIA의 역사

ARCASIA의 역사는 1967년 건축가영연방위원회(Common 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즉 CAA 뉴델리 회의때 창설이 거론되었다.

지역지구 중심기구로 건축가들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는 국제적 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연판해서 영연방(CAA) 회원국 6개 국가 건축사협회 회원사이에 환경설계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6개국 창설협회 국가들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이었으며, 최초 제안문제는 선진 환경 기술의 중심기구(CETA)탄생이 그 요건이었고, ARCASIA 이사회의 탄생이 거론되었다.

1969~1974년 처음 이사회의가 구성되어 1970년 9월 영연방 건축사모임과 ARCASIA모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식명칭을 「ARCASIA」라고 칭했다. 전세계 조직의 필요성 인식과 때를 같이하여 ARCASIA 지역간의 중요하고 필요한 회원국가 건축사들간의 문제들을 갖고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게 되었다. 당시 각 국가의 협회는 이미 세계 건축가연맹(UIA)과 UNESCO와 연관된 국제조직 회원국가였다.

홍콩에서 첫번째 ARCASIA공식 이사회를 개최하여 ARCASIA 정관, ARCASIA의 교육위원회(ABAE)가 공식 탄생이후 10년뒤 1979년 다음의 6개 아시아국가 건축가협의회도 자카르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그 모임의 승인을 합의했던 것이다.

HONG KONG (HKIA)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 (IAI)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 (PAM)
타일랜드 건축사협회 (ASA)
싱가폴 건축사협회 (SIA)

필리핀 건축사협회 (UAP)

1987년 인도네시아 Bali에서 제8차 이사회의와 제4차 ARCASIA Forum이 거행됐는데, 이 이사회의에서 ARCASIA Forum과 아시아건축사대회 (ACA)는 격년제로 할 것을 채택했다.

1988년 10월 서울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제9차 ARCASIA 이사회의와 제 3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 이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250여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제 9차 이사회의 때 중국건축학회가 ARCASIA 회원국으로 정식가입했다. 이 국제회의 기간동안 자유중국 건축사협회가 4년간 노력해서 ARCASIA회원국 가입을 목표했으나 결국 한나라에서 1개 협회만 가입한다는 ARCASIA 회원자격 기준때문에 대만은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 10차 ARCASIA 이사회의가 제 5차 ARCASIA Forum과 1989년 Bangkok에서 개최됐고, ARCASIA 정관 세칙이 작성되어 각 회원국에 배포됐다.

1990년 제 4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인도의 New Delhi에서, 제 11차 이사회의와 동시에 인도 건축사협회 주최로 개최됐다. 제반 ARCASIA 정관세칙이 약간의 자구수정과 함께 통과했으며, 이사회의에서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ARCASIA 회의때 ARCASIA 우수 건축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1991년 9월에 제 12차 이사회의와 제 6차 ARCASIA Forum이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됐는데, 여기서 1991년 건축사 결의문 선언을 채택했다.

1992년 10월 24일 제 5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제 13차 이사회의가 Lahore에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위원회 위원들과 오운동 회장이 공식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ARCASIA건축교육위원회 (ACAE)

ACAE (Asian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은 ARCASIA의 교육핵심이다. 여러 국가협회 교육위원회의 의장들로 구성된 이 국제단체는 언제나 ARCASIA 이사회의와 동시에 개최되는데, 건축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건축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전근대식으로 건축사 연수위원회와는 건축사 교육위원회란 타이틀도 없고 이런 교육위원회도 없고, 이러한 위원회는 이름조차도 변경이 안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표로 전봉수 위원장과 조인숙 위원이 ARCASIA 교육위원회 회의에 1988년 이후 매년 공식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ARCASIA 교육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교육에 관한 모든 제반문제들을 이사회를 대신하여 자문하고 집행한다.
2. 각국 협회의 건축교육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협력하고 공동노력한다.
3. 각 국가의 국가 건축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지역건축학교나 회원협회를 돕는다.
4. 각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연관된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각 지역 건축학과를 도와준다.
5. 회원국 협회 상호간의 학생과 교수의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6. 각 국가 건축교육에 관계된 조직을 통해 국제적 토론회 (Forum)개최를 수행한다.
7. ARCASIA 이사회의를 통한 각 위원회의 교육적 결정 사항들을 실행에 옮긴다는 목표를 갖고 국제적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한다.

아카시아 건축작품 토론회 (Arcasia Forum)

아카시아의 중요한 국제적 행사의 하나인 것이 바로 「건축 작품 토론회」이다.

이 토론회는 각 지역에 연관된 건축적 이상의 토론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현존해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아시아지역이 안고 있는 건축적 고민을 각국의 환경문제와 여러문제들을 토론회하고 협의하는 모임인데 아시아 건축가의 건축가들이 조형창조의 원동력 역할을 주고있다.

제 1회는 Sri Lanka의 Colombo에서 1982년 10월 9일과 10일 사이에 개최되었고, 제 2회는 제 1회 아시아건축사대회 (ACA-1)와 동시에 필리핀 마닐라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 3회는 제 2회 아시아건축사대회 기간인 1986년 말레이시아의 Kuala Lumpur에서 동시에 거행했는데, 「아시아 건축설계의 새방향」이란 대주제와 「예술의 경지」란 부주제를 갖고 개최했다.

1986년 ARCASIA 이사회의 이후 아시아건축사대회 (ACA)와 Forum (토론회)은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이사회의에서 결정하여 제 4회 토론회만 인도네시아 Bali에서 「나의 건축」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 5회는 포럼이 타일랜드 방콕에서 「아시안건축의 사상에 대한 양식」이란 제목으로 1989년 10월 21일~22일 개최했다.

1991년 8월 27일과 28일 중국의 북경에서 제 6회 토론회가 「아시아 지역의 주거문화의 새로운 사상」이란 제목으로 개최됐다.

아시아건축사대회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RCASIA의 역사적 활동에 중추기능을 갖는 국제행사로 아시아건축사대회라고 칭하며, ARCASIA 이사회의와 동시에 개최되어 매 2년 마다 열린다.

ACA는 현대 사회를 사는 건축사상의 지적 교환장소이며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국제행사이다. 참가국가 모두가 화합해서 열리는 문화행사의 컨설팅행사, 매일 열리는 연회, 각종 관광행사 등이 포함된다. 개최국가는 이회의를 위해 특별히 각국 회원들로부터 선택된 건축사들을 선정 개최한다.

ACA-1, 즉, 제 1회 아시아건축사대회는 1984년 10월 필리핀 마닐라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 건축가들의 전략」이란 제목으로 개최했으며 제 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ACA-2)는 198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퍼에서 "아시아에 있어서 전문설계용역의 전략"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 3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시아의 정신 : 지역문화를 위한 건축」이라는 주제로 250명의 각국 건축사들과 800여 국내 건축사들이 모여 해외의 유명 건축사들의 건축사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 4차 아시아건축사 대회는 1990년 9월 인도 New Delhi에서 「Architecture Development & Environment in Asian Context」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1992년 Pakistan Lahore에서 제 5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개최했는데 「건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란 제목으로 Pakistan 건축사협회가 주최했다. 각국에서 온 약 70여명의 전문건축사들과 Pakistan 200여명의 건축사들이 참석했으며,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알할라 예술회관에서 거행된 이번 회의는 특히, 해외에서 온 35명의 건축전공 대학생들도 함께 참관했다. 자재전과 동시에 열린 이번 회의는 Pakistan 건축사 협회와 Pakistan 전체 건축사들의 대축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생들과 인턴 건축사와 기성건축사들 모두가 각자 할 일 에 최선의 노력으로 임무수행을 하였다. ACA-5중에서는 영연방건축가연합회 (Common 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아시아 건축사 이사회 (ARCASIA Council), 아시아 건축사협회의 교육위원회 (ACAE)등이 동시에 열렸고, UIA (세계건축가연맹)의 회의도 동시에 가졌다. 특히 학생 챔버리 대회는 앞으로 자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학생건축가들에게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

건축설계전공재학생 잼버리 대회 (The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

아시아건축사대회와 병행해서 ARCASIA 교육위원회의 주최로 ARCASIA의 각국 회원국가 협회에서 선정한 건축과 학생들이 이 대회에 모인다.

학생대표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92한국건축전 학생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한양대학교 건축과 3학년 김태훈, 정은성 두학생이 참가했다. 교육위원회 주최로 하는 학생 잼버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각자 소속된 국가로부터 선발된 우수한 건축학도에게 환경과 향토문화가 다른 국가를 여행하게 함으로써 건축교육적으로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게 한다.
2. 학생들 자신이 갖고 있는 현대 건축의 조건과 문제들을 각 국가의 경우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며 지역의 건축사로 보다 나은 다가올 세대를 키워주기 위함이다.
3. 각 국가에서는 건축과 학생들의 내적요소들에 용기를 북돋기 위하여 이 잼버리를 개최한다.
4. ARCASIA와 아시아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아시아에 사는 건축과 학생들 사이를 서로 인식하고 잘알게 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여 각국협회에서 장래 건축사로서 그들 국가를 돕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하기 위함이다.

건축과 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ARCASIA 회의의 중요성을 한층 높여 이 회의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목적을 갖고 건축과 학생 잼버리 대회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C A-3을 개최할때 조제원 학생잼버리 및 교육위원장 지도아래 우리나라 건축과 학교 재학생과 해외에서 온 학생대표들과 만나 잼버리 대회를 가진바 있었다.

Arcasia Award for Architecture

1. 아카시아 건축작품상은 어떤 건축 작품상인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모범적 건축작품을 아시아건축사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매2년마다 수여키로 제정된 건축작품상이다.

1. 안내

아카시아(ARCASIA)는 아시아지역 각국, 그리고 각 회원국가에서 건설되는 건축의 보다 나은 건설환경 기준을

창출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아카시아 건축상을 제정하여 아시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건축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대표적 건축작품들에 대하여 용기와 이해를 모든 ARCASIA국가 건축사들에게 주기위해 이 상을 제정하게 되었다.

아카시아 건축상은 매2년에 한번 ARCASIA에 의해서 조직된 아시아건축사회의때마다 수여된다. 이 상은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를 포함한 독립된 심사위원들의 회의에서 선발되며 심사위원은 ARCASIA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최종작품상을 평가하고 발표하게 되어있다.

아카시아 이사회의(The Council of The ARCASIA)는 각 회원국가의 협회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각 회원국을 대표하여 지역의 건축사관련 여러문제들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매년 모이는 이사회의는 각국협회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아시아지역의 건축전문직업에 영향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료를 취합해서 협의하고, 지시하며, 각 협회에 제안하기도 한다.

2.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건축상 제정의 목적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건축상 제정의 목표는 모범적인 건축작품을 아시아지역 모든 건축 전문가들에게 인정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함으로써 아시아적 정신의 줄기찬 보존을 위하여 용기를 북돋으며 아시아의 발전과 개신분야의 질을 높이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의 인식을 새롭게 하며 아시아 국가간의 문화적 생활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건축사 역할을 한층 제고하는 것이 된다.

이상에서 특히 강조하는 사항은 좋은 건축작품이 어떻게 인간의 창조환경위에 능동적으로 영향받게되는 여러환경요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여주게 되며, 아시아에 있어서 물질적 개발이 문화적 가치속에서 어떠한 조화를 이루는가? 국가적 특질성과 개발국의 자연환경의 조화와 필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주기때문이다.

ARCASIA 상의 규정과 안내들의 제반사항은 파키스탄 건축사 Syed Zaighams Jaffery가 ARCASIA를 위하여 파키스탄 건축사협회를 대표하여 만들었으며, 1991년 9월 중국 북경에서 거행된 제12차 ARCASIA 이사회의의 인준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3. 작품상의 범위

작품상 수여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있다.

Category A 주거부분건축

Category B

단층건물, 다세대주택, 개인주택, 복합주택 등 공공건축물

Category C

사무소건축, 공의건축, 종교건축, 쇼핑센터 등 산업건축물

Category D

공장건축, 창고 등 역사보존건축물
아시아국가내에 있는 역사유물 건축유지물 또는 복원된 기념건축물.

4.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 건축사

ARCASIA 회원국의 건축사협회에 소속되어 활동중인 건축사들만이 가능하며, 현재 ARCASIA 협의회 회원국 15개국의 국가 모두는 작품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작고한 건축사 작품도 제출이 가능하다.

작품제출에는 2개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각국의 협회는 모든 분야의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각 국가협회에서 제출된 금상작품 등 제출된 작품은 그 국가협회나 ARCASIA에 의하여 공식발표하게 되며, 작품상을 받지 못한 개인 작품들도 제출할 수 있으나, 필히 ARCASIA 회원국가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ARCASIA 작품제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각협회에서 심사할 것이며, 제출작품은 자국의 건축사협회 회장의 명의로 하여 제출해야 한다. ARCASIA 작품제출은 최소 준공기간이 2년이 지난 건축물이어야 되며, ARCASIA Award는 하나의 Category에 1개 작품만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5. 작품상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선정된 작품은 「ARCASIA 건축상」이란 제목으로 Gold Medal (금상)을 수여받게 되는데, 매2년에 한번 수여한다.

심사위원회는 수상거부 권한 및 수상작 결정의 권한이 주어진다.

6. 심사규정

심사작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는 지역특성, 사회적·문화적 상황과 환경문제 등의 여러 요소를 심각히 논의해야 하고, 실제로 시설물의 준공결과 규정에 특별한 상황을 참작해야 하며, 아시아지역 특성에 부합된 기술적이고, 전체현황이 건실한 작품이어야 한다. 필히 사용자(건물주)의 반응을 별첨하여야 한다. 특히 작품설계는 아시아지역의 특성을 표한 영감짓는 작품이 선택되는 기준으로 삼는다.

7. 제출되어야 할 자료들

제출되는 자료는 Site Plan, 평면, 단면, 천연색 사진 그리고 영문으로 된 설명서 등이다. 최종서류로 일단 접수된 작품이 최종심사 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최종 심사위원회에 별 추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ARCASIA의 재산이 되고, ARCASIA가 발행하는 출판물에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8. 작품 제출 절차

각 국가의 건축사협회는 ARCASIA 시상 규정에 따라서 1개 또는 그 이상의 작품을 심사위원회에 낼 수 있다. 각 작품은 규정에 요구된 작품설명서를 작품별로 따로따로 제출해야 한다.

ARCASIA에 의하여 작성된 공식 문서는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표현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 이 공식문서는 ARCASIA에서 구득할 수 있으며, 작품의 분명한 이름, 주소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9. JURY

1) ARCASIA 작품심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RCASIA 작품 창설기구의 ARCASIA 회장, 영연방에서 특별히 초청되는 비건축사 한분, ARCASIA 지역에서 오신 우수한 건축사 한분, 비ARCASIA 지역에서 오신 건축사 한분으로 구성된다.

작품심사위원회의 정족수는 6인이 넘지 않아야 하고, ARCASIA 회장은 투표권이 주어져서, 심사위원은 4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ARCASIA 회장이 유고시 작품 심사위원회 회장이 참석하면 된다.

2) ARCASIA 지역

ARCASIA 지역 시상에 대한 시상위원의 규정으로 3지역으로 나눈다.

Zone A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Zone B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Zone C : 차이나, 홍콩, 대한민국, 필리핀

다른 나라 즉 지역지정에 표시되지 않은 나라는 ARCASIA에서 선출된 적당한 지역에 배치될 수 있으며, 일본, UMA, AAM 등은 ARCASIA 회원국가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배치가 결정되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ARCASIA상 심사위원 최종결정

ARCASIA 시상 심의위원회에서 취해진 모든 결정사항은 최종 시상대상에 오르게 된다.

10. 제출작품의 최종심사

ARCASIA 회원국의 협회 회장으로부터 도착한 모든 제출작품은 반드시 각국협회에게 회신된다. Form A 문서가 각국의 선정된 회원작품이 회신된다. 이 회신문서는 최종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된다. ARCASIA 시상 사무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제출문서를 검토한다. 1차 서류를 제공받은 심사위원회의를 작품도착후 개최한다. 필요한 추가 보완자료를 최종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가 ARCASIA 심사위원회에 도착하면 최종심사 위원회의가 개최되며, 여기서 최종작품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된다.

11. 결언 및 제1회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 작품현황

ARCASIA 작품 수상작 최종 결정에 위의 모든 규정사항, 공식 문서 등에 의하지 않은 제출작품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최종시상 작품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작품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결론은 ARCASIA 작품 심사위원회

Architect Syed Zoigham S. Jaffery, AIAP

C/O Habitat PAKISTAN

P.O. Box 12713

Block 6 Pechs

Karachi 75400 PAKISTAN

Tel 92-21-493-1770

으로 연락 할 수 있다.

1992년 ARCASIA 작품상의 중간 보고서, ARCASIA 시상 심사위원회에 60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최종 심사위원회는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개최되기 전날 1992. 10. 첫주에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개최되었다. 최종 심의위원회는 ARCASIA 회장 Mr. Bilgrami, ARCASIA 작품상 창설자 건축사 Mr. Zaigham Jaffery, 영연방 위원회의 탈월한 비 건축전문가 Mr. Ardeshi Cowasjee, ARCASIA 회장이 소속되지 않은 지역의 ARCASIA 회원국가의 건축사에서 Zone B의 인도네시아 Adhi Moersid, Zone C의 대한민국 김우성씨가 최종회의에 참가하였다.

세계적으로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는 호주의 Mr. Philip Cox는 ARCASIA 지역이외 국가 대표로 참석하였는데 이 심사위원회의는 파키스탄의 Karachi에 있는 Pearl 국제호텔에서 개최하였다. (1992. 8. 16~1992. 8. 17)

Category 4는 제출된 57개 작품중에서 11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이 작품 모두는 규정에 합당하게 모든 제출문서를 ARCASIA 시상위원회 사무처로 보내졌다.

3개의 작품이 회원국가 협회를 거치지 않고 도착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최종 심의에서 규정 위반으로 탈락되었다. 최종심의 위원회는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전까지 이 11개 작품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보내줄것 ARCASIA 규정에 기록된대로 각국협회에 보내와서 우리나라 오운동회장이 3개 작품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송부하였다.

제1회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현황

1992년 아카시아 건축상 심사위원회에 60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최종 심사위원회는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개최되기 전날 1992년 10월 첫 주에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개최되었다. 최종 심의위원회에는 아카시아 회장 Mr. Bilgrami, 아카시아 건축상 창설자 건축가 Mr. Zaigham Jaffery, 영연방 위원회의 비건축전문가인 Mr. Ardeshi Cowasjee, 아카시아 회장이 소속되지 않은 지역의 아카시아 회원국가의 건축가 중에서 zone B의 인도네시아 Adhi Moersid, zone C의 대한민국 김우성씨가 참가하였다.

호주의 Mr. Philip. Cox Rk씨가 아카시아 지역의 국가 대표로 참석하였는데 이 심사위원회의는 파키스탄의 Karachi에 있는 Pearl 국제호텔에서 개최하였다. (1992. 8. 15~1992. 8. 27)

1992년 아카시아 건축상 금메달의 작품은 파키스탄 라호르에 세워진 Al-Hamra 예술센터가 차지했다.

제5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되었던 라호르에 세워진 이 건물은 ACA-5의 토론회의 장소이기도 했던 곳이며, 건축사 Nayyar Ali Data씨가 설계한 라호르 시민 모두가 자랑하는 예술센터이다.

참여자작품은 11개 작품이었으며 이들에 걸친 심사 결과 수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Category A에서는 「정원이 있는 주택」 중국 북경 Liang Young Wu씨 작품, Category B에서는 「알리함파 예술센터」 파키스탄 Mr. Nayyar Ali Data씨 작품이 금상, Category C에서는 「Kanagawa Science Park」 일본 Tskekuni Ikeda 작품, Category D에서는 방글라데시 Shahalam Zahiruddin의 「Ahsan Mansil Dhaka」가 금상으로 선정되어 1992년 아카시아 건축상의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준수씨의 삼하리 주택과 김석철씨의 예술의 전당이 각각 A·B분야의 최종 심사단계까지 올랐으나 아쉽게 입상에 머물렀다.

용역설계업 국제윤리규약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머리말

용역설계업 국제윤리규약을 제정하여 UN과 세계건축가연맹 (UIA)에서 인준을 받아서 각국의 설계용역단체, 협회 각국가 유관단체들, 개발차관 기관들에게 강력한 포고문 형식으로 발표된 1984년도에 대한 건축사협회가 ARCACIA 행사인 ACA-1 (제 1 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에 처음 참석했을때 벌써 이 결의문안에 대한 토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에 상당한 관여가

있을 이 전문용역 국제윤리 규약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국제회의때마다 거론되는 이 윤리규약은 분명히 알아야하고, 사안별로 각 용역회사가 매일하는 업무와 연결된 사안이므로 여기 영문과 국문을 함께 실는다. 실무에서의 국가, 단체, 그리고 국제적업무에 관여하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서도 알아야 할 항목들이기에 문안전체를 알린다.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김 지 덕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이 조 창

용역설계업 국제 윤리규약 1981년 아시아 건축가 협의회 성안

1987년 국제건축가 연맹 (UIA)에서 채택했고 승인됨.

건축설계용역업에 대한 국제 윤리 규약 성안 배경

어떤 개발도상국가든, 최대의 목표는 자국민의 생활 향상을 획득하는데 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더 나은 개발수준을 열망하는 국가정부는 상대적으로 개발된 국가로부터 여러 사업에 대한 기술 도입과 경제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다.

국제연합국 일반 기구에서 연방주의 경제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채택한 1972년 이래 고유 전통과 기술전수에 관하여 세계 여러곳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에서 도출한 몇몇 제안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와 국민에게 개발 수단과 목표 선택권한 부여를 제창하는 새로운 국제경제법
2.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기술전수와 자신감 획득에 대한 제안들
3. 안정적 인류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

가끔 개발사업에 자금을 차관해주는 기관 또는 공업국이 많은 개발도상국가에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주곤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은 불행히도 원조 수혜국 국민의 문화와 욕구 그리고 환경변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결국 국외용역업체는 자국 용역업체와 원조 수혜국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며 "새로운 국제 경제법"에서 규정한 수혜국 정부의 권리 침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용역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통설계 윤리규약 제정이 긴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제연합국 회의에서 의견일치를 본 제안과 결의안과 동일한 것이다.

제안된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외 용역업체의 책임과 역할 규명
2. 자국내 사업에서의 국내 용역업체의 권리 존중
3. 자국과 타국 용역업체 사이의 원활한 업무수행 기반조성

이상과 같은 목표에 따라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와 승인된 아시아 내의 10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건축협회 회원과 함께 1981년 3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워크숍 모임에서 "아카시아-마닐라선언"이라 명명된 초안 문서를 작성하였다.

본 초안 문서는 다음 열거하는 아카시아 회원 그룹에서 선발된 Felipe M. Mendowa, Victor N. Tiotuyco, Otilio Arellano, Kington Loo, Ronald Poon 그리고 Parid Wardi Sudin의 건축설

BACKGROUND ON THE FORMU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The ultimate goal of any developing country is to attain a better way of life for its people.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aspiring to attain a higher level of development depends on the assistance from the more developed countries by way of technology transfer and financially-assisted infrastructure projects.

Since 1972 whe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United Nations Charter on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several U.N. Conferences on habitat and technology transfer were held in different cities of the world. Some of the resolutions and proposals that emanated from these conferences were:

1.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declaring the rights of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a country to choose its means and goals of development;
2. The proposals to attain self-reliance and proper transfer of technolog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3. The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 of human settlements.

It is often the experience of many developing countries that foreign professionals are commissioned as consultants by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e foreign lending institutions that have agreed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development projects. Unfortunately, the solutions that are recommended are not often sensitive to the environment, culture and aspirations of the people of the assisted country. In such cases, the hiring of foreign consultants is to the disadvantage of the assisted country and its local consultants, and runs counter to the rights of the government as stipulated in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was therefore imperative that a common Code of Ethics be formulated for use by consultants throughout the world, which would be in consonance with the resolutions and proposals that have been agreed upon in the various U.N. Conferences. The objectives of the proposed Code are:

1. To define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consultants who will be hired by a foreign country;
2.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ights of local professionals in the development of their own country; and
3. To attain a harmonious working arrangement between foreign and local professionals.

제 전문가들이 성안했으며, 본 문서는 그후 "국제설계용역업 윤리규약"으로 명명되어 1981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2회 아카시아 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본 규약은 ARCASIA 외에도 다음 기구에서 정식 채택 된적이 있다.

1. 1981년 6월23일 본 규약을 채택한 필리핀 정부 전문건축설계용역 협의회 (PFPA)
2. 1981년 6월 25일 당해년 결의문 17호에 서명한 필리핀 법제처 (PRC), 이 결의문에서는 모든 정부기관이나 기구에서 본 규약을 따르도록 규정했음
3. 1981년 9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본 규약을 채택하고 1981년 12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준을 받은 아시아 주택계획 협회 (AAPH)
4. 1981년 9월24일 본 규약을 채택한 필리핀 주택계획 협의회

ARCASIA 후원을 받아 1984년 10월25~28일 동안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 건축총회에서 국제 용역업 윤리규약을 채택하는 결의문 1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또한 본 규약은 1985년 정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건축 연맹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기로 하였다.

1987년 7월 20~21일 양일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27차 세계 건축가연맹회의에서 본 규약은 경미한 부분만 수정되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ARCASIA에서 제정한 이 규약 뿐 아니라 세계건축가연맹 (UIA)에서 수정 승인된 규약에는 본 문서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건축용역업 전반에 걸친 여러 기구의 협조적인 노력에 기인하였고 국외 또는 국내 용역업체가 당면하고있는 산재된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사항이었다.

각국의 정부와 인가된 기관과 국외 용역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규약의 원칙과 목표를 인정해야 한다는것이 ARCASIA와 UIA산하 회원들의 절실한 바람이었다. 그렇게함에 있어 우리는 더 나은 생활방법을 추구하고 세계 각계의 사람들과 원활한 업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적기에 와 있다.

국제 용역업 윤리규약

1. 의의

- 모든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개발에 있어서 용역업체의 근본적인 역할의 인정
- 미적표준에 맞추어 국가 문화를 전수하는 것을 감안하여 인간살을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인간 환경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용역업체 역할 숙지
- 특히 개발도상국에 특별히 필요한 관련정보의 충분한 유출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의 국가 능력 즉 용역업체의 필요성
-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수립에 발맞추어 모든국가의 과학과 기술협조를 근간으로 자문업체의 새로운 역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윤리규약의 국제적인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는데 적기라는 신의성
- 관심있는 모든 전문가들, 협회 또는 업체가 수긍해야하는 국제적으로 적절한 윤리규약 제정에 따른 공약성에 대한 확신

여기에 다음사항을 선포하는 바이다.

모든 국가에서 용역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이를 위한 보편적 이행기준이 되어야할 국제 용역업 윤리규약

제 1 조

- 1항) 수행중인 모든 전문용역업에 있어, 각국가에 산재되어있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고 표준은 그 국가

With these as its objectives, 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or ARCASIA, with a membership of accredited architectural organizations from ten(10) countries in Asia, namely: Bangladesh, India, Indonesia, Hong Kong, Malaysia,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ri-Lanka and Thailand; undertook the task to prepare a draft of the document entitled "ARCASIA - MANILA DECLARATION" during a workshop meeting held in Manila, Philippines on March 27-28, 1981.

The draft of the document was prepared by a group of ARCASIA members namely: Felipe M. Mendoza, Victor N. Tiotuyco, Otilio Arellano, Kington Loo, Ronald Poon and Parid Wardi Sudin. The document which was later entitled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was formally adopted on August 6, 1981 at the 2nd ARCASIA Meeting held in Hong Kong.

Aside from ARCASIA, the Code has been formally adopted by other organizations namely:

1. The Philippine 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PFPA) which formally adopted the Code on June 23, 1981;
2. The Philippine Regulatory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PRC) which signed the Resolution No. 17 Series of 1981 on June 25, 1981, endorsing the support and adherence to the Code by all government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3. The Asian Association for Planning and Housing (AAPH) which adopted the Code on September 19, 1981 in Manila, Philippines and formally ratified the Code on December 10, 1981 in Jakarta, Indonesia; and
4. The Philippine Council for Planning and Housing (PCPH) which adopted the Code on September 24, 1981.

During the Fir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1) sponsored by ARCASIA in Manila, Philippines on October 25-28, 1984, the Congress passed Resolution No. 1 which unanimously approved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Further, it resolved that the Code be presented for ratification by the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 or UIA which was scheduled to meet on January 1985 at Cairo, Egypt.

On July 20-21, 1987 the Code was formally approved with some amendments by the members of the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 (UIA) during its XXVIIth Assembly held at Dublin, Ireland.

The Code as formulated by ARCASIA as well as the Code amended and approved by the UIA are included in this document. It is the result of the cooperative efforts of various organization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 the hope of arriving at solutions to the problems that continually beset foreign and local professionals.

It is the sincere hope of the members of these organizations under ARCASIA and UIA, that the governments and lending institutions would take cognizance of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development projects requiring the services of foreign consultants. In doing so, we stand a better chance of attaining a harmonious working relationship among people from all parts of the world, in the pursuit to achieve a better way of lif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THE CONFERENCE:

- Recognizing the fundamental role of consulting servic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all countries,

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이것은 대부분 공업선진국에서 유효한 표준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적합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지만 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될지 모른다는 고려가 지적되어야 한다.

2항) 다른 사회에서 한 사회의 해결책을 도출해내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

제 2 조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개발 책임은 원래 각자에게 있고 국내 용역업자나 전문업자가 그 국민의 필요성과 국가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며 계획되고, 개발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연계하여 일차적인 권리가 있다.

제 3 조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할 형태에 대한 환경 조성은 자국의 문화 요소를 반영하고 자국민의 독창성을 표현하는데 있다.

제 4 조 앞서의 원칙이 자명한 것같이 타국의 용역업체들은 그 일이 정부간 합의에 의한 것이든, 자금유치를 위한 요구조건이든 또는 개인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이 위치하는 국가의 용역업체나 전문가와 조화있게 결속되어야 한다.

제 5 조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국으로부터 적용된 기술과 전문성의 진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그들 상호협력에 의해 적극적인 협조와 정보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제 6 조 용역업은 필요한 자격, 교육, 경험과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면허와 등록이 된 개인 전문가나 용역업체 또는 요구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자격이 있는 대표자나 담당자가 있는 회사 또는 회사 대표자가 책임지고 수행능력이 있는 직원이 회사 내에 있는 자들이 수행해야 한다.

제 7 조

1항) 용역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자격이나 성실성은 일을 수주했을 때 그 일이 수행될 국가나 공공에게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용역업체 자산에 대한 보증이다.

2항) 용역업체의 독립성과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번역이나 자문 서비스는 단독으로 해야 하며 상업, 제작, 판매, 제도 또는 계약 활동에는 직간접적인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 8 조

1항) 용역업체는 그의 전문적 연구이던 우호적인 관계에서의 자연적인 부산물이든지 간에 그의 건축주, 공공 또는 협력업체에 책임을 다하는 전문인이어야 한다.

2항) 이와같은 의무와 책임은 그 자신의 정서적인 가치와 능력의 기회 행동 또는 감각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손상받지 않는 한 적당히 감해될 수 없다.

제 9 조 근본적으로 각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용역업에 대한 규정은 합법적으로 공공을 보호해야 한다. 각 국가간 이련법의 상이성이 있는한 용역전문업은 정부의 전문업 규정법 혹은 업무가 수행되는 국가의 전문업 윤리 규약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 10 조

1항) 일반적인 모든 전문기관과 목적은 전문업 이행에 있어 윤리적 행동과 탁월성에 대한 최상의 표준을 수립 발전시키며 관련된 전문기관들과 상호협조와 전문업 구성원의 행동을 규정하는데 있다.

2항) 앞의 목적에 견주어, 이것은 절대적으로 전문기구에 의하여 소원하는 자의 거주지를 무시하고 정부, 전문기구, 협력업체 또는 건축주가 지정한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회원을 막론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particularl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 Aware of the role of consulting services in the creative fashioning of man's environment to the end that they will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his life,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national culture in meeting aesthetic standards;
- Desiring to strengthen national capabilities in terms of consulting services by promoting the fullest flow of relevant information suited to the specific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 Believing that it is now timely to set forth a statement of universal policies and principles in a Code of Ethics in order to enhance the creative role of the consulting service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as a basis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of all countries;
- Affirming th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a universally applicable Code of Ethics to which all professional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concerned should conform,

HEREBY DECLARES THIS: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AS THE COMMON STANDARD OF CONDUCT FOR ALL PROFESSIONALS PERFORMING CONSULTING SERVICES IN ALL NATIONS.

Article 1. (1) In all professional undertaking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system of values and culture prevailing in each country, and standards must be determined on a national basis. This is dictated by the consideration that standards which are valid for the most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may be inappropriate or may entail unwarranted social cost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2) There shall be no attempt to impose solutions of one society on other societies.

Article 2.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every country rests primarily upon itself, the local consultant or professional shall have the primary right to interpret the needs of his people, and his vision as to how his country's environment could be built, planned, improved or enhanced shall be entitled to respect.

Article 3. The environment that the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fashion shall be expressive of the genius of the people and reflective of the substance of their culture.

Article 4. As a corollary to the foregoing principles, every consultant from a foreign country, whether his work is a result of a government-to-government agreement or a requirement of the funding institution or a project from a private sector, shall associate and work harmoniously with consultants or professionals of the country where the project is located.

Article 5. To accelerate the transfer of appropriate technology, consultants from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hall, through their interaction, extend to each other the fullest assistance and access to information.

Article 6. Consulting services shall be performed by individual professionals or consultants possessing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education, experience and legal registration and license to practice or by firms whose principals and heads are professionals qualified to perform the required services and are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of the staff of said firms.

Article 7. (1) The consultant'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integrity are his warranty that the best interest of the public and the country where the services are to be performed are served when his services are retained. (2) To in-

아카시아-마닐라 선언으로 1981년 3월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작성

1981년 8월 6일 홍콩에서 개최한 제 2차 아카시아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

아카시아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
A.K Rafique Uddin Ahmed
홍콩 건축사협회
Ronald Poon
인도 건축사협회
Jai Rattan Bhalla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
Darmawan Prawirohardjo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
Parid Wardi Sudin
파키스탄 건축사협회
Yasmeen Lari
필리핀 연합 건축사
Leandro Locsin
사이아미스 건축회
Sumet Jumsal
싱가폴 건축사협회
Kenneth Chen Koon Lap
스리랑카 건축사협회
Visva Selvaratnam

제 1 차 아시아 건축사 의회

결의문 제 1 호

제1차 아시아 건축사회의가 아시아 국가의 13개 전문기구가 참석한 중에 1984년 10월 25에서 2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의회에 앞서 모든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개발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이 표명되었고 1981년 ARCASIA에서 작성되고 채택되었던 "국제 용역업 윤리규약"도 검토되었다. 본 의회에서는 전문업의 윤리적 행동과 일에 대한 최상의 표준을 만들고 참여하는 건축사들 간의 원활한 우호 관계를 정립하고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협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규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국제 용역업 윤리규약"을 채택하여 결의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본 "국제용역업 윤리규약"은 본 의회내 다른 모임에서, 그 모임 회원들만 사용하기 위하여, 인준을 받기위해 제출되었고 또한 세계 건축가 연맹 회원국이 사용하기 위하여 1985년 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한 세계 건축가 연맹에 최종 채택을 위해 제출되어 결의된 바 있습니다.

FELIPE M.MENDOZA, FUAP
제1회 아시아 건축사 의회 서기관
1984년 10월 28일

MANUEL T. MANOSA, JR, FUAP
제1회 아시아 건축사 연맹 회장
1984년 10월 28일

sure the professional independence and objectives of consultants, they should be engaged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professional and consultancy services and shall not have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commercial, fabricating, marketing, manufacturing or contracting activities.

Article 8. (1) The consultant is engaged in a profession which carries with it responsibilities towards his client, the public and his co-professionals, whether such responsibilities are the natural outcome of good citizenship or of his professional pursuit. (2) The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annot be properly discharged unless his motives, conduct, sense of moral values and ability are such as to command respect and confidence.

Article 9. Every country has professional regulation laws whose primary function is to legally protect the public. Since there are some variations in these laws between countries, the consulting professional shall abide by the government's professional regulation laws and honor the Code of Ethics of the profession in the country where the services are to be performed.

Article 10. (1) The common objectives of all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e to establish and promote the highest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and excellence in the practice of the professions, to regulate the professional conduct of members of the professions and to cooperate with their allied professional organizations. (2) In line with the foregoing objectives, it shall be mandatory upon a professional organization to take appropriate action on any formal complaint for unethical conduct filled against any member of its profession by a co-professional, a client, a professional organization or a government regardless of the residence of the complainant.

Framed in Manila, Philippines on the Twenty-Eight of March in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One as the ARCASIA-MANILA Declaration.

Formally adopted in Hong Kong on the Sixth of August in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One during the second ARCASIA Meeting.

FIR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RESOLUTION NO. 1

The Fir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representing thirteen professional organizations from the Asian countries which was held in Manila, Philippines on October 25-28, 1984, after deliberating on the role of the architects in the social, economic and technical development of all countries, particularly of developing countries and after reviewing the document entitl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which was framed and adopted by 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RCASIA) in 1981, found such Code as an essential instrument for use by all architects practicing within their countries or in foreign lands, in order to achieve the highest standard of ethical conduct and excellence in the practice of the profession and to attain the necessary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harmonious relationship among practicing architects, do hereby resolve to formally adopt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It is further resolved that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Consulting Services" be presented for ratification by the different associations represented in this Congress, for use by their own members and to present the said Code to the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 (UIA) for final adoption by the UIA in the forthcoming assembly in January 1985 at Cairo, Egypt and for use by all member organizations of UIA.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본협회에서는 현대사회구조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직종이 날로 늘어가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같은 직종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가 설립되고, 각 단체에서는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유익한 사업을 전개하므로써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가칭“건축사 공제조합”설립을 계획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하여 향후 사업진행 및 목적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내용은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추진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총 3,852명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우편을 이용, '92. 5. 4~5. 23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였다.

본 설문분석은 '92. 5. 30일 현재까지 회신된 1,221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응답지 가운데 기재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하여 처리하였다.

문1) 설문서 회신현황을 보면 '92. 5. 30 현재 총 1,221통이 회신되어 32%의 회신율을 보였으며 각 지역별 회신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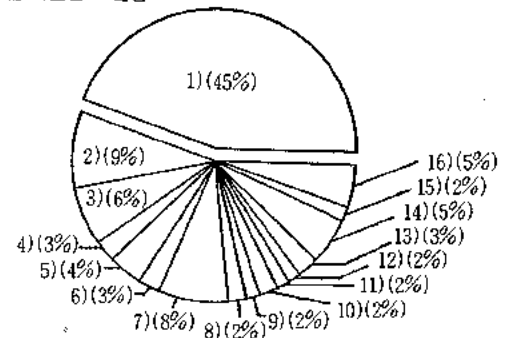
1) 서 울 :	1,813 명의 정회원 중 549 통이 회신되어 30%
2) 부 산 :	432 " 108 " 25%
3) 대 구 :	261 " 77 " 30%
4) 인 천 :	110 " 34 " 31%
5) 광 주 :	125 " 46 " 37%
6) 대 전 :	120 " 31 " 26%
7) 경 기 :	326 " 99 " 30%
8) 강 원 :	57 " 22 " 39%
9) 충 북 :	79 " 21 " 27%
10) 충 남 :	58 " 25 " 43%
11) 전 북 :	80 " 22 " 28%
12) 전 남 :	50 " 11 " 22%
13) 경 북 :	96 " 35 " 36%
14) 경 남 :	204 " 63 " 31%
15) 제 주 :	41 " 21 " 51%
16) 무기입 :	- 56

또한 응답자 1,221명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1) 서 울 - 549명	9) 충 북 - 21명
2) 부 산 - 108명	10) 충 남 - 25명
3) 대 구 - 77명	11) 전 북 - 22명
4) 인 천 - 34명	12) 전 남 - 11명
5) 광 주 - 46명	13) 경 북 - 35명
6) 대 전 - 31명	14) 경 남 - 63명
7) 경 기 - 99명	15) 제 주 - 21명
8) 강 원 - 22명	16) 무기입 - 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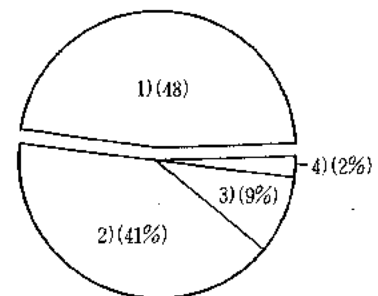
• 그림 1) 지역별 회신분포 현황



※ 사무소 형태별 응답자 현황

1) 단독사무소	581명 (48%)	3) 법인사무소	108명 (9%)
2) 종합사무소	499명 (41%)	4) 무기입	30명

• 그림 2) 사무소 형태별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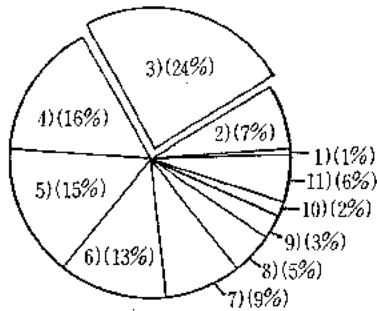


응답자를 사무소 형태별로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보면 단독사무소 중 서울회원이 214명 (37%), 지방회원이 367명 (63%)이고 종합사무소는 서울회원이 245명 (49%) 지방회원이 254명 (51%)이며 법인사무소는 108명 중 73%인 79명이 서울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참조)

※ 연령별 분포현황

1) 30세이하	9명 (1%)	7) 56세-60세	105명 (9%)
2) 31세-35세	90명 (7%)	8) 61세-65세	57명 (5%)
3) 36세-40세	295명 (24%)	9) 66세-70세	39명 (3%)
4) 41세-45세	196명 (16%)	10) 71세이상	21명 (2%)
5) 46세-50세	184명 (15%)	11) 무기입	68명
6) 51세-55세	157명 (13%)		

*그림3) 연령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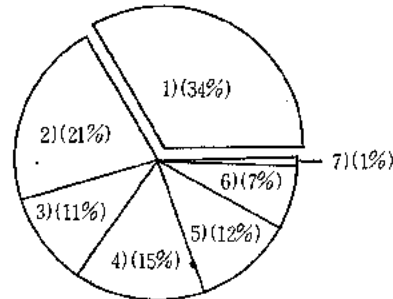


이상의 연령별 분포에서 보듯이 36세-40세가 전체응답자 1,221명중 295명 (24%)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41세-45세가 196명 (15%), 46세-50세 184명 (15%)으로 파악되었다. (그림3 참조)

문2) 건축사무소 개설기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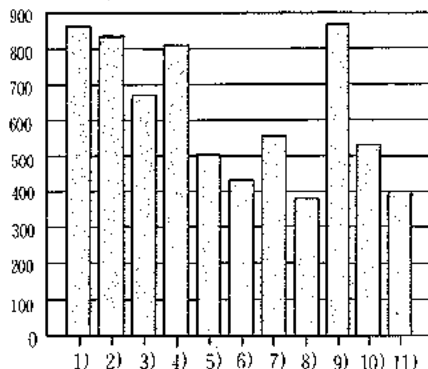
1) 5년미만	410명 (34%)	5) 20년이상-25년미만	
2) 5년이상-10년미만	259명 (21%)		141명 (12%)
3) 10년이상-15년미만	130명 (11%)	6) 26년이상	86명 (7%)
4) 15년이상-20년미만	185명 (15%)	7) 무기입	10명

*그림4) 사무소 개설기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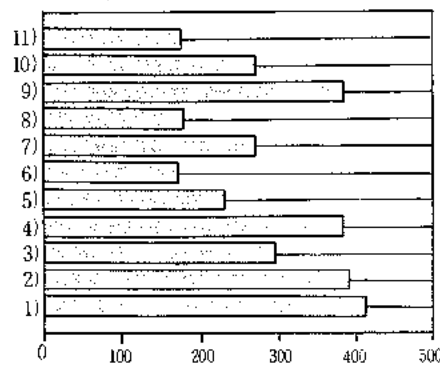


건축사무소 개설기간의 현황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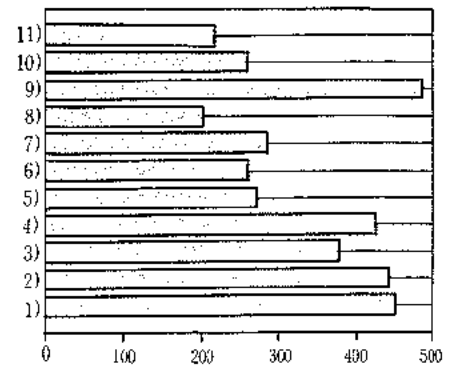
*그림5) 공제조합 사업선택 (응답자 전체)



*그림6) 공제조합 사업선택 (서울 회원)



*그림7) 공제조합 사업선택 (지방 회원)



410명이 5년미만의 사무소 개설기간으로 나타나 가장 많고 5년이상-10년미만의 회원이 259명 (21%), 15년이상-20년미만 185명 (15%)으로 연령별 분포와 비교하여 볼때 30,40대연령의 사무소 개설기간 10년미만의 회원이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사무소 개설기간이 20년이상인 회원도 응답자의 20% 가까이 되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그림4 참조)

※ 다음항목 (문3항)부터 (문8항)까지는 공제조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회원 131명을 제외한 1,090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문5항 참조)

문3) 건축사공제조합 사업범위의 사항 (복수응답)

1) 금융융자업무	864명 (80%)
2) 소송대행업무 (건축사행정처분사항등)	834명 (77%)
3) 설계비 대납 (수납) 청구업무 (일정규모 설계비부터 단계별 시행)	672명 (62%)
4) 업무 (설계, 감리등)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809명 (75%)
5) 건축사보조원 관리업무 (인력수급등)	502명 (46%)
6)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문구 및 필수품의 조달사업 (생산, 수입판매등 관여)	432 (40%)
7) 건축허가 업무대행 (전산화)	555명 (51%)
8) 선진장비구입 및 대여사업 (감정장비등)	380명 (35%)
9) 건축사 세율 조정사업	871명 (80%)
10) 회원 및 보조원 주택마련의 주택조합 결성사업	529명 (49%)
1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역회관건립)	393명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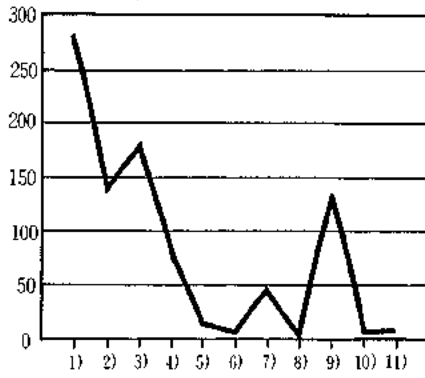
위의 사항을 보면 건축사공제조합의 사업범위중 건축사 세율 조정사업을 871명 (80%)이 응답하여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이 금융융자업무 864명 (80%), 소송대행업무 (건축사행정처분사항등)834명 (77%), 업무 (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809명 (75%), 설계비대납 (수납) 청구업무 672명 (62%)순으로 사업을 선택하였다. (그림5 참조)

서울회원과 지방회원으로 구분하여 건축사공제조합 사업선택의 현황을 보면 서울회원은 1)항 413명, 2)항 392명, 9)항 385명, 4)항 384명, 3)항 294명, 7)항 270명, 10)항 269명, 5)항 230명, 8)항 178명, 11)항 175명, 6)항 171명 순으로 사업선택을 하였으며, 지방회원의 경우 9)항 486명, 1)항 451명, 2)항 442명, 4)항 425명, 3)항 378명, 7)항 285명, 5)항 272명, 6)항 261명, 10)항 260명, 11)항 218명, 8)항 202명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림6, 그림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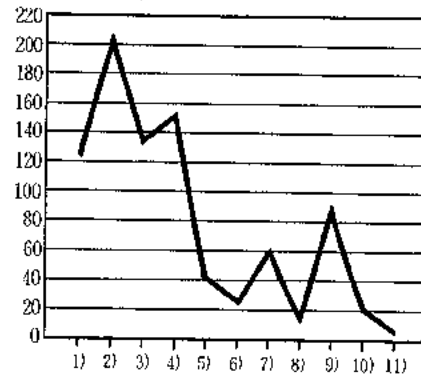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볼때 9) 항 건축사세율 조정사업, 1) 항 금융융자업무, 2) 항 소송대행업무, 4) 항 업무 (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3) 항 설계비 대납 (수납) 청구업무 등이

지역별 구분없이 상위순위에 높은 분포로 선택된 것을 미루어 보면 건축사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건축사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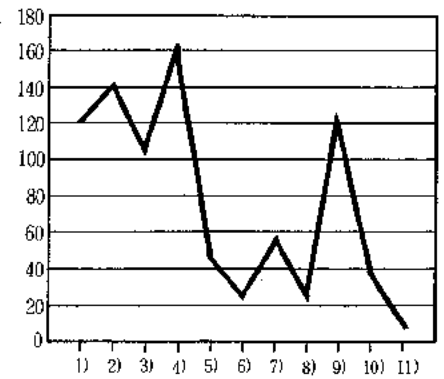
*그림8-1) 사업순서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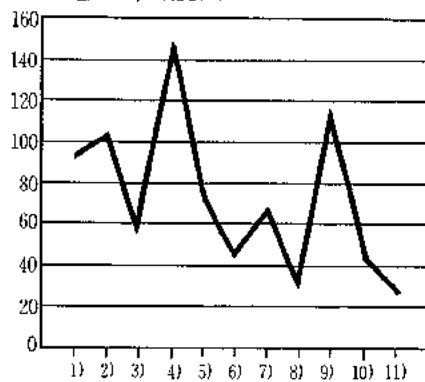
*그림8-2) 사업순서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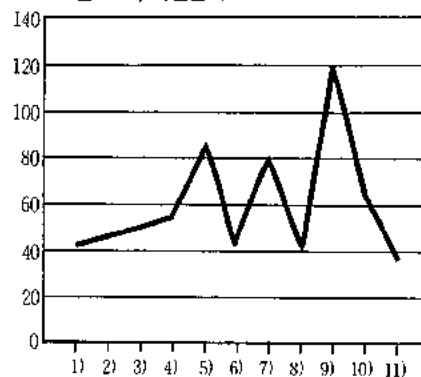
*그림8-3) 사업순서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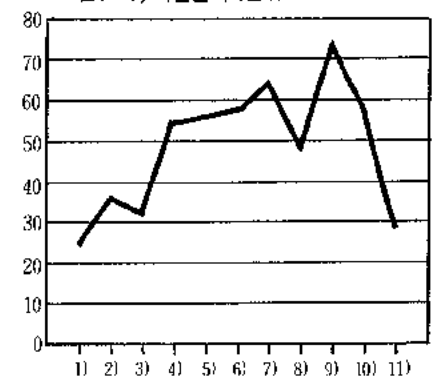
*그림8-4) 사업순서 4순위



*그림8-5) 사업순서 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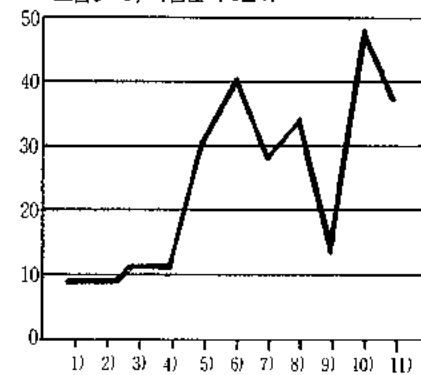
*그림8-6) 사업순서 6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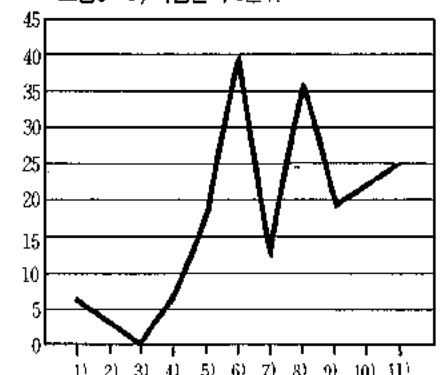
*그림8-7) 사업순서 7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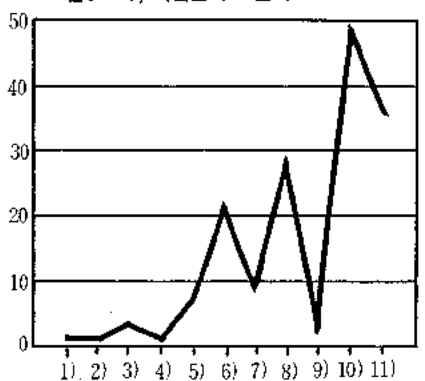
*그림8-8) 사업순서 8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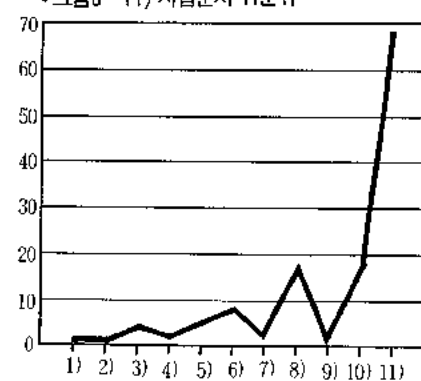
*그림8-9) 사업순서 9순위



*그림8-10) 사업순서 10순위



*그림8-11) 사업순서 11순위



한편 공제조합사업 항목에서 사업순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사 업 순 서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항	279	122	122	93	42	25	18	9	6	1	1	718
2) 항	136	203	141	102	47	36	25	9	3	1	1	704
3) 항	178	134	104	55	50	32	9	11	~	3	4	580
4) 항	78	149	164	148	55	54	22	12	7	1	2	692
5) 항	14	42	47	73	86	55	49	30	18	7	5	426
6) 항	5	26	25	45	44	57	39	40	40	21	8	350
7) 항	45	59	56	65	81	63	52	28	12	9	2	472
8) 항	2	15	23	29	40	48	40	34	36	28	17	312
9) 항	131	89	122	114	119	72	35	14	19	1	1	717
10) 항	7	22	39	46	66	58	63	48	22	49	17	437
11) 항	6	6	9	28	37	28	39	37	25	36	68	319

조합의 사업순서 항목에서 공제조합 설립시 먼저 벌여야 할 사업순서의 1순위는 1) 항 금융융자업무가 27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3) 항 설계비대납(수납)창구업무 178명, 2) 항 소송대행업무 136명, 9) 항 건축사 세울 조정사업 131명, 4) 항 업무(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78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2) 항 소송대행업무 203명, 4) 항 업무(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149명, 3) 항 설계비 대납(수납)창구업무 134명, 1) 항 금융융자업무 122명 순이었다. 또한 3순위는 4) 항 업무(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164명, 2) 항 소송대행업무 141명, 9) 항 건축사 세울 조정사업 122명, 1) 항 금융융자업무 122명 순으로 꼽았다. (그림8 참조)

또한 응답자 1,090명의 연령별 사업순위의 기재내용을 5순위 까지만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순위	30대 303명의 기재사항 및 인원수				
1순위	1) 항-83명, 3) 항-55명, 2) 항-36명, 9) 항-29명, 4) 항-23명				
2순위	2) 항-67명, 1) 항-44명, 4) 항-37명, 3) 항-35명, 7) 항-22명				
3순위	3) 항-53명, 2) 항-52명, 9) 항-35명, 1) 항-32명, 3) 항-35명				
4순위	4) 항-44명, 9) 항-39명, 1) 항-35명, 2) 항-30명, 10) 항-20명				
5순위	9) 항-44명, 7) 항-37명, 4) 항-22명, 5) 항-22명, 2) 항-15명				
	40대 373명의 기재사항 및 인원수				
1순위	1) 항-85명, 3) 항-59명, 2) 항-53명, 9) 항-50명, 4) 항-23명				
2순위	2) 항-56명, 4) 항-53명, 3) 항-45명, 1) 항-43명, 9) 항-42명				
3순위	9) 항-56명, 4) 항-53명, 1) 항-49명, 2) 항-40명, 5) 항-20명				
4순위	4) 항-43명, 9) 항-35명, 5) 항-33명, 2) 항-31명, 1) 항-30명				
5순위	9) 항-32명, 5) 항-28명, 4) 항-23명, 5) 항-21명, 7) 항-20명				
	50대 231명의 기재사항 및 인원수				
1순위	1) 항-69명, 3) 항-43명, 9) 항-27명, 2) 항-25명, 4) 항-18명				
2순위	2) 항-47명, 4) 항-39명, 3) 항-32명, 1) 항-18명, 5) 항-13명				
3순위	2) 항-36명, 4) 항-28명, 1) 항-28명, 3) 항-24명, 5) 항-16명				
4순위	4) 항-39명, 2) 항-28명, 9) 항-23명, 1) 항-17명, 5) 항-14명				
5순위	9) 항-30명, 5) 항-24명, 7) 항-16명, 3) 항-12명, 10) 항-12명				
	60대 이상 119명의 기재사항 및 인원수				
1순위	1) 항-31명, 9) 항-16명, 3) 항-16명, 2) 항-15명, 4) 항-3명				
2순위	2) 항-20명, 3) 항-17명, 9) 항-11명, 1) 항-9명, 4) 항-9명				
3순위	4) 항-25명, 3) 항-11명, 9) 항-11명, 1) 항-7명, 2) 항-7명				
4순위	4) 항-13명, 9) 항-12명, 5) 항-9명, 2) 항-6명, 1) 항-5명				
5순위	5) 항-9명, 9) 항-8명, 6) 항-7명, 4) 항-5명, 1) 항-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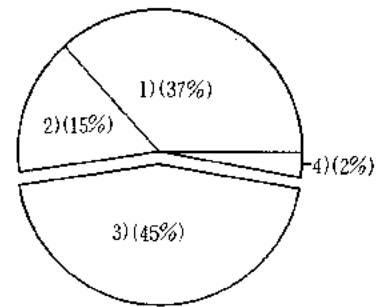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나타난 사업순서나 연령별 분포에서의 공제조합 사업순서를 보면 1) 항 금융융자업무, 2) 항 소송대행업무, 3) 항 설계비 대납(수납)창구업무, 4) 항 업무(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9) 항 건축사 세울 조정사업 등이 상위순서에 끌려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건축사 공제조합의 사업방향이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주요사항이 되리라 본다.

문4) 건축사 공제조합의 초기단계 운영비 충당 방안

- 1) 기적립된 연금기금등을 활용하는 방안 405명 (37%)
- 2) 신설되는 공제출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173명 (16%)
- 3) 연금기금과 공제출자금의 병용 활용하는 방안 487명 (45%)
- 4) 무기입 25명 (2%)

건축사 공제조합의 초기단계 운영비 충당방안으로는 기존의 연금기금의 활용이 405명, 연금기금및 공제출자금 병용활용이 487명으로 나타나 공제조합 설립의 찬성자 1,090명중 892명 (82%)이 연금기금의 활용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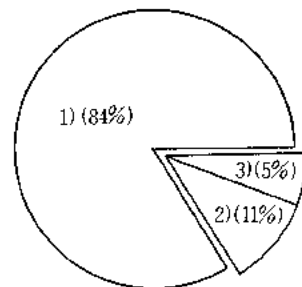
*그림9) 공제조합의 초기단계운영비 방안



문5) 건축사 공제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1) 꼭 필요하나 1,023명 (84%)
- 2) 필요하지 않다 131명 (11%)
- 3) 무기입 67명 (5%)

*그림10) 공제조합의 필요성



총 응답자 1,221명중 건축사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회원이 1,023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회원이 공제조합 설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분포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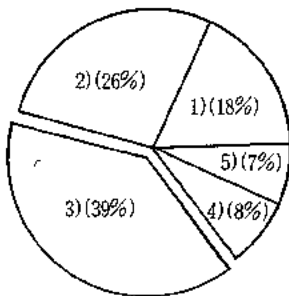
지역	응답자	찬성자	비율	지역	응답자	찬성자	비율
서울	549	459	84%	충북	21	14	67%
부산	108	94	87%	충남	25	22	88%
대구	77	54	70%	전북	22	18	82%
인천	34	29	85%	전남	11	11	100%
광주	46	41	89%	경북	35	26	74%
대전	31	27	87%	경남	63	57	90%
경기	99	90	91%	제주	21	18	86%
강원	22	19	86%	무기입	57	44	77%

문6)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적당한 공제출자금 1구좌당 금액

- | | |
|-------------|------------|
| 1) 10,000원 | 197명 (18%) |
| 2) 50,000원 | 302명 (28%) |
| 3) 100,000원 | 428명 (39%) |
| 4) 500,000원 | 89명 (8%) |
| 5) 무기입 | 74명 (7%) |

공제출자금 1구좌당 금액이 10만원이 적당하고 응답한 회원이 428명으로 응답자 1,090명의 39%를 차지하고 다음이 5만원이 302명 (28%)으로 파악되어 공제출자금은 1구좌당 5만원내지 10만원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기입자가 다른문항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보아 공제출자금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없이 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11 참조)

•그림11) 공제출자금 1좌당 금액



문7) 조합원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 | |
|------------------------------------|------------|
| 1) 모든회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505명 (46%) |
| 2) 회원으로서 공제출자금 출자에 의해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565명 (52%) |
| 3) 무기입 | 20명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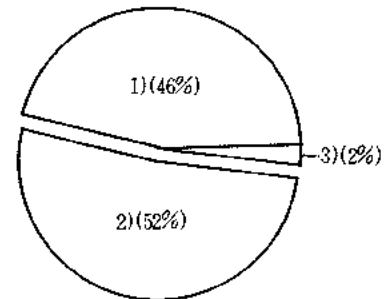
건축사 공제조합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항목에서는 모든회원의 자격취득과 공제출자금 출자에 의해서만 조합원 자격취득의 양자 의견이 거의 대등하여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좀더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요망된다. (그림12 참조)

한편 조합원 자격취득에 대하여 연령별 의견을 살펴보면 응답자 1,090명중 30대 303명의 162명 (53%)은 모든회원은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고 138명 (46%)이 공제출자금 출자에 의해서만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40대연령 (373명)에서는 159명 (43%)이 모든회원의 자격취득이, 207명 (55%)이 출자에 의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50대연령 (231명)에서는 모든회원의 자격취득이 102명 (44%), 공제금 출자에 의해서만 자격취득이 125명 (54%)으로 나타났고 60대이상 (119명)의 연령에서는 48명 (40%)만이 모든 회원 자격취득, 68명 (57%)이 출자에 의한 자격취득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을 볼때 30대에서는 모든회원의 조합원 자격취득 의견이 다소 많았으나 40대이후 50,60대이상의 회원은 공동출자금 출자에 의해서 조합원 자격취득의 의견이 우세한 편으로 나타나 연령층의 의견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림12) 조합원의 자격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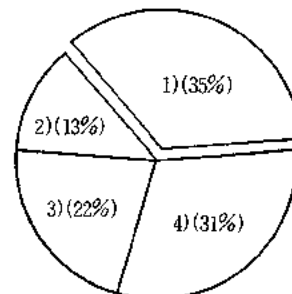


문8) 조합원 자격의 자동상실에 관한 의견 (복수응답)

- | | |
|---------------------------|------------|
| 1) 건축사 면허취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될때 | 598명 (55%) |
| 2)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을때 | 214명 (20%) |
| 3) 협회로부터 제명될때 | 367명 (34%) |
| 4) 자진 폐업시 | 521명 (48%) |

조합원 자격의 자동상실에 관하여 1,090명의 응답자중 598명 (55%)이 건축사 면허취소 또는 효력이 상실될 때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자진폐업시 조합원 자격상실이 521명 (48%), 협회로부터 제명될때가 367명 (34%)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회원은 건축사 업무의 중단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3 참조)

•그림13) 조합원자격상실에 관한 현황



문9)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

마지막 문항에서는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총 417명이 기재를 하였으나, 본 설문내용과 관련내용이 없는 기재내용은 제외하고 상호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림14,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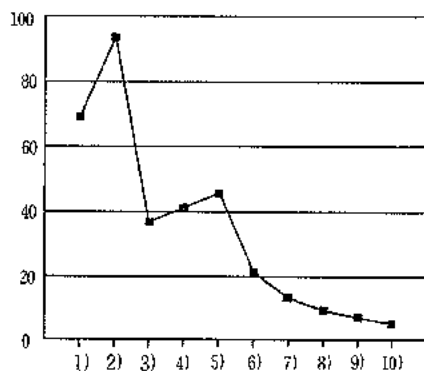
※ 공제조합 설립에 찬성하는 응답자 기재내용 - 342 사항기개

- | | |
|---|-----|
| 1)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운영 (금융융자, 설계비대납창구업무, 법적소송업무, 위락편의시설, 계약 및 하자보증사업등 실시) | 69명 |
| 2) 회원 및 협회의 사회적 위상정립을 위한 조속한 공제조합 설립 | 94명 |
| 3) 협회조직의 일원화(복지회, 신협)의 통합 또는 확대운영) | 37명 |
| 4) 공제조합설립의 적극적인 홍보 (협회지홍보, 공청회실시) | 41명 |
| 5) 공제조합설립의 다각도 연구 검토후 설립추진 (타조합연구) | 46명 |
| 6) 각지역 건축사회별로 공제조합결성 | 21명 |
| 7) 공제조합 주식의 균등한 출자에 의한 공평한 혜택 | 13명 |
| 8) 조성된 연금기금의 공제조합 출자금으로의 전환 | 9명 |
| 9) 조합원 자격의 모든회원 의무가입 | 7명 |
| 10) 기타 | 5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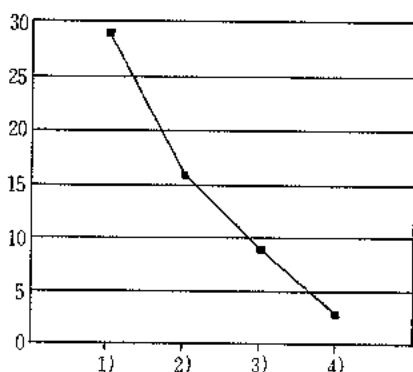
※ 공제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회원의 기재사항 - 57명

- | | |
|-----------------------------------|-----|
| 1) 공제조합 운용상의 공평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대두 | 29명 |
| 2) 기존의 복지회, 신협 및 연금제도와와의 사업내용 상충 | 16명 |
| 3) 협회기구확대 및 관리운영비 성향의 예산지출억제 | 9명 |
| 4) 기타 | 3명 |

*그림 14) 조합설립의 찬성회원 기재사항



*그림 15) 조합설립의 반대회원 기재사항



3. 설문조사 분석결언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협회 업무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회원들이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냈고 또한 이와는 상반되게 공제조합의 설립에 강경하게 반대한 회원들도 있었으며 더불어 공제조합의 설립 배경, 목적 등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설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회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본 설문서 1,221통이 전체 회원의 의견은 아닐지라도 전 회원의 30%를 상회하고 또한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에 관심이 있는 회원의 응답이므로 어느정도 회원의 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하여 찬반 양측의 토론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타전문직종 공제조합의 준비단계, 운영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결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에 관하여 응답자의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므로써 대부분의 회원들이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공제조합 설립의 이유로는 협회 (공제조합)가 진정한 건축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축사 및 협회 (공제조합)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위상정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건축사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금융융자업무, 소송대행업무, 설계비대납 (수납)창구업무, 업무 (설계, 감리)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건축사세울 조정사업 등이 각각 80%가까이 선택됨으로써 공제조합 설립시 선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나타났다.
- 4) 공제조합설립에 있어서 별도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복지회나 신협 등을 흡수, 통합하므로써 협회 기구를 일원화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또한 각 지역별로 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5) 공제조합의 초기단계 운영비의 충당방안으로는 공제조합 설립의 찬성회원 중 82%가 기적립된 연금기금의 일부를 활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6) 조합원의 자격취득에 관하여는 모든회원의 의무가입 의견과 공제출자금 출자에 의한 자격취득 의견이 서로 균등하여 회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7)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설립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제조합의 필요성, 공제조합의 기능, 성격, 사업변위 등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기존의 연금제도, 복지회, 신협 등의 처리문제, 관리운영의 방안 등을 제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으며, 타 전문 직종의 공제조합을 모델 삼아 운영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연구검토하여 그 자료 등을 활용해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992년 1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1월분 7백46만4천5백73m²보다 27.02%(2백1만6천5백75m²) 증가한 9백48만1천1백48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 11월누계 1억2천2백28만7천7백98m²보다 17.96%(2천1백96만8천4백47m²) 감소한 1억31만9천3백51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10월분 1천68만7천7백78m²보다 11.29%(1백20만6천6백30m²) 감소한 9백48만1천1백48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분	구분	1991년도	1992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849,167	2,171,824	1,322,657	155.76%
	부산	981,597	2,102,248	1,120,651	114.17%
	대구	377,264	571,411	194,147	51.46%
	경기	1,101,140	1,232,080	130,940	11.89%
	충남	383,780	464,988	81,208	21.16%
	전북	272,701	293,461	20,760	7.61%
	경북	347,409	535,355	187,946	54.10%
감소지역	경남	432,431	579,280	146,849	33.96%
	인천	606,462	356,076	(252,386)	-41.48%
	광주	225,606	191,152	(34,454)	-15.27%
	대전	830,542	269,586	(560,956)	-67.54%
	강원	287,061	215,919	(71,142)	-24.78%
	충북	302,699	222,321	(80,378)	-26.55%
	전남	375,130	217,677	(157,453)	-41.97%
합계	제주	89,584	57,770	(31,814)	-35.51%
	합계	7,464,573	9,481,148	2,016,575	27.02%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용도별	10월분	11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777,483	684,611	(92,872)	-11.95%
다세대주택	314,664	310,239	(4,425)	-1.41%
연립주택	64,277	47,468	(16,809)	-26.15%
아파트	5,234,949	2,869,574	(2,365,375)	-45.18%
근린생활시설	1,507,683	1,736,104	228,421	15.15%
종교시설	118,821	66,922	(51,899)	-43.68%
의료시설	234,747	79,513	(155,234)	-66.13%
교육연구시설	295,677	649,918	354,241	119.81%
업무시설	409,964	984,566	574,602	140.16%
숙박시설	42,671	78,512	35,841	83.99%
공장	859,803	996,954	137,151	15.95%
기타	827,039	976,767	149,728	18.10%
계	10,687,778	9,481,148	(1,206,630)	-11.29%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축사회												
서울	2,784	2,822	1,229,839	100	104	941,985	0	0	0	2,884	2,926	2,171,824
부산	858	1,311	2,014,421	120	151	60,860	33	37	26,967	1,011	1,499	2,102,248
대구	407	503	517,773	428	460	37,781	24	25	15,857	859	988	571,411
인천	531	546	337,153	26	26	10,338	27	27	8,585	584	599	356,076
광주	178	199	175,761	59	61	13,678	6	9	1,713	243	269	191,152
대전	245	256	115,555	37	38	13,270	71	103	140,761	353	397	269,586
경기	1,064	1,294	1,067,433	136	161	126,669	53	53	37,978	1,253	1,508	1,232,080
강원	329	409	192,729	104	114	20,022	8	8	3,168	441	531	215,919
충북	345	418	162,262	101	175	54,724	26	26	5,335	472	619	222,321
충남	277	290	375,419	97	99	45,784	23	23	43,785	397	412	464,988
전북	246	276	171,075	73	81	97,855	3	3	24,531	322	360	293,461
전남	295	364	196,829	69	86	17,445	15	15	3,403	379	465	217,677
경북	347	509	453,004	136	184	74,860	24	27	7,491	507	720	535,355
경남	641	853	496,379	170	237	72,125	19	19	10,776	830	1,109	579,280
제주	109	121	44,443	44	45	13,327	0	0	0	153	166	57,770
합계	8,656	10,171	7,550,075	1,700	2,022	1,600,723	332	375	330,350	10,688	12,568	9,481,148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11月 合計分)

구분 건축사회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25,482	26,663	16,329,325	1,129	1,218	2,006,603	1	1	0	26,612	27,882	18,335,928
부산	12,068	15,764	9,908,156	1,484	1,876	484,190	460	516	316,669	14,012	18,156	10,709,015
대구	5,268	5,819	3,651,851	3,629	3,868	353,525	369	388	222,384	9,266	10,075	4,227,760
인천	4,252	5,477	4,275,629	357	362	226,861	242	245	95,844	4,851	6,084	4,598,334
광주	2,718	3,186	2,567,543	716	822	271,692	117	120	49,730	3,551	4,128	2,888,965
대전	3,088	3,673	4,004,709	539	567	273,183	774	834	383,480	4,401	5,074	4,661,372
경기	15,409	20,459	20,316,562	1,902	2,233	1,009,697	900	901	590,210	18,211	23,593	21,916,469
강원	5,105	6,024	3,287,120	1,159	1,326	375,896	165	168	40,176	6,429	7,518	3,703,192
충북	5,536	6,754	2,734,700	1,182	1,568	439,520	627	673	197,207	7,345	8,995	3,371,427
충남	3,986	4,311	3,523,732	1,240	1,268	441,619	245	264	171,934	5,471	5,843	4,137,285
전북	3,496	4,065	2,635,842	840	944	367,693	189	189	145,435	4,525	5,198	3,148,970
전남	4,465	5,649	3,162,666	1,169	1,520	396,272	266	292	78,391	5,900	7,461	3,637,329
경북	6,193	7,688	4,921,631	1,654	2,085	985,628	271	272	245,325	8,118	10,045	6,152,584
경남	9,342	11,544	6,756,702	1,970	2,681	968,250	370	375	207,333	11,682	14,600	7,932,285
제주	1,757	2,036	812,294	745	748	86,142	0	0	0	2,502	2,784	898,436
합 계	108,165	129,112	88,888,462	19,715	23,086	8,686,771	4,996	5,238	2,744,118	132,876	157,436	100,319,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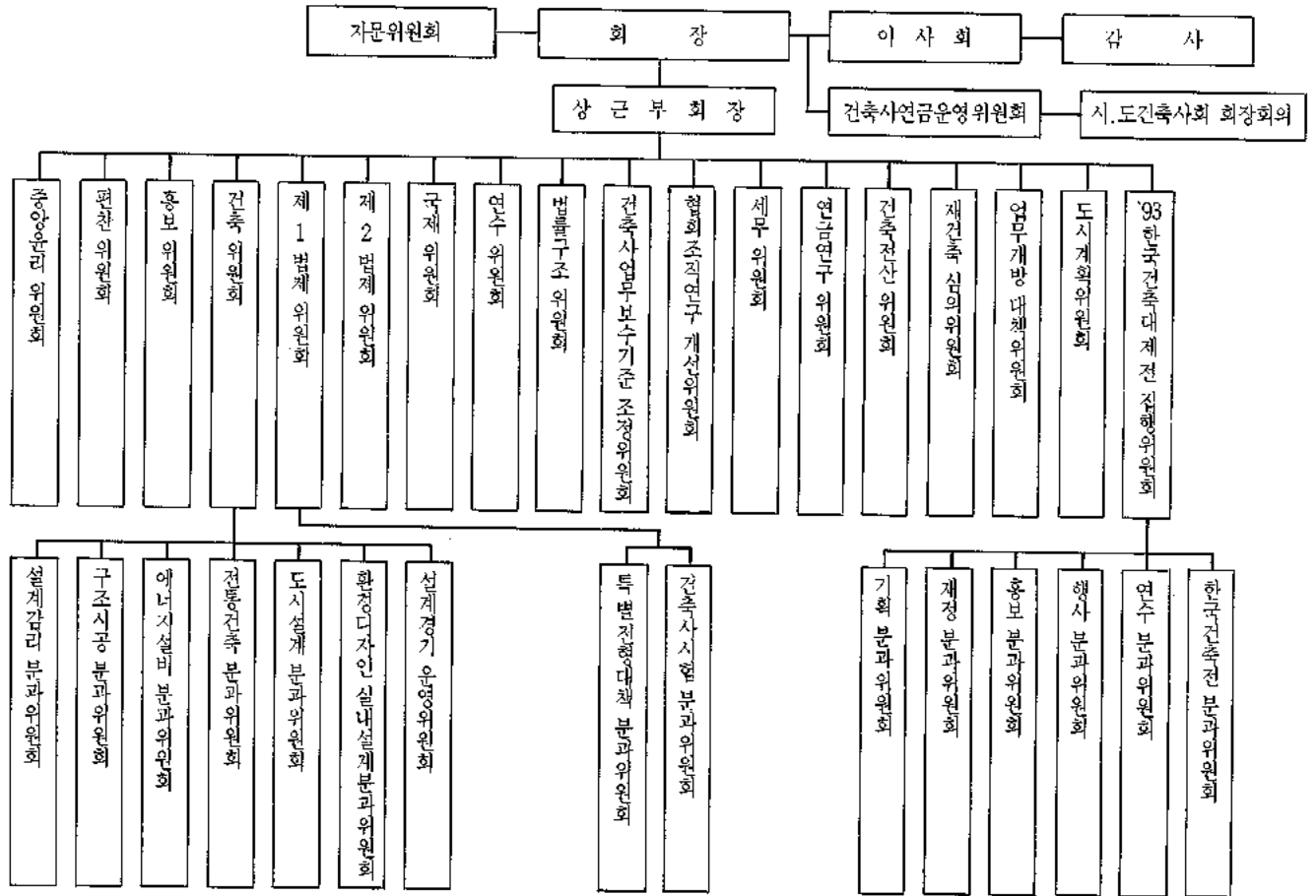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1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3,130	3,258	657,301	423	446	25,137	21	22	2,173	3,574	3,726	684,611
다세대주택	585	619	307,868	38	40	1,840	5	5	531	628	664	310,239
연립주택	41	55	47,355	2	2	85	1	1	28	44	58	47,468
아파트	107	650	2,847,845	6	22	(3,252)	1	3	24,981	114	675	2,869,574
근린생활시설	3,249	3,403	1,564,643	506	527	116,231	163	169	55,230	3,918	4,099	1,736,104
종교시설	63	75	52,079	38	40	14,621	5	5	222	106	120	66,922
의료시설	6	6	73,978	10	11	5,032	1	1	503	17	18	79,513
교육연구시설	75	94	204,617	63	80	314,512	20	52	130,789	158	226	649,918
업무시설	79	85	338,536	32	34	626,740	14	15	19,290	125	134	984,566
숙박시설	23	23	74,511	3	3	2,819	4	4	1,182	30	30	78,512
공장	411	688	624,023	215	342	304,883	45	46	68,048	671	1,076	996,954
기타	887	1,215	757,319	364	475	192,075	52	52	27,373	1,303	1,742	976,767
합 계	8,656	10,171	7,550,075	1,700	2,022	1,600,723	332	375	330,350	10,688	12,568	9,481,148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11월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47,145	49,181	8,382,153	6,263	6,610	460,641	467	472	41,856	53,875	56,263	8,884,650
다세대주택	5,114	6,719	2,549,742	274	282	27,486	48	52	8,121	5,436	7,053	2,585,349
연립주택	531	715	908,269	29	29	5,261	10	10	984	570	754	914,514
아파트	1,588	9,447	42,536,412	113	192	157,319	37	50	151,040	1,738	9,689	42,844,771
근린생활시설	35,522	37,244	13,344,983	5,443	5,737	1,066,677	2,544	2,593	918,095	43,509	45,574	15,329,755
종교시설	793	968	582,417	487	563	201,070	59	60	18,839	1,339	1,591	802,326
의료시설	74	77	321,663	93	113	299,405	23	24	18,218	190	214	639,286
교육연구시설	671	906	2,040,102	670	815	1,397,002	237	287	324,300	1,578	2,008	3,761,404
업무시설	1,053	1,182	4,058,027	479	519	945,207	225	232	232,451	1,757	1,933	5,235,685
숙박시설	209	218	449,133	100	107	70,875	89	91	121,992	398	416	642,000
공장	4,611	7,893	6,643,234	2,326	3,731	2,391,439	513	592	531,905	7,450	12,216	9,566,578
기타	10,854	14,562	7,072,327	3,438	4,388	1,664,389	744	775	376,317	15,036	19,725	9,113,033
합 계	108,165	129,112	88,888,462	19,715	23,086	8,686,771	4,996	5,238	2,744,118	132,876	157,436	100,319,351

1993년도 위원회 조직표



1993년도 위원회 위원명단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비고
자문위원회	회 장	장기인, 강명구, 강봉진, 한창진 이국복, 김관성, 김두섭, 구윤화, 김지태, 오웅석, 안기태, 송기덕, 오윤동	14명
중앙윤리 위원회	서정만 이사	김규태 (부산), 정호환, 김기두, 윤기병 박홍우 (대전), 김인근, 이병무 (인천)	8명
편찬위원회	박창호 이사	김문규, 김안철, 오원근, 김경자, 김상경 강건희	7명
홍보위원회	이의구 이사	최정일, 서현식, 김광욱, 장양순, 이상열, 김주철, 최영집	9명
건축위원회	성훈섭 이사	각 분과 위원장	7명
설계·관리분과 위원회	민중식	김진호, 신종호, 강영일, 윤석우, 강철술 박재환, 송이호	8명
구조·시공분과 위원회	이창남 회원	권오식, 권택진, 김갑중, 박종철, 전상백 정성교	7명
에너지·설비분과 위원회	김득수 이사	이명호, 어남호, 손장열, 박종환, 이영수 이언구, 이정기, 이종환, 박시익, 이영철 채대용	12명
전통건축분과 위원회	이응복 회원	주남철, 김봉진, 장순용, 민경민, 김동욱 박대수	7명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비고
도시설계분과 위원회	강철구 회원	김춘용, 농정근, 양윤제, 최동규, 오기수	6명
환경디자인 및 실내 설계분과위원회	이철호 회원	박돈서, 황기원, 강성억, 정구은, 진추경 김춘용, 송평문	8명
설계경기운영위원회	김규언 이사	박성규 (하나), 변 용, 유원재, 강철구, 김해상 (금성), 조성룡, 최명철	8명
제1법제위원회	강태석 이사	김기철, 이종영, 이종만, 강석준, 황인호 최찬환, 이문보, 유효봉, 정재열	10명
특별전형대책분과 위원회	김기완 이사	경진만 (성남), 김형배, 김춘배, 안명준, 김진식, 한상진, 정찬익, 김세호	9명
건축사시험분과 위원회	김희춘 교수	이광노, 김진달, 오웅석, 안기태, 최명철 정재열	7명
제2법제위원회	최관영 이사	최광수, 이석우, 최태웅, 조태중, 이광단 김영섭, 안명배, 홍재기, 원재부	10명
국제위원회	김지덕 전 이사	이정근, 이근강, 이영한, 조인수, 심계덕 김우성, 김자호, 김종복	9명
연수위원회	정 소 이사	김택성, 변종환, 정명옥, 최희태, 정무용 변경렬, 조인수, 양원영	9명
법률구조위원회	이경호 이사	최평수, 박영식, 조성상, 신길용, 김영민 유효봉, 정동규, 김철환	9명

93년도 시무식 거행

본 협회 93년도 시무식이 지난 4일 10시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 합동으로 거행되었다.

이영희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전 임직원은 심기 일전하는 자세로 협회 현안에 적극 대처하여 협회가 진정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건축문화

를 주도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역설하였다.

이어 직원일동은 이영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단배로서 새해 인사를 대신하고, 상호 화합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활기찬 계유년 새출발을 시작하였다.



시무식 광경

건축 3단체 조찬회 개최

본 협회 주최로 지난 7일 (목)오전 8시 롯데호텔 36층 피코크룸에서 건축3단체 조찬회가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93 한국건축대제전 개최에 따른 배경설명과 함께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및 건

의에 대한 사항 등 당면한 건축계의 현안에 대한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그동안 건축계 및 본 협회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오신 오운동 전임회장에 대한 3단체장 명의의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조찬회 광경

건축사법 개선에 관한 간담회 개최

본 협회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건설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건축사법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영희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사감리문

제·건축사의 징계처분문제·건축사사무소의 등록문제·연금제도의 법적근거마련문제 등이 쟁점화 되었고 특히, 건축사 시험제도의 개선과 이관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다.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비고
건축사업무 보수 기준 조정위원회	김무언 이사	한규봉, 김지탁, 김기철, 송효상, 강신관, 정전식, 김영웅	8명
협회 조직연구개선 위원회	장기웅 이사	한영수, 이원혁, 이종정, 유경철, 이일운, 박영식	8명
세무위원회	우남용 전 이사	최수오, 김춘광, 송평문, 김재구, 박을식, 이정구	7명
연금연구위원회	장기세 전 이사	이춘상, 이종관, 김순명, 김창일, 안갑원	6명
건축전산위원회	안영준 이사	김규태, 김창선, 김정태, 임인혁, 박원일, 문성식	7명
제건축 심의위원회	이용하 전 이사	김평근, 장성진, 김창서, 김형인, 정성교, 이용학	7명
업무 개방대책 위원회	이영희 회장	김희춘, 김진일, 이광노, 신현식, 이정덕, 오창희, 이장희, 이명호, 이문보, 최찬환, 이승우, 김정철, 윤도근, 안기태, 송기덕, 오운동, 박경환, 장기세, 강태석, 민중식, 어문우, 김영수, 이의규, 임인혁, 한규봉	25명
도시계획위원회	정정척 이사	이운희, 둔정희, 김호걸, 김영준, 권오현, 김규오 (유종건축), 류춘수	8명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비고
'93한국건축대제전 집행위원회	이문우 전 서울 건축사회 회장	강태석, 한종언, 이의규, 우남용, 정소, 박창호	7명
기획분과위원회	강태석 이사	민경민, 김관, 김영덕, 박사익, 이종만, 송인창	7명
제정분과위원회	한종언 전 감사	김봉훈, 김 호, 민경진, 안길원, 오수영, 박규영	7명
홍보분과위원회	이의규 이사	홍보위원회 위원	9명
행사분과위원회	우남용 전 이사	강철구, 김기철, 박영식, 이종관, 김영웅, 김규태	7명
연수분과위원회	정소 이사	연수위원회 위원	9명
한국건축전문과 위원회	박창호 이사	편찬위원회 위원	7명

'92 건축인의 밤 개최

본 협회에서는 구랍 2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소재 교육문화회관 2층에서 서울건축사회와 공동으로 "92건축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우리 회원은 물론 건설부 및 관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이영희 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올 한해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을 사랑하는 마음과 건축인으로서의 긍지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우리나라 건축문화 진흥과 협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며, 오늘 이순간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 새해로의 힘찬 발돋음을 하자"고 강조하였다.



'92 건축인의 밤 행사 풍경

손제석회원 「경기에술대상」 건축부문 수상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경기도 지회가 제정한 경기에술대상 시상식이 구랍 26일 오후 3시 수원 시민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본 협회 경기도 건축사회 손제석(43.지성진

축사사무소) 회원이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및 공공서를 비롯하여 업무사설, 주거용 건축물 등의 설계·감리를 통한 건축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제1회 「경상북도 건축전」 개최

경북건축사회(회장 김태웅)에서는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상북도청과 공동으로 제1회 경상북도 건축전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건축전은 판과 민이 협동으로 포항, 경주, 경산, 안동,

구미지역을 순회하며 전시되어, 경북도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됨은 물론 회원들에게는 건축창작에 대한 의욕을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불우 이웃돕기 및 경비부서 위문

제주 건축사회(회장 김수현)에서는 구랍 24일 연말을 맞이하여 한라일보사에 이웃돕기 성금 일백만원을 기탁하였고, 28일에는 수협 제주도지회와 제주도치

과의사회, 그랜드호텔 대표와 함께 해군 제8562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 육십만원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 격려했다.

建築界 消息

류춘수회원 중국 台海花園 (Taihai Garden) 국제 현상설계 당선

구랍 21일 중국 台海花園 국제 지명현상설계 경기에서 우리 협회 류춘수 회원 안이 당선작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설계는 약 12만평의 대지에 86층 규모의 아시아 최고, 최대의 다목적 건물로 중국 해남성 해남시 금융개발지구에 세워질 예정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총 4개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우리나라 이공건축 案이 당당히 당선됨으로써 그동안 국

내외 주요 대규모 고층빌딩의 설계를 미국, 일본 등에 의뢰해 오던 우리 건축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류춘수회원은 「수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중국으로부터 여러 문물을 많이 수용해 왔는데, 이번 설계를 통하여 九牛一毛이지만 이제 우리도 우리의 뛰어난 기술을 중국에 베풀 수 있게 된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당선소감을 피력하였다.

「멋」 김수근展 개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건축가인 故 김수근씨의 전시회가 일본 동경에 소재한 '갤러리 마'에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첫번째 기획전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김수근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1월 23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심포지움이 개최되어, 김교수의 다채로웠던 생애 속에서 「건축가 김수근」이라는 시점으로 돌아가 그의 건축작품의 근저에 있는 「멋」의 정신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멋」-김수근전

「서울시 건축상」작품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제1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을 모집한다.

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건축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작품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작품으로서 91년~92년에 준공(예정)된 건축물로서 주거용, 상업용, 특수건축물로 나누어 모집한다.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 731-6381~4